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임강택 외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연구책임자: 임강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최철호 (중국 연변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북중관계 종합백서 및 남북중 협력방안(2/3년차)

KINU 연구총서 17-12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저자	임강택, 박영자, 홍순직, 최철호
발행인	손기웅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북한연구실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아미고디자인(02-514-5043)
인쇄처	알래스카인디고(02-2277-5553)
I S B N	978-89-8479-912-7 93340 북중 관계[北中關係] 349.111012-KDC6 / 327.5193051-DDC23 CIP2018009445
가격	12,000원

© 통일연구원, 201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 례

요약	11
I. 서 론	17
1. 연구 배경과 목적	19
2. 연구 방법과 구성	21
II. 리더십 변화 및 인사교류를 통해 본 북·중관계	25
1. 문제 제기	27
2. 김정일-후진타오 시대: 2003~2008년	32
3. 양국 정권 교체기: 2009~2012년	46
4. 김정은-시진핑 시대: 2013~2017.6.	56
5. 소결: 남·북·중 협력에 주는 시사점과 전망	78
III. 북·중 경제협력 실태 분석과 전망	95
1. 문제 제기	97
2. 북·중 무역 현황과 특징	100
3.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 현황과 특징 개관	109
4. 중국의 대북 인프라 개발 실태	117
5. 북·중 경제특구 공동개발 현황: 황금평과 나선특구 등	120
6. 향후 전망과 남·북·중 협력방안	126
IV. 북한 관광산업 현황과 북·중 관광협력 실태	135
1. 문제 제기	137
2. 북한의 관광산업 현황	138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3. 북·중 관광협력	154
4. 북·중 관광협력에 미치는 촉진요인과 억제요인	166
5. 소결: 북·중 관광협력을 위한 시사점과 남·북·중 3각 협력방안	169
V. 종합 평가와 남·북·중 협력 방향	179
1. 북·중관계의 분야별 주요 특징	181
2. 남·북·중 3각협력 추진 방향	193
참고문헌	198
〈부록〉 북·중 분야별 인적교류 현황	201
◇ 〈부록1〉 김정일-후진타오 시대 경제 분야 인적교류: 2003~2008년	201
◇ 〈부록2〉 김정일-후진타오 시대 사회문화 분야 인적교류: 2003~2008년	207
◇ 〈부록3〉 양국 정권 교체기 경제분야 인적교류: 2009~2012년	224
◇ 〈부록4〉 양국 정권 교체기 사회문화 분야 인적교류: 2009~2012년	229
◇ 〈부록5〉 김정은-시진핑 시대 사회문화 분야 인적교류: 2013~2017.6.	252
최근 발간자료 안내	265

표 차례

표 II-1 김정일-후진타오 시대 정치외교 고위급 인사교류: 2003~2008년	35
표 II-2 김정일-후진타오 시대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 2003~2008년	42
표 II-3 북·중 사회문화 인사교류 네트워크	45
표 II-4 양국 정권 교체기 정치 및 외교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 2009~2012년	49
표 II-5 양국 정권 교체기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 2009~2012년	54
표 II-6 김정은-시진핑 시대 정치 및 외교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 2013~2017.6.	62
표 II-7 김정은-시진핑 시대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 2013~2017.6.	71
표 II-8 김정은-시진핑 시대 경제 분야 인사교류: 2013~2017.6.	73
표 II-9 정치·외교·군사 분야 북·중 고위급 인사교류: 2003~2017.6.	80
표 II-10 경제 분야 북·중 인사교류: 2003~2017.6.	82
표 II-11 사회문화 분야 북·중 인사교류: 2003~2017.6.	83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표 III-1 북한의 대중 무역 추이	102
표 III-2 북한의 대중 10대 수출품목 및 수출액 변화	105
표 III-3 북한의 대중 10대 수입품목 및 수입액 변화	107
표 III-4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대북 직접투자 추이	110
표 III-5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승인 기준)	110
표 III-6 창지투 개발 개방선도구 발전 계획	119
표 III-7 북·중 접경지역의 교통인프라 개발 현황	120
표 III-8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개요	123
표 III-9 북한의 나진항 시설별 투자개발 계획	125
표 IV-1 중국인 북한 여행객 수	147
표 IV-2 중국 입국 북한인 여행객 수	148
표 IV-3 2013~2016년 연변주 관광경제 통계표	160
표 IV-4 2013~2016년 연변주 국내관광객 통계표	160
표 IV-5 2013~2016년 연변주 외국인관광객 통계표	161
표 V-1 분야별 인사교류 추이	185
표 V-2 북·중 접경지역의 교통인프라 개발 현황	188
표 V-3 중국인 북한 여행객 수	189
표 V-4 중국 입국 북한인 여행객 수	189

그림 차례

그림 II-1 정치·외교·군사 분야 북·중 고위급 인사교류 추이: 2003~2017.6.	80
그림 II-2 경제 분야 북·중 인사교류 추이: 2003~2017.6.	82
그림 II-3 사회문화 분야 북·중 인사교류 추이: 2005~2017.6.	84
그림 III-1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품 비중	103
그림 III-2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입품 비중	103
그림 III-3 동북진흥계획과 나선항 개발	126
그림 III-4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126
그림 IV-1 북한 4대 관광구	142
그림 V-1 분야별 인사교류 추이	185
그림 V-2 북한의 대중 무역 추이	186
그림 V-3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 추이	187

사진 차례

사진 IV-1 두만강 하류 중국 권하-북한 원정리 다리	156
사진 IV-2 비파도와 엠퍼러 카지노	157
사진 IV-3 압록강 하류 중국 단둥-북한 신의주 철교	164
사진 IV-4 방천 두만강 하류 삼각주-북한 두만강 부두	175
사진 IV-5 중국 방천 두만강관광통로(임시통상구)	175

요 약

본 연구보고서는 “북중관계 종합백서 및 남북중 협력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3개년도 연구사업의 2년차 사업에 해당된다. 본 보고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하여 변화하고 있는 정치·경제 지형이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상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북·중관계의 변화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효과적인 남·북·중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북·중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을 도출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결정요인에 기초하여 남·북·중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북·중관계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촉진하는 요인과 억제하는 요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6가지 촉진요인과 5가지 억제요인을 제시하였다. 우선 촉진요인으로는 첫째, 북한 측의 국제관계 활용 및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중국과의 교류협력 필요이다. 둘째, 세계화와 함께 정치와 경제의 융합력이 높아지면서, 북·미 간 세계패권 경쟁과 함께 새롭게 대두한 국가이익에 따른 한·미·일 협력 vs 북·중·러 협력 전선의 작용이다. 셋째, 중국 측의 동북아지역 전략적 위상 강화의 필요이다. 넷째, 북한 측의 중국 경제원조 및 경제협력의 필요이다. 다섯째, 중국 지방정부 등의 북한상품 수요와 저렴한 노동력 활용의 필요이다. 여섯째,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사회문화 분야 인사교류 지속성 및 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과 화교들의 양국 교류협력 필요 요구이다. 억제요인으로는 첫째, 북한 측 내부 정치 정세 불안이다. 둘째, 북한 측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심이다. 셋째, 중국 측의 중화주의에 기초한 북한 길들이기 행보이다. 넷째, 중국 측 반복 정서 및 친한 흐름 고조이다. 다섯째, 국제사회의 북한압박 및 대북제재이다. 이같은 요인들을

요 약

종합하면, 정치적인 부문에서는 촉진요인이 억제요인보다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촉진요인에 비해 억제요인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북·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잠재적인 요인은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와 그에 대한 북한시장과 북한당국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첫째, 동북 3성 및 북·중 접경지역 기업가나 지방정부 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북 사업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현재와 같은 남북 당국의 불통(不通) 상황에서 비공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각종 대북 메시지 전달의 창구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단기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상황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시작하면서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재추진을 검토해볼 만하다. 이 사업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점점 사업으로 남·북·러 물류·교통망 연결 및 에너지망 연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과 관련된 남·북·중, 남·북·러 공동의 사업 아이템 발굴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은 남·북·중 혹은 남·북·러의 산학연 공동의 플랫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북·중관계와 남·북·중 협력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쉽지 않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집착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6년부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북한체제에 미치는 타격도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대북제재의 파급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강화,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요 약

때문에 북한당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시킬 필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북중협력, 남북중 협력, 인사교류, 관광협력, 대북투자

Abstract

Analysis of Current Status of Major Areas in North Korea–China Relations

Lim, Kang-Taeg et al.

Factors that determine North Korea–China relations can be divided into promotion factors and inhibiting factors. The promotion factors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 needs to engage in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China. Second, the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Korea, the US, and Japan vs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which have largely been shaped by the increasing combination of politics and the economy along with globalization, are another factor at play. Third, there is a need for China to strengthen its strategic position in Northeast Asia. Fourth, there is a need for North Korean economic assistance and economic cooperation from China. Fifth, it is necessary to accommodate the demands of North Korean commodities made by Chinese local governments and to utilize its cheap labor force. Sixth,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and overseas Chinese demanded that there be a promotion of bilater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 inhibiting factors are as follows. The first factor is the instability of North Korea's internal political situation. The

Abstract

second is North Korea's wariness of China's growing influence over North Korea. The third is China's attempt to tame North Korea, centered on the use of its Sinocentrism. The fourth is an increasingly developing anti-North Korean sentiment in China and, in contrast, China's developing friendliness toward South Korea. The fifth factor consists of international pressure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addition to this, potential factors that will affect North Korea-China relations in the future are economic effects of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the subsequent reaction of its market and regi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OK government are also presented in various way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human network of the 3 Northeast provinces of China, specifically with businessmen operating in China-North Korea border areas and Chinese local governments, and to establish a cooperation system with businessmen engaging in trade with North Korea in the region. Second, efforts should be made to create a peaceful environment by initiating a project that can be carried out in the short-term even under international sanctions. In this regard, it is worth reviewing the possible reinstatement of the Rajin-Hassan project. Third, efforts should be made to explore areas suitable for joint projects and business ventures amongst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and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in a journey to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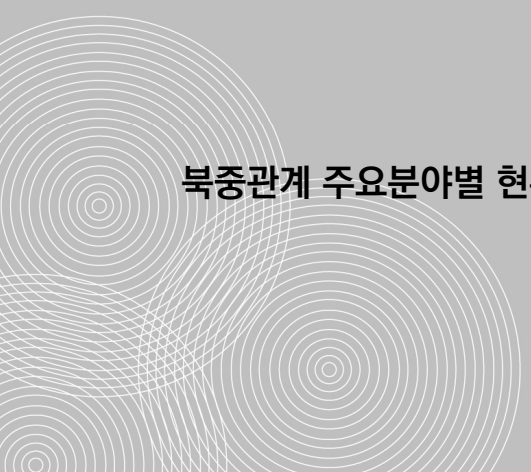
Abstract

realizing the initiatives of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DPRK-China Cooperation, ROK-DPRK-China Cooperation, Human exchange, Tourism Cooperation, Chinese Investments on North Korea

I. 서론

임강택(통일연구원)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1. 연구 배경과 목적

본 연구보고서는 “북중관계 종합백서 및 남북중 협력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3개년도 연구사업의 2년차 결과보고서의 한 부분에 해당된다. 올해의 과제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하여 변화하고 있는 정치·경제 지형이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상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북·중관계의 변화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효과적인 남·북·중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지난해에는 북·중관계와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는 작업과 함께 확보한 정보를 활용하여 분야별로 북·중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물을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출판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로 구분하여 북·중관계의 발전추세와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에 축적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작업과 함께 북·중관계의 분야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지난해의 북·중관계 분석이 거시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올해에는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3가지 주제가 선정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지난해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세부 주제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먼저 정치 분야에서는 지도자의 교체과정에서 나타난 인사교류의 특징을 통해서 북·중관계를 조망하기로 하였다. 북·중 간 정치적 관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은 것이 양국(兩國)의 정치지도자와 주요 인사들의 교류 실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중 간에는 정치적 관계가 양호할 때는 다양한 형태의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경색되었을 때는 크게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의 대북투자 협력의 추이와 함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로 하였다. 북·중 경제관계는 기본적으로 교역과 투자로 구성되는데, 지난해에는 교역에 초점을 맞추어 전반적인 무역관

계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주력한 것에 반해 올해에는 중국의 대북투자·협력사업에 대한 변화 실태를 조망하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북·중 관광 분야의 협력 실태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은 북한의 적극적인 관광산업 육성정책과 맞물려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북·중 간 교류협력 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존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관광객에 대한 통제 분위기를 다소 완화하였으며,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북·중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평가될 정도로 경색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치 분야의 인사교류는 거의 단절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양국관계가 오랜 기간 동안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중관계의 장기화된 경색화는 북·중관계를 고리로 남·북·중 3각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사업의 목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한 향후에 예상되는 변화가 북·중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전망하고 이러한 전망에 기초하여 남·북·중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남·북·중 3각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보고서가 담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북한의 행태에 중국의 선택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을 통한 발전적인 변화에 한·중의 이해관계가 매우 동질적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북한체제가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성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올해의 보고서는 내년에 마무리될 3년차 연구보고서에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도 염두에 두고 진행될 것이다. 내년의 핵심과제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남·북·중 3각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지난 15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남·북·중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주요 분야별 실태 분석과 이를 기초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리는 올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대표되는 남북 및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는 특히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제시된 일대일로(一帶一路)와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남북 경제협력 관계의 복원 및 활성화 노력과 함께, 남·북·중 경제협력을 통해서 남북 경제협력의 지속 가능성 강화와 외연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 이전에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가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구 방법과 구성

본 연구의 출발점은 북·중관계의 변화를 어떤 관점에서 분석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북한과 중국 모두 리더십이 교체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북·중관계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부분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서 북·중관계의 특징을 김정일-후진타오 시대(2003~2008년), 양국 정권 교체기(2009~2012년), 김정은-시진핑 시대(2013~2017년 6월)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양국의 정권 교체기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를 설정하여 시대적 구분을 시도한 점은 기존의 분석 틀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김정일의 건강문제가 확인되면서 2009년 김정은을 후계자로 결정하고 후계체계 구축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중국은 2008년 시진핑(習近平)을 국가 부주석으로 선출하여 차세대 지도자로 내정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정일의 사망(2011.12.) 이후 제 4차 당대표자대회(2012.04.)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등극하였다. 중국에서는 2012년 11월 제18차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체제가 공식 출범하였다. 이처럼 양국의 지도부가 동시에 교체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계속되었고,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새로 출범하는 중국 지도부와와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중 양국의 지도부가 교체된 이후 양국 사이의 관계가 불안정해진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북·중관계의 경색 국면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중단되어야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2기 시진핑 체제의 출범(2017.10.)을 계기로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변화가 모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 2018년에는 얼어붙은 북·중관계에도 해빙의 움직임이 보다 본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중관계의 정상화와 남북관계의 복구를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정부의 입장에 서서 북·중관계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남·북·중 3각 협력방안을 비롯하여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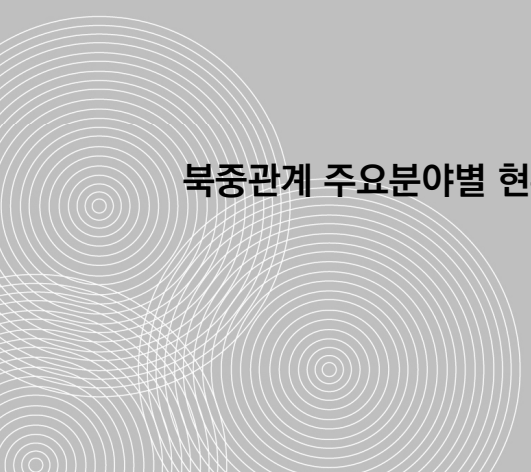
II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시기적 구분을 기초로 북·중 정치외교부문의 변화 실태를 살펴보았다. 인사교류 실태를 바탕으로 양국의 리더십 변화와 함께 양국의 정치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6가지 촉진요소와 5가지 억제요인으로 분류하여 밝히고 있다. 촉진요인과 억제요인들 중에서 앞으로 북·중관계를 견인해 나갈 요인으로 부상할 변수는 무엇일까? 여기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정부가 선택해야 할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이 장의 책임 집필은 통일연구원의 박영자 박사가 담당하였다.

III장에서는 북·중 간의 경제협력 실태를 대외무역과 투자협력 사업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접경지역 경제특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시도된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촉진요인과 제약요인들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남·북·중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장의 책임 집필은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의 홍순직 박사가 담당하였다.

IV장에서는 북한당국의 정책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오고 있는 북·중 관광협력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관광정책과 관광 자원에 대한 소개를 기초로 양국 사이의 관광객 교류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북·중 관광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리하였다. 이 장의 책임 집필은 연변대의 최철호 교수가 담당하였다.

Ⅱ. 리더십 변화 및 인사교류를 통해 본 북·중관계

박영자(통일연구원)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1. 문제 제기

가. 연구 목적과 가설

이 장에서는 2003년 이후 2017년 6월 현재까지 북한과 중국의 리더십 변화를 중심으로, 김정일-후진타오 시대(2003~2008년), 양국 정권 교체기(2009~2012년), 김정은-시진핑 시대(2013~2017년 6월 현재) 등 3개 시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기 구분을 기초로, 시기별 북·중 인사교류를 분석하고 남·북·중 협력에 주는 시사점 및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분석의 자료 원천은 첫째, 실태 분석의 기초 자료로 2003년~2017년 6월까지 발행된 북한의 『로동신문』과 중국의 『인민일보』에 실린 ‘북·중 인사교류’ 관련 기사이다. 둘째, 선행연구 및 본 연구 과정에서 수행한 간담회 등을 통한 자문 내용이다. 셋째, 2017년 9월 중국의 장춘과 단둥지역 출장을 통해 수집한 최근 북·중관계 및 양국 인사교류 관련 정보 등이다.

본문에서는 먼저 각 시기별 양국 리더십 특징 및 인사교류 양상을 분석한 후, 다음으로 고위급 인사교류로서 정치외교 및 군사 분야 교류의 실태, 목적, 의미 등을 밝힌다. 이 장에서 지칭하는 ‘고위급 인사’는 먼저 일당지배체제 특성을 공유하는 북한과 중국에서 당·군·정의 모든 고위직 간부를 겸직하고 있는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들이다.¹⁾ 또한 국가기구 및 군대에서 한국의 장·차관급에 해당하

¹⁾ 북한의 경우 최고통치자를 중심으로 북한체제 전반을 지도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 급(2016년 7차 당대회 시 235명 선출)이다.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당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채 30년이 지나는 동안 ‘당중앙위원회 위원’은 60여 명만 남아 있었으나,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총124명을 선출하였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PO006>> (검색일: 2017.09.05); 그리고 2016년 당대표자들을 선출하고 당조직을 개편하는 7차 당대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북한의 파워엘리트에 해당하는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의 235명 명단이 공개되었다.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

는 이들 및 장령(장성)급 고위 간부들이다. 또한 그 공식 직위는 낮은 듯 보이나 실제 권한은 높은 중앙당에 적을 두고 있는 북한의 경우 부부장급(한국 행정부처의 국장급 이상) 이상 간부들이다.

다음으로 경제 및 사회문화 영역을 구분하여 각 분야 인사교류의 실태 및 목적과 의미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북·중 간 주요 교류의 특성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전체적 실태 규명에 기초하여, 북·중 인사교류의 지속성과 변화의 특징 및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을 규명하면서, 현 단계 북·중관계 및 남·북·중 협력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리더십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기 구분은, 김정일-후진타오 시대(2003~2008년), 양국 정권 교체기(2009~2012년), 김정은-시진핑 시대(2013~2017년 6월 현재) 등 3개 시기로 구성된다. 시기 구분의 기준은 세 가지이다.

첫째, 북한과 중국 양 국가의 최고지도자 변화에 따라 북한의 대중(對中)정책이나 중국의 대북(對北)정책 및 인사교류에도 일정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정치 가설에 따른다.

둘째, 선행연구들과 달리 ‘2009~2012년의 기간을 양국의 정권 교체기’로 상정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먼저, 북한 측 요인으로 2008년 김정일의 병환 이후 2009년 김정은이 후계자로 세워지면서, 북한의 핵심적인 정책 목표는 후계체제의 구축이었기 때문이다. 중국 측 요인으로는 2008년 중순 중국의 시진핑이 국가 부주석으로 선출되면서 차세대 최고지도자 후보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 후계체제 구축 요인이 북·중 인사교류에 미친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이는 향후 북·중 간

의에 관한 공보,” 『로동신문』, 2016.05.10;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은 54.9%가 교체되었다. 중국의 경우 중국체제의 최고 권력기관이자 정책심의기구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이다. 2017년 10월에 개최된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서 선출된 중앙위원은 204명이고 후보의원은 156명으로 총 360명이다. 『연합뉴스』, 2017.10.24,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1024130700083>> (검색일: 2017.10.25).

리더십 변화 과정에서 양국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데도 유의미할 것이다.

양국 정권 교체기를 2012년까지로 상정한 이유는, 2011년 말 예상보다 빠르고 갑작스러운 김정일의 사망으로, 2012년의 경우 김정은이 정권을 인수받는 데 북한체제가 온 힘을 다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령체제의 생존이 걸린 대내정치적 요인으로 인하여 대외적 정책 방향은 아직 도출되기 이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중국 측 요인으로는 후진타오(胡錦濤) 정권 말기로 후진타오의 권력이 이완되면서 시진핑이 이미 차기 유력한 국가주석으로 인정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셋째, 2013년 이후를 ‘김정은-시진핑 시대’로 구분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2011년 말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2012년 김정은이 법·제도적 최고지도자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내치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2013년 2월 김정은 정권은 3차 핵실험을 실행하면서 대외·대남 긴장조성을 전면화하며 정권 안정화를 추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 중국은 2013년 3월 후진타오보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나. 주요 선행연구 분석

이 장에 바탕이 되는 주요 선행연구는 이교덕 외(2014)의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및 이기현 외(2016)의 『한중수교 이후 북중 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이다.

먼저 이교덕 외(2014)는 2003~2014년 상반기까지 『로동신문』에 보도된 북·중 간 인적교류를 전수 조사하여 정치외교, 군사, 경제, 사회문화 분야로 나누어 그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인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와 2012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를 대상으로 한 ‘김정은-시진핑 시대’를 비교한 결과 인적교류에서 차이를 보였다. ‘김정일-후진타오 시대’ 인적교류는 428회로 연평

균 47.6회이다. 반면, 2012년 이후 ‘김정은-시진핑 시대’ 인적교류는 38회로 연평균 15회 수준이다. 이전 시대에 비해 교류 횟수가 급감했고 이는 북·중 간 교류의 심각한 위기로 평가되었다. 특히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북·중관계를 파행으로 몰아넣었으며, 이로 인해 2014년 북·중 간 인적교류는 중단되다시피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²⁾ 이 연구에서는 김정은과 시진핑의 집권 초기 시기까지를 연구범위로 하였고, 북·중 관계의 리더십이 교체되던 과도기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김정은-시진핑 시대 이전 시기에 비해 ‘북·중 인적교류 약화’가 도드라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국 정권 교체기를 설정하여 시기 구분을 세분화하려 한다.

다음으로 이기현 외(2016)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를 정치외교, 사회문화, 경제 등 각 분야별로 나누어 발전 추세를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각 분야별 거시적인 시기별 특징을 밝히며 분야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각 시기별 상호교류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종합적으로 대략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정치외교, 사회문화, 경제(무역) 관계의 성격을 구분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치외교 관계는 각 시기별로 갈등 → 협력 → 조정 양상을 보였고, 사회문화관계는 약화 → 복원 또는 강화 → 관리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 무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관계는 불안정 → 안정화 → 전일화 양상을 보였다고 정리한다. 그리고 영역별 교류 특성에 기반하여, 북·중 정치외교 관계는 사회문화 및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도, 사회문화 및 경제관계는 정치외교 관계에 비해 각각 고유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작동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핵심 요인으로는, 사회문화의 경우 전통적 우의(友誼) 및 역사성 때문이며, 경제의 경우 중국과 북한의 자체적 경제 논리인 수요-공급의 변화 때문이라는 진단이다.³⁾ 이 연구는 인적교류를

²⁾ 이교덕 외,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부분적으로 포함하되 주요 연구 대상은 교류 분야별 관계에 착목한 성과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리더십 변화에 따른 북·중 인적교류를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한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김정일-후진타오 시대: 2003~2008년의 양국 리더십 특징 및 인사교류 양상, 정치·외교·군사 고위급 인사교류, 경제·사회문화 인사교류를 다룬다. 3절 양국 정권 교체기: 2009~2012년 및 4절 김정은-시진핑 시대: 2013~2017.6. 에서도, 양국 리더십 특징 및 인사교류 양상, 정치·외교·군사 고위급 인사교류, 경제·사회문화 인사교류를 다룬다. 5절 남·북·중 협력에 주는 시사점에서는 리더십 변화에 따른 인사교류의 지속과 변화를 살펴본 후, 북·중 인사교류의 ‘촉진-억제’ 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앞선 실태 및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남·북·중 협력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연구 시기 및 대상이 광범위하므로 본문에서는 양국의 정치, 외교, 군사 분야의 고위급 인사교류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또한 앞선 선행연구(이교덕 외, 2014)에서 2014년 상반기까지의 각 분야별 인사교류 실태를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 시기 경제 및 사회문화 인사교류의 실태 양상은 <부록>으로 정리하고, 본문에서는 시기별 주요 양상 및 특징,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교류를 살펴본다.

한편, 김정은-시진핑 시대: 2013~2017.6. 경제 분야 교류 실태 분석은 선행연구가 없기에, 본문에서 이 시기 교류 실태 및 북·중관계에 중요 의미가 있는 교류를 다룬다. 한편, 이 시기 사회문화 교류는 너무 광범위하기에 그 특징을 밝힌 후, 세부 실태는 <부록>으로 처리한다.

3) 이기현 외,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서울: 통일연구원, 2016), p. 150.

2. 김정일-후진타오 시대: 2003~2008년

가. 양국 리더십 특징 및 인사교류 양상

이 시기는 김정일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국제사회 및 남한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며 내부 경제정책의 방향 수정을 실험 하던 시기이다. 정치·외교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및 ‘북한체제가 보장이 된다’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며 해외의 대 북지원을 유도하던 시기이다. 경제·사회적으로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및 2003년 「종합시장제」 도입 등 부분적인 개혁정책을 본격화하며 경제정책의 변화와 함께 북한사회 내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실험을 하던 시기이다.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리더십 변화 관련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이 2008년 초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병상에서 돌아온 이후, 당 내부적으로 3대 세습의 후계자로 김정운을 차기 지도자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김정운에게 무엇보다 군대를 먼저 장악해야 한다며 군사사업 경험을 쌓으라는 의도로 인민무력성에 배치하여 선군정치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 시기 중국의 후진타오 시대가 시작되었다. 2003년 3월 중국 국가주석에 취임한 후진타오는 ‘화평굴기(Peaceful Rise)’라는 외교정책을 내세우며 주변국과의 평화적 외교노선을 펼쳤다. 그러나 중국 내부적으로 후진타오의 리더십은 현재 중국 최고지도자인 시진핑의 리더십에 비해 권력 및 영향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집권 시기 후진타오는 당서기 및 국가주석 직위를 가졌으나, 중요한 권력기구인 당 군사위원회 위원장 직위는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집권 초중반인 2003~2008년까지 갖지 못하였다. 장쩌민(江澤民)

이 2003~2008년까지 당 군사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유지하면서 후진타오에게 군권을 내주지 않았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2008년까지 후진타오에게 군권이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 최고지도자의 권력 장악 과정은 먼저 당을 장악하고 다음으로 국가기구인 행정부를 장악한 후 군부를 장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진타오는 군부 권력을 너무 늦게 인수받았기 때문에, 리더십의 성과를 국제사업에서 찾았고, 이를 위해 북·중관계 및 6자회담 등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후진타오 시기는 김정일과의 관계가 좋은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진타오는 북·중관계에 적극적이었으나 주도적 역할을 하진 못하였다. 중국 내부의 빈부갈등 및 권력이완 등의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후진타오가 정치·외교적 성과를 도출하려 하였으나 북한은 중국에 어려운 협상 대상이었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존의 전통방식에 따라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였다.

2005년부터 6자회담을 비롯한 다자회담이 이루어졌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최고지도자인 후진타오에게 북한은 ‘전통적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지 않도록 협상해야 하는 이웃국’이었다. 후진타오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혈맹관계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 정책 고민들을 많이 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대적으로 역대 중국 최고지도자들에 비해 정치력이 약해서 내부 문제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이나 북한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주도적 전환정책을 제시하긴 어려웠던 것이다. 사실 당시 중국이 6자회담의 의장국을 맡게 된 것도 외부적인 요소, 즉 국제사회의 요구를 후진타오가 리더십 강화에 활용하기 위해 수용한 것이지 주도적으로 의장직을 맡게 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시기 북·중 인사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두 가지이다. 먼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중심의 협상이었다. 2003년 8월 개최되기 시작한 6자회담은, 2006년 9월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었으나, 2007년 9월까지 총 6차례 개최되었다. 다음으로 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나선 정치·외교적 협상 및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을 위한 인사교류이다. 대북지원 및 경제협력이 6자회담 의제조율과 긴밀한 상관성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이 시기 각 분야별 인사교류를 살펴보면, 정치 및 외교 분야의 고위급 인사교류는 총 25회이다. 군사 분야 고위급 인적교류는 7회이다. 경제 분야 인적교류는 106회이다. 그리고 자료의 부적합성으로 인해 2004년을 제외하더라도 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인적교류는 177회 이루어졌다.

총 6년으로 설정한 이 시기 인사교류를 1년 평균으로 집계해 보면, 정치 및 외교 분야의 고위급 인사교류는 1년 평균 4.2회이고,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는 평균 1.2회이다.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는 고위급보다는 담당 분야 실무 책임자 및 관련자들의 교류가 빈번한데, 경제 분야는 1년 평균 17.7회이다. 그리고 자료 부적합성으로 2004년을 제외한 5년간 사회문화 분야는 1년 평균 35.4회의 인사교류가 이루어졌다.⁴⁾ 그 횟수로만 보면 사회문화 분야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경제 분야 → 정치외교 분야 → 군사 분야 순으로 인사교류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에서는 각 영역별 인사교류의 실태 및 목적, 그리고 그 주요 의미와 특징 등을 살펴보자.

4) 선행연구인 이교덕 외,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p. 115의 ‘〈그림 V-1〉 연도별 북·중 간 사회문화 교류 추이’에서는 노동신문 기사를 근거로 2004년 사회문화 교류를 94회로 집계하였다. 그러나 이 사회문화 교류는 누가, 무슨 이유로 왕래했는지에 대한 것보다 각종 행사를 짧게 소개하는 등의 기사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인적교류’의 주체 및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2004년 자료를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후진타오-김정은 시대’ 인적교류 연구 시기는 2004년을 제외한 5년으로 설정하고 분석한다.

나. 정치·외교·군사 고위급 인사교류

이 시기 북·중 고위급 인사교류로 분류될 수 있는 정치, 외교, 군사 분야의 핵심 아젠다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6자회담을 둘러싼 다양한 의제 및 합의 도출이다.

둘째, 유무상 경제원조 등 대북지원, 북·중 투자협정 체결, 그리고 경제협력이다.

셋째, 북·중 우호협력 관계의 강화이다.

넷째, 군사 분야교류는 친선에 집중되었다.

그 실태와 양상, 목적 등은 아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II-1 김정일-후진타오 시대 정치외교 고위급 인사교류: 2003~2008년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중국 측	북한 측	
2003.3.8.~ 3.9.	북한	첸치천 부총리		3자회담(북·중·미)에 북한의 참여 설득
2003.7.12. ~7.15.	북한	다이빙귀 외교부 부부장		김정일 면담 및 후진타오 친서전달, 6자회담 논의
2003.8.7.	북한	왕이 외교부 부부장		6자회담 개최시기 논의 및 관련 의제와 대표단 구성 논의
2003.8.19.	북한	류흥차이 대외연락부 부부장	최태복 과학교육담당 당 비서	
2003.10.30.	북한	우방귀 전국인대 의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6자회담 재개 논의, 5천 달러 상당 무상경제원조
2003.12.25. ~12.26.	북한	왕이 외교부 부부장		6자회담 논의
2004.1.19.	북한	왕자류이 당 대외연락 부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내용 비공개
2004.2.9.	중국		김계관 외무상 부상	6자회담과 북핵문제 논의
2004.3.24.	북한	리자오싱 외교부장		김정일 면담, 6자회담 및 실무그룹 구성 논의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중국 측	북한 측	
2004.4.19. ~4.21.	중국	후진타오 등 정치국 상무위원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유 무상원조, 북핵문제 해결방안 논의
2004.9.10. ~9.13.	북한	리창춘 당 정치국 상무위원		경제지원 논의
2004.10.19.	중국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경제원조 및 6자회담 논의
2005.2.19. ~2.23.	북한	왕자루이 당 대외 연락부장	김영남	북·중 친선협조 관계의 강화 발전 및 공동관심 의견 교환
2005.3.22. ~3.27.	중국		박봉주 내각총리	6자회담 논의 및 북·중 투자협정 체결
2005.3.29. ~4.2.	북한	중국 공산당 대표단		
2005.4.5.	중국		강석주 외무성 제1 부상	북·중 친선관계 및 핵문제
2005.4.22.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후진타오	김영남	
2005.7.12. ~7.14.	북한	탕자쉬안 국무위원	백남순 외무상	상호 관심사항 면담
2005.8.27. ~8.29.	북한	우다웨이 외교부 부 부장		6자회담 추동 논의
2005.10.8. ~10.11.	북한	중국정부대표단		북한노동당 창설기념일 참석
2005.10.28. ~10.30.	북한	후진타오 주석		북·중 우호협력 관계 강화 및 6자회담, 경제원조
2006.1.10.~ 1.18.	중국		김정일 위원장	북·중 우호협력 관계 강화, 경협확대, 위조지폐 문제 등 과 함께 6자회담 입장 조율
2006.5.30.~ 6.6.	중국		백남숙 외무상	우호협력 재확인과 6자회담 재개위한 BDA문제 등 논의
2006.10.19.	북한	탕자쉬안 국무위원	김정일 면담	추가 핵실험 자제 및 6자회담 재개 조건 논의
2008.6.17.~ 6.18.	북한	시진핑 부주석		부주석 취임 후 첫 해외순방 으로, 상호 전통적 우의 강화

출처: 저자 작성.

북·중 간 정치외교 분야 인사교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전통적 혈맹관계 및 연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친선 목적’의 인사교류이다. 또 다른 하나는, 양국의 이해가 걸린 정책 또는 의제와 관련한 논의 및 조정을 위한 비정기적인 인사교류이다. <표 II-1>에서 밝힌 이 시기 정치 및 외교 분야의 고위급 인적교류 중 중요한 교류를 중심으로 그 의미 및 특징을 살펴보자.

2003년 3월 중국의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되어 후진타오가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되었다. 2002년 10월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 가능성 발표로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국가에 북핵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한 상태에서, 2003년 북핵문제로 불거진 동북아 위기를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이 중국에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3월 중국 측 첸지천(錢基琛) 부총리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중·미 3자회담에 북측의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당시 미국 측은 다자회의를 주장하고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중재하기 위해 중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 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처럼 북핵 아젠다는 후진타오 시대 출범과 함께 중국의 핵심 외교사안이 되었다. 중국의 중재 노력으로 4월 3자회담의 형식을 갖춘 북·미 양자회담이 이루어졌으나 별 성과없이 끝났다.

이어 7월 중국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 부부장이 다시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을 면담하였다. 당시 다이빙궈 부부장은 김정일에게 후진타오의 친서를 전달하며 6자회담 관련 논의를 하였다. 그리고 8월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 또한 북한을 방문하여 6자회담 개최시기와 의제, 그리고 대표단 구성 문제를 협의하였다. 그 결과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주변 6개국의 제1차 6자회담이 2003년 8월 27일~8월 29일에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핵 폐기와 동시에 대북지원 등 모든 사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별 성과 없이 끝난 1차 6자회담 이후, 10월 북한 측 김정일 위원장과 중국 측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대 의장이

평양에서 만나, 6자회담 재개논의와 함께 중국은 북한에 5천만 달러 상당의 무상경제원조를 약속하였다. 이 인사교류 시 김정일이 6자회담 참여를 수용하였다. 이후 12월 왕이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6자회담 관련 논의를 하였다.

2004년은 지난해 양국 고위급이 논의한 6자회담 참여 및 그에 대한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관련하여 고위급 인사들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 새해 1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인 왕자루이(王家瑞)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과의 비공개 면담을 하였으며, 2월 9일 북측의 김계관 외무상 부상이 중국을 방문하여 6자회담 및 북핵문제에 대한 북측의 요구를 전달하고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2004년 2월 25일~2월 28일간 제2차 6자회담이 개최된다. 이때는 참가국들 모두 핵문제를 대화 및 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후 3월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을 면담한 후 6자회담 및 실무 그룹 구성을 논의한다.

이러한 양국의 조율 후에 4월 후진타오 주석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이 회담에서는 중국의 원유 대북 무상원조 및 북핵문제 해결방안이 논의된다. 이 정상회담의 중요한 의미는 북·중 간 당 대 당의 전통적 협력 관계 복원 및 6자회담 재개 결정이다. 그 결과, 2004년 6월 23일~6월 26일간 제3차 6자회담이 개최된다. 이 회담에서 6개국은 성명을 통해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진다”고 합의한 내용을 발표한다. 이 3차 6자회담 이후 양국은 다양한 물밑 작업을 하였고, 9월 리창춘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북한을 방문하여 대북 경제지원 관련 논의를 한다. 그리고 10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경제원조 및 6자회담 관련 논의를 한다.

2005년의 경우 중국이 주도하여 6자회담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북·중 간 우호 및 협력 등을 매개로 다양한 북·중 고위급 인사교류가 이루어진다. 2월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하고, 북·중 친선협조 관계 강화발전 및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어 3월 북한의 박봉주 내각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여 6자회담 관련 논의와 함께 「북·중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4월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북 친선관계 및 핵문제 관련한 논의를 한다. 5월의 경우 4월 22일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중국 주석 후진타오와 북한의 국가를 대표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만남을 가진다. 이때 6자회담 재개 관련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7월 12일~7월 14일간 중국 측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이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백남순 외무상과 면담을 가진다. 이때 제4차 6자회담 개최 관련 협상 및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 주도의 조율 과정에서 제4차 6자회담이 개최된다. 4차 6자회담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단계는 2005년 7월 26~8월 7일 사이의 기간이다. 이 시기 한국이 경수로 대신 ‘북한에 직접 송전하는 방식’의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또한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 주장 및 핵 폐기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이 맞섰다. 그리하여 8월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6자회담 추동을 위한 논의 및 의제 조율 등을 한다. 그리하여 제4차 6자회담의 2단계 회담이 9월 13~9월 19일간 진행된다. 이 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 및 북·일관계 정상화 등 총 6개 항목에 합의한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다.

「9·19 공동성명」 발표라는 6자회담의 성과에 힘입어 10월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을 직접 방문하여, 북·중 우호협력 관계 강화 및 6자회담 발전, 그리고 경제원조 등 폭넓은 의제를 조율한다. 그리하여 2005년 11월부터 제5차 6자회담이 시작된다.

2006년의 경우, 새해 1월에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여 북·중 우호협력 관계 강화, 6자회담, 경제원조라는 3대 아젠다를 중국 측과 물밑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중국 남방지역 경제특구를 시찰하며 중국의 개혁·개방의 현장을 견학한다. 5월 30일~6월 6일간 북한 백남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하여, 북·중 우호협력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북한의 불법자금세탁 혐의로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BDA) 은행의 북한자금을 동결한 조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국 측의 협력을 이끌어낸다. 그 대가로 북한은 중국 측 요구인 6자회담 재개에 동의한다.

그러나 10월 9일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함에 따라 6자회담 구성 국가들의 다양한 대응 모색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1차 핵실험 10일 후인 10월 10일 당사자인 중국 국무위원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을 면담한다. 이 면담을 통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 자제 요청 및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논의한다. 그리하여 2005년 11월부터 시작된 제5차 6자회담이 2007년 2월까지 3단계에 걸쳐 개최된다. 이 3단계 회의에서 「9·19 공동성명」의 이행계획인 2007년 「2·13 합의」가 채택된다.

이어 제6차 6자회담 역시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2007년 7월 18일~7월 20일간 개최된 1단계 회의에서는 「2·13 합의」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논의된다. 그리고 2007년 9월 27~9월 30일간 2단계 제6차 6자회담이 개최된다. 그 주요 결과는, 북한 측이 핵시설 폐쇄·봉인·불능화와 함께 폐기신고를 이행하면 북한 외 6자회담 참가 5개국(중·미·러·영·프)은 중·미·러·영·프 등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을 한다는 약속이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적성국무역법에 따른 제재 해제 등도 약속했다. 이 내용은 10월 3일 발표되어 「10·3 합의」로 불려진다. 그러나 2007년 말까지 북한이 핵 불능화 및 폐기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북한의 핵폐기 의지, 협상 태도, 그리고 6자회담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6자회담은 난항을 겪는다. 중국 또한 북한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2007년과 2008년 북·중 인사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한편, 2007~2008년 초까지 북한이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중국 측과의 접촉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고위급의 인사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2008년 3월 1일 김정일이 중국 측 요청에 따라 평양에 있는 중국대사관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김정일이 후진타오 주석 앞으로 중국의 자연재해에 대한 위로 전문을 1월 31일 보냈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1기 1차대회에서 다시 국가 주석으로 선출된 후진타오에게 축하한다는 축전을 3월 15일 보냈다.⁵⁾

이후 북한 지도부의 동향을 살펴보고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2008년 6월 부주석으로 취임한 시진핑이 첫 해외순방을 나서며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때 상호 전통적인 우의를 확인하는 차원의 인사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2008년 8월 중순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80여 일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관련국들의 북한 정보 분석이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8년 11월 김정일이 공식 석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었다.

시진핑의 북한 방문 및 김정일이 병상에서 복귀한 이후, 북·중관계를 주도하는 리더십의 변화가 온다.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는 총 7회로 전통적인 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북·중 간 군사 분야 인사교류는 주로 상호 전쟁 지원의 역사에 기반하여, 혈맹(血盟)이라는 대의에 따른 정기적 친선교류의 목적이 주를 이룬다. 중국의 국공내전 시절 북한은 북한지역을 후방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중국 공산당 군대를 지원했다. 또한 한국전쟁 시기 미국의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 북한군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중공군을 파견하여 김일성 정권의 회생을 도왔다. 한국전쟁 시기 마오쩌둥(毛澤東)의 아들이 참전하여 사망한 것은 양국의 혈맹 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 에피소드로 거론되고 있다.

⁵⁾ 『로동신문』, 2008.02.02; 『로동신문』, 2008.03.16.

북·중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1961년 체결된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으로, 이 조약에는 상대국가에서 외부의 침략으로 전쟁이 발발하면 즉각 지원하는 ‘자동군사개입조항’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탈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사회주의진영이 붕괴함과 동시에 중국이 개혁·개방을 본격화하면서, 북·중관계는 군사적인 협력보다는 전통적인 친선우호 중심의 인사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2003~2008년간 김정일-후진타오 시대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는 친선 목적의 정규적인 교류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실태와 양상, 목적 등은 아래 <표 II-2>와 같다.

표 II-2 김정일-후진타오 시대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 2003~2008년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중국 측	북한 측	
2003.4.21. ~4.23.	중국	후진타오 총서기, 귀보송 군사위 부주석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친선
2003.8.19. ~8.23.	북한	쉬차이호우 군 총정치부 주임	김정일, 조명록,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친선, 6자회담 논의
2004.7.13. ~7.15.	중국	차오강찬 국방부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친선
2005.4.23. ~4.24.	중국		박재경 대장 (조선인민군정치일꾼)	친선
2006.4.5. ~4.6.	북한	차오강찬 국방부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조명록 총정치국장	친선
2007.8.8. ~8.11.	북한	동스핑(童世平) 중장, 중국인민해방군 친선참관단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친선
2008.4.23. ~4.26.	중국	량광례 국방부장, 공군사령원 쉬치량	리병철 공군사령관	친선

출처: 저자 작성.

위의 <표 II-2>에서 보듯 이 시기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는 주로 친선 목적의 정규적 교류가 주를 이루었다. 그중 정책협의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인사교류는 2003년 8월 19~8월 23일간 중국 측 쉬차이호우(徐才厚) 군 총정치부 주임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하여 북한의 군부 실세인 조명록 및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을 만나 6자회담 관련한 군사 분야 논의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경제·사회문화 인사교류

경제 분야 인사교류를 보면, 이 시기 경제협력 및 대북지원 관련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후진타오 주석 등 중국 고위급들의 평양 방문이 이루어지면서, 경제 각 분야를 책임지는 기관의 인사들 간 교류 또한 활발히 전개되었다. 경제 분야 인사교류의 경우 2003~2008년 6년간 총 106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원인은 앞선 정치외교 분야에서 자세히 설명한 정치·외교적 요인이다.

그 원인을 규명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한을 다자회의에 참여시키고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대북 경제지원 및 교류협정을 추진한 것이다. 둘째, 북한의 시장화 진전 및 부분적 경제개혁 조치에 따라 북·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기 때문이다. 셋째,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밀수를 넘어선 무역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이와 함께 김정일이 체제 안정화를 위한 통치자금 마련을 위해, 수령의 통치자금 관련 외화벌이를 하는 당 전문부서 39호실 및 38호실(2014년 39호실로 통합) 외 군부 및 국가기구 등에서도 각종 외화벌이 자원을 찾아 나서며 경제 분야의 인사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경제 분야 인사교류는 크게 4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건설 및 교통 영역이다. 둘째, 교역 및 투자 영역이다. 셋째, 기술 영역이다. 넷째, 각종 상품 박람회 등이다. 그 연도별 실태, 양국의 방문 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을 포함한 인사교류 목적 등은 ‘부록 1’ 김정일-후진타오 시대 경제 분야 인적교류: 2003~2008년’에 정리되어 있다.

사회문화 인사교류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북·중 간은 접경지역을 매개로 북한지역 내 화교 및 조선족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친인척 교류를 비롯한 각종 사회교류가 일상적이었다. 또한 양국의 계절 노동자들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밀수업자들의 거래, 그리고 관광을 하기 위한 교류 등 다양한 일상 사회 속에서의 인사교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가 간 교류 차원에서 사회문화 인사교류는 양국의 당과 국가의 정치·외교·경제적 의도 및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사회문화 인사교류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중요하고 민감한 정치 또는 경제적 결정을 전후로 국가 간 사회문화 교류는 왕성하게 전개되곤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중 인사교류가 왕성했던 이 시기 사회문화 분야 인사교류는 자료 적합성이 낮은 2004년의 경우를 제외하여도 총 177회로 가장 많았다. 이 시기 사회문화 분야 인사교류 특성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때 활발히 전개된 6자회담과 연동된 사회문화 교류이다. 둘째, 경제협력 및 대북지원과 연동된 사회문화 교류이다. 셋째, 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등의 전통적인 친선교류이다.

그 연도별 실태, 양국의 방문 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을 포함한 인사교류 목적 등은 ‘〈부록 2〉 김정일-후진타오 시대 사회문화 분야 인적교류: 2003~2008년’에 정리되어 있다. 양국의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정부 차원의 교류가 중심이고, 민간 차원의 인사교류라 할지라도 당 또는 국가기관의 허가 및 지도를 받고 수행된다. 북·중 간 사회문화 분야 인사교류를 조직하는 양국의 핵심기관들은 다음 〈표 II-3〉과 같다.

표 II-3 북·중 사회문화 인사교류 네트워크

구분	북한	중국	
정부	당	국제부	대외연락부
	내각	외무성, 문화성, 교육성, 보건성	외교부, 문화부, 교육부, 위생부
		국립민족예술단, 국가관광총국	
	국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국가체육지도총국
산하기관	조선대외문화연락위원회	국제문제연구소,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북한 사회과학원	중국사회과학원	
민간	친선조직	조중친선협회	중·조우호협회
		조선예술교류협회	
	교민조직	해외동포문화포럼위원회	재중조선인총연합회(7개지구) 재중조선인예술단, 지린성연변가무단, 심양시아리랑예술단
		학술·교육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김책공대 등 10개교
	창덕학교		지린육문중학교
	예술	만수대예술단, 꽃피는 처녀예술단, 피바다가극단, 조선민족가무단, 국립교향악단, 국립민족예술단, 평양학생소년예술단, 금성학원예 술단	동방가무단, 상하이발레무용단, 상하이 교향악단, 중국교향악단, 중국인민 해방군총정지부가무단
		언론출판	조선기자동맹, 조선중앙통신사, 로동신문사
	관광	조선국제여행사, 조선국제청년 여행사, 칠보산여행사	고려여행사, 서안국제여행사, 세일국제 여행사, 연변천우국제여행사, 국제려유 집단상하이유한공사, 다롄부려화국제려 행사유한공사, 연변아리랑여행사
사회단체	조선민주여성동맹, 농업근로자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화전국부녀연합회	

* 출처: 이교덕 외,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p. 132.

위의 <표 II-3>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북·중 간 사회문화 인사교류는 어떤 기관보다 양국의 관련 중앙당 기관인, 북한의 노동당 국제부 및 중국의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정당 내 국제부서의 가장 중요한 위상과 역할이 세계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우호 정당들과의 교류 및 협력이기 때문이다. 그 외 양국 국가기구 내 외무성이나 외교부, 문화성이나 문화부, 국제 교류협력을 주요 역할로 하며 관련 당 조직의 지도를 받는 산하 기관들(형식상 민간단체), 그리고 양국의 대사관이 활동한다. 또한 민간단체로는 조·중친선협회(북한) 및 중·조우호협회(중국)가 인사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양국 정권 교체기: 2009~2012년

가. 양국 리더십 특징 및 인사교류 양상

이 시기는 2011년 말 김정일 사망 전후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의 부상과 집권, 그리고 중국의 차기 지도자 시진핑의 부상으로 특징지어지는 시기이다. 이미 2008년 중국에서 부주석으로 선출된 시진핑이 차기 주석으로 유력하게 대두된 시기이다. 그리고 그해 6월 중국에서 부주석으로 취임한 시진핑이 첫 해외순방을 나서며 북한을 방문하였다. 차기 중국의 최고지도자로서 집권 이후 통치를 설계하기 위해 북한지역을 방문하고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으로 인해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를 구상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공식적 논평은 ‘상호 전통적인 우의를 확인’하는 차원의 인사교류라고 밝혔다. 시진핑은 2008~2012년간 부주석으로 활동하며 ‘새로운 중국’의 통치 전략을 구상한다.

한편 2008년 8월 중순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급박한 위기를 넘겨 공식 석상에 나타난 11월 이후, 김정은과 북한 고위층 지배계급 내에

차기 최고지도자로서 김정일의 3남인 김정은이 대두되었다. 각종 정보들을 종합하면, 2008년 이후 김정은이 후계수업을 받았으며 가장 먼저 군부에서 경험을 쌓았다고 한다. 그리고 2009년 군부 핵심세력으로부터 추동되어 북한 노동당 내에서 공식 후계자로 지명된다. 이어 2010년 3차 당대표자회의를 통해 대내외에 김정은의 후계자임이 공개된다. 그 이후인 2011년 경까지는 북한의 공안·검열 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2016년 국가보위성으로 명칭 변경)에서 통치 경험을 익힌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른 2011년 말 김정일이 사망하였다. 그리하여 2012년 공식적으로 등장한 김정은은 체제를 정비하고 자신의 유일권력을 세우기 위한, 각종 제도정비(노동당 제4차 당대표자회의 개최 등) 및 ‘권력집단 교체사업’(공포정치)을 시작한다.

따라서 2009~2012년은 북·중 양국 모두가 정권 교체를 진행한, 정권 교체기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후진타오 및 김정일 모두 안정적인 후계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대내외 사업에 매진한다. 그리하여 북·중 관계를 주도하는 리더십의 변화가 온다. 이 시기 북·중 인사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08년 김정일의 와병 이후, 2009년 대내외적으로 후계체제로 돌입하였다. 그리하여 2009년 이후 북한은 ‘김정일+김정은 체제’가 작동한다. 그리고 2011년 말 김정은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2012년 김정은 영도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전개된다. 둘째, 중국 또한 2008년 시진핑의 부주석 취임 이후 2009년부터 본격적인 후계구상이 이루어지며, 2009년 이후 시진핑이 공식적으로 주석에 취임하기 전해인 2012년까지 중국은 ‘후진타오+시진핑 체제’가 작동한다. 그리고 2012년 말 중국 당대회를 통해 차기 국가주석으로 시진핑이 결정된다. 셋째, 양국의 권력 이양기에 전개된 2차 북핵실험(2009.05.25.) 이후 북·중관계의 조정이다. 넷째, 양국 모두 권력 이행기에 따른 정치·외교적 정책 조정기임에도 불구하고 북·중 경제 분야 인사교류는 1년 평균으로 볼 때 전 시기

(2003~2008년 6년간 1년 평균 17.7회)보다 오히려 증대하였다. 이 시기 경제 분야의 인사교류는 1년 평균 18.5회이다. 주목할 점으로 이 시기 북·중 경제 분야 인사교류가 2009년 2차 북핵실험 등까지의 정세 변화를 고려할 때, 매우 활발히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다섯째, 전 시기보다 오히려 활발히 전개된 사회문화 인사교류이다. 이 시기 인사교류가 전반적으로 전 시기보다 왕성했으나, 특히 사회문화 분야 인사교류가 두드러졌다. 그 이유는 전통적 사회문화 인사교류 일정 외에, 전 시기 약속한 일정을 수행하는 차원의 사회문화 인사교류, 그리고 김정일 사망 및 김정은 정권 등장과 연관된 것으로 추론된다.

2009년에서 2012년 총 4년간 정치 및 외교 분야의 고위급 인사교류는 총 14회,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는 4회, 경제 분야 인사교류는 74회, 사회문화 분야 인사교류는 216회 이루어졌다. 총 4년으로 설정한 이 시기 인사교류를 1년 평균으로 집계해 보면, 정치외교 분야 1년 평균 3.5회, 군사 분야 1년 평균 1회, 경제 분야 18.5회, 사회문화 분야 54회이다. 이 시기 역시 ‘김정일-후진타오 시기’인 2003~2008년까지의 분야별 인사교류 수준과 동일하게, 사회문화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제 분야 → 정치외교 분야 → 군사 분야 인사교류 순이다.

나. 정치·외교·군사 고위급 인사교류

이 시기 북·중 고위급 인사교류로 분류될 수 있는 정치, 외교, 군사 분야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측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다양한 시도 및 조정활동이다. 둘째, 김정일 와병 이후 김정은 후계체제를 고려한 중국 측의 행보 및 김정일의 노력이다. 셋째, 2008년 말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부주석으로 선출되어 차기 중국 최고지도자로 내정된 시진핑 세력을 고려한 북한 측의 다양한 행보이다. 넷째, 2009년 5월 25일 2차 북핵실험 및 6자회담 정지 후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을 관리하려는 중국 측 의도이다. 넷째, 장성택을 중심으로 한 당 행정부세력의 북·중

경제협력 지속과 제도화 노력이다.

그 실태와 목적, 그리고 주요 인사교류의 핵심 의미 및 특징 등은 아래 <표 II-4>에 정리되었다.

표 II-4 양국 정권 교체기 정치 및 외교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 2009~2012년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2009.8.	북한	우대웨이 외교 부 부부장		6자회담 재개 논의	
2009.9.17.~9.18.	북한	다이빙귀 국무 위원		6자회담 재개 논의	후진타오주석 특사
2009.10.5.~10.7.	북한	원자바오 총리			북·중수교 60주년 기념의 친선방문으로 우호·협력 관계 확인
2010.5.3.~5.7.	중국		김정일 위원장	경제교류협력 강화 및 6자회담 재개 조율(체제지원 확보 및 외교적 고립 타개)	북·중 전략적 소통 강화
2010.8.26.~8.30.	중국 장춘	후진타오 주석	김정일 위원장	후계체제에 대한 지지 요청, 경제 교류협력 논의 및 김정일 동북 지방 시찰	양국 경제협력 원칙으로 '정부 주도성' 제시 *정치적 고려에 따른 전략적 대북관리 차원에서 중국의 전략
2010.10.10.~10.12.	북한	저우융강 정치 국 상무위원		노동당 창건일 축하 및 후계체제 구축 지지	3차 당대표자회 통한 후계자 김정일의 공식화 축하
2011.5.20.~5.27.	중국		김정일 위원장	후계체제 구축에 대한 지지, 전통우호관계 강화, 경제교류지원 논의	
2011.7.11.~7.14.	북한	장덕장 상무 위원		김정일 방중 성과 관련 후속 조치 논의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체결 기념 활동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2011.10.23. ~10.25.	북한	리커창 상무위 원부총리 겸직)		북·중 간 차세대 지도 자의 전통 우호관계 지속	북·중 상호 경제 교 류협력 관련 논의
2012.4.22. ~4.25.	중국		김영일 노동당 국제부 부장	(조선)노동당-(중국) 공산당 전략대화 진 행, 대(代) 이은 전통 우호 관계 강화	후진타오 면담 당 차원의 북·중 전 략대화
2012.7.24. ~7.28.		저우융캉 중국 중앙정보 사기, 멍젠주 공안부 장	리명수 인민보 안부장	북·중 우호관계 원칙 견지 및 소통 강화	다국적 범죄 공동소탕 등 양 국민의 안정적 교류증진과 국경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 합의
2012.7.29. ~7.31.	북한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 락부장	김정은 1위원 장, 강석주 부 총리, 김용겸 노 동당 비서, 김 성남 국제부 부 부장 접견		북·중 간 당대당 관 계 복원
2012.8.13. ~8.17.	중국	후진타오 국가 주석, 원자바오 총리 등 접견	장성택 국방위 원회 부위원장	양당, 양국의 전통 우 호관계 강화, 경제교 류협력 논의	북·중 간 경험관계 활성화 모색
2012.11.30. ~12.1.	북한	리젠귀 전국인 대 부의장		후계체제 구축 지지, 양당 간 전통 우호관 계 지속	시진핑 체제 등장 후 첫 방북인사

출처: 저자 작성.

양국 정권 교체기 고위급 인사교류는 2009년 5월 25일 실시된 제2차 북핵실험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위의 <표 II-4>로 정리된 정치 및 외교 분야의 고위급 인사교류 중 북·중관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인사교류를 살펴보자.

2009년의 경우,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인 8월과 9월 중국 측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및 다이빙귀 국무위원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주요 의제 및 논의사항은 6자회담 재개이다. 특히 9월 다이빙귀 국무위원의 평양

방문은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어 10월에는 중국 측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직접 북한을 방문하였다. 양국의 수교 60주년 기념 친선방문 형식으로 북·중 간 우호협력 관계 강화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는 2차 북핵실험 이후 6자회담 재개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북한을 다시 회담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설득 과정으로 해석된다.

2010년의 경우,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이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중국을 직접 두 차례나 방문하여 중국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5월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여 경제교류협력 강화 및 6자회담 재개 관련 아젠다를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인사교류의 핵심 특징은 북한 주도의 북·중 간의 전략적 소통 강화 행보이다. 핵심 목적은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적 비난 및 제재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측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외교적인 고립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김정일의 적극적 대중 행보는 북한의 후계체제 안정화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5월에 이어 8월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26일~30일 간 북경과 장춘을 방문하였다. 먼저 북경에서는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김정일은 북한 후계체제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를 요청하고 북·중 간 경제교류 협력을 논의하였다. 이어 김정일은 장춘으로 이동하여 동북지방을 시찰하였다. 김정일의 연이은 방중은 북한 측 입장에서는 후계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며, 중국 측 입장에서는 전략적 대북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 및 특징이 있다. 이러한 김정일의 노력으로 2010년 10월 중국 측 저우용강(周永康) 정치국 상무위원이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축하를 명분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후계체제 구축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다. 즉, 중국이 공식적으로 김정일에 이은 세습 후계자인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2011년에도 5월 20일~5월 27일간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 정상급 인사교류에서도 김정일은 후계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 측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양국 간 전통적인 우호관계 강화 및 경제교류 및 지원 관련 논의를 하였다. 이어 7월에는 중국 측 장더장(張德江) 상무위원이 지난 5월 김정일 방중 회담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 인사교류를 통해서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체제와 관련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더불어 10월 23일~10월 25일간 중국 측 리커창(李克強) 상무위원 겸 부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 간 차세대 지도자들의 전통적 우호관계 지속 및 상호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리고 2011년 말 김정은 사망과 함께 2011년 12월~1월 사이 양국은 전통적 조문 인사 및 감사 답변이 이어진다. 그러다 2012년 4월 11일 김정은 정권의 공식 출범을 선언한 제4차 당대표자회가 개최된다. 연이어 4월 13일 국가기구 내 최고정책결정 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가 개최된다. 이때 노동당 규약 및 헌법 개정을 통해서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내세우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추진한다는 당과 국가기구의 최고 강령이 도출된다. 이와 함께 김정은이 북한 당·정·군의 최고 통치자로 입지를 확고히 한다. 그 직후인 4월 22일~4월 25일간 북한 측 김영일 당 국제부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를 면담한다. 이 고위급 인사교류에서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의 전략대화가 진행된다. 핵심적 공유사안은 양국이 ‘대를 이은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3대 세습에 대한 북한 내부뿐 아니라 외부의 비판에 대해 가장 먼저 중국을 설득하여 김정은 체제를 안정화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정은 체제 안정화를 위해 북·중 접경지역 관리에 나선 북한의 주도로 7월 24일~7월 28일간 중국 측 저우융캉 중국 정법서기와 함께 멩젠주(孟建柱) 공안부장을 북한의 리명수 인민보안부장이 만난다. 이

교류에서 북·중 간 상호 우호관계라는 원칙의 견지와 소통성 강화, 그리고 다국적 범죄의 공동 소탕 등 양국 주민의 안정적 교류 증진과 국경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공동활동에 합의한다. 즉, 북한의 정권 변화로 인해 북·중 접경을 통해 위험 요소가 유입되고 북한주민들의 동요가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한 북한 측의 행보이다.

이 공안 분야 양국 인사교류 다음 날인 7월 29일에서 7월 31일까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인 왕자루이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당시 당 1위원장, 강석주 부총리, 김양건 노동당 비서, 김성남 국제부 부부장을 접견한다. 이 고위급 교류를 통해 북·중 간에 당 대 당 관계 복원에 합의하였다. 이어 8월 13일~8월 17일간 장성택 당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당 행정부장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때 장성택이 중국 국가주석인 후진타오와 총리인 원자바오 등을 접견한다. 이 방문에서 북·중 간에 양당 및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 강화 의지를 서로 확인함과 동시에 경제 교류협력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장성택이 나선 이 고위급 회담에서는 북·중 간 경제협력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된다. 그리고 연말인 11월 30일에서 12월 1일간 중국 리젠궈(李建國) 전국인민대회 부의장이 북한을 방문한다. 이 시기는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대회를 통해 차기 국가주석으로 시진핑이 결정된 이후이다. 중국의 차기 최고통수권자로 시진핑이 확정되자, 중국 측에서 양국의 후계체제 구축 지지 및 양당 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지속하자는 논의를 하게 된다. 이 고위급 인사교류는 중국의 시진핑 체제 등장 후 최초의 방북 인사교류라는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 고위급 군사 분야 인사교류 또한 전통적인 교류목적인 친선을 주요 의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정권 교체기 양국의 군사적 위험 관리를 위한 교류가 눈에 띈다. 즉, 정권 교체기의 위험 관리 성격이 드러난다. 그 실태와 양상, 목적 등은 아래 <표 II-5>로 정리할 수 있다.

표 II-5 양국 정권 교체기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 2009~2012년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중국 측	북한 측	
2009.1.22. ~1.26.	북한	량광례 국방부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친선
2010.10.23. ~10.26.	북한	귀보승 중앙군사위부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친선
2011.2.13. ~2.15.	북한	명젠주 공안부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리영호 총참모장	친선, 정책협의
2012.4.5. ~4.9.	북한	치엔리화(錢利華)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친선

출처: 저자 작성.

위의 <표 II-5>에서 볼 수 있듯이, 공식 의제 및 논의사항 등을 보면 전반적으로 1년에 1회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군사 분야의 전통적인 친선 목적의 교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양국에서 교류에 나선 인사들이 고위급 중에서도 최고위층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즉, 북한 측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하여,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교류의 주체였다. 중국 측에서는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 귀보승(郭伯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명젠주 공안부장 등이다. 특히 2010년 9월 27일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가 부여되고, 9월 28일 김정은으로의 3대 후계체제를 선언한 북한의 제3차 당대표자회 이후에 군사 분야 고위급 교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정은이 후계자 지명 후 최초로 해외 인사를 접견한 것이다. 2010년 10월 23~10월 26일간 중국 측 귀보승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형식적으로는 친선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차기 북한 지도자로 낙점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난 것이다. 외형적 목적은 중국 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 목적

은 김정은을 만나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중국 측에서는 김정은의 직위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해당하는 귀보송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다. 경제·사회문화 인사교류

김정일-후진타오 시대보다 증대한 이 시기 경제 분야의 인사교류는 총 74회이다. 이전 시대에 경제 분야 인사교류가 1년 평균 17.7회인 것에 비해, 오히려 정권 교체기인 이 시기 경제 분야 인사교류는 1년 평균 18.5회를 기록했다. 이 시기 경제 분야 인사교류의 주요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지난 시기 다양한 북·중 경제협력 인사교류 성과들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각종 조약 체결, 정기 이사회, 각종 서명식, 전람회 등이 이루어졌다. 또 다른 하나는, 중국 측 경제인사들의 대북한 접촉이 북한 측에 비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 실태와 양상, 목적 등은 ‘부록 3> 양국 정권 교체기 경제 분야 인사교류: 2009~2012년’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사회문화 분야 인사교류 또한 이전 시대보다 월등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전 시대에 사회문화 분야는 총 177회로 2004년을 제외하면 1년 평균 35.4회의 인사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양국 정권 교체기인 2009~2012년간 사회문화 분야 인사교류는 총 216회로 1년 평균 54회를 기록하였다. 즉, 이전 시대에 비해 1.5배가량 증대한 것인데, 이는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시기 약속한 사회문화 분야 인사교류 일정 수행이다. 둘째, 전통적으로 진행되던 각 기관 및 단체의 교류 지속이다. 셋째,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정권 등장과 연동된 것으로 보인다. 그 실태와 양상, 목적 등은 ‘부록 4> 양국 정권 교체기 사회문화 분야 인적교류: 2009~2012년’에 정리되어 있다.

4. 김정은-시진핑 시대: 2013~2017.6.

가. 양국 리더십 특징 및 인사교류 양상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이어서 대외·대남 도발을 극대화하였다. 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에 매진하여, ‘고위직 숙청 및 공포정치’로 상징되는 지배계층 재구축 작업에 집중하였다. 대표적으로 친중 개혁·개방파로 알려진 장성택의 처형 및 그 세력에 대한 대대적 숙청이 단행되었다. 이후에도 주요 고위직에 대한 숙청, 혁명화, 처형, 신임, 재신임 등을 통해 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유일영도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2013년 핵·경제 병진노선을 법적으로 규정 한 후 정권의 사활이 걸린 전략으로 ‘국제적 핵보유국 인정받기’ 투쟁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핵무기뿐 아니라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국제사회의 비난과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4차(2016.01.06.) 및 5차(2016.09.09.) 핵실험, 그리고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연이어 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은 국제무대에 나서지 않은 채 각종 당 및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김정은 영도체계’를 구축하면서, 2016년 5월 7차 당대회를 정점으로 명실상부한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서 북한은 김정은 내치에 주력하면서 대외 행보는 활발히 전개하지 않았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꿈’을 화두로 새로운 세대의 중화주의 노선을 선언한 시진핑 체제가 2013년 3월 공식화되었다. 즉, 시진핑이 국가주석이자 당서기이며 당 최고위원으로 공식 권력을 이양받은 것이다. 북·중관계에 있어 후진타오 시대와 다른 시진핑 시대의 새로운 인물 구성을 통해서 달라진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시진핑은 신세대 최고지도자로, 과거 북·중관계 전통의 경험이 없는 태자당이 정권의 핵심을 차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대들은 부모세대와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중국 역사를 살펴보면 1세대는 마오쩌둥, 2세대는 덩샤오핑(鄧小平), 3세대는 장쩌민, 4세대는 후진타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세대가 평가되는 시진핑이 5세대이다. 4세대인 후진타오 세대까지는 건국세력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은 1960년대 생으로 중국이 문화대혁명(1966~1976년)을 겪었던 시기에는 아주 어린 나이였다. 이 세대는 당시 청년세대로 홍위병이 되었던 사람들과 기본적인 의식과 사고가 많이 다르다. 중국에서 이 5세대들은 북한과의 혈맹관계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국가이익을 증시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과거 사회주의체제 유지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국가이익이 가장 우선시되는 시대이다. 시진핑 시대는 중국의 꿈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에 발목 잡히는 것을 좋아할 수 없는 세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문제에 대한 고민과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한편 당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중국은 시진핑이 국가 주석을 맡고 있지만, 현재까지 당 원로들이 남아있고 장쩌민도 생존해있다. 중국은 이러한 구세대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이며, 시진핑 세대는 이들로부터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북정책의 인식 차이도 존재한다. 또한 시진핑은 후진타오가 집권 5년 동안 군권을 가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통치의 어려움이 발생한 점을 잘 알고 있다. 후진타오 시기 내 5년간 군권을 가지고 있던 장쩌민이 끊임없이 통치행위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후진타오 정권은 불안정한 권력이었다. 집권 이후 시진핑은 이러한 고리를 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부패 척결을 주장하며 장쩌민의 오른팔인 저우융캉 공안세력을 부패 혐의로 처벌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후진타오 시기 집단지도체제의 중심인 공산당 상무위원은 9명이었는데, 시진핑 시대 현재는 7명이다. 그 원인은 내부 정파적 권력싸움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장쩌민 세력과 후진타오 세력과의 갈등 사이에 합의를 본 것이 7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였다. 그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혈통 및 좋은 정치적 토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6년 시진핑은 ‘당의 핵심’ 칭호를 받았다. 이 ‘당 핵심’ 칭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 칭호가 당 상층부에서 옹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층의 당원 및 당조직으로부터, 즉 아래로부터 그를 당의 핵심으로 모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핵심칭호를 받았던 사례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밖에 없었다. 장쩌민도 당 핵심이라 했지만 이는 사실 덩샤오핑이 지명했으며, 후진타오는 핵심칭호를 못 받았다. 이러한 핵심칭호는 당 중앙위원회에서의 결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통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시진핑 시대의 정책적 강조점은 첫째, ‘개혁 심화’와 ‘중국의 꿈’ 강조이다. 개혁의 질적인 심화를 강조하면서 ‘뉴노멀’과 ‘신창타이(新常态, 새로운 상태)’를 주장한다. 사회주의 사회가 기존의 정상적 상태로 발전하다가 하락하기도 하는데, 이 하락한 상태를 다시 끌어올리려면 완급을 완만하게 조정하는 등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과거의 정책이 고도성장을 지향하는 성장중심주의였다면, 시진핑 시대에는 새로운 상태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상태란 지식산업 발전과 산업 구조조정, 즉 2차 산업을 넘어서겠다는 의미이다. 둘째, 국가발전 전략으로써 ‘일대일로’의 강조이다. 기본적으로 실크로드의 현대적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발전전략이다. 해상 및 육상 실크로드를 재구축하겠다는 것인데, 과거 중화민족이 해상 실크로드 및 육상 실크로드를 모두 주도했던 역사적 사실을 현대에 맞추어 질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시진핑의 국가전략 1순위를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의 꿈” 실현인데, 여기에 ‘뉴노멀’과 ‘일대일로’ 2가지가 모두 포함된다. 뉴노멀은 앞서 언급했듯이 산업 구조조정과 연결된다. 새로운 상태로 넘어가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일종의 조정기 경제정책이다. 2차 산업을 넘어서야 한다는 이야기며 여기에 개혁심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꿈’의 핵심은 중화민족의 부흥이다. 이 중국의 꿈은 시진핑 고유의 것은 아니다. 청나라 때 외세로부터 치욕을 받았던 기억을 지우고, 과거의 중화의 시기처럼 부흥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후진타오 때는 ‘대국굴기’로 표현되었다. 중국의 꿈은 1921년 공산당 창당과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기점으로, 100년 이후의 시대인 2021년 및 2049년 중화민족의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때까지 국가가 부강해져야 하고, 인민이 풍요롭게 살아야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전략에 기초한 시진핑 시대가, 2017년 10월에 개최된 19차 당대회를 계기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⁶⁾

전체적으로 2013년을 기점으로 한 김정은-시진핑 시기 동북아를 둘러싼 리더십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각 국은 국내정치의 안정을 위한 내치에 힘을 쏟았다. 또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2016년 9월의 5차 핵실험,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연이어 감행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대북제재 조치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김정은을 정상적 국가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 흐름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특히, 극단적 치킨게임에 돌입한 김정은의 북한과 트럼프의 미국 간 기싸움 속에서 2017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미국은 미·중 경제통상 관계를 무기로 중국에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단절하라고 압박하였으며, 중국경제를 압박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신세대 엘리트들 중에서는 김정은의 북한을 이해하지 못하며 더 이상 혈맹관계를 원하지 않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⁶⁾ 여기에서는 ‘중국공산당 당장(黨章)’에 시진핑의 지도이념인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지도사상으로 채택되었는데, 신시대가 의미하는 것은 중국경제의 새로운 현상,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 현상, 중국 인민들의 높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와 중국의 발전수준 간 차이에서 오는 모순 현상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승신 외, “19차 당대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 17권 31호 (2017), p. 10.

더욱이 2013년 말 북·중 경제협력을 주도하던 장성택이 처형되면서 북한 권력층에서 친중세력이 대거 숙청되자, 이전 시대까지 활발히 전개되던 북·중 경협 관련 인사교류 역시 급격한 축소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환경과 연동되어 북·중 간 인사교류는 양적으로 축소되었으며, 질적 측면에서는 탐색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제1국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려는 시진핑에게 북한은 여전히 필요한 이웃이다. 또한 북한체제의 불안정이 북·중 접경지역의 대규모 혼란 및 갈등을 초래해 중국사회가 불안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아가 북한체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중국은 미국 중심의 한·미·일 동맹체제와 직접적으로 맞서야 한다. 이로 인한 군사외교적 비용은 북한을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아직까지 중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동맹체제에 맞설 내부적 역량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다. 또한 집단지도체제이고 당 원로들이 여전히 북·중 간 혈맹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세대 엘리트 세력들의 단합된 결의가 없는 한 전통적 북·중관계를 중국이 나서서 훼손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도 전통적인 북·중 인사교류는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북한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2013년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총 4.5년에 걸친 ‘김정은-시진핑 시대’ 인사교류의 양적 측면을 살펴보자. 먼저 정치외교 고위급 인사교류는 총 27회로 1년 평균 6회이다.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는 총 3회로 1년 평균 0.7회이며, 경제 분야 인사교류는 총 35회로 1년 평균 7.8회이다.⁷⁾ 여기에 사회문화 분야 인사교류는 총 127회로 1년 평균 28회이다.

⁷⁾ 참조할 점으로 2014년 5월까지의 경제 교류 실태 DB에는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 ‘중조 경제무역협작망(www.idprkorea.com)’에서 밝힌 경제 분야 교류가 포함되었으나, 2014.06.~2017.06.까지의 경제 분야 인사교류 빈도의 경우에는 위 사이트의 접속 불가로 인해 로동신문 등에서 확인한 경제 분야 인사교류 외에 추가적인 경제 분야 인사교

이 결과를 이전 시대와 비교해 보면,⁸⁾ 정치 및 외교 분야의 고위급 인사 교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경제 분야 인사교류는 양국 정권 교체기에 가장 높은 양상을 보이다가, 이 시대 들어 북핵실험으로 인한 각종 대북제재와 맞물려 1/2이하로 축소되었다. 사회문화 교류의 경우, 양국 정권 교체기에 교류가 급등한 것에 비해 매우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후진타오 시대 사회문화 인사교류가 1년 평균 35.4회(2004년 제외)인 점을 고려하면, 경제 분야와 비교할 때 대폭 축소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즉, 전통적인 사회문화 인사교류는 지속성을 가지고 전개된 것이다.

이 시기 북·중 인사교류에서 중요한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핵실험으로 인한 북·중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정치 및 외교 분야의 고위급 교류가 ‘김정일-후진타오 시대’ 및 ‘양국 정권 교체기’에 비해서도 더 증대한 것이다. 둘째, 장성택 세력 숙청 및 대북제재 확산 등으로 경제교류는 급격히 축소되었다. 셋째, 경제관계 악화 및 대북제재와 맞물려 사회문화 인사교류 또한 하락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 분야와 달리 사회문화 교류는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와 비교할 때 전통적인 인사교류는 지속되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류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힌다.

⁸⁾ 더 구체적인 지속과 변화 평가는 5절에서 다룬다.

나. 정치·외교·군사 고위급 인사교류

이 시기 북·중 간 고위급 인사교류로 분류할 수 있는 정치와 외교, 그리고 군사 분야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2016년 1월 및 9월에 4차·5차 핵실험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양국의 동북아 정세 관리 차원의 정치외교 분야 인사교류가 증대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 시진핑 정권에 의한 김정은 정권의 외교정책 탐색이다. 셋째, 2013년 상반기 급고조된 북한의 도발 이후 최룡해 등을 특사로 한 김정은 정권의 대중국 탐색이다. 새롭게 최고통치자가 된 양국 정상들의 심층을 확인하기 위한 외교 분야 인사교류가 돋보이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의 7차 당대회를 둘러싼 김정은 정권의 전략 확인 등과 관련된 인사교류이다.

연도별 실태, 양국의 방문 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을 포함한 인사교류 목적과 주요 의미 및 특징 등은 아래 <표 II-6>에서 정리하고 있다.

표 II-6 김정은-시진핑 시대 정치 및 외교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 2013~2017.6.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2013.5.22. ~5.25.	중국	시진핑 면담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3차 핵실험 후 동북아 정세, 북·중 우호 관계 지속	양국 간 이견조율 시도
2013.6.18. ~6.22.	중국		김계관 외무상 부상	북·중 간 외교부문 전략대화	북한 비핵화 의지와 6자 회담 참가의사 피력
2013.7.2. ~7.3.	중국		김계관 외무상 부상	북·중 간 외교부문 전략대화	
2013.7.2. ~7.7.	중국		김성남 북한노동당국제부대표		
2013.7.26. ~7.28.	북한	리원차오 국가부주석	김정은 면담	한국전쟁 정전(停戰) 60년 기념행사 참여, 북·중 간 지도부 우호 관계 지속	시진핑의 구두전서 전달, 김정은 6자회담 지지 발언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2013.8.26. ~8.30.	북한	우다웨이 한반도 특별사무대표		6자회담 재개 모색	
2013.9.18.	중국		김계관, 리용호, 최선희	6자회담 1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북한은 조건 없는 대화재개 주장. 중국은 6자회담 재개 위한 중재 시도
2013.11.4. ~11.8.	북한	우다웨이 한반도 특별사무대표		6자회담 관련국과 북한 사이 이견 조율	북·중전략 소통 6자회담 재개 노력 다툼
2014.1.22.	평양 대동강 외교단 회관	류홍차이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김진범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조중친선협회〉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순철 문화성 부상	새해와 설 명절에 즈음하여 중국특명전권대사 친선모임 마련	
2014.2.17. ~2.20.	북한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	박의춘 북한 외무상	북·중관계 및 지역정세 논의, 6자회담 재개 공동노력	
2014.3.17. ~3.21.	북한	우다웨이 한반도 특별사무대표		6자회담 관련 북·중간 정책협의	
2014.9.3.	중국		최룡해	중국전승절기념행사 참석	
2015.3.31.	북한	리진천 신임주북 중국대사, 주북중국대사관 관계자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리길성 외무성 부상		
2015.10.9.	중국	리웬차오 국가 부주석	지재룡 주중북한 대사, 대사관 관계자	주중북한대사관이 개최한 조선노동당 건립 70주년 기념행사 참석	
2015.10.9.	북한	류원산 당 중앙정치국상무위원, 왕가서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 장압수 외교부 상무	김정은 노동당 1비서 외 김영남, 황병서, 박병주, 김기남, 김양건 등 당 핵심 간부	노동당 창건 70년 기념식 참여 및 시진핑 총서기 친서 전달	북·중관계 회복 시도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부 부장, 송타오 당 중앙외사판공실 상무부주임 등 중국 공산당 대표단			
2015.10.25.	북한	리리귀 중국민정부 부장 등 방북대표단, 주북 중국대사관 대리공사 등	양형섭 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당정군 고위급 인사들	중국 인민지원군 참전 65주년 행사 개최	
2015.12.7.	북경	송타오 중공중앙대외연락부 부장	지재룡 주중북한 대사	북·중관계 및 기타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	
2015.12.11.	북경	송타오 중공중앙대외연락부 부장	최취량 북한노동당중앙선전부제1부부장	중국에서의 공연을 위해 북한 모란봉악단을 이끌고 방중한 계기로 접견	
2016.2.2.~2.3.	북한	우대웨이 한반도 특별사무대표	리수용 외무상, 리용호 외무성 부상	미사일 발사자제 요청	
2016.5.16.	중국 주중 북한 대사관	왕자루이 전국정협 부주석		주중북한대사관 7차 당대회 경축 행사 참석	
2016.5.30.~6.2.	중국		리수용 부위원장	7차당대회 결과보고	
2016.5.31.	중국 북경	송타오 중공중앙대외연락부 부장	리수용 북한노동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부위원장, 국제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일행	북측, 7차 당대회 내용 중국 측에 통보, 양당 교류협력 강화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	
2016.6.1.	중국 북경	시진핑, 양제츠 국무위원	리수용 일행	김정성의 전언을 시진핑에게 전달 및 7차 북한노동당 당대회 관련 상황들 통보	
2016.9.6.~9.8.	중국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	5차 핵실험 통지(추정)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2016.9.8. ~9.9.	중국		김성남 당 국제부 부부장	5차 핵실험 통지(추정)	
2017.1.24.	북한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	리진진 북한 주재 중국 대사	김영대(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하국(보건상 겸 북중친선협회위원장), 이창근(당 국제부 부부장), 이길성(외무성 부상), 김인범(문화성 부상), 박경일(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심국룡(외교단사업총국 국장) 등		중국 춘제 리셉션
2017.3.1.	중국	왕이 외교부장, 류전민 부부장, 쿵쉬안유 부장조리	이길성 외무성부상 등 북한 외무성 대표단		김정남 사건 처리 조율

출처: 저자 작성.

2003~2008년 6년간 정치 및 외교 분야의 고위급 인사교류는 총 25회로 1년 평균 4.2회였다. 한편 2009년에서 2012년 총 4년간 정치 및 외교 분야의 고위급 인사교류는 총 14회로 1년 평균 3.5회였다. 그런데 2013년~2017년 6월 현재까지는 1년 평균 6회이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3차~5차에 걸친 핵실험이 있었던 ‘김정은-시진핑 시대’에 오히려 이전 시대보다 정치 및 외교 분야의 고위급 인사교류가 더 많았다. 시진핑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북한 정치외교 라인 고위급 인사들이 중국 인사들과 활발히 교류한 것이다. 위의 <표 II-6>에 기초하여 ‘김정은-시진핑’ 시대 정치외교 분야 주요 고위급 인사교류의 목적과 의미 및 특징 등을 살펴보자.

2013년의 경우,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후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서 채택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 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노선」 및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를 범·제도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북한은 물밑에서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또한 2013년 4월 미국 존 케리(John Kerry) 국무장관의 방중(訪中) 이후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핵문제 관련 외교적 노력을 본격화하였다. 그 결과 2013년 5월 22일~5월 25일간 김정은의 특사로 최룡해 당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 시진핑 주석을 면담한다. 이 면담에서 3차 핵실험 이후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중 우호관계를 복원하기로 한다. 이 고위급 인사교류는 양국 간에 동북아 정세 및 북핵 관련 다양한 이견을 조율하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2013년 6월 말과 7월 초 연이어 2번이나 북한의 김계관 외무상 부상이 중국을 방문하여 북·중 간 외교부문 전략대화를 진행하였다.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이때 북한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비핵화 및 6자회담 참가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6·28방침’ 등의 경제개혁적 조치에 대한 중국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이처럼 연이은 방중은 시진핑-김정은 간의 외무상급 전략대화라는 정치·외교적 의미가 있다. 7월 26일~7월 28일간에는 리웬차오(李源潮) 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을 면담하였다. 공식적인 목적은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양국 지도부의 우호관계 확인이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리웬차오 부주석이 시진핑 주석의 구두친서를 전달하여,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시진핑의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김정은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6자회담에 참여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8월 중국 측 우다웨이 한반도 특별사무대표가 북한

을 방문하여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하였다. 중국은 이를 통해서 비핵화 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9월 18일 북한 측의 김계관, 리용호, 최선희 외교라인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공식적인 방문 목적 및 의제는 ‘6자회담 1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의 참여였다. 이들의 방중을 통해서 북한은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주장하였고, 중국 측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재를 시도하였다. 11월 4일~11월 8일 간 중국 우다웨이 한반도 특별사무대표가 또다시 북한을 방문하여, 6자회담 관련국들과 북한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려 했다. 이 인사교류는 북·중 간 전략소통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으나, 중국 주도의 6자회담 재개 노력은 난항을 겪었다.

2014년 들어 주요 고위급 인사교류는 2월 17일~2월 20일간 중국 측 류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만난 것이다. 이때 공식적으로는 북·중관계 및 지역 정세에 대한 인식을 교환하였으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한편 그 이면의 주요 의제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 교류의 주요 의미와 특징은 양국 외무성 차원의 전략대화라는 점이다. 그리고 3월 17일~3월 21일간 중국 측 우다웨이 한반도 특별사무대표가 다시 북한을 방문하여 6자회담 관련 북·중 간 정책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2014년 3월 9일에 개최된 북한의 제13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 결과에 기초해 북한의 내부 상황 및 국내 정치를 중국 측에서 파악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당시 최고인민회의의 결과로 최룡해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되었고, 박봉주 총리 유임, 강석주 당 비서의 이동과 리수용 외무상 임명 등 인사에 변화가 있었다. 이후 한 동안 북·중관계는 소강상태에 머물다가, 9월 3일 북한 측 최룡해 국방위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전승절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관례와 달리 김정은이 아닌 최룡해가 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14년 7월 한중정상회담으로 인한 한·중관계의 강화가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

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최룡해의 방중은 별다른 성과나 논의 없는 행사 참석에 그쳤다. 북·중관계는 다시 소강상태에 접어든다.

2015년의 경우, 3월 중국 측 리진권(李進軍) 신임 주북 중국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들이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및 리길성 외무성 부상을 만났다. 그러나 긴장상태인 당시 북·중관계로 인해, 주북 중국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는 행사로 그쳤다. 그리고 10월 북한 측의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들이 중국 리웬차오 국가 부주석을 만났다. 이 고위급 교류 역시, 주중 북한대사관이 개최한 조선노동당 건립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이라는 관례적 교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2015년 10월 9일에는 중국 측의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왕가서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 장업수 외교부 상무부 부장, 쑹타오(宋濤)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상무부주임 등 중국 공산당 대표단이 대거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때 김정은 당시 노동당1비서, 김기남, 김양건 노동당중앙위원회 비서,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등 북한 최고위직들과 교류하였다. 주요 의제는 조선노동당 창설 70주년 기념식 참여 및 시진핑 총서기의 친서 전달이다. 이 교류는 북·중관계의 회복을 시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10월 25일 중국 측 리리귀(李立國) 중국 민정 부부장 등 방북 대표단이 주북 중국 대사관 대리공사 등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여,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의 당·정·군 지도자들을 만났다. 공식 의제는 중국인민지원군 참전 65주년 기념행사 참가였다. 이 교류의 주요 의미 및 특징은 소위, 북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대한 방문으로 전통우의 회복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였으며, “고위층의 정치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무역 등에서 실속 있는 협력 등을 추진하자”고 언급했다. 이 교류는 양국 간 고위급 전략대화의 격상을 시사한다. 12월에는,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가 쑹타오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 중앙 대외연락부 부장을 만나, 북·중관계 및 기타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

견을 교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북·중관계 개선을 위해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모란봉악단 중국 공연’의 중국 측 참석 범위를 논의한다. 뒤이어 최휘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 부부장이 북경을 방문하여 송타오 중공 중앙 대외연락부 부장을 만난다. 중국에서의 공연을 위해 북한 모란봉악단을 이끌고 방중한 계기로 접견한 것이다. 그러나 모란봉악단 공연 참석자의 급이 낮다는 문제 등으로 북한 측이 전격적인 공연단 철수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관계의 회복이 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6년에는 북한이 4차 핵실험(01.06.)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 이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자, 2월 2일~2월 3일간 중국 측 우다웨이 한반도 특별사무대표가 북한을 방문하여 리수용 외무상 및 리용호 외무성 부상을 만난다. 이때 중국 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제를 요청하였다. 5월 16일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왕자루이 전국정협 부주석과 주중 북한대사가 만난다. 공식적으로는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주최하는 북한의 7차 당대회 경축행사 참석 차원이지만, 북한 측에서 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을 중국 측에 설명해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5월 30일~6월 2일간, 북한의 제7차 당대회가 개최된 후 새로이 선임된 북한 측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국제외교담당)이 중국을 방문한다. 이 방문을 통해서 북한 측에서는 중국 측에 7차 당대회 결과를 공식적으로 설명해주면서 지지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여진다. 5월 31일 중국 측 송타오 중공 중앙 대외연락부장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위 부위원장, 국제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일행이 만난다. 그리고 다음날인 6월 1일 중국 북경에서 북·중 간 전략대화가 진행된다. 중국 측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함께 양제츠(楊潔篪) 국무위원(외교담당), 대외연락부 부장과 부부장인 송타오와 류홍차이(劉洪才), 외교부 부부장 류전민, 중앙판공청 상무부 주임 덩쉐상(丁薛祥) 등이 참석하였고, 북한 측에서는 노동당 국제부 부장인 리수용을 비롯하여 이재룡 주중대사 외에 당 국제부 부부장 리창근, 외무성 부상 리길성 등이

참석하였다. 리수용 일행은 이 교류를 통해서 김정은의 전언을 시진핑에게 전달하고 7차 당대회 관련 상황들을 통보한다. 이 고위급 대규모 인사 교류의 의미 및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양국 간의 당 대 당 외교 지속의 상징적 의미이다. 둘째, 2013년 최룡해 특사 이후 최고위급 인사 교류이다. 셋째, 시진핑 면담 성사 및 김정은 의사의 전달이다.

이어 북한 측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이 9월 6일~9월 8일간 중국을 방문하여 고위급 인사와 교류했는데, 당시 당월 9일 5차 핵실험을 미리 중국 측에 통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9월 8일~9월 9일 북한 측 김성남 당국제부 부부장 역시 중국을 방문하여 5차 핵실험을 통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인사교류 과정에서 5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자제 요청을 북한이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양국관계는 냉각상태로 접어든다.

2017년에 들어와서는 6월 현재까지 북·중 간 정치 및 외교 분야의 고위급 교류는 단 두 차례 있었다. 하나는 2017년 1월 24일 중국 춘제 리셉션으로,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때 북한 측의 김영대(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하국(북중친선협회위원장 겸 보건장), 이창근(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이길성(외무성 부상), 김인범(문화성 부상), 박경일(대외문화위 부위원장), 심국룡(외교단사업총국 국장) 등이 참석했다. 반면 중국 측에서는 리진권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참석했다. 다른 하나는 3월 1일 북한 측 이길성 외무성 부상 등이 외무성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한 것이다. 이때 북한 외무성 대표단은 중국 측 왕이 외교부장, 류전민 부부장, 쿵쉬안유(孔鉉佑) 부장조리를 만나 김정남 살인사건에 대한 북한 측 입장과 함께 그 처리문제를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2017년은 5차 핵실험(2016.09.) 및 연이은 미사일 발사, 그리고 9월 3일 6차 핵실험까지 이어지면서, 중국은 북핵문제를 자신들이 조율하여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이 중국경제 및 통상, 금융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북·중 간 고위급 교류는 소강상태에 도달하

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는 총 3건으로 이전보다 활발해진 정치외교 고위급 인사교류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등으로 인한 북·중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도별 실태, 양국의 방문 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을 포함한 인사교류 목적과 주요 의미 및 특징 등은 <표 II-7>에 정리하였다.

표 II-7 김정은-시진핑 시대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 2013~2017.6.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2013.5.25. ~5.27.	중국	판창룡	최룡해 총정치국장	친선, 정책협의	김정은 특사
2015.7.30.	평양	장핑 국방무관, 리진천 주북대사, 중국대사관 관계자	북한군 관계자	주북 중국대사관 건군절 리셉션 개최	
2015.9.2.	중국	시진핑 주석 등	최룡해 노동당 비서 등 대표단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행사 참가	

출처: 저자 작성.

위의 <표 II-7> ‘김정은-시진핑 시대’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를 살펴보면, 2013년에서 2017.6 현재까지 단 3차례에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교류는 2013년 5월 김정은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가 시진핑을 면담한 후 중국 군사 책임자 판창룡(範長龍)과 만난 것이다. 그 외 2건은 전통적이고 관례적인 군사 분야의 행사 참석이다.

다. 경제·사회문화 인사교류

이 시기 경제 분야 인사교류의 경우는, 이전 시대인 양국 정권 교체기에 비해 1/2 이하 수준으로 낮아졌다.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인 2003~2008년 6년간은 총 106회로 1년 평균 17.7회였다. 2009년에서 2012년 경제 분야 인사교류는 74회로 1년 평균 18.5회이다. 2013년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총 4.5년에 걸쳐 경제 분야 인사교류는 총 35회로 1년 평균 7.8회이다. 즉, 경제 분야 인사교류는 양국 정권 교체기에 가장 높은 양상을 보이다가, 김정은-시진핑 시대에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각종 대북제재와 맞물려 1/2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한편, 이 시기 경제 분야 인사교류 빈도와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이 있다. 본 연구 과정에서 정리한 2014년 5월까지의 경제교류 실태 DB에는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 '중조경제무역합작망'⁹⁾에서 밝힌 경제 분야 교류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4.06.~2017.06.까지의 경제 분야 인사교류 빈도의 경우에는 위 중국 사이트의 접속불가로 인해, 북한 『로동신문』 등에서 확인한 경제 분야 인사교류 외에 추가적인 경제 분야 인사교류 교차 확인 및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힌다. 따라서 대북제재 상황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북·중 간 경제 분야 인사교류와 관련한 사례들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 향후 후속연구 및 3차년도 연구 과정에서 교차 확인할 수 있는 보완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한계를 고려하여도 이 시기 경제 분야 인사교류가 전 시대에 비해 또한 여타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더 축소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연도별 실태, 양국의 방문 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을 포함한 인사교류 목적과 주요 의미 및 특징 등은 아래 <표 II-8>와 같다.

⁹⁾ 중조경제무역합작망, <<http://www.idprkorea.com>>.

표 II-8 김정은-시진핑 시대 경제 분야 인사교류: 2013~2017.6.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2013.1.9.	평양			북·중 경제·무역·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제7차 회의	
2013.5.13. ~5.16.	북한 평양	대북투자 중국 기업		제16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2013.8.19. ~8.23.	북한 라선	대북투자 중국 기업		제3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	
2013.9.5. ~9.13.	중국 심양	중국 지린성 교통청장 등	북한 육해운성 대외사업국장 등 대표단	북·중 국경하천운항 협조위원회 제51차 회의	국경하천 운항 관련 제반 운영문제 협의
2013.9.6. ~9.11.	장춘			제9차 중국 지린-동북아시아투자무역박람회	
2013.9.12.	북한 라선			중국 이차자동차(—汽車)와 라선개발구 정부, 투자의향서 서명식	라선에 자동차 제조 공장 건립 예정(중국사이트)
2013.9.23. ~9.26.	북한 평양	대북투자 중국 기업		제9차 평양추계국제상품전람회	
2013.10.10. ~10.14.	중국 단둥		홍길남(평북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단장 외 북한 대표단	제2회 북·중 경제·무역·문화·여행 박람회	
2013.10.14.	북한 평양	국가전력망 공사 부총경리 등 대표단	전기석탄공업성 부상등	북·중 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65차회의	압록강 수자원 공동 개발 및 운영문제 논의
2013.11.24.	북한 평양			북·중 경제와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0주년 기념 연회	
2014.1.16.	북한	대중화 국제투자 집단유한공사 주식과 일행, 주북 중국대사관 경제 무역참사 등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대중화국제투자그룹 유한공사 이사국 주식 일행 등 참석	북한 동평양지구 상업거리 착공식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2014.2.16.	중국 단둥			중국 측 단둥 국제상 회-북한 측 중국상 회 기업가 간 경제무 역교류 좌담회	
2014.4.	중국		리호선 당중앙위 원회 부부장 등 노동당 경제부문 일군 참관단	중국 경제현장 참관	
2014.4.24. ~8.7.	북한	철도협조기구위 원회 관계자	중국 철도대표단	철도협조기구 제29 차 총사장회의 참석	
2014.5.2.	북한 양각도 국제호 텔	리설적 부회장 등 조선경제개발협 회관계자, 경제전 문가들, 과학교육 기관 관계자 등	중국 특수경제지 대 전문가, 대사 관 관계자 등	조선경제개발협회 주 최 경제개발구 전문 가토론회 참석	특수 경제지대 개발과 관리운 영에 대한 상호 경험 교환 및 협의
2014.5.12. ~5.15.	평양	대북투자 중국 기업		제17회 평양 봄철국 제상품 전람회	
2014.5.13. ~5.19.	중국		북한 기상수문국 대표단		
2014.6.15.	중국 단둥			제3회 북·중 간 경제, 무역, 문화, 여행 박 람회 비망록 서명식	10.16.~10.20. 개최 합의
2014.6.27.	북한 평양	류홍차이 주북 중국대사 등	박명국 외무성 부상 등	「북·중 원정-권하 신 국경 대교 공동 건설· 관리·유지에 관한 협 정」 서명식	
2015.5.11.	북한 평양	중국 타이페이 회사 관계자, 중 국대표단, 대사 관 직원	로두철 내각부총리, 리롱남 대외경제상, 김인철 평양인민 위원회 부위원장, 경제무역부문 일군	제18차 평양 봄철국 제상품 전람회 참가	
2015.5.27.	평양 금강산	중국료녕북사달 집단 유한 공사 대표단, 중국 료 녕성호북상회 대표단, 료녕동	윤영석 원산-금 강산국제관광지 대 개발추진위원 회 위원장 외 추 진위원회 성원	2015년 원산-금강 산 국제관광지대 투 자 설명회 참가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북아경제문화촉진회 대표단, 중국홍콩글로벌실업투자집단유한공사 대표단 등			
2015.6.6.	북한 북중 우호 택암합작농장	리진진 주북 중국대사 외 대사관 직원들		북한 농장에 이양기 증정 및 비료와 모판 등 물자 지원 통한 농민지원 활동에 참가	
2015.8.20.~8.23.	북한 라선시	중국회사들		제5차 라선 국제상품전시회 출품	
2015.9.21.~9.24.	북한 3대혁명전시관	중국회사들		제11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	
2016.2.14.	북한	중국 단둥시 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 대표단			
2016.5.23.~5.26.	평양	중국 대표단		제19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참석	
2016.6.14.	평양	중국 민용항공국 대표단		국제민용항공기구 북아시아지역 운영 안전과 유용성 관한 협조·개발계획 제16차 조정위원회 회의 참석	
2016.8.8.	북한 라선			제6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	
2016.9.5.~9.8.	평양	중국 대표단		제12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 전람회	
2016.9.25.	평양 3대혁명 전시관	중국 국가보도출판 라디오 영화 TV방송중국 대표단 환경교육 보급 계획 집행국장 등		제10차 평양 국제과학기술 도서 전람회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2016.10.25.	북한 평양	류전민 부부장	외교부 박명국 외무성 부 상과 일행	북중 국경지역합동위 원회 제8차 회의 참석	새로운 국경다 리들 건설 및 새 국경 통과 지점들과 관련 된 문제 토의
2016.12.5.	북경		김영철 전력공업 성 1부상과 일행	북중 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68차 회의	
2016.12.16.	북한	표성룡 회장단 회장 등 중국 조 선족기업가협회 대표			
2017.5.13.	중국		김영재 대외경제 상 등 공화국 정 부 대표단	중국 <일대일로> 국 제협조에 관한 수뇌 자연단 참석	
2017.5.20.	평양	전람회 참가 중 국회사		제20차 평양 봄철국 제상품 전람회	

출처: 저자 작성.

위의 <표 II-8>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이 시기 경제 분야 인사이교류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경제교류는 6개이다.

첫째, 2013년 5월 13~5월 16일간 평양에서 개최된 대북투자 중국기
업 대상의 제16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이다. 이때 2013년 5월
북한 「경제특구법」 발표에 따른 중국 기업 대상 투자 유치작업을 성대히
거행했다.

둘째, 2014년 1월 16일 북한에서 진행된 경제교류 활동이다.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대중화 국제투자그룹 유한공사 이사국 주석
일행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대중화 국제투자집단 유한공사 주석
과 그 일행 및 주북 중국대사관 경제무역참사 등이 참석했다. 이 교류를
통해서 2013년 11월에 이루어진 북한의 특구 확대 조치에 대한 중국기
업의 투자 가능성이 타진된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2013년 위축되었

던 북·중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셋째, 2016년 2월 14일 중국 단둥시 조선족 경제문화교류협회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 것이다. 방문단은 1월 4차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가 채택할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에 대비하여 중국지역 조선족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것이다.

넷째, 2016년 6월 14일 평양에서 개최된 중국 민용항공국 대표단 방문이다. 이때 양국은 중국 칭다오, 지난, 타이위안 노선의 개설에 합의하였다.

다섯째, 2016년 12월 5일 북한 측 김영철 전력공업성 1부상과 그 일행들이 북경을 방문하였다. 공식 의제는 조중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68차 회의였다. 이때 압록강 수력발전소의 전력생산 문제가 조율되었다.

여섯째, 2016년 12월 16일 중국 측 표성룡 회장 등 중국 조선족 기업가협회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 것이다. 이들은 2016년 9월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에 대한 대비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 인사교류 역시 이전 시대에 비해 축소되었으나, 2003~2008년간인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로 북·중 교류가 지속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기관 간 교류 등은 지속되어, 이 시기 여타 분야에 비해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의 인사교류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2004년을 뺀 2003년 및 2005~2008년 5년간 1년 평균 35.4회의의 인사교류가 이루어졌다. 2009년에서 2012년 총 4년간 사회문화 분야 인사교류는 총 216회로 1년 평균 54회였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총 4.5년에 사회문화 분야 인사교류는 이전 시대에 비해 1/2 수준으로 낮아져 총 127회로 1년 평균 28회이다. 양국 정권 교체기에 사회문화 교류가 급등한 것에 비해 매우 낮고, 전체의 평균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분야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전통적인 사회문화 인사교류는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연도별 실태, 양국의 방문 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을 포함한 인사교류 목적과 주요 의미 및 특징 등은 ‘〈부록 5〉 김정은-시진핑 시대 사회문화 분야 인사교류: 2013~2017.6.’으로 정리된다. 이 시기 가장 의미가 있는 사회문화 분야 인사교류는 2016년 5월 29일 평양에서 개최된 친선 농구경기이다. 이때 중국 측에서는 중국올림픽 남자농구팀 등이 참여하였고 김정은이 관람하였다. 당시 경기는 북한 측 소백수 남자농구팀과 중국 측 중국올림픽 남자농구팀이 친선 경기를 펼쳤다. 이러한 교류의 의미는 소강상태에 빠진 북·중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김정은이 직접 관람하는 체육교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북·중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북·중 간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접경지역의 경제와 중국 측 조선족 및 북한 측 한족들의 교류이다. 이는 특히 대북제재 이후 북·중 간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인사교류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5. 소결: 남·북·중 협력에 주는 시사점과 전망

가. 인사교류 평가: ‘지속-변화’ 및 ‘촉진-억제’ 요인

각 리더십 변화 시기별 인사교류를 비교해 보면, 그 지속과 변화 양상을 통해서 변화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으며, 촉진요소와 억제요소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정치·외교 분야의 고위급 인사교류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김정일-후진타오 시대(2003~2008년) 6년간 정치 및 외교 분야의 고위급 인사교류는 총 25회로 1년 평균 4.2회였다. 한편 양국 정권 교체기

(2009~2012년) 총 4년간 정치 및 외교 분야의 고위급 인사교류는 총 14회로 1년 평균 3.5회였다. 그런데 김정은-시진핑 시대(2013~2017년 6월 현재)는 1년 평균 6회이다. 이를 종합하면, '김정은-시진핑 시대'에 이전 시기보다 오히려 정치 및 외교 분야의 고위급 인사교류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시진핑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북한 정치외교라인 고위급들이 이전보다 중국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중관계가 혈맹관계에서 정상국가 관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도,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면 될수록 여전히 이웃으로서 양측 고위급들이 나서서 다양한 국내외 사안을 교류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의 경우에는, 김정일-후진타오 시대(2003~2008년) 6년간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는 1년 평균 1.2회이고, 정권 교체기(2009~2012년) 동안에는 총 4년간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는 총 4회로 1년 평균 1회로 나타났으며, 김정은-시진핑 시대(2013~2017년 6월 현재)에는 총 4.5년에 걸쳐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는 총 3회로 1년 평균 0.7회이다. 종합하면, 최근 15년 동안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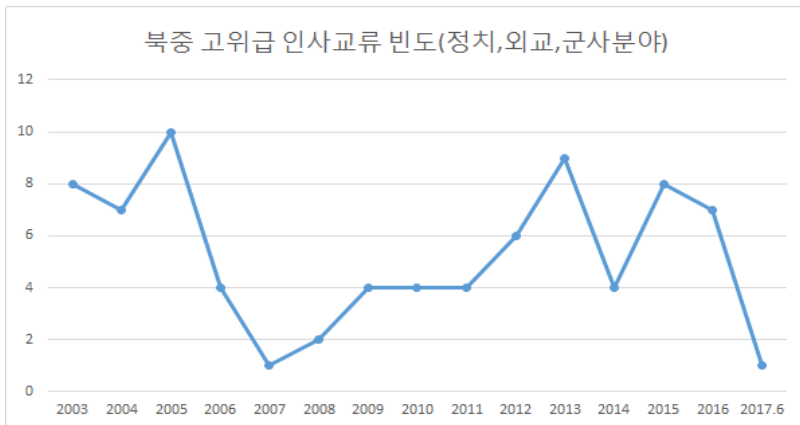
이러한 추세는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이 중국과의 군사 분야 교류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외교,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 추이를 각 연도별 도표로 정리하고 이를 그래프로 도형화하면 <표 II-9> 및 <그림 II-1>과 같다.

표 II-9 정치·외교·군사 분야 북·중 고위급 인사교류: 2003~2017.6.

연도	합계	정치외교	군사
2003	8	6	2
2004	7	6	1
2005	10	9	1
2006	4	3	1
2007	1	0	1
2008	2	1	1
2009	4	3	1
2010	4	3	1
2011	4	3	1
2012	6	5	1
2013	9	8	1
2014	4	4	0
2015	8	6	2
2016	7	7	0
2017.6	1	1	0

출처: 저자 작성.

그림 II-1 정치·외교·군사 분야 북·중 고위급 인사교류 추이: 2003~2017.6.



출처: 저자 작성.

경제 분야 인사교류의 경우에는, 김정일-후진타오 시대(2003~2008년) 6년간 총 106회로 1년 평균 17.7회였다. 정권 교체기(2009~2012년) 경제 분야 인사교류는 74회로 1년 평균 18.5회이다. 김정은-시진핑 시대(2013~2017.06. 현재)의 기간에는 총 4.5년에 걸쳐 총 35회로 1년 평균 7.8회이다. 종합하면 지난 15년 동안 경제 분야 인사교류는 양국의 정권 교체기에 가장 높은 양상을 보이다가, 김정은-시진핑 시대에는 북핵실험으로 인한 각종 대북제재와 맞물려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경제 분야에서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실험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던 것이 경제 분야의 교류를 억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경제 분야 인사교류 실태 자료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앞서 밝혔듯 본 연구 과정에서 정리한 2014년 5월까지의 경제교류 실태 DB에는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 ‘중조경제무역협작망’에서 밝힌 경제 분야 교류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2014.06.~2017.06.까지의 경제 분야 인사교류 빈도의 경우에는 위 중국 사이트의 접속불가로 인해, 북한의 『로동신문』과 중국의 『인민일보』에서 확인한 경제 분야 인사교류 외에 추가적인 경제 분야 인사교류에 대한 교차 확인 및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대북제재 상황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북·중 간 경제 분야 인사교류와 관련한 사례들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¹⁰⁾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도 김정은-시진핑 시기 동안 경제 분야의 인사교류가 이전 시대에 비해서도 그렇고,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에도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 분야 인사교류 추이를 각 연도별 도표로 정리하고 이를 그래프로 도형화하면 <표 II-10> 및 <그림 II-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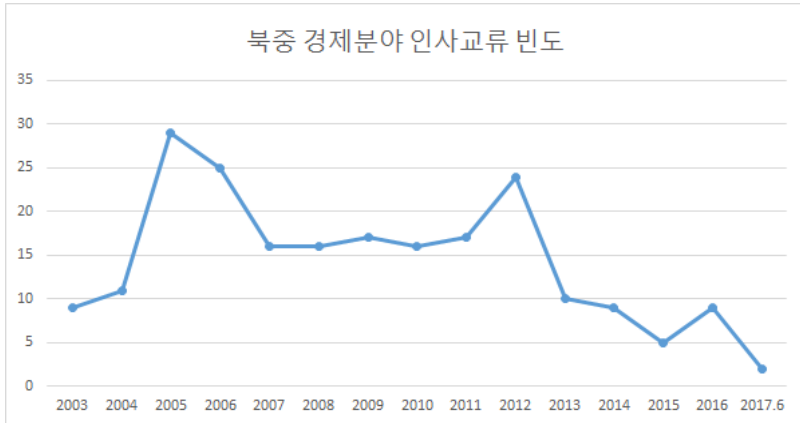
¹⁰⁾ 향후 후속연구 및 3차년도 연구 과정에서 교차 확인할 수 있는 보완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II-10 경제 분야 복·중 인사교류: 2003~2017.6.

연도	경제 분야 인사교류 빈도
2003	9
2004	11
2005	29
2006	25
2007	16
2008	16
2009	17
2010	16
2011	17
2012	24
2013	10
2014	9
2015	5
2016	9
2017.6	2

출처: 저자 작성.

그림 II-2 경제 분야 복·중 인사교류 추이: 2003~2017.6.



출처: 저자 작성.

※ 2014.6~2017.6까지의 경제교류 DB는 '중조경제무역협작망<www.idprkorea.com>' 접속불가로 로동신문 외 추가 교류 빈도 누락

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김정일-후진타오 시대(2003~2008년) 중 자료가 부적합한 2004년을 제외한 5년 동안 1년 평균 35.4회의 인사교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권 교체기(2009~2012년) 4년간 사회문화 분야 인사교류는 총 216회로 1년 평균 54회였다. 그런데 김정은-시진핑 시대(2013~2017.6. 현재)의 4.5년 동안에 사회문화 분야 인사교류는 이전 시대에 비해 1/2 수준으로 낮아져, 총 127회로 1년 평균 28회이다. 사회문화 분야 인사교류 추이를 각 연도별 도표로 정리하고 2005년 이후를 그래프로 도형화하면 <표 II-11> 및 <그림 II-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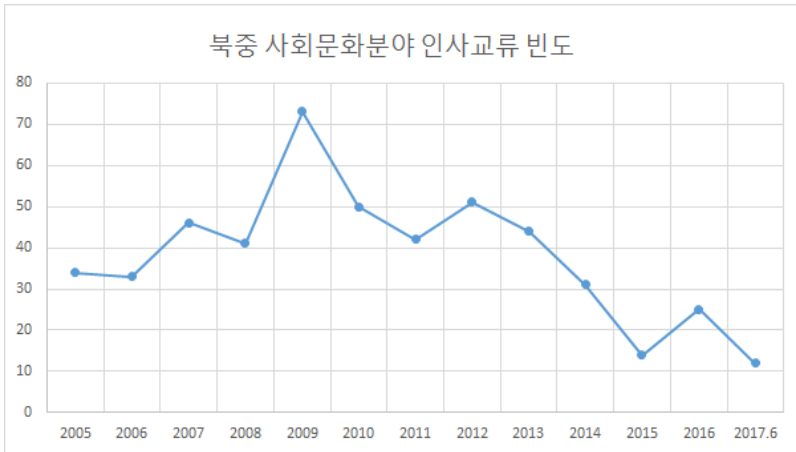
표 II-11 사회문화 분야 북·중 인사교류: 2003~2017.6.

연도	사회문화 분야 인사교류 빈도
2003	22
2004	제외 ¹¹⁾
2005	34
2006	33
2007	46
2008	41
2009	73
2010	50
2011	42
2012	51
2013	44
2014	31
2015	14
2016	25
2017.6	12

출처: 저자 작성.

¹¹⁾ 앞서 설명했듯이 사회문화 분야 인사교류의 경우 2004년의 자료가 부적합하다. 따라서 2004년의 경우 앞선 빈도분석의 1년 평균 추산시에도 제외했다. 그러므로 이 시기 사회문화 분야 인사교류 연도별 추이 도형화 그림은 2005~2017.6.까지를 다룬다. 이 역시 향후 추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II-3 사회문화 분야 북·중 인사교류 추이: 2005~2017.6.



출처: 저자 작성.

김정은-시진핑 시대 사회문화 분야의 인사교류는, 교류가 급등한 정권 교체기에 비해 매우 낮아졌고, 전체 수치를 비교할 경우에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후진타오 시대 사회문화 분야의 인사교류가 1년 평균이 35.4회인 점을 고려하면, 사회문화 인사교류는 정치상황에 덜 영향을 받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7년 말 현재 접근 가능한 북·중 인사교류 실태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기에 걸쳐, 인사교류의 분야별 순위는 사회문화 분야 → 경제 분야 → 정치외교 분야 → 군사 분야 인사교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지난 시기에 걸쳐서 상대적으로 지속성 있는 교류를 보여주었던 분야는 정치외교 고위급 인사교류 및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라고 할 수 있다.

정치외교 고위급 인사교류는 북·중 간 관계 변화, 즉, 혈맹 또는 정상국가 관계 여부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정학적인 중요성에 기초한 북·중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된 점을 무시할 수는 없

지만, 최근 세계화의 심화와 함께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국가 간의 갈등 관계가 북·중 간에 정치외교 분야에서 교류와 협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 분야 교류의 지속성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당(黨) 대 당(黨)’의 친선 및 우호의 정기적·비정기적 교류 외에 북·중 접경지역을 주목해야 한다. 북·중 접경지역의 중국 측 조선족과 북한 측 화교들의 혈연 및 비즈니스 등을 매개로 한 다양한 일상의 접촉과 교류들은 쉽게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북·중 인사교류의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을 살펴보자. 먼저 촉진요인으로 6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북한 측의 국제관계 활용 및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중국과의 교류협력 필요성이다. 둘째, 세계화와 함께 정치와 경제의 융합력이 높아지면서, 북·미 간 세계패권 경쟁과 함께 새롭게 대두한 국가이익에 따른 ‘한·미·일 협력 vs 북·중·러 협력 전선’의 작용이다. 대표적으로 이는 한국 내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으로도 드러나고 있다. 셋째, 중국 측의 동북아지역 패권 및 갈등 조율자로서 입지 강화의 필요성이다. 이는 중·일 간 갈등 및 중·러 간 갈등에 북한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 측의 중국과의 경제원조 및 경제협력의 필요성이다. 다섯째, 중국 측 지방정부 및 기업들의 광물 등 북한상품 수요와 저렴한 노동력 활용의 필요성이다. 여섯째,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사회문화 분야 인사교류의 지속 필요성 및 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과 화교들의 양국 교류협력 필요성이다.

억제요인으로는 크게 5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북한 측 내부 정치 정세의 불안정성이다. 둘째, 북한 측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 증대를 경계하는 심리이다. 셋째, 중국 측의 중화주의에 기초한 ‘북한 길들이기 행보’이다. 이와 연동되어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 사이에서도 최근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증대하고 있다. 넷째,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따른 중국 측 반복

(反北) 정서 및 한류 등에 영향을 받은 친한(親韓) 흐름의 증대이다. 특히 중국 신세대 엘리트들과 주민들 사이에 이러한 흐름이 고조되고 있다. 다섯째,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압박 및 대북제재이다. 특히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는 중국의 운신의 폭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이들 북·중 인사교류의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보면, 북·중관계가 심각한 수준까지 경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2017년 현재까지도 촉진요인이 억제요인보다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전략이 공고화되면, 북·중관계는 과거의 혈맹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중국 일부에서는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식 표명된 양국의 국가이익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대립적인 요소보다는 협력을 필요로 하는 촉진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남·북·중 협력 방향

북·중 인사교류 및 그 특징에 대한 분석 결과에 기반할 때, 향후 남·북·중 협력 방향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앞서 다룬 북·중 인사교류의 지속성 및 촉진요인과 연동된 남·북·중 협력방안이다. 즉, 지속성 및 촉진요인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남·북·중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북·중 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통적인 북·중 사회문화 분야 인사교류 네트워크를 활용한 남·북·중 협력이다.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양국의 노동당-공산당 및 당 산하기관인 각종 사회문화 단체들의 정기적이고 역사적인 인사교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더 중요하게는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양국 주민과 기업, 상인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남·북·중 협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셋째, 경제협력과 정치협력 사안의 분리 노력이다. 정치적 관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북·중 간 경제협력 사업에 한국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결합하여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이다. 우선적으로는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중 경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참여하거나, 중국 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에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넷째, 정치적인 판단을 증시하는 중앙정부보다는 경제적인 실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 및 개별 기업들을 활용한 남·북·중 협력이다. 특히 동북 3성 및 북·중 접경지역 기업가나 지방정부 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조선족 대북사업 기업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측 기업의 협력 사업 모색 등이다.

이러한 남·북·중 협력의 가능성은 단동지역 현지방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¹²⁾ 이 현지조사를 통해서 수렴된 남·북·중 협력 방향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재와 같은 강력한 대북제재와 남북관계의 경색 상황에서는 학술 쪽이나 역사문제 등과 같이 덜 민감한 학술·문화 분야에서 남·북·중 교류·협력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형태의 교류사업은 남·북·중 사이에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1990년도부터 북한 측과 사업하며 북한의 부부장급 이상의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중국의 사업가들은, 현재 북측은 남측이 경제적 지원을 논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올해 남측 민화협이 대북지원

¹²⁾ 이 방문조사를 통해 첫째, 대북제재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중국 단동 지역의 북·중 무역 실태 및 북·중관계 동향을 파악하였다. 둘째, 재중(在中) 북한 기업과 노동자 실태까지의 현장 정보를 수집하였다. 셋째, 단동 한인회 회장과 북한 화교출신 사업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재 북·중관계에 기반한 한국 문재인 정부에 제안하는 남·북·중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거절 이유도 자신(북측)을 경제적 지원이나 원하는 “거지 취급한다”며 자존심 상해했다고 한다. 따라서 향후 북·중 접경지역을 활용한 남·북·중 협력 모색과 관련하여, 모양새는 ‘민족대단결 등의 명분’을 강조하며 과학기술을 포함한 학술 분야의 교류를 우선적으로 제안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측은 남측과 달리 정경분리가 어렵다는 체제 내부적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명분 및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대한 민간 통로를 넓혀가며 교류와 협상의 접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측의 협상 창구와 관련하여 조평통 산하기구인 민경련의 활동 위상 및 김정은의 국가발전전략 등으로부터 ‘협력의 명분’을 찾고, 남·북·중 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류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중 접경지역에서 남북한 기업 간 교류를 현재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는 특히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남측 기업가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들은 북·중 무역에 대한 한국정부의 ‘불간섭주의’가 실현된다면, 기업과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중 협력은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내 중소기업의 경우도 생존율이 10~20% 수준인데, 정부의 ‘불간섭주의’가 실현되어도 북·중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생존율은 최소한 한국의 중소기업 생존율 수준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 향후 전망과 과제

□ 향후 전망

2017년 현재까지 김정은과 시진핑 모두 각 국가 내부에서 권력을 공고화하였다. 북한의 경우 2016년 노동당 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중국

의 경우 2017년 공산당 19차 전국대표회의를 기점으로, 양국 정상은 최고지도자로서 위상과 권력 강화를 국내외에 과시하였다. 지난 5년여간 두 정상은 모두 ‘자국의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북·중 간 ‘혈맹 vs 정상국가’ 관계 사이에서 협력과 견제정책 모두를 시도하였다. 향후 북·중관계는 양국의 국가이익이 상충하거나 일치하는 지점에서 ‘견제와 협력 전략’을 병행해서 수행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딜레마에 봉착할 것이며 새로운 북·중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기초로 향후 북·중관계를 전망하고 남·북·중 협력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본문에서 다른 북·중 인사교류 분석 결과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인사교류의 분야별 순위는 리더십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특징을 보였다. 즉, 인사교류의 빈도를 보면 사회문화 분야, 경제 분야, 정치외교 분야, 군사 분야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에도 정치외교 고위급 및 사회문화 분야 인사교류는 지속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제 분야 인사교류는 중국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단시일 내에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과 지역 간 비공식 중소 규모 거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혈족 관계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성 및 생존의 일상성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양국 리더십과 관련성이 높은 정치외교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의 경우에는, 북·중 간 협력촉진 요인이 견제/대립요인보다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시진핑 정권은 ‘중국의 꿈’ 실현에 북한이 방해가 된다면 좀 더 강한 대북제재를 시도할 것이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고도화’가 현실화되면 북·중관계는 과거의 혈맹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획기적인’ 형태로 북·중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현재까지 공식 표명한 국가이익을 기준으로 할 때, 협력을 필요로 하는 촉진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 북한 측

요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국과의 소통 통로로 기능하는 중국과의 교류협력 필요성이다. 북한은 묵시적 수준일지라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를 위한 대화 과정에서 중국의 중재자적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압박으로 야기될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 또는 암묵적 수준일지라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 측의 협력 유발 요인 역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세계화와 함께 정치와 경제의 융합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한 북·미 간 세계 패권경쟁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억제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동북아시아 패권 및 갈등 조율자’로서 중국의 입지 강화를 위한 북한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중·일 간 및 중·러 간 갈등 등에 대한 북한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협력촉진 요인은 북·중 접경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에서 비롯된다. 최소한 중국 측 지방정부 및 기업들의 북한산 제품에 대한 수요와 노동력 활용의 필요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접경지역 무역이 이루어진 지난 30년간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 작동 및 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과 화교들의 일상화된 교류협력 양태가 북·중 양국의 협력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단동지역을 중심으로 대북제재 후 북·중 무역 및 재중(在中) 북한 노동자와 기업 실태에 기반하여 접경지역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전망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북·중 무역에서 교역량의 70~80%를 소화하는 단동시는 북·중 무역의 거점이며 중심지이다. 북한 신의주와 인접하여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계약 대부분도 신의주와 단동을 경유해서 거래되고 있다. 단동지역 일대에서는 주로 민경련(북한에서 대남·해외동포와의 경제사업을 하는 기구,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의 약칭) 등록 공장과 연계해 북·중 합작으

로 의류를 생산하는 산업이 발달했다. 노동당 39호실 소속기관인 대성총국을 비롯해 각 권력기관의 외화벌이 회사들이 활동 중이다. 북한 측 무역일꾼들이 단동지역 사업가와 거래할 경우 민경련이 매개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중관계를 제약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대북제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2017년 9월 현재까지 실제 교역량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실행되면서 영향이 점차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량의 제한 및 수산물 수입 금지를 강화시키는 한편, 섬유류 수입 금지 및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재계약 금지까지 조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 및 무역업자들에게도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단동시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중 무역의 거점인 단동항은 북한이 수출하는 연간 13억 달러, 한국돈으로 약 1조 4,534억 원에 달하는 지하자원을 수입해 중국 내륙으로 유통시켰다. 그런데 중국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수산물뿐 아니라 이번에 섬유 수입까지 금지하면서 이미 단동항을 운영하는 단동항그룹의 채무불이행이 단동지역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단동지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우려가 중국 언론으로부터 보도되고 있다.¹³⁾ 대북제재 조치가 영향을 미치게 될 또 다른 부분은 재중(在中) 북한 노동자의 체류가 중단될 가능성이다. 북한지역에서 해외로 보낸 노동자 규모가 5만~1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단동지역에 1만 5천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길림성 내 훈춘지역에도 북한 노동자가 약

13) “中대북제재로 북중무역 쇠락→단동항그룹 디폴트→단동경제 위기,” 『연합뉴스』, 2017.11.14.

1만 명 수준이라고 한다. 송출된 북한 노동자들 중 다수가 공장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1년 비자로 나오는데, 이번 대북제재로 기간이 만료되면 2018년 귀국해야 할 상황이다.

□ 추진 과제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 및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기반하여 남·북·중 협력을 위한 3가지 추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단동 및 연길 지역을 거점으로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등 대북 영향력이 큰 동북3성을 중심으로 남측과 북측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동북3성 지역과의 정기적 교류 및 학술 분야나 과학기술 분야 등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는 분야를 시작으로 남·북·중 간 사회문화 분야 교류를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접촉들을 통해서 특별히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중 인사들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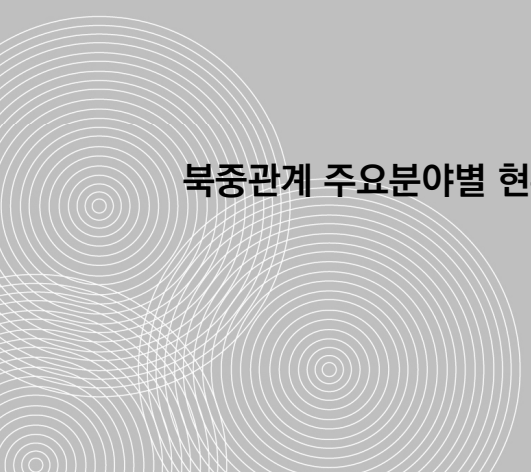
둘째, 실효성있고 지속가능한 남·북·중 협력을 활성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실태 파악 작업이 중요하다. 남·북·중 협력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 중에서도 협력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남·북·중 협력수요는 우리 사회의 수요와 중국 및 북한의 수요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수요들이 조율되고 적절한 수준에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중 교류협력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공식적인 자료 이외에도 관련 분야의 비공식적인 자료들도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남·북·중 협력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북·중 교류협력 기업 및 관계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북·중 접경지역에 남·북·중 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거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북제재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남북관계도 부침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남·북·중 3각협력을 위한 거점을 북·중 접경지역에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단둥시나 연변시에 남·북·중이 자유롭게 접촉하고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력센터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 시설을 통해서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며, 필요할 경우 북한 측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남북 간 소통 창구'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북·중 경제협력 실태 분석과 전망

홍순직(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1. 문제 제기

북한과 중국은 상호 유사한 정치·경제체제와 북한의 높은 대중국 경제 의존성, 지리적 인접성 등의 특수한 관계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양측 간의 리더십 변화와 인적교류 등은 경제협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장의 주요 연구목적 중의 하나는 북·중 간의 정치적 특수성이 경제협력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협력 추이 분석에 있어서 시기 구분은 앞서 제Ⅱ장에서 분석한 틀을 준용하여, 2003년 이후 2017년 현재까지를 3개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북·중 간 경제협력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선 김정일-후진타오 시대(2003~2008년)의 경우, 양국 간 경제협력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2004.04., 2006.01.)을 계기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 4월 김 위원장이 방중했던 당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정부는 중국 기업이 북측과 다양한 형태의 호혜협력을 행할 것을 적극 장려한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은 2005년 3월에 「투자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환경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제1,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양국관계는 다소 소원해지기도 하였으나, 무역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제2기인 양국의 정권 교체기(2009~2012년)의 경우, 북·중 경제협력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북·중 수교 60주년 기념 방북을 계기로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2009년 8월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9월 다이빙귀 국무위원, 10월 원자바오 총리, 2010년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 등 중국 고위층 인사의 방북이 이루어졌다. 더욱이 2009년은 중국이 동북 3성 개발을 국가적 산업으로 비준하여, 랴오닝과 지린성에 각종 SOC 현대화 및 연결 사업을 추진했던 시기이다. 북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세 차례나 중국을 방문(2010.05.03.~05.07., 08.26.~08.30., 2011.05.20.~05.27.)하여 양국 접경지역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등 북·중 경제협력 관계의 발전과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¹⁴⁾

제3기인 김정은-시진핑 시대(2013~현재)의 경우, 북한의 장성택 부위원장의 숙청(2013.12.)과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도발 등으로 북·중관계는 악화되었다. 북·중 경협을 총괄하던 장성택의 숙청으로 양국의 소통 채널 및 경협은 악화되었으며, 시진핑 주석은 종전의 전례를 깨고 2014년 7월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2015년 12월에는 북한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이 돌연 취소되었고, 북한의 4차 핵실험(2016.01.06.) 감행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북·중관계는 더욱 경색되었다. 특히 북한이 5차 핵실험(2016.09.09.)을 감행함으로써 북·중관계는 본격적인 냉각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중국은 지대륙 주중 북한 대사를 즉각 초치·항의하고 당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행위를 규탄하였으며,¹⁵⁾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보다 강도 높은 대북압박 조치를 단행하였다.¹⁶⁾

¹⁴⁾ 중국은 2010년 5월 ‘천안함 사건과 김정일 위원장 방중은 별개’라며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해 양국의 우호협력관계를 과시하고 5개항(고위층 교류 지속, 전략적 소통 강화, 경제무역협력 심화, 인문교류 확대, 국제·지역협력 강화)에 합의하였음. 8월 27일 창춘(長春)에서 거행된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고위층 교류의 지속적 유지와 경제무역협력의 추진, 전략적 소통의 강화 등을 건의하며 양국 관계의 강화를 과시하였음. 2011년 5월 김정일 위원장은 마지막 방중에서 고위층 교류 강화, 치당치국(治黨治國)의 경협 교류, 호혜협력 확대, 문화·교육·체육·청소년 교류 확대, 국제·지역문제 소통 강화·협조 유지 등 5개 항에 합의하고 후계체제에 대한 지원을 획득하고자 하였음. 이기현 외, 『한중 수교 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 분석과 평가』, pp. 32~33.

¹⁵⁾ 외교부 성명의 내용은 4차 핵실험 때와 대동소이하나, ‘북한의 안보리 관련 결의 준수’ 요구와 ‘국제사회와 함께’라는 표현이 새로 추가된 점이 주목됨. 이는 중국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합의된 규범을 중시하고 이를 통한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행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임.

¹⁶⁾ 중국은 북한의 주요 외화 획득원인 석탄에 대한 수출상한제(750만 톤 또는 약 4억 달러)

또한 2017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대북 원유공급 감축 등 강도 높은 유엔의 대북제재안에 찬성하였다.

결국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핵문제를 둘러싼 북·중 간 이견과 마찰(중국의 대북제재 강화와 이에 대한 북한의 불만)로 양국 간 정치·외교 관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와는 달리 원만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국면 속에서도 북한의 전략적 가치와 북·중관계를 고려하면서, 여전히 대화와 외교적 방법을 통한 북핵 해법을 주장하고 원유 공급 중단에 반대하면서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¹⁷⁾

다시 말해 중국은 그동안 강조해온 것처럼 대북제재와 압박 강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에 불과하다는 ‘제재 수단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중관계의 근본적 변화라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제기하는 ‘중국 책임론’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2017년 3월 2일 사설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을 결연히 이행하는 것과 별개로, 북한과 우호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¹⁸⁾

통상적으로 국가간 정치·외교적 관계 등은 경제관계에도 상당한 영향

를 포함하는 안보리 결의 2321호(2016.12.01. 채택)에 찬성한 데 이어, 상무부는 2017년 2월 18일 해관총서(관세청)와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2321호 결의와 중국 대외무역법 등에 근거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2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함.

¹⁷⁾ 중국은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과정에서 북한의 민생이나 인도주의를 위한 예외 조항을 반영하였음. 또한 시진핑 주석은 2016년 5월 북한의 7차 당대회 개최와 김정은의 당위원장 추대에 대한 축전에서 북·중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며 우호협력 관계의 발전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냄. 또한 사드를 둘러싼 한·미·일과 중·러의 인식 차이와 갈등을 핵문제로 소원해진 북·중관계의 긍정적 분위기 조성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¹⁸⁾ “리길성 만난 中 왕이… 경고 대신 “잘해보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3/2017030300246.html.> (검색일: 2017.06.08).

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북·중관계에서는 이들 상관관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실제로 북·중 간 경제협력은 상기의 양자 간의 정치·외교적 관계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다소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북·중 무역은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증가하여 2013년에 65.5억 달러로 최고점에 달했으며, 4~6차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 제재 속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2016년 북·중 무역도 2015년 57.1억 달러 대비 6.1% 증가한 60.5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북한무역의 대중 의존도는 92.5%(남북교역 포함할 경우 87.9%)에 달했다.

중국의 대북투자 역시 대체로 증가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 현황 및 특징과 함께, 인프라 투자와 경제특구 공동개발 등에 대한 북·중 간 경제협력 추이를 살펴본 후, 향후 남·북·중 협력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연구 방법은 기존의 관련 문헌 조사와 함께, KOTRA와 무역협회, 중국 상무부 등의 국내외 통계와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 시기는 제Ⅱ장 인사교류를 통한 북·중관계에서 구분한 3개 시기에 준해 경제협력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인프라 투자 등 시기별 분석은 자료 수집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북·중 무역의 10대 수출입 품목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북·중 무역 현황과 특징

가. 북·중 무역 개관

중국은 북한의 제1 무역 상대국으로 북한 전체무역의 약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절대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북·중 무역은 2000년 4.9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10.2억 달러, 2008년에는 27.9억 달러로 빠르게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68.6억 달러로 최고치에 달한 이후 소폭 감소하여

60억 달러 내외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지난 16년간(2000~2016년) 교역 규모는 12배 이상 늘어났고, 성장률은 연평균 약 17.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동 기간 동안 북한 전체무역의 연평균 증가율 7.3%를 2배 이상을 기록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로써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남북교역 제외)는 2000년 24.8%에서 2003년 42.8%, 2005년 52.7%, 2008년에는 73.0%로 증가하였다.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나 2010년에는 83.0%로 증가하였고, 2014년부터는 90%를 초과하여 2016년에는 92.5%에 이르렀다.

2016년에는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중 무역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2016년 북·중 무역은 2015년 대비 6.1%나 증가하였고, 2017년 상반기에도 6차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56호(2017.06.02.)와 2371호(2017.08.05.)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지만 전년 동기대비 0.8%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중국에 대해 약 10억 달러 내외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소폭이나마 점차 개선되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은 2010년 이전까지는 수출의 2배 이상을 기록했으나, 그 이후에는 약 1.3배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2010~2016년간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18.7%로, 이는 수입 증가율 8.9%의 2배 이상에 달할 만큼 높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의 적자는 2008년 12.8억 달러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16년에는 7.9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7년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수출이 24.3%나 감소한 8.4억 달러를 그쳤던 데 반해, 수입은 18.0% 늘어난 16.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로써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동기대비 2.8배 늘어난 8.1억 달러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표 III-1 북한의 대중 무역 추이

(단위: 100만 달러)

	2003	2008	2010	2012	2014	2015	2016	2017.上
수출입	1,022.9	2,787.3	3,465.7	6,012.5	6,864.0	5,710.4	6,056.4	2,501.0
- 수출	395.3	754.0	1,187.9	2,484.7	2,841.5	2,483.9	2,634.4	844.0
- 수입	627.6	203.3	2,277.8	3,527.8	4,022.5	3,226.5	3,422.0	1,656.0
무역 적자	232.3	1,279.2	1,089.9	1,043.1	1,181.0	742.6	787.6	812.0

자료: KOTRA, 『북한 대외무역 동향』, 각 연호; 박승혁, “2017년 상반기 북중 및 북러 교역 현황과 시사점,” 『TRADE BRIEF』, no. 25 (2017), <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_kita_navi.jsp?pageNum=1&nGubun=3&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7&rowCnt=20&search_word=&s_date1=&s_date2=&actionName=&sNo=1685> (검색일: 2017.08.28).

주: 2017년 상반기 통계는 한국무역협회 자료임.

나. 가공단계별 북·중 무역 추이

북·중 간 무역을 가공단계별로 살펴보면 북한이 중간재를 수입하여 최종재를 수출하는 임가공 무역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 가운데 최종재 비중은 2000년 14.7%에서 2015년에는 40.1%로 대폭 늘어난 반면, 중간재 비중은 동기간 중 47.4%에서 6.4%로 급감했다. 철광석과 무연탄 등 북한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재 비중은 여전히 절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종재 가운데서도 소비재 수출 비중이 최근에 크게 증가하였다. 북한의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3.0%에서 2015년에는 39.2%로 늘어났다. 여기에는 의류 등이 포함된 반내구성 소비재(BEC 코드 62)¹⁹⁾의 비중이 2005년 12.8%에서 2015년에는 27.9%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대중국 수입에서는 중간재(반제품)와 최종재 비중이 지속적으로

¹⁹⁾ BEC 코드는 유엔의 Broad Economic Categories의 약자로, 가공 단계를 3단계 및 5단계로 구분하면 원자재, 중간재(반제품, 부품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로 나누어짐.

늘어난 반면, 원자재 비중은 대폭 감소하였다. 수입품의 중간재 비중은 2005년 41.1%에서 2015년에는 51.3%로 약 10%p 증가하였고, 최종재도 34.0%에서 47.2%로 13.2%p나 늘어났다. 반면 원자재 비중은 24.8%에서 1.5%로 26.5%p나 대폭 감소하였다. 특히 2015년 현재, 10년 전인 2005년 대비하여 비중이 크게 확대된 품목은 최종재인 자본재(8.4%p, 운송장비 제외), 중간재인 반제품(7.0%p), 최종재인 소비재(4.8%p) 순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증가는 전기기기와 기계류 등에 의해, 반제품은 섬유 등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등에 힘입은 것이다.

그림 III-1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품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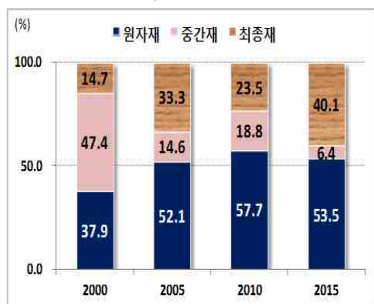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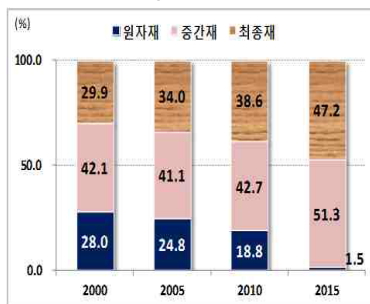


그림 III-2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입품 비중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000~2015년 북·중 교역 변화 분석”, 『현안과 과제』, 16~23호 (2016), pp. 5~6.

다. 대중국 10대 수출입 품목의 변화 추이

북·중 양국 간 주요 수출입 품목을 살펴보면, 대중국 수출에는 의류제품이 급부상하였고, 대중국 수입에서는 전기기기와 기계류, 차량 및 부속품 등 자본재의 비중이 증가했다.

북한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대중국 10대 수출품 비중은 2003년 49.0%에서 2008년에는 61.4%, 2012년에는 86.3%로 확대 추세에 있으며

2016년에는 89.7%로 늘었다. 이는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동 기간 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003년 42.8%에서 2008년 73.0%, 2012년에는 88.3%, 2016년에는 93.4%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광물성 연료와 광물유(HS 기준 27)가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의류 부문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고 어류와 철강, 나무·목탄 등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광산물(HS 기준 26~27)의 경우 2003년에는 8.2%에서 2008년에는 55.7%로 급증하였고, 2016년에는 53.7%에 달했다. 특히 철광석과 무연탄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광물성 연료와 광물유는 금액 측면에서 2016년에는 2003년 대비 68.6배 규모로 커졌다. 이는 동 기간 중의 대중 수출 증가 6.7배, 전체 수출액 증가 3.6배에 비교해서도 매우 빠른 신장세를 보인 것이다. 의류 부문의 수출도 크게 늘어났다. 의류제품(HS 기준 61~62)은 2003년 5,440만 달러에서 2016년에는 7억 2,340만 달러로 13.3배 규모로 급신장하였고 비중도 13.8%에서 27.4%로 늘어났다.

한편 2003년 수출 비중 52.3%로 1위를 차지했던 어류(HS 기준 03)는 2008년과 2012년에 한 자릿수 비중으로 5위로 하락하였고, 2016년에는 순위는 4위를 기록했으나 절대 금액 면에서는 13년 전과 비교하여 오히려 감소하였다. 또한 2003년과 2008년에 대중 수출 3위를 기록했던 철강(HS 기준 72)은 2012년과 2016년에는 각각 4위와 7위로 순위가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액 자체도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로써 철강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03년 11.8%에서 2016년에는 1.7%로 크게 줄었다. 광·슬랙 및 회(HS 26)는 금액 측면에서는 15배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비중은 2008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7년 상반기 들어 대중 수출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²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북한의 대중 수출은

²⁰⁾ 박승혁, “2017년 상반기 북중 및 북러 교역 현황과 시사점,” pp. 1~4.

전년 동기대비 24.3% 감소하였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북한의 대중 최대 수출품이자 대북제재 품목인 석탄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54.9% 감소한 2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대중국 광산물(HS 25~27) 수출은 36.8% 감소하였다. 이는 2017년 3월부터 중국의 대북 석탄 수입 금지 조치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북제재 품목인 철강과 철광석의 수출은 오히려 늘어났다. 철강은 전년 동기대비 181.8% 늘어난 2,4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철광석은 전년 동기대비 150%나 늘어난 8,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제품(HS 50~63)과 농산물(HS 06~14)의 수출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21.6%와 31.5% 감소하였다. 전기기기(HS 85)도 2015년 이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5,720만 달러에서 2016년 3,450만 달러로, 2017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34.2% 감소한 1,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에 수산·축산물(HS 01~05)의 수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산물 수출이 전년 대비 88.8% 증가함으로써 주요 수출 품목으로 부상하였다.

표 III-2 북한의 대중 10대 수출품목 및 수출액 변화

(단위: 100만 달러, %)

순위	2003년		2008년		2012년		2016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03 어류 등	206.9 (52.3)	26 광 슬랙 회	212.7 (28.2)	27 광물유 등	1,205.6 (48.5)	27 광물유 등	1,187.1 (45.1)
2	62 의류 2	52.2 (13.2)	27 광물유 등	207.6 (27.5)	62 의류 2	373.0 (15.0)	62 의류 2	611.5 (23.2)
3	72 철강	46.8 (11.8)	72 철강	78.4 (10.4)	26 광 슬랙 회	357.5 (14.4)	26 광 슬랙 회	225.4 (8.6)
4	27 광물유 등	17.3 (4.4)	62 의류 2	77.3 (10.3)	72 철강	124.6 (5.0)	03 어류 등	190.1 (7.2)
5	26 광 슬랙 회	15.0 (3.8)	03 어류 등	40.0 (5.3)	03 어류 등	100.5 (4.0)	61 의류 1	111.9 (4.2)

순위	2003년		2008년		2012년		2016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6	44 나무, 목탄	13.6 (3.4)	25 소금, 석회 등	19.3 (2.6)	61 의류 1	66.6 (2.7)	08 견과류 등	50.8 (1.9)
7	79 아연제품	13.5 (3.4)	98 기타교역	19.1 (2.5)	85 전기기기	43.5 (1.7)	72 철강	44.0 (1.7)
8	12 종자과실 등	7.8 (2.0)	76 알루미늄 제품	19.1 (2.5)	79 아연제품	40.5 (1.6)	79 아연제품	39.5 (1.5)
9	08 과실류	4.4 (1.1)	61 의류 1	10.4 (1.4)	25 소금, 석회 등	37.5 (1.5)	25 소금, 석회 등	34.8 (1.3)
10	50 견	2.9 (0.7)	85 전기기기	10.4 (1.4)	08 과실류	19.1 (0.8)	85 전기기기	34.5 (1.3)
소계	380.4 (96.2)		694.2 (92.1)		2,368.4 (95.3)		2,529.6 (96.0)	
합계	395.3 (100.0)		754.0 (100.0)		2,484.7 (100.0)		2,634.4 (100.0)	

자료: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서울: KOTRA)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재구성.

주: ① 품목의 수치는 HS 코드 2단위 분류 기준임.

② 의류 1은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의류 2는 이를 제외한 것임.

③ () 내는 북한의 대중 전체 수출액(합계) 대비 품목별 비중임.

④ 소계는 북한의 대중 10대 수출품의 합이며, 합계는 대중 전체 수출액임.

북한의 전체 수입액 가운데 대중국 10대 수입품 비중은 2003년 28.0%에서 2008년에는 47.0%로 크게 증가했지만, 최근 5년 동안에는 2012년 56.8%와 2016년 55.0%로 정체 혹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10대 수입품의 대중 총수입 대비 비중도 2003년 72.0%에서 2008년과 2012년에는 60%대로 하락하였고, 2016년에는 59.9%로 감소하였다. 금액으로도 10대 수출품은 지난 13년(2003~2016년) 동안 6.6배 규모로 증가한 데 비해 수입은 4.5배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00년 후반 이후 시장화 활성화에 따른 수입 품목의 다양화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동 기간 중 전체 수입에 대한 대중 수입 비중은 2003년 38.9%에서 2008년 75.7%, 2012년에는 89.7%, 2016년에는 91.8%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광물성 연료와 광물유(HS 27)가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기기와 기계류, 차량 및 부품 등의 자본재를 비롯하여 섬유류의 수입 비중이 꾸준히 늘어났다. 반면에 곡물(HS 10)은 2003년 8.0%에서 2008년에는 1.7%, 2012년에는 3.7%, 2016년에는 0.4%로 비중이 감소하였다.

표 III-3 북한의 대중 10대 수입품목 및 수입액 변화

(단위: 100만 달러, %)

순위	2003년		2008년		2012년		2016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27 광물유	180.7 (28.8)	27 광물유	586.0 (28.8)	27 광물유	790.0 (22.4)	27 광물유	371.6 (10.9)
2	02 식용육류	63.6 (10.1)	84 기계류	145.5 (7.2)	84 기계류	292.7 (8.3)	85 전기기기	315.5 (9.2)
3	10 곡물	50.0 (8.0)	85 전기기기	100.6 (5.0)	85 전기기기	266.9 (7.6)	84 기계류	268.6 (7.8)
4	85 전기기기	39.6 (6.3)	61 의류 1	86.9 (4.3)	87 차량, 부품	232.7 (6.6)	87 차량, 부품	254.8 (7.4)
5	84 기계류	27.0 (4.3)	39 플라스틱	80.0 (3.9)	39 플라스틱	131.4 (3.7)	39 플라스틱	204.5 (6.0)
6	39 플라스틱	24.6 (3.9)	87 차량, 부품	67.3 (3.3)	10 곡물	129.9 (3.7)	54 인조섬유1	187.0 (5.5)
7	72 철강	20.8 (3.3)	54 인조섬유1	55.0 (2.7)	54 인조섬유1	129.0 (3.7)	61 의류 1	134.8 (3.9)
8	03 어류 등	16.8 (2.3)	72 철강	48.3 (2.4)	40 고무 및 그 제품	91.3 (2.6)	72 철강	115.3 (3.4)
9	54 인조섬유1	14.6 (2.3)	62 의류 2	46.5 (2.3)	55 인조섬유2	86.2 (2.4)	08 견과류 등	99.6 (2.9)

순위	2003년		2008년		2012년		2016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0	31 비료	14.3 (2.3)	15 동식물성 유지	45.5 (2.2)	72 철강	82.2 (2.3)	15 동식물성 유지	99.5 (2.9)
소계	451.9 (72.0)		1,261.6 (62.0)		2,232.3 (63.3)		2,051.2 (59.9)	
합계	627.6 (100.0)		2,033.2 (100.0)		3,527.8 (100.0)		3,422.0 (100.0)	

자료: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재구성.

주: ① 품목의 수치는 HS 코드 2단위 분류 기준임.

② 의류 1은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의류 2는 이를 제외한 것임.

③ 인조섬유 1은 인조필라멘트 섬유, 인조섬유 2는 인조스테이플 섬유임.

④ () 내는 북한의 대중 전체 수입액(합계) 대비 품목별 비중임.

⑤ 소계는 북한의 대중 10대 수출품의 합이며, 합계는 대중 전체 수출액임.

전기기기(HS 85)의 경우 2003년에는 6.7%에서 2016년에는 9.2%로 비중이 증가하였고, 금액도 동 기간 중 대중 수입 증가 5.5배보다 많은 8.0배 규모로 늘어났다. 인조섬유류(HS 54~55)는 2003년 3.5%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7.5%를 차지했으며, 금액으로는 동 기간에 2,183만 달러에서 2억 5,823만 달러로 11.8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는 10대 수출품과 대중 수입의 증가폭 각각 4.5배, 5.5배를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차량 및 부품(HS 87)은 2003년 864만 달러에서 2016년에는 2억 5,480만 달러로 29.5배 수준으로 급증하였으며, 비중도 동 기간 중에 1.4%에서 2016년에는 7.4%로 늘어났다.

2017년 상반기 들어 대중 수입실적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비제재 품목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석유 제품과 화학·플라스틱 제품, 전기전자 제품, 수산물 등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북한의 대중 수입은 오히려 전년 동기대비 18.0%나 늘어난 16억 5,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석유 제품(HS 50~63) 수입은 항공유를 비롯해 전년 동기대비 38.4% 늘어난 4억 1,689만 달러를 기록

했고, 전기전자 제품(HS 85)은 휴대전화가 92.8%나 증가하였으며, 수산·축산물의 경우 냉동어류 등 수산물이 101.2%나 늘어났다. 반면에 광산물(HS 25~27)과 농산물(HS 06~14)은 각각 22.8%, 44.2% 감소하였다.

3.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 현황과 특징 개관

가. 중국의 대북투자 규모 추이

중국의 대북투자(유량 flow)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기복을 보이면서 201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였다. 연도별 대북투자(flow)는 2004년을 기점으로 대체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약 4,100만 달러로 파악되고 있다. 투자 규모는 많게는 수천만~1억 달러, 적게는 천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크지는 않으며, 2012년에는 1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2014년 중국의 대북투자는 5,194만 달러로, 이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FDI) 1,231억 달러의 0.04%에 불과하다(2015년 4,100만 달러는 총 해외직접투자 1,457.0억 달러의 0.03% 수준). 이는 중국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인 미얀마,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의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대북 직접투자 잔액(저량 또는 누적투자 stock)은 2004년 약 2,000만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에는 6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꾸준한 직접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성택 부위원장의 처형 등으로 북·중관계가 소원해짐에 따라 연도별 대북투자 규모는 감소하였다. 다만 대북 직접투자 건수(승인 기준)는 2006년 31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주춤하였으나,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28건, 2014년 상반기에만 19건으로 다시

확대 추세에 있다.²¹⁾ 3차 핵실험 이후에도 대북투자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비준이 계속된 점으로 보아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중국의 대북투자)은 핵실험을 둘러싼 북·중 양국의 정치적 불편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4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대북 직접투자 추이

(단위: 만 달러)

		2003	2004	2006	2008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FDI	(Flow/ 천만달러)	285	550	2,116	5,591	6,881	8,780	10,784	12,310	14,567	19,615
대북	Flow	112	1,413	1,106	4,123	1,214	10,946	8,620	5,194	4,121	2,844
FDI	Stock	117	2,174	4,555	11,863	24,010	42,236	58,551	61,157	62,500	67,915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國家外匯管理局, 『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北京: 中國統計出版社, 2017); KIEP 북경사무소,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전망,”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제18권 3호 (2015), p. 8.

표 III-5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승인 기준)

(단위: 건)

연도	2003	2004	2006	2008	2010	2011	2013	2014 (1~6)
비준	1	2	31	5	16	22	28	19

자료: 중국 상무부, 『대북 FDI 리스트』.

²¹⁾ 2013년 12월에서 2015년 8월 기간 약 17개의 중국 기업이 정부의 비준을 받았음. 배종렬·윤승현, 『김립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자를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229.

나. 중국의 대북투자 현황

북·중 당국 간 경제협력 사업은 2010년 한국정부의 「5·24 조치」로 남북경협이 위축된 이후 더욱 긴밀해졌다. 중국은 「동북진흥계획」에 따라 낙후 지역인 동북3성지역에 대한 개발전략을 수립하면서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북한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외부에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외 경제정책을 변화시켰으며 대중국 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였다.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 방북 시 북·중 양국은 신압록강대교 신설, 훈춘-나진 연결도로 건설, 나진항 부두 개발 등 다양한 경제협력에 합의하였다. 또한 201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두 차례 방중 및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 회담을 바탕으로 양국은 12월에 북한 나선지역과 황금평·위화도를 경제 특구로 공동개발·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북·중의 황금평·위화도와 나선지역 공동개발은 정치적 요인보다는 양국의 경제적 수요와 필요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2009년 「랴오닝연해지대발전계획(遼寧沿海經濟帶發展規劃)」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해 압록강 하구의 일교양도(一橋兩島) 건설을 추진하였다. 또한 중국의 「창지투(長吉圖) 개발개방선도구 개발계획」에서는 북한 북동부 나선지역의 항구를 이용한 동해로의 진출을 중요한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중 압록강 하구 접경 지역의 경제협력 사업의 핵심은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황금평·위화도 특구의 공동개발이다. 신압록강대교는 2009년 원자바오 총리 방북 시 건설에 합의하고 2010년 「압록강 국경다리 공동 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후 공사에 착공해 2014년에 완공했으나 북한 측 연결도로 건설 지연으로 아직도 미개통 상황이다. 황금평·위화도 특구의 개발은 2012년 9월 황금평·위화도 관리위원회 청사 착공식 거행 후 사무소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친중·개혁 성향의 장성택

부위원장 처형 이후 황금평 개발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북·중 두만강 하구 접경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협력 사업은 도로, 항만 등 양국을 연계하는 운송 인프라 구축과 나선지대 공동개발이다. 인프라 구축 관련 취안허-원정 국경다리 공사(2010.06.01. 개통)와 나선-원정도로 현대화 사업(2012.10.10. 준공)은 지린(吉林)성의 자금 지원으로 완료되었다. 나선항 개발과 관련해 중국은 2009년 10월 나선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획득한 후 2014년에 북한과 나선항 2호 부두 사용에 합의하였다.²²⁾

그러나 나선지대 개발 관련해서 북·중이 합의한 주요 프로젝트들은 장성택 부위원장 숙청 이후 추진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다.²³⁾ 2011년 6월 9일 북·중은 나선지대 개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착공식과 출범식을 진행하였다.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인 대북 송전사업(훈춘에서 나선특구까지 66kv의 송전선로 97.8km 설치 및 나선시에 변전소 건설)은 훈춘 대당(大唐) 화력발전소 제3기 확장공정이 비준·완공되었으나 대북제재로 대북 송전은 지연되고 있다. 나선특구에는 2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이 중 80%가 외자기업(대부분 중국 기업)이나 전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²⁴⁾ 전반적으로 나선특구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식당, 노래방, 물류업 등 서비스 업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다.

북한은 1차(2013.11.)와 2차(2014.07.) 등 두 차례에 걸쳐 19개에 달

²²⁾ 중국은 2014년 8월 18일 북한과 「개조이용 라진항 1호 부두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개조 기간 동안 나선항 2호 부두 4, 5선석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 훈춘(琿春)시 항무국의 2015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나선항 1호 부두 1기 공정에 3,000만 위안(기계 설비 2,000만 위안, 야적정평지 강화공사 1,000만 위안), 2기 공정에 1.14억 위안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최수영, “대북 제재 하 북중 경제 협력의 현황과 특징. 시사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주최 제15회 남북경협포럼 발표논문집, 2017.03.17.), p. 18.

²³⁾ 이종립, “중국의 대북투자 리스크와 대응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제15권 2호 (2013), p. 82.

²⁴⁾ 립금숙, “대북제재가 북중 경협에 미치는 영향,” 『수은북한경제』, 겨울호 (2016), p. 13.

하는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였으며, 이 중 접경지역 일부 개발구를 중국 지방 정부와 상호 협력을 통해서 개발하기로 한 바 있으나, 대북제재가 가중되고 있어서 실제 추진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경제 개발협회는 투먼(圖們)시와 온성섬관광개발구 개발 협의서를 체결(2013.12.)하였고, 룡징(龍井)시는 2014년 봄 정부 대표단을 북한의 어랑농업개발구에 파견하여, 상호 협력을 기획 및 협의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양강도 삼지연군에 2015년 무봉국제관광특구를 설립하여(2015.04.) 허룽(和龍)시와 공동개발에 합의한 후 광동성 썩룬투자회사를 유치해 9월부터 백두산 관광을 개시하였으나 관광특구지대를 건설하는 계획에는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⁵⁾ 단동시는 북·중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호시무역구(2015.08. 개장)를 건설한 후 가공무역구로 운영에 주력하고 있으나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다. 중국의 대북투자 목적과 유형

중국의 대북투자는 중국의 대외 진출, 지역 개발, 자원 확보, 대북지원 등 정치·경제적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⁶⁾

먼저 대외진출전략 측면에서 중국정부는 ‘저우추취’(走出去, ‘go abroad’ policy 혹은 ‘going out’ policy) 전략²⁷⁾의 일환으로 개발도

²⁵⁾ 위의 글, p. 16.

²⁶⁾ 최수영, “중국의 대북투자 실태 분석,” 이석 편, 『북중 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 pp. 324~332. 한편, 배종렬은 중국의 대북투자 유형과 배경을 ① 출해구 확보형 투자 ② 경제무역구 건설형 투자 ③ 자원 개발형 투자 ④ 분업 기지 구축형 투자 ⑤ 노동력 확보형 투자 ⑥ 내수시장 진출형 투자 ⑦ 전문지식 활용형 투자 등 7 가지로 구분하였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종렬·윤승현, “대북투자 유형별 실태와 주요 투자 사례,” 『김립성의 대북 경제 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pp. 35~225.

²⁷⁾ ‘저우추취 전략’이란 비교우위를 확보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장려하고 국제적인 경제기술 합작 분야를 확대, 해외에서의 자원 개발 지원 확대 및 R&D 기관의 설립 장려 등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최수영, “중국의 대북투자 실태 분석,” pp. 324~332.

상국에 우선 투자를 장려하였고, 대북투자도 여기에 해당한다. 중국은 20여 년에 걸친 개혁·개방 성과를 통해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산업 구조조정과 국내 기술 및 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저우추취 전략을 2001년 제10차 5개년계획에 포함시켰다. 또한, 이 전략을 2002년부터 실행하기 시작함으로써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해외직접투자는 대외진출 전략 초기인 2003년 29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559억 달러, 2014년에는 1,231억 달러, 2015년에는 1,457억 달러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지역개발 측면에서는 중국의 지역개발 전략인 동북진흥계획과 맞물려 북·중 접경지역 연계 개발을 위한 인프라 건설 등의 대북투자가 확대되었다. 동북진흥계획은 2002년 후진타오 체제가 출범하면서 동북지역의 노후화된 공업기지를 새롭게 정비·발전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동북지역 경제의 체제개혁 및 산업 발전을 국가 주요 발전전략으로 설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동북3성(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진흥계획은 2003년에 중점과제 100개를 발표하고 2004년부터 본격 추진되었다. 이러한 동북진흥계획의 추진으로 동북3성은 2000년대 중반부터 전국 평균을 웃도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²⁸⁾ 북한과 국경을 접해있는 랴오닝성과 지린성은 북한과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중국 국무원 상무위는 2009년 7월에 랴오닝성 정부의 ‘5점1선 계획’을 국가 프로젝트인 「랴오닝연해경제지대발전계획」으로 격상·승인하였고, 2009년 8월 30일에는 「중국두만강지역합작개발계획강요-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를 국가전략으로 인준하였다. 창지투선도구 구상으로 2005년부터 북한과 추진해온 랴오닝성의 ‘훈춘-라선 도로·항만·구

²⁸⁾ 동북진흥계획 실시 후 10년간(2003~2012년) 동북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2.6%로 전국 평균 10.5%보다 약 2% 포인트가량 높았음. 김부용·임민경, “중국의 동북진흥 전략 10년 평가와 전망,” 『KIEP 중국성별동향 브리핑』, 제4권 7호 (2013), p. 10.

역 일체화' 프로젝트는 더욱 탄력을 받았으며, 두만강유역의 북·중 접경 지역 연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자원확보 측면에서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와 2000년대 초반의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전략물자인 원자재 및 에너지 확보를 목적으로 광업 분야에 대한 대북투자를 추진하였다. 북한은 중국과의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 고립과 인프라 부족, 풍부한 지하자원 보유, 자본 빈곤 등의 특수성을 갖고 있어 오히려 중국 기업들에 대북 자원개발 투자의 기회를 독점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중국은 에너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09년에는 석탄 수출국에서 석탄 수입국으로 전환되면서, 매장량이 풍부한 북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대북지원 측면에서 중국은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체제의 존속과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2009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김영일 총리의 방중과 이에 대한 답방 형식의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등으로 양국관계가 급속하게 회복되었고, 이에 따라 양국은 다양한 경협 사업에 합의하였다. 북한은 중국 중심의 외자유치 정책을 통해 라선시와 신의주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하였고(2010.01.04.) 나진항 부두 사용권을 중국에 제공하였으며,²⁹⁾ 김정은 체제 들어서 새로운 외자 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중국의 자본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종합하면, 중국의 대북투자는 대외진출과 지역개발 차원에서의 동북 공정계획과 동해 출로 모색, 그리고 자원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지정학적으로는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랴오닝성과 지린성 지역

²⁹⁾ 다렌창리그룹은 2009년 10월에 북한 나진항 1호 부두 개발권을 획득하여 부두의 독점적 이용 대가로 훈춘~나진항 간 도로 93km 건설을 추진해왔음. 이를 통해, 중국은 이를 통해 동북3성 물류를 태평양으로 운송할 수 있는 동해 출로권을 확보하였으며, 청지투 개발선도구 계획과 연계하여 북·중 접경 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음.

을 중심으로, 산업부문에서는 광물자원과 건설·SOC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중국의 대북 합작투자 성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지역적으로는 1997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설립된 138개의 북·중 합영회사 중 랴오닝성이 34%, 지린성이 29%로 전체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리적 인접성과 함께,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 100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중 무역의 약 70~80%가 랴오닝성의 단동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도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이후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는 나선지역이 부상함에 따라 지린성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대되었다.³⁰⁾ 이외 지역으로는 베이징이 8%, 산둥성 7%, 톈진 4%, 허베이성 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2003~2011년 기간 중 중국의 대북 합작투자 금액이 확인된 회사 총 84개 기업 중 36개 회사가 광업부문으로 42.9%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식품·농업부문이 10개사로 11.9%, 화물이 8개사로 9.5%를 차지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실제 투자금액 총 17.6억 달러 가운데 광업이 13.3억 달러로 75.3%를 차지하였고, 화물(운송)부문이 2.5억 달러로 14.2%를 차지했다는 점이다.³¹⁾ 그 다음 분야로는 화학으로 7,492만 달러로 4.2%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분야는 모두 투자 규모가 작아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³⁰⁾ 배중렬·윤승현,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pp. 20~26; 배중렬, 『길림성의 대북투자: 현황과 유형』, 『KDI 북한경제리뷰』, 제18권 5호 (2016), pp. 52~55.

³¹⁾ Open Source Center, "North Korea-Characteristics of Joint Ventures with Foreign Partners, 2004~2011," (Open Source Center, Washington D.C., 1 March 2012).

4. 중국의 대북 인프라 개발 실태

북·중 경제협력은 여러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광물자원과 제조업 및 유통업 부문 등에 대한 중국의 대북투자 실태는 대체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중국의 대북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개발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인프라 개발은 양측 모두의 이해와 관심이 존재한다. 실제로 최근에는 중국정부가 신압록강 대교 등 북·중 접경지역 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 중국은 「동북3성 진흥계획」 추진과정에서 북·중 접경 지역의 일구양도(一區兩島, 나선특구와 황금평, 위화도) 개발계획과 연계하는 형태로 대북 SOC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대북 접경지역 교통인프라 개발에 대한 관심은 동북3성 진흥개발과 대북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6월 중국 국무원 판공청 명의로 발표된 문건 36호 「동북지역 노후 공업기지의 대외 개방 확대 실시에 관한 의견」은 동북진흥과 관련된 29개항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중 제24항에서, 동북지역의 항구와 접경항, 도로, 철도, 교량 및 접경지역에 대한 기초시설 투자에 총력을 기울이고, 동북 동부의 동벤다오 철도 개통을 서두를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북·중 및 중·러로 연결되는 도로와 항만, 산업지구 조성의 일체화 건설에 총력을 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외원조 시 동북지역의 변경 세관과 연계되는 교통, 항만, 공항 등 기초 인프라 건설 항목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고 밝혀 북한에 대한 인프라 지원 의지를 명기하였다.³²⁾ 이에 따라 중국 길림성의 「창지투 개방선도구 개발계획」에 따른 나진항, 청진항 등을 통한 동해출로의 확보, 요녕성 연해경제개발구 개

³²⁾ 중국 국무원이 2005년 6월 20일에 발표한 '동북 노공업기지의 대외 개방 확대 실시에 관한 의견' 제24조항에 명기되어 있음. 조명철 외, "최근 두만강지역 개발 동향과 정책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9권 36호 (2009), p. 4.

발과 신압록강대교, 신의주-평양 간 고속도로 건설, 황금평 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북 SOC 투자가 진행되어 왔다.

또한 중국정부가 금융위기에 따른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하면서 2009년 7월 국무원이 승인한 「동북3성 노후기지 진흥에 관한 추가계획」에는 동북3성에 대한 인프라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대련을 중심으로 좌우 해안도시를 묶는 ‘랴오닝 연해경제벨트’와 창춘, 지린, 투먼을 잇는 ‘창지투 개발선도구’ 프로젝트를 국가사업으로 격상시키고, 압록강변 단동에서 길림성 통화를 잇는 ‘통-단 경제벨트’와 훈춘을 거점으로 두만강 유역을 ‘동북아물류벨트’로 개발·연계하여 광역 ‘동북경제권’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두만강 하구와 인접한 나진항은 중국에게 동북3성이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경제전략적 요충지이다. 중국은 북한의 나진항을 다른 나라의 항구를 빌려 태평양으로 진출하고자 한 차항출해(借港出海)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은 나진항의 이용권 확보 및 개발, 훈춘-나진-상하이 해상항로 개통, 투먼-남양-청진항 항로 개척 등을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2009년 11월 중국 국무원이 정식으로 비준·추진 중인 「두만강지역합작개발전망계획」(소위 ‘창지투 개발개발선도구 개발계획’)과 깊은 관련이 있다.

창지투 개발계획은 지린성의 창춘-지린-투먼을 하나로 묶고 북한과 러시아, 몽골과의 국경지역을 경제특구(경제합작구, 수출가공구, 수출입자원가공구, 변경무역지구 등)로 지정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³³⁾ 실제로 창지투 개발계획 100개 중점 프로젝트 가운데 북한 관련 대외통로 부문의 철도, 고속도로에 대한 투자계획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 2010년 위화도·황금평 경제지대 및 나선경제무역지대 등 접

33) 김영윤, “북한 교통 인프라 개발과 남북한 연결,” 『KDB 북한개발』, 통권 9호 (2016), pp. 14~18.

경지역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SOC 개발협력도 추진되고 있다.

표 III-6 창지투 개발 개방선도구 발전 계획

		주요 내용
대상 지역		창춘시, 지린성 일부, 연변조선족자치주 등 7.3만 km ² (창춘~지린~투먼을 잇는 중국 동북지역 신경제벨트)
발전 목표	1단계 (~2010년)	훈춘~투먼 고속도로 등 기반 조성 작업, GDP 4,800억 위안
	2단계 (~2012년)	북한과 러시아의 항구 인프라 건설 중·몽 대통로 건설, GDP 7,200억 위안
	3단계 (~2015년)	창·지·투 국제산업협력단지 조성 몽골~일본을 잇는 운송 루트 건설, GDP 1조 1,200억 위안
	4단계 (~2020년)	경쟁 우위 산업체계 형성 동북 지역 성장 동력화, GDP 1조 9,000억 위안

자료: 김영운, “북한 교통 인프라 개발과 남북한 연결,” p. 16.

중국은 북·중 간 국경을 넘는 교통·운송 프로젝트 합작건설을 필두로 동북지구에 동부변경철로와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점차 동북지구에 새로운 국제통로를 만든다는 구상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창지투개발선도구가 동북아시아의 핵심물류기지가 되기 위한 관건은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뱃길 확보 여부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통해 북한을 강하게 설득한 바 있다. 이에 북한도 중국에 대한 나진항 개방으로 화답하였다. 중국은 2028년까지 나진항 1호 부두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여 자신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설비 건설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III-7 북·중 접경지역의 교통인프라 개발 현황

구분	주요 내용
다리	- 신압록강대교(2010년): 단동~신의주 구간 건설 - 신두만강대교(2014년): 훈춘~원정리 두만강 대교 보수공사
도로	- 바다오(八道)~싼허(三合)~청진 고속도로(2015년): 47km, 총 28억 위안의 고속도로 신설 논의 중, 룡징시 싘하~회령 일대를 국제경제협력구 개발 추진 - 훈춘(琿春)~취안허(圈河)~라진 고속도로(2015년): 취안하~선봉~나진항 구간 39km 공사 / 총 23억 위안 투자 계획 - 허룽(和龍)~난핑(南坪)~청진(2015년): 50km로 30억 위안
철도	- 허룽(和龍)~난핑(南坪)~무산(2015년): 53.3km의 총 16억 위안 투자 계획 - 투먼(圖們)~남양~두만강~햇산(2020년): 126km의 총 24.3억 위안 투자 계획 - 투먼(圖們)~청진(2020년) 철도 합작 개조: 171.1km의 총 20억 위안 투입으로 노후 철도 보수 (2010년 상반기 착수) - 투먼(圖們)~라진(2020년): 158.8km, 총 12.7억 위안 투자 계획 - 카이산툰(開山屯)~삼봉(2020년)
항만	- 나진항(2009년): 나진항 제1부두의 2~3호 정박지를 보수·확장, 제4~5호 신축 - 청진항(2012년)

자료: 吉林省人民政府, <<http://jilin.gov.cn>>와 국내 보도자료 등을 보완.

주: ()는 개발 개시 연도를 의미. 단, 도로와 철도는 건설 시한을 표시.

5. 북·중 경제특구 공동개발 현황: 황금평과 나선특구 등

중국과 국경이 접해있는 자본 빈국의 북한으로서는 경제개발을 위한 외자유치 및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중요한 경험 파트너 중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서 경제특구(특수경제지대)와 경제개발구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가장 먼저 개방되었고, 수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신의주와 황금평·위화도, 나선·선봉³⁴⁾의 3개 경제특구와 함께, 압록강경제개발구와 청수관광개발구, 만포경제개발구, 위원공업개발구, 혜산경제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 등 6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가 있다. 그러나 실제 개발이 진행되

34) 북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지역별로 북·중접경권, 서해권, 동해권으로 구분할 경우, 나선·선봉경제특구를 동해권으로 분류하는 전문가들도 다수 있음.

있거나 진행 중인 곳은 경제특구 3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신의주경제특구(국제경제지대)

신의주국제경제지대는 김정일 위원장이 2002년 9월 특별포고령을 통해 특별행정구로 일방적으로 지정하였다가, 초대 행정장관에 임명된 네덜란드의 양빈 구아(歐亞)그룹 회장이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특구 개발의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중단되었다.³⁵⁾ 당초 신의주특별행정구 개발계획은 이 지역을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오락·관광지구로 개발할 예정이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2013년 11월에 13개의 경제개발구를 발표하면서 중앙급의 신의주특수경제지대로 발표되었고, 2014년 7월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신의주국제경제지대로 새롭게 부활하였다. 신의주국제경제지대 투자안내서에 따르면 약 38km² 면적에 35만 명이 거주할 수 있으며, 커다란 경제 규모와 특징을 가진 최신 정보기술산업구, 경쟁력 있는 생산산업구, 물류구역, 무역 및 금융산업구역, 공공봉사구역, 관광구역, 보세항구 등이 집중 배치되는 종합적인 경제특구로,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다시 말해 북·중 친선다리와 북·중 압록강 다리, 신의주항 등을 통한 보세가공무역, 중계무역, 봉사무역, 물자유통과 상업, 유가증권, 주식거래를 비롯한 금융서비스 등의 물류, 무역 및 금융산업을 중점 개발하는 계획이다. 특히 평북 철산군과 염주군

³⁵⁾ 중국의 주류지 총리는 다음 몇 가지 이유를 들면서 신의주 특구 개발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오히려 남북군사경계선상에 공업단지 설치를 권유했다고 한다. 첫째, 북중 접경 지역의 민감성이라는 지정학적 특성, 둘째, 신의주에 산업 간접 시설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북한 내부로의 파급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 셋째, 중국 기업의 투자만이 아니라 한국, 일본 등의 관계국 기업의 투자가 어려운 지역이라는 점, 넷째, 국경 지역에 마약, 도박, 자금 세탁, 위폐, 매춘 등이 범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다. 정은이, “접경지역 단동에 대한 현지조사,” 『KDI 북한경제리뷰』, 제15권 4호 (2013), pp. 73~74.

해안지역에 국제비행장과 국제항구를 건설하여 이 지대를 세계적인 물류 중심으로 만들 구상을 갖고 있었다. 이를 위해 신의주 지대와 남신의주를 연결하는 도로를 도시 기본간선으로, 개발지역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도로를 보조간선으로, 그리고 남신의주를 포함하는 순환선 도로를 개발할 계획이었으며, 이 도로는 향후 위화도·황금평경제개발구와 임도관광개발구와 건설될 국제비행장, 국제항구와도 연결될 계획이었다.

나. 황금평·위화도경제특구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와 나선국제경제지대의 공동개발은 2010년 12월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상무부 간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서 시작되었다. 2011년 5월에는 「나선과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총계획 요강」을 발표하였다. 양측이 확정된 공동개발 요강에 따르면 황금평경제지대는 위화도를 포함하여 16km², 약 500만 평에 상업센터와 정보산업, 관광문화사업, 현대시설 농업, 가공업 등 4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황금평과 신의주를 잇는 여객·화물부도가 건설되고, 황금평 지역 내에는 그물망 도로가 개설될 뿐만 아니라 단동신개발구와 연결되는 2개의 출입통로도 건설되며, 단동의 전력 이용을 위해 송전선을 연결하고 이동통신망 및 인터넷망도 건설할 계획이었다.

이후 2011년 6월 8일에는 황금평 경제특구 착공식에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수영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중국의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등이 참석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2011년 12월에는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이 제정되었으며 중국이 향후 50년간 토지를 장기 임대 형태로 개발하고 북한 노동자 10만 명을 고용하여, 중국과 홍콩, 타이완의 대기업 및 한·중 합작회사 등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는 중국과 개

발합작을 주도했던 장성택의 처형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의 영향 등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황금평·위화도 개발과 연계해 추진되던 신압록강대교는 중국에 의해 완공되었지만 북측지역의 도로와 연결되지 않고 있어 아직 개통되지 못하고 있다.

신압록강 대교는 2010년 12월에 착공된 지 4년 만인 2014년 10월 말에 완공되었으나 2017년 말 현재 개통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이 대교의 총공사비는 20억 위안(약 3,800억 원)으로 중국 측이 모두 부담했으며, 길이 3,026m, 왕복 4차로의 사장교로 북·중 경협이 상징물이 될 것으로 꼽혀왔었다. 이 다리와 함께 남신의주로 연결되는 배후도로도 건설할 계획이었다. 한편 북한이 신압록강대교 착공 이후 북·중 간 연결 지점에 세관, 검역, 출입국 관리 등의 통관 시설의 건설·운영과 접속도로 건설에 참여할 해외투자자를 찾지 못해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III-8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개요

구분		주요 내용
개발 목표	중점 항목	- 신의주, 단동과의 연계 특성을 발휘하여 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농업, 가공업 발전
	발전 목표	- '1중심 4단지'의 지식밀집형 신흥경제구역으로 건설
산업 배치	상업 센터	- 단기: 북중 공동시장 - 장기: 쇼핑, 휴식, 사무, 전람, 금융봉사 등이 결합된 첨단 상업센터 건설
	정보 산업	- 단동시와 연계, 소프트웨어 주문 서비스
	관광문화 산업	- 아리랑 등 문화공연, 만화, 영화음악, 공예품, 회화, 관광기념품 판매
	현대시설 농업	- 우량품종 육종, 관개시설 정비, 태양에너지, 온실·채소·화초 생산기지 및 농업기술 연구교류센터 건립
	피복 가공업	- 피복공장을 유치하여 주문 생산, 장기적으로는 자체 피복 상표 개발

구분		주요 내용
S O C	항구	- 황금평, 신의주 사이의 여객 및 화물부두 건설, 단동 대동항 이용
	도로	- 그물망 형식의 도로 건설, 단동과 2개 추입도로 건설
	기타	- 단동공항 이용, 단동에서 전력공급, 오수처리시설·인터넷망·통신망 건설

자료: 민족 21, 『라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총계획 요강』 (2011.07.).

다. 나진·선봉경제특구

나선국제경제지대의 개발은 황금평경제지대와 함께 ‘싱가포르’식 복합경제특구(물류, 관광, 산업, 도시) 개발모델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단기적 차원에서는 특수공업지대를, 장기적으로는 국제관광지역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북·중 공동개발 요강에 따르면 단기적인 목표는 나선국제경제지대 470km²에 6대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선진 제조기지로 조성하고 항만 및 인프라 건설을 통해 동북아시아 국제물류중심, 지역관광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6대산업은 원자재공업(원유, 화학, 야금, 건재 등)과 장비공업(조선, 배 수리, 자동차 등), 첨단기술산업(컴퓨터, 통신설비, 가정용 전기제품), 경공업(농수산물 가공, 일용 소비품, 피복), 서비스업(창고 보관, 물류, 관광), 현대첨단농업(신품종, 신장비, 생산체계 시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과 공동으로 나선경제무역지대에 나진·선봉-웅상-굴포로 이어지는 연해산업벨트를 조성하고 10개 공업단지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0개 공업단지는 나진지역에 창고보관·물류, 장비제조, 첨단기술, 피복 및 식품가공 등 4개 단지, 선봉지역에는 원자재공업, 방직·피복, 장비제조업, 농수산물 가공 등 4개 단지, 그리고 웅상지역에는 종합목재가공단지, 굴포지역에는 현대적 고효율 농업시범단지를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은 10개 공업단지에 육·해상 교통로, 전력 공급, 통신망 등

SOC 시설도 함께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교통로는 ‘1중추, 3방향, 5통로’의 개방된 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표 III-9 북한의 나진항 시설별 투자개발 계획

구분	주요 내용
기존시설 개선	- 1호 부두(2, 3호 정박지) 정비: 컨테이너(30만 톤/연), 하역설비(100만 톤/연) - 2호 부두(5, 7호 정박지) 정비: 컨테이너, 하역설비 - 3호 부두를 석탄 전용부두화 - 여객선 계유인벽 정비: 124m 수리 - 선박수리 도크 확충: 2만 톤급 → 5만 톤급
신부두 건설	- 4호 부두: 컨테이너 전용(80만 TEU), 통과 능력 620만 톤/연 - 5호 부두: 통과 능력 400만 톤/연 - 6호 부두: 여객 전용부두, 여객 110만 명 통과(왕복)

자료: 서종원, “북한 라선지역 개발이 동북아 교통물류체계에 미치는 영향,” 『KDI 북한 경제리뷰』, 제4권 5호 (2012), p. 92.

장기적으로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과 연계하여, 연변-나선-청진-금강산-블라디보스톡-속초-부산-니가타·삿보르를 연결하는 국제관광지대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나선경제무역지대의 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과 협력하여 원정리-웅상-선봉-나진 간 도로, 나진-원정리, 나진-청진 및 나진·두만강 간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철도의 경우에는 나진-선봉-남양 간 철로 개보수, 훈춘-훈룡 철도 건설 등의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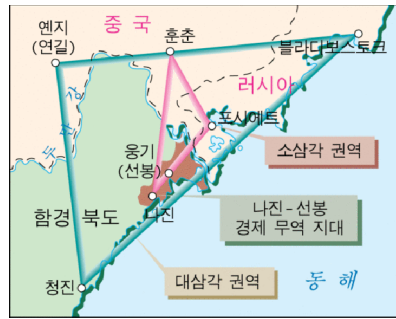
그러나 북·중 간 접경지역 공동개발 착공식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 없이 물류중계 수송업, 가공업, 관광업 위주의 소수 사업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그동안 나진항 1호부두의 개보수 및 물류 수송을 위해 3,000만 위안을 투자하여 150만 톤의 하역능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1년 중 일곱 차례에 걸쳐 지린성 석탄 10만 톤을 남방으로 수송한 바 있다. 그 밖에도 2010년 6월에 원정교 개보수를 완료하여 40톤 트럭의 통과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14년 9월에는 권하세

관과 북한의 원정리를 연결하는 신두만강대교의 건설을 시작하여 2016년 10월 말에 개통하였다. 이 다리는 길이 549m에 폭 23m로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되었다.

그림 Ⅲ-3 동북진흥계획과 나선항 개발



그림 Ⅲ-4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자료: <<http://blog.naver.com/tnstn96/8001966347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39038>.

6. 향후 전망과 남·북·중 협력방안

가. 향후 북·중 경제협력 전망: 촉진 및 억제요인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국제사회는 매년 새로운 한단계 더 강도 높은 수준의 대북제재를 북한에 가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제재 내용은 군수품과 사치품 위주에서 점차 일상적인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5차 핵실험 이후에는 대북제재 결의 2321호(2016.11.30.)를 통해 석탄 수출 상한제 적용과 민생용 예외 조치 불허조치로 바뀌었고, 2017년 8월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서는 석탄과 철, 철광석 수출 전면금지와 납, 납광석 등의 광산물 수출대상 확대 및 해산물 수출 금지, 해외노동자 신규 채용금지,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등이 포함되었다. 6차

핵실험에 대한 결의 제2375호를 통해서도 석유 및 석유정제품 공급 제한³⁶⁾ 설정과 북한산 석유제품 수입 금지 등을 채택하였다. 마침내 북한정권의 생명줄이라고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는 무관하게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 제재가 강화될수록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무연탄과 철광석 등 제재 대상 품목의 수출은 줄어드는 대신에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의 수출은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 비제재 대상이었던 철광석 등의 수출로 우회하고, 철광석 수입을 금지하면 석유류 수출 확대로 주력 상품을 전환하였다. 북·중 경협은 품목 다각화를 통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결의 2375호의 대북 원유수출 금지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 수정 과정에서 ‘전면적 금수’에서 ‘제한적 금수’로 약화되었고, 김정은 위원장 개인에 대한 제재는 제외되었다.

향후 북·중 경협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향후 전망을 북·중 경제협력의 촉진 및 억제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촉진요인을 북한 측 입장에서 살펴보면 첫째, 중국과의 경제협력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북한에 중국은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투자국이며, 경제 지원국으로서 북·중 간 경제협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더욱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³⁶⁾ 석유는 지난 12개월 기준의 현 수출량(약 400만 배럴 추정) 유지이며 석유 정제품은 연간 200만 배럴(약 25만 톤)이다. 그러나 AP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북한의 유류 수입 통계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양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제재가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 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중국 해관은 2014년부터 대북 원유 수출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이 더욱 절실할 뿐만 아니라,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의 특징인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에서의 외자유치를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둘째,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북한 내 시장화가 확산되고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밀무역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당국과 주민들의 중국산 제품의 수요는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북한 내 장마당(종합시장)은 450여 개가 넘고, 일반 주민들의 장마당에서의 경제활동 참여가 가구를 기준으로 약 70~8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의 주민 생활 유지와 사회체제 관리를 위해 북한당국으로서도 중국산 제품의 장마당 거래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정책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해온 국가이다. 이는 중국이 6·25전쟁 때부터 항미원조국(抗美援朝國)으로 혈맹관계를 유지해온 최대·최후의 후원국이란 점에서 입증된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양국 간 경제협력을 지속하고자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촉진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경제적으로 북한의 노동력과 원자재, 저가의 북한 상품 등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북·중 경제협력은 유지될 것이다. 특히 접경지역의 중국 지방정부나 기업들의 북한 노동력과 지하자원 등의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내 조선족이나 화교들의 소규모 경제협력은 다소의 영향은 받겠지만, 이들의 교류활동이 민생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에 큰 영향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 부담이기도 하지만, 변함없는 전략적 자산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북·중관계에 대해 ‘순망치한(唇亡齒寒)’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 구도로 볼 때, 중국에 있어서 북한은 전략적 완충지대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나진항부두 선점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은 차항출해(借港出海) 전략을 통해 러시아의 동진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비경제적 관점에서도 북·중 경협은 충분한 매력 존재한다. 이외에도 50여 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이로 인한 중국으로의 대량 탈북사태 등은 중국 내부의 또 다른 불안요인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어, 이의 안정적인 관리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북·중 경협의 억제요인도 동시에 존재한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가 가장 큰 요인이다. 우선,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한 교역 품목과 규모의 제한은 북·중 경협을 위축시킬 것이다.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출 제한, 북한 노동자의 신규 송출 중단,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 수출 전면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2017년 들어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재의 기간이 길어지고 강도가 강화될수록 효과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대중 수출 제한과 각종 외화벌이 감소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예컨대 해외 파견근로자 5~10만 명으로부터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 수입만 해도 1인당 300~400달러/월일 경우, 연간 약 1.8~4.8억 달러 감소가 예상된다.

셋째,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중국이 G2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하며, 중국 내부적으로도 신세대 엘리트들의 '무조건적 북·중 동맹 거부 요구'를 무시할 수만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중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발사로 중국의 6자회담 의장국의 역할과 체면이 무색하게 되었다. 이는 특히 중국의 대북투자나 지원성 사업부문에 대한 경협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촉진요인 및 제약요인을 종합하면, 북·중 경협 전망에 대해서

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대체로 단기적으로는 급속히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그동안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발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는 동참했지만, 북한의 체제 불안이나 강한 반발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순망치한의 북·중관계로 인해 중국은 북한을 고사시키는 수준에서의 압박에는 반대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북·중 무역의 대부분이 접경지역인 동북3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의 주체인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북한 화교나 중국 조선족, 중국에 연고를 둔 북한주민 등 연고자 중심이라 통제가 쉽지 않다는 점도 북·중 경협을 단기간 내에 급감시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에는 무역과 투자의 주체가 점차 ‘북한당국과 중국 기업’에서 ‘양측의 기업’으로 바뀌고 있는 점도 그러하다.

그러나 제재의 강도가 계속 강화되고, 제재가 지속되면 결국 북·중 경협도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하다. 최근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 등에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섬유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에 들어 대북제재 품목에 대해서는 북·중 간 경제협력이 축소되어 왔으며, 미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을 계속 압박하여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북핵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중국에 대해 압박조치의 일환으로 「통상법 301조」에 서명했다. 이른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북한을 통제하겠다는 ‘이중제북(以中制北)’ 전술이다.

나. 남·북·중 협력방안

북·중 경제협력은 오랜 기간 동안 대체로 정치·외교적 관계와는 거의 무관하게 진행되어 왔었다. 다시 말해 중국의 대북투자나 무역은 자원 확보나 동북3성 지역의 지역 개발, 그리고 이 지역 지방정부의 자원이나 SOC 개발 수요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대북제재가 진행되던 2016년까지만 해도 대체로 적용되어 왔었다. 특히 남북 간의 교역이 정체·중단된 2000년대 중반 이후 북·중 경험은 확대되어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2016년 92.5%(남북교역 제외)로 절대적 수준에 달함으로써 이를 방증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범위가 보다 확대·구체화되고 감시도 강화되고 지속됨에 따라 북·중 경제협력도 2017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북·중 경제협력의 감소는 남·북·중 경험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로 인해 남·북·중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협력의 큰 방향은 우선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하거나 한·중 간 양자 협력방안을 먼저 모색한 후, 여건이 마련되면 남·북·중 다자 협력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 상황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한·중 경제협력이나 중국 현지 법인을 통한 남·북·중 합영·합작 기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성공단 중단 이후 해외 생산기지를 모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체 생산지로 활용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또한 나진·하산 프로젝트³⁷⁾의 재추진을 검토해볼 만하다. 이 사업은 비록 남·북·러 사업이기는 하나, 훈춘 복합물류기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

³⁷⁾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남·북·러 물류 협력사업으로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연결하는 54km의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3호부두 현대화, 나선특구의 개발·운영권 보유(2008년 이후 49년간), 그리고 화물터미널 건설과 화물열차 확보를 통해 나진항 해운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육로를 연계하는 유라시아 복합물류 운송 사업임. 2008년에 러시아(70%, 자본·설비 투자)와 북한 나선시(30%, 토지 등 현물투자)가 공동 개발 키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국내 3개사(현대상선·코레일·포스코)가 러시아 철도공사 지분(총 70%)의 49%를 매입함으로써 러시아(35.7%)-한국컨소시엄(34.3%)-북한(30%)으로 구성되어 있음. 총사업비는 3.6억 달러이며, 3차례 시범운송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5·24 대북제재 조치의 예외로 간주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으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 국면 진입으로 잠정 보류된 상황임.

여·남·북·중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또한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³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점점 사업으로 남·북·러 물류·교통망 연결 및 에너지망 연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제재 상황에서는 러시아의 선도개발구 혹은 자유항 등 러시아 당국의 외자유치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한·러 양자 간 경제협력을 추진하면서 동북아 경제협력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남·북·러, 남·북·중이 다자 협력 사업으로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중국 시장을 겨냥한 남·북·중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은 7%대 중속 성장의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여 내수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소비를 매우 중요시하는 경제발전 방식으로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북·중 접경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을 조성하거나 훈춘³⁹⁾ 등 기존에 추진 중에 있는 물류 거점지를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들 지역을 북한과 중국 양쪽을 겨냥한 생산거점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며, 북한의 시장화 촉진과 주민생활 향상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과 관련된 남·북·중 공동의 사업

38) 생수를 국내에 들여올 경우, 종전에는 백두산 인근의 얼다오바이허(二道白河) 현지 공장에서 철도로 다롄항까지 1,000km를 이동한 뒤 선박을 통해 다시 평택항(600km)이나 부산항(1,000km)으로 들어왔었음. 그러나 3차 시범사업에서는 현지 공장에서 나진항까지 차량으로 250km를 운송한 뒤 부산항까지 선박으로 950km가 소요되어 전체 운송구간이 1,200km에 불과함으로써 기존의 평택항보다는 400km, 부산항에 비해서는 800km나 짧아 물류비용과 운송시간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었음. “신춘호의 독심… 북한 나진 통해 ‘백산수’ 반입, 글로벌 생수신화 쓴다,” 『서울경제』, 2015.1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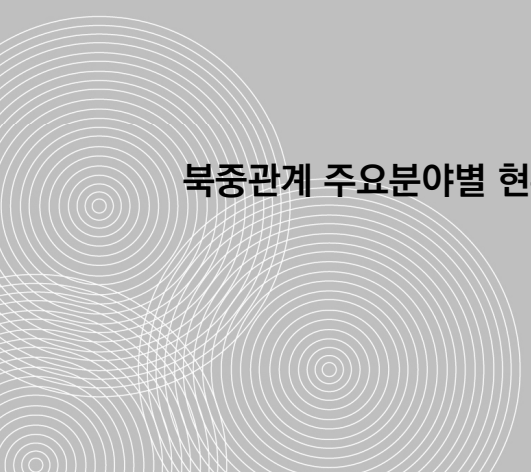
39) 현대와 포스코는 훈춘에 국제물류단지를 설립하여, 이곳을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나진항 배후 물류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현대는 훈춘 국제물류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복합물류기지 조성 및 관광, 나진개발 사업 참여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북핵 문제와 함께, 훈춘-자루비노-부산 항선의 물동량 부족, 훈춘-나진-중국 남방지역 항선의 비정상화 등으로 물류 확보가 어려워 국제물류단지의 시설 가동률이 높지 않은 상황임.

아이템 발굴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은 남·북·중 산학연 공동의 플랫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한·중 간의 기업과 지자체, 연변 지역의 대학(연변 과기대 등)과 북한 연구소들 간의 정기 학술세미나나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제재 완화 이후의 북·중·러 협력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참여 유도와 GTI의 국제 기구화 추진을 통해 GTI 사업을 통한 다자협력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도 있고,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을 활용한 재원 마련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사실 GTI 프로젝트는 중국이 두만강유역 개발을 위한 역내 인프라 기반 사업으로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를 국가 전략 사업을 추진하면서 철도와 도로 등 역내 교통 인프라 시설이 크게 확충되었다. 또한 창지투 선도구와 함께, 단동항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지린성 남서쪽과 랴오닝성 동쪽을 연계하는 바이통 단경제벨트⁴⁰⁾에도 관심을 기울일만하다. 이곳은 그동안 다소 소외되기는 하였으나 2017년 창지투 전략 계획 회의 및 지린성 정부의 13차 5개년 계획 내용에서 중요 계획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목을 받고 있으며, 신경제 지도의 환동해 경제벨트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⁴⁰⁾ 바이통단경제벨트는 중국 지린성 남동부의 바이산, 통화 지역과 랴오닝성 동부의 단동 지역을 잇는 경제벨트임. 이는 중국정부에서 허가한 랴오닝연해경제벨트와 창지투선도구의 중간 지역에 위치해 있어 2개의 국가급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IV. 북한 관광산업 현황과 북·중 관광협력 실태

최철호(연변대학교 국제대학원)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1. 문제 제기

2009년 10월, 중국 원자바오 전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 총리 간에 체결된 양국 간의 관광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교환을 통하여 중국은 북한을 주요 관광목적지 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양해각서에 근거해서 2010년 4월 12일, 18개 단체로 구성된 395명의 중국 관광객이 북경, 천진, 상해, 산둥 등 10개 도시(성시)로부터 출발해 8일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여행하였다.⁴¹⁾ 주요 관광지로 포함된 지역은 평양, 묘향산, 개성 판문점 등이었다.

2009년 10월 이전까지 중국인의 북한관광은 북한과 인접한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와 요녕성 단둥시를 통한 국경지역에 국한된 변경관광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고작이었다. 당시 중국 관광객의 북한 방문 시 이용가능한 교통편은 항공교통, 철도교통 등이 전부였는데, 항공여행 코스로는 북경-평양, 심양-평양 간 정기 항공노선이 개설되어 있었고, 철도교통을 이용한 관광코스로는 중국 단둥-신의주-평양 간 국제열차 여행, 도로교통을 이용한 관광코스로는 중국 훈춘-나선 간 여행, 중국 용정-청진-칠보산 여행 그리고 중국 단둥-신의주 여행코스 등이 개발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관광목적지 국가로 지정한 2009년 이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전에는 별다른 관광협력 실적이 없고 관련 자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9년 이전의 북·중 관광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는 북·중 양국의 정권 교체기(2009~2012년)부터가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적지 않은 관광코스가 개발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

⁴¹⁾ 國家旅游局, “中國旅游團隊赴朝鮮首發團近日啓程 (2010),” <http://news.xinhuanet.com/travel/2010-04/12/content_13339394.htm> (검색일: 2017.06.22).

한의 관광교류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북한을 주요 관광대상국가로 지정한 2010년부터 빠른 속도로 중국의 대북 관광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인이 북한을 방문한 숫자가 해마다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2011년에는 2010년보다 47.9%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여러 차례 핵실험과 이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중국과 북한의 관광협력은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중 정권 교체기(2009~2012년)와 김정은 정권 출범(2012년)이후 북한 관광산업의 실태를 살펴보고, 나아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의 관광산업과 북·중 관광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남·북·중 관광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북한의 관광산업 현황

가. 북한 주요 관광구와 관광자원의 특징

(1) 북한의 4대 관광구

북한의 주요 관광지를 관광객의 지리적 접근성, 관광노선의 개발수준 등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4개 관광권역으로 구분하였다(그림 IV-1 참조).

(가) 평양-개성 관광구

평양의 주요 관광자원은 정치적 선전물과 역사적 유적지, 그리고 기타 기념 시설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당국이 추천하는 관광자원으로는 김일성광장, 인민대학습당, 중앙역사박물관, 미술박물관, 만수대 기

넘비, 혁명박물관, 천리마동상, 만수대의사당, 평양학생소년궁전, 승령전과 승인전, 만수대예술극장, 대동강, 주체사상탑, 민속박물관, 대동문, 평양중, 련광정, 당창건기념탑, 동평양대극장, 청년중앙회관, 룡라도, 5월1일경기장, 양각도, 국제영화회관, 양각도축구경기장, 쑥섬, 평양역, 평양국제문화회관, 평양대극장, 당창건사적관, 보통강, 보통문, 인민문화궁전, 평양체육관, 빙상관, 만수대창작사, 해방전쟁승리기념탑, 해방전쟁승리기념관, 예술영화촬영소,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 평양수예연구소, 4.25문화회관, 3대혁명전시관, 모란봉, 개선문, 김일성경기장, 개선청년공원, 우의탑, 김일성종합대학, 모란봉극장, 칠성문, 흥복사7층탑, 을밀대, 현무문, 최승대, 전금문, 부벽루, 청류정, 해방탑, 대성산, 대성산혁명렬사릉, 대성산성, 안화궁터, 중앙식물원, 중앙동물원, 대성산유회장, 광범사, 만경대, 만경대옛집, 만경봉, 만경대혁명사적관, 만경대유회장, 만경대물놀이장,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교예극장, 청춘거리경기관들, 룡악산, 만경대소년단야영소, 룡곡서원, 범운암, 왕릉구역, 정릉사구역, 신하무덤구역, 단군릉, 봉화혁명사적지 등이 있다.⁴²⁾

남포지구는 평양에서 서쪽으로 55km 떨어져 있으며, 남포시는 5개 구역과 1개의 군으로 이루어 졌다. 주요 관광자원으로는 와우도, 남포항, 남포체육촌, 서해갑문, 덕흥리벽화무덤, 강서세무덤, 태성호, 평양골프장 등이 있다.⁴³⁾

사리원지구는 평양의 남쪽 관문도시이며 황해북도의 도 소재지이다. 북한당국이 추천하고 있는 주요 관광자원으로는 경암산, 사리원과수농장, 정방산, 정방산성과 남문, 성불사 등이 있다.⁴⁴⁾

42) 국가관광지도총국, 『조선관광안내』(평양: 조선국가관광총국 관광선전사, 2002), pp. 39~111.

43) 위의 책, pp. 121~126.

44) 위의 책, pp. 126~129.

해주지구는 황해남도의 도 소재지이며 북한 서해의 주요 항구도시이다. 주요한 관광자원으로는 수양산, 수양산폭포, 수양산성, 석담구곡, 석담구곡휴양소, 소현서원, 구월산, 단풍골, 지원폭포골, 구월산성혁명사적지, 팔담골, 월정사, 정곡골, 신천박물관, 장수산 등이 있다.⁴⁵⁾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지구는 유적지가 많은데, 주요 특산물로는 개성 고려인삼과 고려청자기 등이 있다. 또한 개성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으로는 송악산, 자남산, 개성남대문, 연복사종, 선죽교, 승양서원, 고려성군관, 만월대, 고려왕릉, 왕건왕릉, 공민왕릉, 박연폭포, 관음사, 판문점, 정전담판회의장, 정전협정조인장, 판문각,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등이 있다.⁴⁶⁾

(나) 금강산-원산 관광구

금강산-원산 관광구는 북한 최고(제일)의 주요 관광지역으로 꼽히는데, 원산지구, 통천지구, 마식령스키장지구, 운림폭포지구, 석왕사지구와 금강산지구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다. 여기에는 모두 142개 역사유적, 7개 해수욕장, 11개 백사장, 9개 천연호수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더불어 관광시설들이 집중적으로 개발되어 있다. 이 지역은 2014년 6월, 기존의 금강산관광특구를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로 확대 개편하였다.⁴⁷⁾

원산-금강산지구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는 원산시지역에 송도원, 솔밭, 유람식공원, 장덕산, 시중호 등이 있고, 금강산지역에는 외금강, 구룡연구역, 구룡폭포, 상팔담, 만물상구역, 수정봉구역, 해금강, 삼일포구역, 총석정, 내금강 등이 있으며, 함흥시에는 동흥산, 함흥성, 구천각, 마전 등이 산재해 있다.⁴⁸⁾

45) 위의 책, pp. 129~154.

46) 위의 책, pp. 155~166.

47) 金明哲·崔哲浩·金石柱, “元山-金剛山國際旅遊特區開發現狀及投資前景,” 『延邊大學學報: 社會科學版』, 第6期(2014), p. 91.

(다) 백두산-칠보산 관광구

백두산-칠보산 관광구는 백두산, 칠보산, 나선특별시, 청진시 등을 포괄하고 있다. 주요 관광자원으로는 해수욕장, 경성온천, 어랑 민속촌 등이 있는데 백두산과 칠보산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관광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청진-칠보산지구에는 청진시 주변에 경성, 염분혁명사적지, 잡삼혁명사적지, 경성읍성, 남문, 경성온천, 온포온천 등이 산재해 있으며, 칠보산 지역에는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 송선대, 개심사 등이 있다. 또한 나선지구에는 나진항, 해양혁명사적지, 중현혁명사적지, 비파해수욕장, 비파도, 선봉항기념비, 우암물개보호구, 굴포리 서포항유적, 우암혁명사적지 등이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⁴⁹⁾

백두산지구에는 천지와 장군봉과 같은 자연자원 외에도 김일성일가의 역사적 유적지가 산재해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백두산밀영, 사령부 귀틀집, 사자봉밀영, 청봉숙영지, 건창숙영지, 리명수폭포, 리명수물동혁명사적지, 베개봉숙영지, 무포숙영지, 대홍단혁명전적지 등이 그것이다. 회령시 지역에는 회령고향집, 오산덕, 김정숙동지혁명사적관, 김정숙동지동상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온성, 왕재산, 왕재산기념비, 왕재산혁명박물관, 남양교두, 삼지연읍, 삼지연, 삼지연대기념비, 삼지연혁명사적관, 갑무경비도로, 간백산밀영, 소연지봉밀영, 혜산시,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패궁정, 보천 등의 관광자원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⁵⁰⁾

48) 국가관광지도총국, 『조선관광안내』, pp. 186~198.

49) 위의 책, pp. 200~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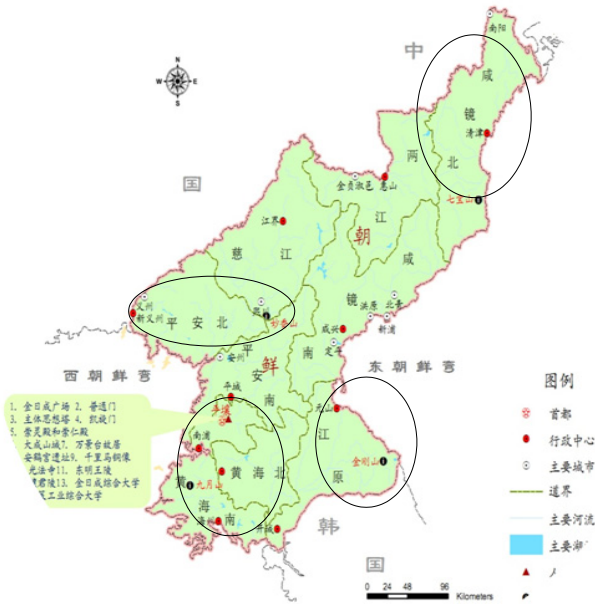
50) 위의 책, pp. 235~249.

(라) 묘향산-신의주 관광구

묘향산-신의주 관광구의 주요 관광자원으로는 묘향산의 만폭동, 국제우의전람관, 보현사가 있고 신의주에는 청수관광개발구 등이 있다.

묘향산지구에는 묘향산, 향산읍, 묘향천, 국제친선전람관, 보현사, 대웅전, 수충사, 팔만대장경보존고, 상원동등산길, 만폭동등산길, 비로봉등산길, 천태동등산길, 비로봉등산길, 칠성동등산길, 금강암, 지하명승룡문대굴 등이 있다. 또한 신의주지구에는 신의주시,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 의주, 의주남문, 의주혁명사적관, 통군정 등 사적지들을 주요 관광자원으로 소개하고 있다.⁵¹⁾

그림 IV-1 북한 4대 관광구



출처: 저자 작성.

⁵¹⁾ 위의 책, pp. 167~182.

(마) 북한의 주요 관광지 접근통로

북한관광의 대표적인 일정으로는 3박4일 일정(평양, 개성, 묘향산), 5박6일 일정(평양, 개성, 묘향산, 남포, 구월산), 7박8일 일정(평양, 개성, 묘향산, 남포, 원산, 금강산), 12박13일 일정(평양, 개성, 묘향산, 백두산, 칠보산, 함흥, 남포, 원산, 금강산) 등이 있다.⁵²⁾ 이외에도 앞에서 소개한 북한의 관광자원을 중국 관광객들이 관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표적 관광루트를 활용하고 있다.

1) 연변을 기점으로 한 관광루트

연변을 통한 관광루트로는 훈춘-나선 2일버스관광, 훈춘-나선 3일자 가용관광, 도문-북한남양-청진-칠보산 4일호화열차관광, 용정-북한혜령-청진-칠보산 4일버스관광, 화룡-북한백두산동파-무봉관광특구 3일버스관광, 훈춘-블라디보스톡-나선 3국순환관광, 연길-평양-금강산(묘향산)-개성-판문점 전세기 관광(현재는 중단), 훈춘-나선-금강산 호화크루즈관광(현재는 중단) 등이 있다.⁵³⁾

2) 단동을 기점으로 한 관광루트

단동을 기점으로 한 북한관광 루트로는 단동-신의주 1일관광, 단동-신의주-묘향산 3일버스관광, 단동-신의주-묘향산-평양-개성 전세기 관광, 단동-평양-개성-판문점 3일열차관광, 단동-평양-개성-묘향산-남포 5일열차 관광 등이 있다.⁵⁴⁾

52) 정화순 집필, 『조선에 대한 이해(관광 및 투자)』(평양: 외국문출판사, 2015), p. 53.

53) 연변대중국제여행사가 소개하고 있는 북한 관광상품을 저자가 정리

54) 丹東中國國際旅行社有限公司, <<http://www.ddcits.cn>>에 있는 북한 관광상품을 저자가 정리.

3) 북경과 심양에서 정기항로를 이용한 관광

정기항로를 이용한 관광루트로, 북경-평양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1회 운행된다. 이를 통한 관광으로는 북경-평양-금강산-개성-판문점 관광이 있다. 심양-평양 정기항로를 이용한 관광루트로는 묘향산, 개성, 판문점 관광(매주 2회, 수·토) 등이 있다.

4) 전세기 관광

전세기 관광루트로는 하남성 정주-평양-금강산-개성-판문점 관광이 있다. 연길-평양-개성-금강산 전세기 관광은 작년부터 중단된 상태이다.

(2) 북한 관광자원의 특징

북한의 자연관광자원은 다양하면서 풍부하고 그 품질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금강산과 묘향산 등의 명산은 중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관광지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인문관광자원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주로 김일성의 항일투쟁 당시 유적이 대부분이다. 평양에는 만수대, 중·북우호기념비, 천리마 동상, 개선문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개성에 있는 고려박물관 등도 역사적 관광자원으로 소개되고 있다.

현재 북한관광은 시각적으로 보고 감상하는 관광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식의 '참여적인 관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줄 만한 관광상품은 거의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다. 호텔에 있는 카지노, 노래방 등 오락 시설을 제외하고 고객이 직접 참여하여 감성을 동원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들은 특별히 개발되지 못한 상태여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바다낚시, 등산,

스키, 골프 등 레저스포츠 중심의 관광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들에게 북한의 관광이 주는 장점은 지리적 접근성이 비교적 좋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나선특별시는 중국 권하통상구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 청진은 2시간 거리, 칠보산은 3시간 거리이고, 중국 단둥에서 평양까지는 기차로 4시간 거리여서, 관광목적지로까지 이동하는 데는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또한 북한에서는 관광자원에 대한 보존과 보호가 잘 되어 있어서 자연 그대로의 관광자원을 자랑하고 있다. 칠보산, 묘향산, 금강산 등 북한의 명산들은 거의 자연 그대로 원상태가 보존되어 있고 나선, 청진 등 지역에 있는 해수욕장도 수질이 좋고 아주 깨끗해서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관광시설의 개발수준은 초기단계에 있다. 칠보산과 묘향산에는 도로 외에 다른 시설이 거의 없고 해수욕장 부근에도 호텔을 제외하고는 다른 편의·위락시설들이 건설된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나. 북한의 관광시장 현황

(1) 인바운드(In-Bound) 관광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의 총수는 전체 북한방문 관광객의 80~90%에 달하고 있어 중국 관광객들이 북한의 관광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10년부터 북한을 관광한 중국인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표 IV-1 참조). 중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북한의 관광지로는 평양, 개성, 금강산, 나선, 칠보산, 묘향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북한 관광지를 여행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의 주된 관심은 ‘신비한 국가’로 알려진 북한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며, 일부는 지금의 북한을 통해서 과거 1960~1970년대의 중국사회를 회고해 보려는 데 있다. 이

에 따라서 중국 관광객들의 연령층을 보면, 40대 이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이외에 북한방문 여행객을 송출하는 국가들로는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유럽 등이 있다. 이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주된 이유 또한 북한사회에 대한 호기심 충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관광에서는 개방된 관광지 이외의 지역을 자유롭게 방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북한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후 중국정부는 대북한 관광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중국의 통상구에서는 북한 방문 관광객들의 수를 줄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013년에는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2014년부터는 북한 관광객 수가 통계자료로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북한관광이 점차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과거 인기 관광코스였던 훈춘-나선-금강산 크루즈관광상품의 판매는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연길-평양-금강산-개성-판문점 전세기 관광이 중단되었다.

관광객 수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북한이 안전하지 못하고, 핵실험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북·중관계의 경색과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의 악화는, 중국인의 심리에 한민족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서는 조선족 사회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관광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가운데서 젊은 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필자가 지난 2017년

8월 평양 사회과학원과의 공동세미나를 위해 심양-평양 간 비행기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작은 비행기임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의 좌석이 비어 있었다. 또한 우리 일행이 투숙했던 호텔도 우리 일행을 제외하고는 다른 단체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7~8월이면 북한관광의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한 것이다.

중국의 국가관광총국은 중국의 아웃바운드 제20위 국가까지의 관광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중국인 북한관광이 줄어들어 인해서 2013년부터 북한이 20위 순위에도 들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관광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길림성과 요녕성에서 아웃바운드 관광통계는 보안상 비밀로 취급하기 때문에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 것도 2013년 이후부터 중국인 북한 관광객 수를 파악할 수 없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표 IV-1 중국인 북한 여행객 수

연도	중국인 북한 여행객 수(만인차)	증가율(%)
2010	13.11	36.4
2011	19.39	47.9
2012	23.74	22.5

출처: 中國國家旅游局網站公布, 『中國旅遊業統計公報(2010~2013年)』, <<http://www.cnta.gov.cn>> (검색일: 2017.05.09).

(2) 아웃바운드(Out-Bound) 관광

북한에서 서비스업 분야에서 해외에 인력을 송출하는 규모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전체 해외를 여행하는 북한인 중에서 서비스업 인력송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중국을 방문한 북한인은 18.8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서비스업 종사목적으로 출국한 규모가 9.4만 명(점유율50.0%)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기타(35.4%), 회의·사업 목적이 2.6만 명(13.8%)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휴가, 친지(친척이나 친구) 방문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V-2 참조). 그러나 2013년 국제사회의 제재 이후, 2014년부터 중국에 입국한 북한인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에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북한 노동력의 해외송출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력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국에 파견나와 있는 북한 노동력 규모는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인들의 관광을 목적으로 한 중국방문 규모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북제재로 인한 제약으로 해당국의 여행비자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인들의 해외여행도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2 중국 입국 북한인 여행객 수

(단위: 만 명, (): 점유 비율%)

연도	총수	증가율 (%)	서비스업 종사자	회의/상무	관광/휴가	친척친구 방문	기타
2009	10.39	-	5.21	1.94	0.41	0.03	2.80
2010	11.64	12.03	5.39	2.53	0.43	0.04	3.24
2011	15.23	30.86	7.53	3.90	0.46	0.01	3.33
2012	18.06	18.56	7.96 (44)	5.52 (30.5)	0.45 (2.5)	0.02 (0.1)	4.11 (22.8)
2013	20.66	14.4	9.33 (45.2)	5.51 (26.7)	0.29 (1.4)	0.03 (0.1)	5.50 (26.6)
2014	18.44	-10.7	8.91 (48.3)	3.39 (18.4)	0.15 (0.8)	0.01 (0.05)	5.97 (32.4)
2015	18.83	2.1	9.42 (50.0)	2.59 (13.8)	0.15 (0.8)	0.01 (0.05)	6.67 (35.4)

출처: 中國國家旅游局網站公布, 『中國旅遊業統計公報(2009~2015年)』, <<http://www.cnta.gov.cn>> (검색일: 2017.05.20).

(3) 국내 관광

북한주민들의 국내 관광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정치적 목적에서 진행되는 ‘홍색관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인, 학생 등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중요한 기념일에 항일 사적지를 방문하는 것이다. 주요 여행지는 평양, 백두산, 묘향산 등의 지역이다. 이와는 별도로, 여름 휴가기에는 나선, 청진, 송도, 남포 등의 도시 주변에 있는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고 있다. 또한 평양 주변에 있는 신평관광개발구와 원산 주변에 있는 마식령스키장 등의 관광지에도 점점 많은 국내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국내 관광시설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3개의 관광개발구를 지정하였고 2개의 관광특구를 설립하였다. 3개의 관광개발구로는 함경북도 온성섬관광개발구, 평안북도 청수관광개발구, 황해북도 신평관광개발구 등이 있고, 2개의 관광특구로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함경북도 무봉관광특구가 있다.⁵⁵⁾ 그러나 온성섬관광개발구는 두만강하류에 위치해있고 두만강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홍수에 취약한 지역이어서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수관광개발구도 지정만 해놓고 본격적인 개발은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유일하게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은 평양 부근에 있는 신평관광개발구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무봉관광특구도 연변 화룡시에서 투자를 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최근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회적 통제가 강력하여 여전히 도와 도를 넘나들기 위해서는 통행증이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검사가 빈번하기 때문에 개인

55) 權哲男·崔哲浩·林今淑·許虎林·崔文, 『朝鮮經濟特區及開發區研究』(香港: 香港亞洲出版社, 2016), p. 11.

들의 국내 관광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북한당국의 행사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다. 북한의 관광기업(여행사)과 공식적인 관광 홍보

1986년 5월 15일, 북한은 관광 활성화 정책에 근거하여 관광총국을 설립하였고, 이 기관을 통해서 관광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즉 북한의 관광총국에서는 관광시장조사, 관광재정, 관광서비스, 관광개발 등 주요업무의 추진을 관장하고 있다. 또한 각 시·도에도 지방 단위의 관광관리국을 신설하여 관광사업에 대한 행정지도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여행사로써는 관광총국 산하에 조선국제여행사, 조선청년여행사, 조선국제체육여행사, 조선국제태권도여행사 등이 있으며, 지방에는 백두산여행사, 칠보산여행사, 묘향산여행사, 원산여행사, 라선국제여행사 등이 지방관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중에서 조선국제여행사는 1953년 8월에 창립된 북한에서 가장 큰 국제여행사이다.⁵⁶⁾

호텔은 특급, 1급, 2급 등의 등급으로 분류된다. 특급호텔은 평양 고려호텔, 양각도 국제호텔, 묘향산호텔 등 3개 호텔이 있고 1급 호텔로는 양강호텔, 청년호텔, 서산호텔, 보통강호텔 등이 있으며 2급호텔로는 대동강호텔, 창광산호텔, 평양호텔, 해방산호텔 등이 있다.⁵⁷⁾

북한당국은 더 많은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조선여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이 홈페이지는 북한 전역을 평양, 동부지구, 서부지구와 북부지구 등 4개 관광지역으로 구분하였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등 5개 언어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56) 김지호, 『조선에 대한 리해(관광 및 투자)』 (평양: 외국문출판사, 2015), p. 53.

57) 북한 국가관광총국 홈페이지, <<http://tourismdprk.gov.kp>>.

주요 내용은 ‘유익한 관광정보’, ‘축전 및 행사’, ‘관광일정’, ‘주제관광’, ‘새소식’, ‘광고’란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익한 관광정보’란에는 국가관광총국, 조선국제여행사, 조선국제태권도여행사, 조선국제체육여행사, 국제청소년여행사, 평양고려국제여행사, 양각도여행사, 평양관광대학 등 관광기관과 입국수속, 화폐교환, 전신전화, 우편, 의료봉사, 국제항로, 국제열차시간표, 평양시간, 평양시대교통, 주체년호와 태양절, 광명성절, 국가적명절과 주요기념일 등 다양한 정보가 소개되고 있다.

‘축전 및 행사’란에는 김일성과 김정일화축전, 백두산국제피겨축전, 평양국제영화축전, 평양국제상품전람회 등의 행사와 축전을 소개하고 있다.

‘관광일정’란에는 평양-개성-묘향산 3박4일, 평양-개성-묘향산-남포 4박5일, 평양-개성-묘향산-원산-금강산 7박8일, 평양-묘향산-개성-백두산-칠보산-함흥-남포-원산-금강산 13박14일 등 관광일정을 소개하고 있다. 중국의 여행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북한관광 일정 중에서 가장 긴 일정은 7박8일이며 남포, 함흥 등 지역에 대한 관광상품은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남포와 함흥을 포함한 더 다양한 관광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관광’란에는 비행기애호관광, 등산관광, 체육관광, 열차관광, 태권도관광, 노동생활체험관광, 대중교통수단관광, 파도타기관광, 건축관광, 산악마라톤관광, 평양시공중유람관광, 자전거관광 등의 주제별 관광상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새소식’란에는 2017년 국제노인의 날, 민족음료 막걸리, 2017년 가을철마라톤애호가경기대회 진행, 씨름경기, 추석명절, 고려 15대왕 숙종의 무덤 발굴 소식, 려명관광기념품전시관 새로 개업, 조선국제태권도여행사 소개, 평양고려국제여행사, 조선민족유산국제여행 등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었다.⁵⁸⁾

라. 북한 관광정책의 특징

북한은 관광산업 발전을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추동하는 주요 동력으로 여기고 이를 위한 관광산업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여러 지역에 관광풍경구, 관광특구와 관광개발구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물질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물놀이장, 경마장, 유원지, 체육관 등 많은 관광스포츠시설을 건설하고 있는데, 주요한 체육시설들로는 마식령스키장, 송도원유원지, 미림승마구락부, 5월1일경기장, 평양체육관, 빙상관, 양각도축구경기장, 청춘거리체육촌, 메아리사격관, 평양보링관, 통일거리운동센터, 인민야외빙상장 등이 있다.

2011년 4월 29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설립할 데 대한 정령」을 발표한 데 이어, 2011년 5월 31일에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당국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대한 해외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였다.⁵⁹⁾ 첫째,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에 참여하는 해외투자는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여러 가지 관광서비스업(여행업, 숙박업, 식당업, 카지노업, 골프장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등), 첨단공업, 농업부문에 단독 또는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단독기업 또는 합영, 합작기업을 창설할 수 있으며 국제관광특구에는 기업의 지사, 대리점 같은 것을 내올 수도 있다. 외국투자가가 계약상의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였을 경우 3~15일 이내에 그가 신청한 기업창설승인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은 자기가 요구하는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진 값싼 노동력을 북한과 다른 나라 또는 남한 및 해외동포로부터 채용할 수 있으며 기업 소득세는 결산이윤의 10~14%로 하며 하부구조부문 투

58) 북한 국가관광총국 홈페이지, <<http://tourismdprk.gov.kp>>.

59) 金明哲·崔哲浩·金石柱, “元山-金剛山國際旅游特區開發現狀及投資前景,” p. 91.

자, 총투자액 규모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3~4년간 감면, 2~3년간 50% 줄여주며 이윤의 재투자에도 특혜를 주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관광특구에서는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금항목을 간소화하고 영업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에서도 투자장려부문과 총투자액 규모에 따라 특혜를 보장해주고 있다.

셋째, 국제관광특구에서 토지임대 기간은 장려부문투자, 총투자액 규모에 따라 50년까지의 범위 안에서, 토지임대료는 평방미터당 50유로까지의 범위에서 특구 밖의 지역보다 우대하고 있는 등 토지사용료에서도 특혜를 주고 있다.

넷째,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과 개인은 특구 안에 설립된 북한은행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전환성 외화의 거래를 자유롭게 하고 합법적으로 얻은 이윤과 소득을 재투자하거나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14년 5월 12일 평양의 고려호텔에서 북한의 투자환경, 개발계획과 관련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발표된 원산-금강산특구 개발총계획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2013년 관광대학의 설립과 관광교육 심화 등 관련된 실무적인 대책들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4월 1일 평양관광대학이 개교를 하였고, 이 학교를 통해서 국가의 관광산업 발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학술적으로 체계화하고 능력 있는 관광 인재들과 전문가들을 배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산사범대학, 차광수신의주사범대학 등 각도의 여러 사범대학에도 관광학부들이 설치됨으로써 관광전문가들을 배양하는 교육이 전국적 범위에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⁶⁰⁾

2013년 5월 29일 북한은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여 경제개발구의 설

60) 『조선중앙통신』, 2014.05.05.

립을 위한 법적환경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3개의 관광개발구도 경제개발구법이 적용되고 있다. 북한의 내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년 4월 백두산일대의 량강도 삼지연군에 무봉국제관광특구를 설립한다고 발표하였다.⁶¹⁾ 무봉관광특구에도 특수경제지대법이 적용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무봉관광특구를 위한 시행법은 발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 북·중 관광협력

가. 두만강지역의 북·중 관광협력

중국과 북한은 두만강을 사이에 둔 접경지역의 통상구로는 훈춘 권하, 도문, 용정 삼합, 화룡 송선 등을 두고 있다. 함경북도 나선시와 금강산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훈춘 권하통상구를 통과해서 갈 수가 있고, 도문통상구를 통해서는 함경북도 남양, 청진, 칠보산 등을 여행할 수가 있다. 용정 삼합통상구를 통해서는 함경북도 회령, 청진, 칠보산, 평양, 금강산 등을 여행할 수 있고, 백두산과 삼지연 등을 여행하려면 화룡의 송선통상구를 이용할 수가 있다.

(1) 두만강지역 북한 관광노선

연변자치주와 북한 간의 변경관광은 1991년 연길시의 훈춘-함경북도 신성(新星) 관광코스 개발을 시작으로 연변자치주의 기타 현·시로 확산되었다. 그 후 점차 북한의 나진, 선봉, 남양, 청진, 경성, 칠보산, 어랑, 평양, 금강산 등 관광상품을 새롭게 개발함으로써 중국-북한 간의 변경관광은 점차 더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95년 9월 중국 훈춘지역의 권하 변경 공무통로가 정식으로 중국-북한 간에 개통되어 처음에는 화물운반 목적으로만 이용되었다. 그러나 몇 년 후 권하통상구가 국가1급 통상구

⁶¹⁾ 정화순 집필, 『조선에 대한 리해(관광 및 투자)』, p. 68.

로 승격하게 됨으로써 중국인과 제3국 관광객들의 북한관광이 이전에 비해 훨씬 용이해졌다. 1999년 훈춘에서는 '99두만강 관광박람회'를 개최하여 변경관광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북·중관광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연변-북한 간의 변경관광에 이용되고 있는 통상구로는 훈춘의 권하, 도문의 국문, 용정시의 삼합, 화룡시의 승선 등 4개가 있다. 이 중에서 현재 개설 중에 있는 주요 관광코스로는 중국 훈춘 권하→북한 나진·선봉 관광코스, 중국 훈춘→사투즈→북한 신성 관광코스, 중국 도문→북한 남양 관광코스, 중국 용정→삼합→북한 회령→청진→칠보산 관광코스, 화룡 승선→북한 삼지연(三池淵)→백두산동파→평양을 관광하는 코스 등이 개발되어 있다. 2009년 말 연변자치주에서는 '타지역 사증발급 시범구(異地辦證)'로 지정되어 변경관광을 용이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⁶²⁾

2000년 이후 두만강 지역에는 여러 가지의 환동해 관광코스가 개발되었다. 2000년 4월 28일, 연변 훈춘→러시아 자루비노→한국 속초 간의 해상노선이 정식으로 개통됨으로써 여객과 화물운송이 매우 편리해지게 되었다. 2008년 9월 4일, 한·중·일·러 등 4개국은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 환동해 '황금코스'가 개통되기에 이르렀다. 즉, 연변 훈춘→러시아 자루비노→한국 속초→일본 니이카타를 순회하는 해상노선의 개통으로 동북아시아 최대의 해상관광통로가 개설된 것이다. 수년간 환동해 해상통로를 통하여 연변지역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중에서 훈춘을 통하여 연변을 찾는 러시아 관광객 수의 증가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반면, 한국인 관광객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이처럼 러시아 관광객이 한국인 관광객을 대신하는 형태로 연변의 주요 관광대상국으로 러시아가 급격히 부상·발전하고 있다.⁶³⁾

62) 崔哲浩, 『延邊旅游經濟研究』(延邊: 延邊大學出版社, 2011), pp. 181~183.

자가용 여행상품으로는 훈춘 권하-나선 간 코스가 있고, 북한-중국-러시아를 연결하는 환3개국 여행상품으로는 중국 훈춘 권하-북한 나선시-러시아블라디보스톡을 잇는 여행코스가 있다. 관광전용열차를 이용한 여행상품으로는 도문-북한 청진, 칠보산을 연결하는 관광코스가 있으며, 전세기를 이용한 연길-평양 간 전세기 관광코스도 있다. 그중 2011년 6월부터 시작한 중국 훈춘 권하-북한 나선시의 자가용 여행코스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점점증하는 추세에 있다.

사진 IV-1 두만강 하류 중국 권하-북한 원정리 다리



출처: 저자 촬영.

2009년 두만강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이 중국정부의 국가전략으로 승격되었다. 또한 중국정부는 북한을 주요 관광대상 국가로 지정함으로써 북한관광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북한 나선시로의 무비자여행이 시작되었고, 중국 훈춘-북한 나선-러시아 블라디보스톡

63) 李英花·崔哲浩, 『圖們江區域邊境旅游合作的現狀与展望』(延邊: 延邊大學學報 社會科學版, 2011), pp. 32~35.

을 잇는 3국 무비자 관광코스가 개발되면서, 중국 관광객들의 관심과 수요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1년 8월 28일~9월 2일 시작된 ‘만경봉호’를 이용한 북한의 나선-금강산 크루즈 시범관광은 2012년까지 6회의 운항 기록을 갖고 있다. 만경봉호를 이용한 크루즈관광⁶⁴⁾을 계기로 북한은 금강산 개발계획을 공표하고 제1단계 사업으로 60만㎡ 규모의 금강산지역 국제관광지 및 상업구개발 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 IV-2 비파도와 엠펠러 카지노



출처: 저자 촬영.

북한은 2011년 남한의 금강산관광 중단조치에 대응하여 금강산관광구의 남한재산을 규정(법)에 따라 (몰수)처리하고, 현대아산 등 남한 기업의 직원을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북한은 대풍국제투자회사를 통하여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금강산특구 내 기

64) 만경봉호 적재 승선인원수는 처음에는 180명이었고 개량 후엔 400명으로 되었으며, 만경봉 92호는 총인원 약 1,000명 정도의 승객 수용이 가능했음.

반시설, 에너지, 전력 등의 기반설비는 특구관리위원회에서 주도하였고, 기타 기반시설, 상업시설 등의 건설은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금강산관광특구의 상업구 내의 모든 기업은 면세혜택을 받지만 타국 기업은 영업세 납부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특구 내 7~8개의 골프장, 카지노와 경마장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인근 군용비행장을 민간 비행장으로 개조하였고, 내국인의 특구 출입은 철저히 차단하고 외국인의 출입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⁶⁵⁾

2013년 2월 20일, 함경북도 나진항에서 싱가포르의 크루즈선박 '황성(皇盛)호'의 출항식 이후 나선시와 금강산 연계관광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계획들이 논의되었다(中國新聞網, 2013). 2013년 여름에는 이 노선을 활용하여 더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북한 나선시 및 금강산 여행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2013년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가 연변지역의 북한관광에 대한 통제조치를 취함으로써 현재까지 나선, 금강산, 백두산 등의 지역에 대한 북한관광은 소강상태 또는 중지 상태에 있다.

이전의 중국인 북한관광 중단이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였던 데 비해 2013년의 제재조치는 중국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취해진 전면적인 여행 중단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관광정책의 변화는 자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이라고 보인다. 그 결과 중국인의 북한 금강산관광 촉진을 목적으로 들어온 싱가포르 선박 '황성호'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2017년 현재 중국인들의 북한관광은 요녕성의 단둥을 통한 신의주 1일 관광과 묘향산-평양-판문점을 연계방문하는 관광코스만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단둥지역을 통해서 금강산 관광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65) "朝鮮吸引中國游客赴金剛山或引發韓朝經營權爭議," 『中新網』, 2013.02.22, <<http://www.chinanews.com/hr/2013/02-22/4586668.shtml>> (검색일: 2017.07.20).

2012년 8월 15일, 중국과 북한은 나선경제특구와 황금평·위화도경제특구 등 2개 경제개발구에 대한 개발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후 제3차 합작개발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왔다.⁶⁶⁾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르면, 나선경제특구의 전체적인 발전목표를 국제물류중심, 국제무역중심, 관광중심, 제조업중심, 현대화 항만도시 등에 두었고, 이를 위한 핵심적인 사업 분야로 관광산업, 제조업, 물류산업, 경공업, 농업 등을 지정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과 북한은 항만과 철도 개건과 관광, 물류, 농업 등의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2) 두만강지역 관광시장

두만강지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으로는 한국, 러시아, 북한, 대만, 동남아국가, 홍콩 등이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중 한국인 관광객이 제일 많고, 러시아 관광객이 두 번째이며, 대만과 홍콩과 마카오인이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과 북한 나선경제무역지대 및 함경북도를 방문하는 외국여행객 중에서 중국인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연변자치주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 중에는 한국인과 러시아인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2015년 연변을 방문한 과경(변경) 관광객 수는 41.2만 명이고, 그중 중국인의 북한 방문객 수는 25.4만 명이며 총 변경관광객 수의 61.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인의 러시아 방문객 수는 5만 명으로서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인의 연변 방문객 수는 8.4만 명으로 20.4%를 점하고 북한인의 연변 방문객 수는 2.4만 명으로 5.8%를 차지하고 있다.

연변지역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상황은 아래 <표 IV-3, 4, 5>와 같다.

⁶⁶⁾ “中朝將共同開發羅先經貿區和黃金坪、威化島經濟區,” 『鳳凰網』, 2012.08.15, <http://news.ifeng.com/mainland/detail_2012_08/15/16806635_0.shtml> (검색일: 2017.08.21).

표 IV-3 2013~2016년 연변주 관광경제 통계표

항목	관광객 총수(만인차)	증가율(%)	관광총수입 (억 위안)	증가율(%)
2009	607.6	24.0	66.6	31.6
2010	724.1	19.2	84.8	27.3
2011	858.1	18.5	109.1	28.7
2012	1015.4	18.3	138.2	26.7
2013	1167.7	15.00	172.82	25.04
2014	1361.2	16.57	216.20	25.12
2015	1595.7	17.23	268.43	24.14
2016	1860.5	16.60	334.95	24.80

출처: 延吉市統計局, 『延邊統計年鑑 2015』(北京: 中國統計出版社, 2015), p. 242; 『延邊州
旅遊產業發展報告』(2015), p. 4; 『延邊州旅遊產業發展報告』(2016), p. 4.

표 IV-4 2013~2016년 연변주 국내관광객 통계표

항목	국내관광객총수 (만인차)	증가율(%)	국내관광수입 (억 위안)	증가율(%)
2009	576.9	24.7	60.6	32.9
2010	686.5	19.0	77.1	27.2
2011	813.1	18.4	99.4	29.0
2012	961.3	18.2	126.5	27.2
2013	1109.5	15.4	158.6	25.4
2014	1298.40	10.82	199.37	11.04
2015	1530.3	17.86	250.7	25.58
2016	1789.04	16.91	314.84	25.57

출처: 延吉市統計局, 『延邊統計年鑑 2015』, p. 242; 『延邊州旅遊產業發展報告』(2015), p. 2;
『延邊州旅遊產業發展報告』(2016), p. 5.

표 IV-5 2013~2016년 연변주 외국인관광객 통계표

항목	외국관광객총수 (만인차)	증가율 (%)	외국관광수입 (억위안)	증가율 (%)
2009	30.7	12.0	6.0	20.0
2010	37.6	22.5	7.7	28.0
2011	45.0	19.7	9.7	26.0
2012	54.2	20.4	11.7	21.5
2013	58.2	7.5	14.3	21.6
2014	62.82	7.9	16.84	20.8
2015	65.4	9.3	17.7	14.1
2016	71.5	9.4	20.2	10.2

출처: 延吉市統計局, 『延邊統計年鑑 2015』, p. 242; 『延邊州旅遊產業發展報告』(2015), p. 5; 『延邊州旅遊產業發展報告』(2016), p. 6.

(3) 두만강지역 관광협력을 위한 북한과 중국의 협력정책

(가) 중국

2009년 8월 30일, 중국 국무원은 장춘, 길림, 두만강 지역을 하나로 묶는 장길도를 개발개방의 선도구역으로 하는 「중국 두만강 지역협력 개발 프로젝트 개요(以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的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劃綱要)」를 비준하였으며, 두만강지역의 개발협력을 ‘국가전략’ 차원으로 승격시켰다. 프로젝트의 개요는 두만강 지역의 다국 간 관광협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동북아국가 간 관광추진기구의 역할 발휘로 중국과 주변국 간 다국적 관광협력을 추진한다. 구역 내 관광인프라 시설확충, 육상·해양·항공 연합항로 개통, 관광시장의 개발, 다국어 로 된 관광정보 시스템의 확립 등의 전략을 중심으로 두만강지역 다국적 관광협력을 이룬다”. 이 전략을 상위계획으로 해서 길림성과 연변자치주는 단기, 중기 및 장기 관광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지역의 관광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중국정부는 연변자치주를

북한의 '변경관광 도착비자 발급 시범지구'로 정식 비준하였다. 2009년 말, 연변주는 국가공안부, 검찰부, 관광국으로 구성된 연합조사조의 평가를 통해 시범조건에 부합된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정식으로 변경관광 도착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된 것이다. 연변지역에서 변경관광 도착비자 업무를 개시한 후 중국 관광객의 러시아와 북한관광은 더욱 용이하게 되었다. 연변지역 이외의 외지 관광객은 주민신분증과 사진만으로도 단시간 내에 러시아와 북한으로 가는 통행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나) 북한

1991년 북한은 라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구로 지정하고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서 특구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991년, 북한 함경북도 신성 1일관광을 계기로 라진, 선봉, 남양, 청진, 칠보산 등 지역이 점차적으로 중국 여행객들에게 개방되었다. 앞에서 분석했듯이 북한은 함경북도 온성섬을 관광개발구로 지정했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아직도 계획단계에 머무른 상태에 있으며, 백두산 지역에 2번째 관광특구인 무봉관광특구를 지정함으로써 큰 투자와 교류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개발사업이 정지된 상태이다.

나. 압록강 하류의 북·중 관광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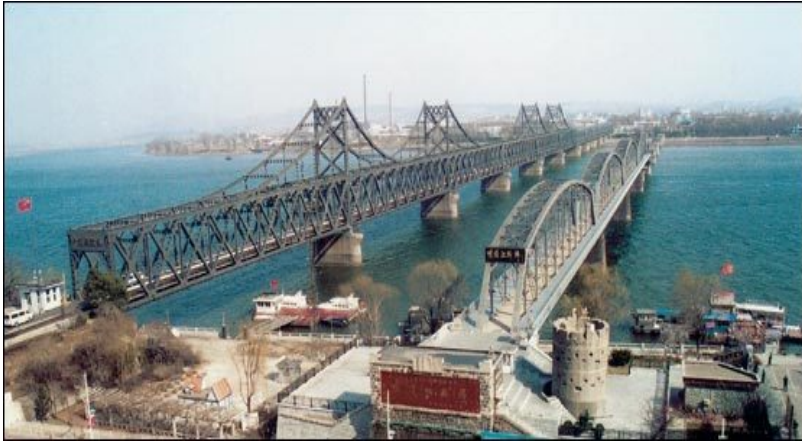
압록강 하류에 있는 중국의 대북한 국가통상구로는 1급과 2급의 통상구가 있다. 1급 통상구로는 단동시 압록강 철도통상구(鴨綠江鐵路口岸), 압록강 도로통상구(鴨綠江陸路口岸), 대동강통상구(大東港口岸), 남두강통상구(浪頭港) 등이 있다. 2급 통상구로는 대루도통상구(大鹿島口岸), 대타지통상구(大台子口岸), 단지(丹紙碼頭), 대평만통상구(太平灣口岸) 등이 있다.⁶⁷⁾

중국의 변경관광은 사실상 단동지역의 북한관광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5년에 북·중의 변경도시인 단동과 신의주가 협의를 거쳐 서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이후 2년의 노력을 거쳐 1987년 11월 중국 국가관광총국은 「요녕성 단동과 북한 신의주의 자비여행 시범 동의」를 비준함으로써 1일관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88년 4월 18일에는 단동국제여행사가 조직한 제1기 단체관광객 44명이 북한 신의주를 방문하였다. 1992년 북·중은 협의를 통해 묘향산, 개성, 판문점, 금강산 등에 대한 관광을 실시하게 되었다. 1999년 중국 국가관광국과 공안부가 「요녕성 단동시 대북한 관광에 관한 의견에 관한 통지」를 연합으로 발표한 문건에는, 기존의 관광객 인수 제한을 취소하였으며, 북한관광 일수를 최대 6일까지 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단동을 통한 북한 관광코스로는 단동-신의주-묘향산-평양-개성-판문점 등 국제열차를 이용한 5~6일 코스가 많다. 심양-평양 정기항선을 이용한 평양-개성-금강산 코스도 중국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여행코스이다. 2009년 단동을 통해 북한을 방문한 여행객수는 총 25,000명에 달할 정도였다.⁶⁸⁾

67) 滿海峰, “遼寧省, “北黃海經濟帶” 開放開發與中朝邊境旅遊經濟發展,” 『東北亞論壇』 (2010), p. 27.

68) 위의 글, p. 28.



출처: 丹東新聞網, <http://www.ddnews.com.cn/zjdd/content/2015-07/16/content_1579.htm> (검색일: 2017.06.08).

2009년 7월 1일, 중국정부는 「요녕연해경제지대 발전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주강삼각주심천특구(珠江三角洲深圳特區)’, ‘장강삼각주상해푸둥신구(長江三角洲上海浦東新區)’, ‘경진지천진빈해신구(京津冀濱海新區)’에 이어 「요녕성 연해경제지대 발전전략」이 국가적 전략으로 지정된 것이다. 황금평은 압록강 하류에 있는 섬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황금평경제개발구의 중점산업으로는 IT산업, 관광과 농업 등이 지정되어 있다. 북한은 「나선경제무역법」과 「황금평·위화도 경제구법」을 수정 및 제정하였으며, 이 경제개발구는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개발구기획의 세부내용(요강)을 완성함으로써 경제구 관리위원회를 공동 출범하게 되었다. 2013년 2월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과 북한 간 국가 차원에서의 모든 협력은 소강상태 혹은 중단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까지 황금평과 위화도 개발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새로운 압록강대교 건설도 도로와의 연결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언제 개통될지는 미지수이다.

다. 백두산지역 북·중 관광협력

2012년 10월 10일, 중국 길림성 백두산 관리위원회와 북한 국가관광총국은 백두산을 공동 개발하는 데 대한 협력 의향서(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국은 평등과 호혜(상호주의)의 원칙하에서 백두산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 측은 백두산을 북파구, 서파구, 남파구로 나누어 개발·관리하고 있고 북한은 동파구를 관리하고 있다. 이미 개통된 백두산 순환도로가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있으며, 이어 2015년에는 길림성 장춘에서 백두산 서파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연길-화룡-백두산 고속도로도 2018년에 개통될 예정이고, 연길-돈화-백두산 고속철도도 5년 내에 개통될 예정으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백두산공항은 이미 장춘, 심양, 북경, 상해 등 대도시로 연결하는 항로가 개설되어 운항되고 있고, 앞으로 북한의 백두산 동파를 잇는 도로까지 개발된다면 편리한 접근성을 토대로 하는 완벽한 백두산 순환도로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다양한 백두산관광상품의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15년 4월 22일, 북한은 백두산 동파 양강도 삼지연군 무봉로동자구의 일부를 무봉관광특구로 건설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무봉관광특구는 2014년 6월에 지정한 원산-금강산관광특구 다음가는 북한의 2번째 관광특구가 되었다. 무봉관광특구는 백두산으로부터 35km, 중국 화룡 고성리통상구로부터 60km 떨어져 있다. 주변에는 삼지연공항도 있으며 유명한 리명수폭포, 항일유적지 등 많은 관광유적들이 있다. 계획된 무봉관광특구의 총면적은 20km²이고 예상된 총투자 규모는 6~8억 위안에 달한다. 무봉관광특구는 백두산과 연변을 방문하는 중국의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특구 내에는 골프장, 카지노, 승마장, 온천 등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여러 차례의 대북제재로 모든 투자가 소강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4. 북·중 관광협력에 미치는 촉진요인과 억제요인

북·중 관광협력은 소득이 증가한 중국인들의 관광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경우 북한지역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과 과거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점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지역의 열악한 관광인프라와 북한 공무원들의 관광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 촉진요인

첫째, 관광협력 양해각서의 체결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2009년 북한과 체결한 관광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기초하여 북한을 관광 대상국가로 지정했다. 이것은 기존에는 중국인이 북한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길림성과 요녕성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에서, 다른 성에서도 직접 북한관광을 조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나선특별시와 신의주 등 북한의 일부 지역에 대한 중국인의 무비자 여행도 허용되는 등을 통해서 북한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북한은 중국인의 관광방문이 확대됨에 따라서 외화수입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중국과의 관광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관광협력의 지속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비록 남한, 일본, 미국 등의 국가와 정치·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 왔으며, 2013년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북·중 간 냉기류가 심화되는 상황이지만, 소위 평화의 패스포트를써 관광협력은 일정한 수준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중관계가 점점 냉각되면서 중국인들의 북한관광이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

나 양국의 관광협력은 최소한의 수준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는 북·중 양국의 관계 개선 의지가 최소한의 관광협력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관광 발전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북한지역이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자연관광자원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관광 대상국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는 그보다도 ‘신비한 국가’ 혹은 중국의 과거를 회상케 하는 관광지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 중에서 중노년층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선전하고 있는 관광지와 관련해서는, 소위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체제의 선전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홍색관광지(만수대, 김일성광장, 주체사상탑 등)’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이에 대한 건설과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억제요인

첫째, 북한 세관의 출입국 수속은 복잡하고, 속도 또한 지나치게 느려서 고객서비스나 편의성 측면에서 낙후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불편한 절차들은 전체적으로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권하(중국)→원정리(북한)의 세관 출입국 수속에는 수차례의 검사와 절차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관광객에 대한 검사도 매 사람마다 등록하고 가방을 열고 심지어는 몸수색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평이 크지만, 북한 세관의 복잡한 출입국 절차로 인하여 세관 체류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고 있어 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평양의 순안공항도 마찬가지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필수적으로 모든 가방은 열고 검사를 받

아야 하며, 출판물은 일률적으로 몰수하고 또한 관광객의 소지품 중에 한국산, 일본산 혹은 미국산 상표가 있는 옷이나 물건 등은 소지하지 못하며 핸드폰은 꼭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북한에서의 외국인 관광활동이 크게 제약되고 있는 점이다. 북한에서 외국인의 관광활동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지정한 관광지 외에는 여행객 마음대로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고, 모든 활동에는 관광가이드를 대동해야 하거나 혹은 불허된 행동을 감시하는 직원도 계속 함께 다니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관광객들의 행동에 대한 제약이 크다. 북한의 이러한 통제정책은 관광객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행 도중 사진촬영도 제한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출국 시에는 북한세관의 검사를 거쳐 일부 사진이 바로 삭제될 수도 있다.

셋째, 북한의 정치·군사적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핵개발과 실험, 미사일 발사, 특정인의 억류 등의 사안들은 그 규모와 무관하게 평화를 전제로 하는 국제 관광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3차 핵실험 이후 전면 중단된 중국인의 북한관광과 함께 연변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던 전기, 식량 등 지원도 차단되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북한과 중국 간 관광협력은 위축수준을 넘어 전면적인 중단사태를 맞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인한 양국관계의 냉각과 중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증가는 양국 관광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러한 현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을 넘어 폭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정부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연변을 통한 북한관광을 일방적으로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는 관광교류의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대북한 관광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 후 연변을 통한 나진-금강산 크루즈관광이 중단됐고, 2016년 제4차 핵실험 후에는 연길-평양 전세기 관광이 중단되었는데, 이 2개의 관광코스는 2017년 말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비록 2014년에 중국 하남성 정주-평양 전세기를 새로 증편하였지만, 총 4번밖에 운행되지 못하였으며, 2015년에도 몇 차례의 운항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넷째, 관광인프라 시설의 낙후성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 호텔, 관광버스 등 해외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양적 및 질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평양시의 경우 양각도호텔과 고려호텔 등 2개의 특급호텔을 제외한 다른 호텔의 시설들은 오래되어 부식이 심하지만 자금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제대로 개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양-개성, 평양-원산-금강산, 평양-묘향산, 평양-남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동경로가 비포장도로로 방치되어 있는 점도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진에서 칠보산으로 가는 도로는 비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그리고 북한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관광버스도 중국과 일본의 중고차들이어서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5. 소결: 북·중 관광협력을 위한 시사점과 남·북·중 3각 협력 방안

가. 북·중 관광협력 촉진을 위한 방안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서 북·중 관계가 많이 악화되었지만 앞으로 북한이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중국의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가 유지되는 한 북·중 관광교류는 점점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서 향후 북·중 관광 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남한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관광환경 개선을 통한 관광협력 여건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북·중 관광협력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북·중관계의 불안정, 국경 지역의 사건·사고,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자연재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중국인의 북한관광이 자주 중단되는 등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중국과 북한 사이에 경제·무역 분야의 협력과 관광협력을 활성화하고, 북한이 외국인들 상대로 하는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순조로운 해결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하여 정치·경제적 분위기를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개혁·개방 가속화를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변국과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확대해 나가면서, 관광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숙박 및 교통, 전력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역량을 개선함과 동시에 인위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각종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⁶⁹⁾ 특히, 외국인들에게 안전한 국가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국가적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은 자국민들의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동의 자유화를 포함하여 일부 규제조치(도와도 사이의 통행증 검사 등)를 완화하고, 국내 단체관광을 활성화하여 국내관광을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북·중 상생적 관광협력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북·중 양국이 협력을 통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입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된다. 특히, 육로관광 시에는 무비자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국경지역 관광이 배후지역으로까지 관광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

⁶⁹⁾ 최철호, “북중 관광 협력의 현황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제13권 10호 (2011), pp. 87~88.

중 간의 통행로 개보수를 포함한 확장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교통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해상항로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에 호시무역(互市貿易)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하고, 북·중이 관광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관광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와 신뢰구축, 정책 조율, 수속 간소화 등을 통해서 북·중 간 관광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이를 통한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⁷⁰⁾ 현재는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하여 북·중 관광협력이 침체 상태에 있지만, 앞으로의 협력 확대에 대비하여 양국 관련기관끼리의 정례적 업무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대규모 축제 및 문화행사의 공동 개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 예술단들이 출연하는 공연 프로그램이나, 북한의 특산물이나 토속 음식을 파는 대규모 쇼핑센터의 건설 등도 검토할 수 있다. 대부분의 중국 관광객들은 세계 유일의 대규모 집단공연인 북한의 아리랑 행사를 선호한다. 만약 북·중 혹은 남·북·중 3국이 이러한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면, 이 지역의 경제·문화·예술 교류와 압록강과 두만강 접경지역에 대한 관광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국적 문화행사가 북한에서 정례적으로 개최된다면 북한의 관광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경제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⁷¹⁾

넷째, 시장화 원칙에 따라 북·중 협력 관계를 촉진하는 관광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중국과 북한의 관광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평화공존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희망을 존중하고 관광시장의 수요와 시장경제적 질서를 준수하는 관광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⁷⁰⁾ 위의 글, p. 88.

⁷¹⁾ 위의 글, p. 88.

관광협력의 건전하고 빠른 발전을 이루어 낼 필요가 있다. 북·중 양국의 관광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관광시장이 원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양국의 친선을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동북지역의 공동 항일투쟁지역을 위주로 하는 관광상품과 아리랑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해서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공동 마케팅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⁷²⁾

나. 남·북·중 3각협력 방향

최근 들어 연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하여 북한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중 경협과 무역의 축소로 일상적인 업무로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도 대폭 축소될 것이고, 북·중 양국 간의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인들의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북한관광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무엇보다도 먼저 핵문제에 대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시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제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북한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객들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과 활동을 보장해주는 조치도 중요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일부 변경지역에 자가용 관광, 낚시 관광 등 새로운 관광상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⁷²⁾ 위의 글, pp. 88~89.

이와 함께 중국 외 타 국가의 관광시장을 겨냥하는 관광시장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중국 관광객에 편향되어 있는 북한 관광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 중동, 러시아 등 지역에 홍보를 강화하고 비자면제를 포함하여 수속을 간소화하여 외국인 여행의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남·북·중 관광협력 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몇 가지 협력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차별화된 해양·레저 관광상품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관광지 및 시장개발에 대한 다국 간 관광협력을 토대로 한 국제협력에 대한 새로운 계획은 지역국가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이고 기후나 문화적 차이를 관광자산으로 한 차별화된 경쟁우위의 관광코스로서 지중해의 크루즈라인들과 겨울 각광받을 잠재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역레저객을 위한 낚시관광이나 해양관광의 개발도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해바다를 이용한 차별화된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상품의 개발은 북한과 인접국가들에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의 욕구는 경제·사회적 발전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령, 중국 훈춘-북한 나선-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는 호화크루즈 관광상품이나 나선-금강산-속초-부산-일본의 니이가타-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연결하는 호화크루즈 관광상품을 개발하게 되면 환동해 주변 지역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 관광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빠른 경제 성장과 군사안보적 긴장상태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극동아시아 지역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중의 관광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속가능한 관광지 개발과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중국·북한·러시아 3국 정부는 두만강 하류 삼각주에 국제관광자유지대를 구축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다. 즉 중국 훈춘의 방천 풍경구, 북한 나선특별시 두만강시 지역, 러시아 연해주 하싼지역을 잇는 국제자유관광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대규모 관광지 개발은, 두만강 하류의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지구적 자연자원에 대한 전 인류적 차원의 접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명제는 관광을 포함한 모든 개발프로젝트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사항이다. 이처럼 인류를 위한, 인류에 의한, 개발패러다임과 사상 기초는 모든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 친환경적인 관광지 개발은 남·북·중 및 환동해권 관광협력에서도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북·중·러 관광협력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두만강하류 삼각주에 대한 관광합작구 개발사업은 이미 길림성 핵심 프로젝트로 결정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 두만강부두와 북한 두만강부두 건설공사도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육로로 잇는 임시관광통로도 거의 완공 단계에 있다. 벌써 여러 개의 관광루트가 개발된 상태인 것이다. 예를 들면, 두만강의 중국부두에서 두만강 출해구를 통한 동해바다 크루즈코스, 두만강 중국부두-북한부두를 통한 두만강구와 나선특구에 대한 관광, 중국 방천 중·러 임시 관광통로를 이용한 하싼 관광과 해양관광, 중국 두만강부두-북한 두만강부두-두만강동-하싼촌을 연결하는 삼국 관광코스도 멀지않은 장래에 개발될 전망이다. 앞으로 제3국 관광객들도 이 지역 관광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조정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관광객들도 여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정부 차원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건설적인 제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변경(邊境)합작구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사진 IV-4 방천 두만강 하류 삼각주-북한 두만강 부두



출처: 저자 촬영.

사진 IV-5 중국 방천 두만강관광통로(임시통상구)



출처: 저자 촬영.

셋째, 북·중 접경지역 관광지 개발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의 참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북한당국은 북·중 접경지역에 2개의 관광개발구와 1개의 관광특구를 설립한 바 있다. 2개의 관광개발구는 함경북도 온

성섬관광개발구와 평안북도 청수관광개발구이고, 관광특구는 양강도 무봉관광특구이다. 이 관광지역은 중국의 투자유치를 통해서 개발한다는 구상 아래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부과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개발이 중단된 상태이다. 앞으로 남·북·중 관계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경우, 이 관광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온성섬관광개발구는 연변 도문시 량수향과 마주하고 있으며 개발구 전체 부지가 중국에 붙어있다. 두만강유역에서 유일하게 중국 측에 붙어있는 북한 땅이다. 도문시 정부는 온성섬과 그 주변의 중국 량수향의 일부 지역을 과경관광합작구로 지정하였으며 이미 길림성 중점 프로젝트로 신청되었다. 이 관광합작구에 북한문화 체험, 오락프로, 유희시설, 카지노, 리조트 등 휴가시설을 개발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온성섬에 대한 개발은 현재로서는 중국과 외국 자본만이 투자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쪽 지역(중국 량수향)에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한다면 큰 틀에서 남·북·중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청수관광개발구는 압록강 북한 측에 위치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경치로 유명하다. 맞은편은 중국 요녕성 관전만족자치현이며 북한 관광개발구와 마주하고 있는 지역을 경제개발구로 지정하였고 향후 외부의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기업들이 중국 측 지역에 대한 개발투자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무봉관광특구는 두만강상류 북한 양강도에 위치해 있고, 백두산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홍콩기업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은 화룡시 정부의 중점 유치대상으로서 앞으로 한국기업들의 참여도 기대하고 있다.

다. 향후 전망과 과제

한반도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으며 주변 국가는 아주 큰 관광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 북한, 일본, 몽골 등 주변국의 가장 큰 관광시장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중국의 제일 중요한 관광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현재는 이 지역의 관광협력이 양자 간 협력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한반도와 주변국 간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다자 간 관광협력도 빠른 속도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두만강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다자 간 관광협력은 더디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방천풍경구를 중심으로 한 중·북·러 두만강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도 머지 않아 외국 관광객들한테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국제관광합작구 개발사업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동해를 중심으로 한 다자 간 관광협력이 추진된다면 환동해 관광권은 제2의 '지중해'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완화되면 중국 연변을 거쳐 북한의 나진항을 이용한 금강산-설악산 크루즈항선도 검토해 볼 수 있고, 중국 훈춘-러시아 자루비노-한국 속초 혹은 부산-일본 니이가타 등 지역을 연결한 순환 크루즈항선도 다시 개통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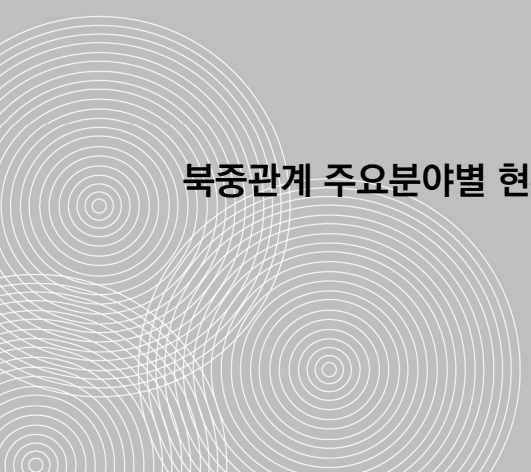
서해를 이용한 남·북·중 크루즈관광도 전망해 볼 수 있다. 중국의 상해와 천진-한국의 인천과 제주도 사이는 이미 크루즈항선이 운영되고 있고, 북한의 남포항을 이용한 평양 관광과 이를 연결하면 서해안에서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관련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크루즈 관광산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면 환동해와 환서해를 이용한 크루즈산업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핵실험, 사드 배치 등의 원

인으로 동북아지역 정세가 불안정하고 이에 따라 관광협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 지역의 관광과 문화협력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로서는 이 지역 관광협력의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적 역량을 강화하며, 관광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북제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광, 문화, 인적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V. 종합 평가와 남·북·중 협력 방향

임강택(통일연구원)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1. 북·중관계의 분야별 주요 특징

가. 북·중 양국의 리더십 변화

북·중 양국 간 리더십 변화에 따른 시기적 성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후진타오 시대(2003~2008년)는 양국의 리더십이 대내적으로 개혁과 반동(反動)의 진동을 경험하며, 국제무대에서의 협상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던 시기이다. 따라서 양국 간 관계는 ‘혈맹과 견제’라는 전통적 이중 전략 실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일은 2002년 이후 경제사회적으로 부분 개혁정책을 실시하며 경제발전 및 제도 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실험을 하던 시기이다.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았던 시기이다. 정치·외교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및 북한체제 보장 장치가 갖추어지면 핵 포기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한국과 국제사회에 전달하며 해외의 대북지원을 유도하던 시기이다. 그러다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의 생존 위기를 넘어서며, 2006년 10월 1차 북핵실험을 기점으로 다시 보수적인 정책으로 회귀하던 시기이다. 한편 2003년 3월 중국 국가주석에 취임한 후진타오는 대내적으로 경제발전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 ‘화평굴기(Peaceful Rise)’라는 외교정책으로 주변국과의 평화적 외교노선을 펼쳤다. 그러나 중국 내부적으로 후진타오의 리더십은 2017년 현재 중국 최고지도자인 시진핑의 리더십에 비해 권력 및 영향력이 약했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혈맹 중시’라는 전통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였다. 또한 대외적으로 리더십 성과를 내기 위해 6자회담을 중심으로 다양한 동북아지역 내 외교 행보에 나선 시기이다.

둘째, 양국 정권 교체기(2009~2012년)는 2011년 말 김정일 사망 전후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의 부상과 집권, 그리고 중국의 차기 지도자 시

진핑의 부상으로 상징되는 시기이다. 이미 2008년 김정일 병환 전후 김정은으로의 후계자 수업이 진행되고, 중국 또한 2008년 부주석으로 선출된 시진핑이 차기 주석으로 유력하게 대두된 시기이다. 2008년 6월 중국에서 부주석으로 취임한 시진핑이 첫 해외순방 시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2008년 8월 중순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11월 공식 석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었다. 시진핑의 북한 방문 및 김정일이 병상에서 통치 현장으로 복귀한 이후, 북·중관계를 주도하는 리더십의 변화가 온다. 더불어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북·중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다. 그리고 2011년 말 김정일의 예상보다 빠른 사망으로, 2012년 새롭게 집권한 김정은은 체제를 정비하고 자신의 유일권력을 세우기 위한, 각종 제도 정비(노동당 제4차 당대표자회의 개최 등) 및 ‘측근 교체 사업’(공포정치 등)을 시작한다. 시진핑 또한 2012년 말 차기 중국의 주석으로 공식화된다. 따라서 2009년~2012년은 북·중 양국 모두 정권 교체를 준비한 정권 교체기라 명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후진타오 및 김정일 모두 안정적인 후계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대내외 사업에 매진한 시기이다.

셋째, 김정은-시진핑 시대(2013~2017년 6월 현재)는 김정은 체제와 시진핑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시기이다. 2013년 북한은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하며 상반기에는 대외·대남 도발을 극대화하였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 안정화에 매진하며 ‘고위직 숙청 및 공포정치’로 상징되는 지배연합 재구축 작업에 집중한다. 대표적 사건은 친중 개혁개방파로 알려진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처형 및 그 세력에 대한 대대적 숙청이다. 이후에도 주요 고위직에 대한 숙청, 혁명화, 처형, 신임, 재신임 등을 통해 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김정은 정권 안정화 작업에 매진한다. 또한 2013년 ‘핵·경제 병진노선’을 법으로 제도화한 후 정권의 사활이 걸린 전략으로 국제적 ‘핵보유 국가 인정 투쟁’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핵무기뿐 아니라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주도적 도발을

한다. 그리하여 4차 핵실험(2016.01.06.)과 5차 핵실험(2016.09.09.), 그리고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까지를 실행한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은 국제무대에 나서지 않은 채 각종 당 및 국가제도를 김정은 영도체계가 관철되도록 정비한다. 그리고 2016년 7차 당대회를 정점으로 명실상부한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선포한다. 따라서 내치에 주력하며 대외 행보는 활발히 전개하지 않았다. 한편 중국의 경우, ‘중국의 꿈’을 화두로 새로운 세대의 증화주의 노선을 선언한 시진핑 체제가 2013년 3월 공식화된다. 시진핑이 국가주석이자 당서기이며 당 최고위원으로 공식 권력을 이양받는다. 시진핑은 신세대 최고지도자로 과거 북·중관계 특징인 ‘혈맹관계 전통’의 경험이 없는 태자당 출신이다. 이 세대들은 북한과의 혈맹관계에 대한 인식이 흐릿해져 있기에,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중국이 시진핑 체제 이전에 사회주의 이념을 중시했다면, 지금은 국가이익이 가장 우선시되는 시대이다. 시진핑 시대는 21세기 증화주의를 표현하는 ‘중국의 꿈’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국가이익이 북한에 의해 발목 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 및 북·중관계에 대한 고민과 딜레마가 드러난다.

나. 북·중 인사교류의 특징

북·중관계의 변화를 대표하는 변수로 양측 주요 인사들의 상호방문 횟수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주요 분야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분야별 인사교류 실태를 통해서 관찰되는 사항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인사교류가 상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외교적 노력과 경제협력, 그리고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인사교류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각 분야의 교류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상이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북·중 간 정치적 관계가 양국의 인사교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치적 관계가 우호적일 경우에는 보다 고위급의 인사가 빈번하게 교류하고, 상대적 관계가 경색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사교류가 위축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처럼 오랫동안 혈맹관계를 유지해 왔던 역사를 고려할 경우, 경색 국면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외교 분야의 인사교류가 양국의 리더십 변화에 따른 정치적관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경제 분야의 인사교류는 양국의 경제적 이익실현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일단 협력사업이 성사되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관성이 작용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장기화되고 강도가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적 관계의 단절현상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관계는 양국의 리더십 변화에 따른 정치적 변수보다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와 같은 외부적인 변수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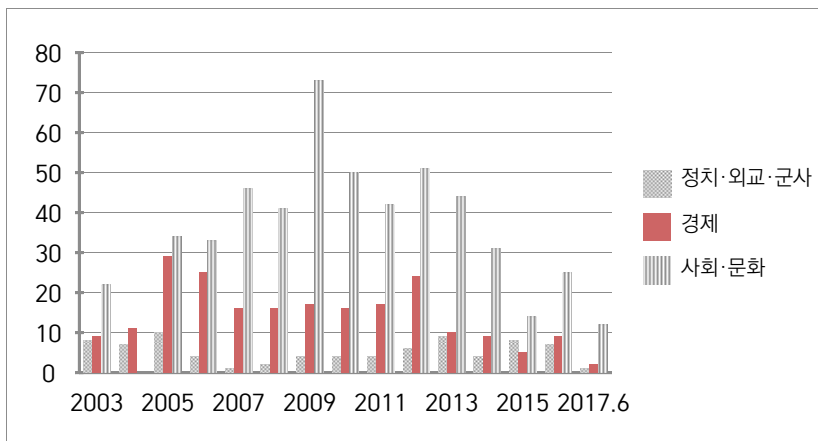
넷째, 사회문화 분야의 인사교류는 다른 분야에 비해 지속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적다는 특성과 양국의 역사적 교류 경험이 관성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분야 역시 정치·경제관계의 악화에 안전하게 독립적일 수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이에 따른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표 V-1 분야별 인사교류 추이

연도	정치·외교·군사	경제	사회·문화
2003	8	9	22
2004	7	11	-*
2005	10	29	34
2006	4	25	33
2007	1	16	46
2008	2	16	41
2009	4	17	73
2010	4	16	50
2011	4	17	42
2012	6	24	51
2013	9	10	44
2014	4	9	31
2015	8	5	14
2016	7	9	25
2017.6	1	2	12

* 사회문화 분야 인사교류의 경우 2004년의 자료가 부적합하여 제외함.

그림 V-1 분야별 인사교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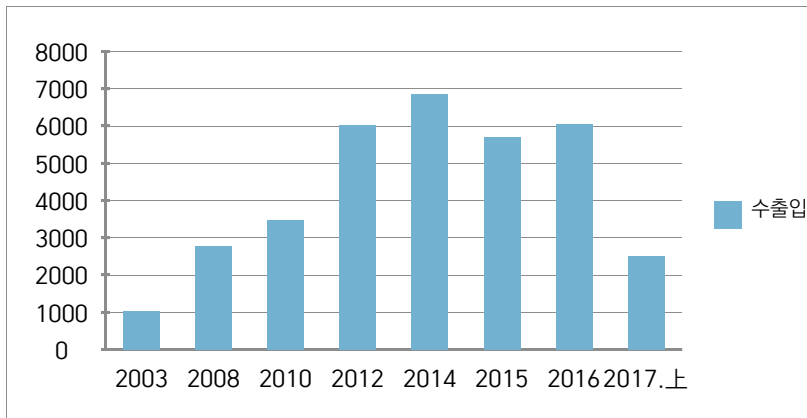
다. 북·중 경제협력의 주요 특징

북·중 경제협력은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른 속도로 증대되어 왔으며,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는 북한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확대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과 투자, 그리고 북·중 접경지역 인프라 구축 실태 등을 통해서 경제관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중 무역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5년 동안 북·중 경제관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는지 알 수 있다. 2003년 10.2억 달러, 2008년에는 27.9억 달러로 빠르게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68.6억 달러로 최고치에 달한 이후 소폭 감소하여 60억 달러 내외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남북교역 제외)도 빠르게 증가해 2003년 42.8%, 2005년 52.7%, 2008년 73.0%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83.0%로 증가하였고, 2014년부터는 90%를 초과하여 2016년에는 92.5%에 이르고 있다.

그림 V-2 북한의 대중 무역 추이

(단위: 100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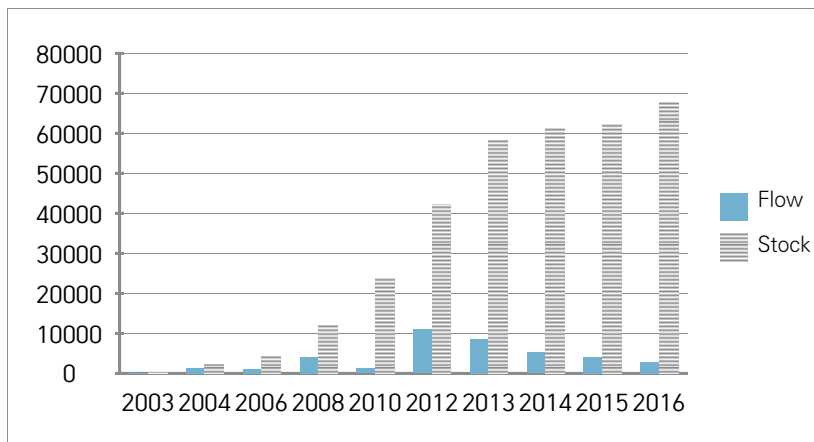
자료: KOTRA, 『북한 대외무역 동향』, 각 연호; 박승혁, “2017년 상반기 북중 및 북러 교역 현황과 시사점.”

주: 2017년 상반기 통계는 한국무역협회 자료임.

중국의 대북투자는 통계지료에 나타는 것보다 더 많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국이 발표한 통계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대북투자(flow)는 2004년을 기점으로 대체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약 4,100만 달러로 파악되고 있다. 투자 규모는 많게는 수천만~1억 달러, 적게는 천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크지는 않으며, 2012년에는 1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한편, 대북투자 잔액(stock)은 2004년 약 2,000만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에는 6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대북 직접투자 건수(승인 기준)는 2006년 31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주춤하였으나, 2012년 이후 다시 활기를 띠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의 대북투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V-3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 추이

(단위: 만 달러)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國家外匯管理局, 『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KIEP 북경사무소,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전망,”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중국의 북한에 대한 투자는 접경지역에 대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은 동북지구에 동부변경철로와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점차 동북지구에 새로운 국제통로를 만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개보수하거나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표 V-2 북·중 접경지역의 교통인프라 개발 현황

구분	주요 내용
다리	- 신암록강대교(2010년): 단동~신의주 구간 건설 - 신두만강대교(2014년): 훈춘~원정리 두만강 대교 보수공사
도로	- 바다오(八道)~싼허(三舍)~청진 고속도로(2015년): 47km, 총 28억 위안의 고속도로 신설 논의 중, 룡징시 싘하~회령 일대를 국제경제협력구 개발 추진 - 훈춘(琿春)~취안허(圈河)~라진 고속도로(2015년): 취안허~선봉~나진항 구간 39km 공사 / 총 23억 위안 투자 계획 - 허룽(和龍)~난핑(南坪)~청진(2015년): 50km로 30억 위안
철도	- 허룽(和龍)~난핑(南坪)~무산(2015년): 53.3km의 총 16억 위안 투자 계획 - 투먼(圖們)~남양~두만강~햇산(2020년): 126km의 총 24.3억 위안 투자 계획 - 투먼(圖們)~청진(2020년) 철도 합작 개조: 171.1km의 총 20억 위안 투입으로 노후 철도 보수 (2010년 상반기 착수) - 투먼(圖們)~라진(2020년): 158.8km, 총 12.7억 위안 투자 계획 - 카이산툰(開山屯)~삼봉(2020년)
항만	- 나진항(2009년): 나진항 제1부두의 2~3호 정박지를 보수·확장, 제4~5호 신축 - 청진항(2012년):

자료: 吉林省人民政府, <<http://jilin.gov.cn>>와 국내 보도자료 등을 보인.

주: ()는 개발 개시 연도를 의미. 단, 도로와 철도는 건설 시한을 표시.

라. 북·중 관광협력의 주요 특징

북·중 관광협력의 특징은 중국인들의 해외관광 수요와 함께 활기를 띠고 있다는 점이고, 중국인들이 거의 일방적으로 북한을 관광한다는 점이다. 북한인들의 중국방문은 대부분 공무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관광목적의 중국방문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대북한 관광 관련 통계치가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실적만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중국인의 북한관광이 두 자릿수의 빠른 상승

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당국의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과 중국인들의 여행 수요 증가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V-3 중국인 북한 여행객 수

연도	중국인 북한 여행객 수(만인차)	증가율(%)
2010	13.11	36.4
2011	19.39	47.9
2012	23.74	22.5

출처: 中國國家旅遊局網站公布, 『中國旅遊業統計公報(2010~2013)』, <<http://www.cnta.gov.cn>> (검색일: 2017.05.09).

반면에 북한인들의 중국관광은 매우 적은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당국의 통제정책과 낮은 경제수준에 따라 북한주민들이 해외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V-4 중국 입국 북한인 여행객 수

(단위: 만 명, () : 점유 비율%)

연도	총수	서비스업 종사자	회의/ 상무	관광/ 휴가	친척친구 방문	기타
2009	10.39	5.21	1.94	0.41	0.03	2.80
2010	11.64	5.39	2.53	0.43	0.04	3.24
2011	15.23	7.53	3.90	0.46	0.01	3.33
2012	18.06	7.96 (44)	5.52 (30.5)	0.45 (2.5)	0.02 (0.1)	4.11 (22.8)
2013	20.66	9.33 (45.2)	5.51 (26.7)	0.29 (1.4)	0.03 (0.1)	5.50 (26.6)
2014	18.44	8.91 (48.3)	3.39 (18.4)	0.15 (0.8)	0.01 (0.05)	5.97 (32.4)
2015	18.83	9.42 (50.0)	2.59 (13.8)	0.15 (0.8)	0.01 (0.05)	6.67 (35.4)

출처: 中國國家旅遊局網站公布, 『中國旅遊業統計公報(2009~2015)』, <<http://www.cnta.gov.cn>> (검색일: 2017.05.10).

북·중 관광협력은 3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만강 지역과 압록강 지역 그리고 백두산지역이 그것이다.

먼저 두만강지역 북·중 관광협력은 연변자치주와 북한 간의 변경관광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1991년 연길시의 훈춘-함경북도 신성(新星) 관광코스 개발을 시작으로 연변자치주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1995년 9월 중국 훈춘지역의 권하세관이 정식으로 개통되어 중국인과 제3국 관광객들의 북한관광이 용이해졌다. 2009년 말에는 연변자치주에서 '타지역 사증발급 시범구(導地辦證)'로 지정되어 북한 변경관광을 보다 용이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국정부는 북한을 주요 관광대상 국가로 지정함으로써 북한관광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2011년 8월 28일~9월 2일 시작된 '만경봉호'를 이용한 북한의 나선-금강산 크루즈 시범관광은 북·중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어 2013년 2월 20일에는, 나진항에서 싱가포르의 크루즈선박 '황성(皇盛)호'의 출항식을 가지고 나선시와 금강산 연계관광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2013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소강상태에 있다.

다음으로, 압록강 하류의 북·중 관광협력은 대부분 단동을 경유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대북한 변경관광은 사실상 단동지역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5년에 북·중의 변경도시인 단동과 신의주가 협의를 거쳐 서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이후 2년의 노력을 거쳐 1987년 11월 중국 국가관광총국은 「요녕성 단동과 북한 신의주의 자비여행 시범 동의」를 비준함으로써 1일관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2년 북·중은 협의를 통해 묘향산, 개성, 판문점, 금강산 등에 대한 관광을 실시하게 되었다. 1999년 중국 국가관광국과 공안부가 「요녕성 단동시 대북한 관광에 관한 의견에 관한 통지」를 연합으로 발표하였다. 단동을 통한 북한 관광코스로는 단동-신의주-묘향산-평양-개성-판문점 등 국제열차를 이용한 5~6일 코스가 많다. 2009년 단동을 통해 북한을 방문한 여행객 수는 총 25,000명에 달할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백두산지역 북·중 관광협력을 살펴보자. 2012년 10월 10일, 중국 길림성 백두산 관리위원회와 북한 국가관광총국은 백두산을 공동개발하는 데 대한 의향서(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국은 평등과 호혜(상호주의)의 원칙하에서 백두산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 측은 백두산을 북파구, 서파구, 남파구로 나누어 개발·관리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길림성 장춘에서 백두산 서파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개통되었다. 연길-화룡-백두산 고속도로도 2018년에 개통될 예정이고, 연길-돈화-백두산 고속철도도 5년 내에 개통될 예정으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4월 22일, 북한은 백두산 동파 양강도 삼지연군에 무봉관광특구로 건설한다고 결정하였다. 무봉관광특구는 백두산과 연변을 방문하는 중국의 국내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러 차례의 대북제재로 모든 투자가 소강상태에 있다.

마. 분야별 전망

첫째, 향후 북·중 간 고위급 인사교류는 기본적으로 양측의 정치권력의 성격에 기초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말 현재 양국의 최고 지도부는 국가 내부에서 권력을 공고화하였다. 북한의 경우 2016년 노동당 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중국의 경우 2017년 공산당 19차 전국 대표회의를 기점으로 최고지도자로서 위상과 권력 강화를 국내외에 과시하였다. 향후 북·중관계는 양국의 국가이익이 상충하거나 일치하는 지점에서 '견제와 협력 전략'을 병행해서 수행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딜레마에 봉착할 것이며 새로운 북·중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인사교류의 분야별 순위는 리더십 변화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특징을 보였다. 향후에도 정치외교 고위급 및 사회문화 분야 인사교류는 지속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제 분야 인사교류는 중국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단시일 내에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과 지역 간 비공식 중소 규모 거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리더십과 관련성이 높은 정치외교 분야 고위급 인사교류의 경우에는, 북·중 간 협력촉진 요인이 견제/대립요인보다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시진핑 정권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중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판단 아래 좀 더 강한 대북제재를 시도할 것이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고도화’가 현실화되면 북·중관계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당분간 ‘획기적인’ 형태로 북·중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중 경제협력에 대한 전망은 전문가들 사이에 다소 엇갈리고 있으나, 대체로 단기적으로는 급속히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그동안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발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는 동참했지만, 북한의 체제 불안을 우려하여 매우 신중한 태도를 표명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북·중 무역의 대부분이 접경지역인 동북3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무역과 투자의 주체가 점차 ‘북한당국과 중국 기업’에서 ‘양측의 기업’으로 바뀌고 있는 점에서도 북·중 경제협력이 비공식적인 소규모 거래방식 등을 통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제재의 강도가 계속 강화되고, 제재가 지속되면 결국 북·중 경제협력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 채택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 등에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섬유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에 들어 대북제재 품목에 대해서는 북·중 간 경제협력이 축소되어 왔다. 따라서 북·중 경제협력이 중단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북·중 경제관계도 소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북·중 관광협력 역시 기본적으로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의 관광시장이 폭발

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 지역의 관광협력이 활성화될 잠재력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와 주변국 간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 간 관광협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두만강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다자 간 관광협력은 더디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방천 풍경구를 중심으로 한 북·중·러 두만강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가 개발된다면 이 지역 관광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동해를 중심으로 한 다자 간 관광협력이 추진된다면 환동해 관광권은 제2의 '지중해'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완화되면 중국 연변을 거쳐 북한의 나진항을 이용한 금강산-설악산 크루즈항선도 검토해 볼 수 있고, 중국 훈춘-러시아 자루비노-한국 속초 혹은 부산-일본 니이가타 등의 지역을 연결한 순환 크루즈항선도 다시 개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해를 이용한 남·북·중 크루즈 관광도 전망해 볼 수 있다. 중국의 상해와 천진-한국의 인천과 제주도 사이는 이미 크루즈항선이 운영되고 있고, 북한의 남포항을 이용한 평양 관광과 이를 연결하면 서해안에서 큰 인기를 얻을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와 역사적 갈등 및 영토분쟁 등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이 지역의 관광과 문화협력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남·북·중 3각협력 추진 방향

본 보고서는 3개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북중관계 종합백서 및 남북중 협력방안”의 2년차 사업으로, 올해 보고서의 주된 목표는 북·중관계를 분야별로 심층 분석하고 남·북·중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내년 3년차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게 될 ‘남·북·중 협력방안’ 연구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기본 방향

첫째, 신정부의 대북정책과 중국의 주변국과의 협력정책 및 한·중 협력정책을 다차원적으로 연계한 남·북·중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장 원론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중국 정책을 어떻게 상호 연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과 북한의 발전전략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영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남·북·중 협력이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교류협력 수요에 기반하여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포함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공감대 형성작업이 중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중국 및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우리 사회의 필요성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필요성과 우리 사회의 요구, 그리고 외교·안보적 필요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정책적 수요가 큰 부분을 살펴보고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북한의 경제 실태와 경제정책은 빠른 속도로 변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의 대외적 교류협력 수요도 변화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요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대북제재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제재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수준에서 협력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 분야별 추진 방향

□ 정치외교 분야

남·북·중 정치·외교·안보 분야의 인사교류는 북핵문제의 해결이라는 어려운 과제로 인해서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관련 사례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다만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함께 자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회적인 3자 접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정치외교 분야에서 남북교류, 북·중교류, 한·중교류를 연계해서 진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3자협력의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다. 만약 정치·외교·안보 분야의 인사교류가 가능해진다면,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핵심 목표로 추구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남·북·중 전략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본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초기 단계에는 민간부문의 전문가나 실무자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성숙되면 정부 측도 참여하는 1.5트랙의 전략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외교안보 분야의 상호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다양한 외교안보 관련 국제회의에서 남·북·중 3국의 대표단이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주제 선정과 회의 방식 등에서 남·북·중 3자 협의가 가능하도록 조율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경제 분야

경제 분야의 남·북·중 3자 협력은 기본 원칙으로는 상생의 협력이어야 한다는 점과 민간주도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증진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 경제관계 사이에서 상당한 성격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초기단계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의 중개자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생 분야에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으로 진행하고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접경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북제재가 어느 정도 완화된 상황에서는 중국과 우리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북한지역에 진출하거나 북한의 노동자를 중국의 접경지역에서 고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경제개발구 특정지역에 한국과 중국자본이 공동으로 진출하여 개발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북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는 한·중이 협력하여 북한지역의 SOC를 확충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반도를 관통하는 교통로를 개설해서 중국과 연결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해안과 서해안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및 고속철을 건설하여 중국의 주요 도시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중국과 일일생활권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 사회문화 분야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남·북·중 교류협력은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고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남·북·중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정서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상이한 체제에서 올 수 있는 괴리감을 줄인다는 목표하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남·북·중 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다거나, 예술가들의 공동작품 생산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남·북·중 3국의 대표적인 예술단들의 공연이나 예술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3국의 예술인들이 협력하여 북한의 대표적인 예술단의 동북아 순회공연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3국의 예술인들로 구성된 예술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체육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유소년과 여자 축구경기를 서울·평양·베이징 등 3국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경기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제적인 체육경기를 3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관광상품을 3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생태나 역사 등과 같은 주요 테마별로 3국의 주요 장소를 순회 방문하는 형태의 다국적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가관광지도총국. 『조선관광안내』. 평양: 조선국가관광총국 관광선전사, 2002.
- 김지호. 『조선에 대한 이해(관광 및 투자)』. 평양: 외국문출판사, 2015.
- 배종렬·윤승현.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이교덕 외.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이기현 외.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崔哲浩 『延邊旅游經濟研究』. 延邊: 延邊大學出版社, 2011.
- 權哲男·崔哲浩·林今淑·許虎林·崔文. 『朝鮮經濟特區及開發區研究』. 香港: 香港亞洲出版社, 2016.
- 延吉市統計局. 『延邊統計年鑑 2015』.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2015.
-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國家外匯管理局. 『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2017.

2. 논문

- 김부용·임민경. “중국의 동북진흥전략 10년 평가와 전망.” 『KIEP 중국성별 동향 브리핑』. 제4권 7호, 2013.
- 김영윤. “북한 교통 인프라 개발과 남북한 연결.” 『KDB 북한개발』. 통권 9호, 2016.
- 림금숙. “대북제재가 북중 경협에 미치는 영향.” 『수은북한경제』. 겨울호, 2016.
- 배종렬. “길림성의 대북투자: 현황과 유형.” 『KDI 북한경제리뷰』. 제18권 5호, 2016.
- 서종원. “북한 라선지역 개발이 동북아 교통물류체계에 미치는 영향.” 『KDI 북한경제리뷰』. 제14권 5호, 2012.
- 이승신 외. “19차 당대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7권 31호, 2017.
- 이종림. “중국의 대북투자 리스크와 대응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제15권 2호, 2013.

- 정은이. “접경지역 단동에 대한 현지조사.” 『KDI 북한경제리뷰』. 제15권 4호 2013.
- 조명철 외. “최근 두만강지역 개발 동향과 정책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제9권 36호, 2009.
- 최수영. “대북 제재 하 북중 경제 협력의 현황과 특징, 시사점.”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 주최 제15회 남북경협포럼 발표논문집. 2017.03.17.
- _____. “중국의 대북투자 실태 분석.” 이석 편. 『북중 무역의 결정요인: 무역 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
- 최철호. “북중 관광 협력의 현황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제13권 10호, 2011.
- 金明哲 崔哲浩 金石柱. “元山-金剛山國際旅遊特區開發現狀及投資前景.” 『延邊大學學報: 社會科學版』. 第6期, 2014.
- 李英花 崔哲浩. “圖們江區域邊境旅遊合作的現狀與展望.” 『延邊大學學報』. 2011.
- 滿海峰. “遼寧省“北黃海經濟帶”開放開發與中朝邊境旅遊經濟發展.” 『東北亞論壇』. 2010.

3. 기타

- 『로동신문』.
- 『연합뉴스』.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 『조선일보』.
- 『鳳凰網』 <<http://news.ifeng.com>>.
- 『新華網』 <<http://news.xinhuanet.com>>.
- 『丹東新聞網』 <<http://www.ddnews.com.cn>>.
- 『中新網』 <<http://www.chinanews.com>>.

Open Source Center. “North Korea-Characteristics of Joint Ventures with Foreign Partners, 2004~2011.” 1 March 2012.

- 북한 국가관광총국 <<http://tourismdprk.gov.kp>>.
- 통일부 북한정보포탈 <<http://nkinfo.unikorea.go.kr>>.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中國國家旅遊局 〈<http://www.cnta.gov.cn>〉.

中華人民共和國文化和旅遊部 〈<http://www.cnta.gov.cn>〉.

丹東中國國際旅行社有限公司 〈<http://www.ddcits.cn>〉.

吉林省人民政府 〈<http://jilin.gov.cn>〉.

<부록> 북·중 분야별 인적교류 현황

◇ <부록1> 김정일-후진타오 시대 경제 분야 인적교류: 2003~2008년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1	2003.4.7. ~4.20.	중국		북한 조선과학기술 총연맹 부위원장 등 대표단		
2	2003.7.14.	중국		북한 금속기계공업 성 대표단		
3	2003.8.11. ~8.14.	북한 평양	대북투자 중국기업		제6차 평양봉철국제상 품전람회	
4	2003.8.20.	북한 평양			북·중 과학기술협조위 원회 제39차 회의	
5	2003.8.22. ~8.31.	북한 평양	교통청장 등 대표단	육해운성 대외사업 국장	북·중 국경하천운항협 조위원회 제42차 회의	
6	2003.9.15.	중국 북경	국가품질감독검사 검역총국	국가품질감독국 대 표단	북한 국가품질감독국과 중국 국가인증인가감 독관리국, 품질인증분 야 협조 협정 체결	
7	2003.11.17.	북한 평양	중국 기상해양국 대 표단	북한 기상수문국	북·중 기상과학기술교류 및 협조에 관한 제12차 회의	과학기술 정보교환 등 실질적 협력방안 논의
8	2003.11.20.	중국 북경			북·중 경제 및 문화협 조에 관한 협정체결 50쪽 기념연회	
9	2003.12.5.	중국 북경	국가전력망 공사 부 총경리	전기석탄공업성 부 상 등 대표단	북·중 수력발전회사 이 사회 제55차 회의	압록강 수계의 수자원 공동 개발 및 이용 협의
10	2004.5.30. ~5.20.	북한 평양	대북투자 중국기업		제7차 평양봉철국제상 품전람회	
11	2004.5.26. ~6.5.	중국 심양	중국지린성 교통청 장 등	육해운성 대외사업 국장 등 대표단	북·중 국경하천운항협 조위원회 제43차 회의	압록강, 두만강 수로조 사 등 국경하천 운항관 련 사업계획 협의
12	2004.6.29. ~7.3.	북한	중국 경제무역 대표단			
13	2004.7.1.				대안천선유리공장 건설 착공식	
14	2004.8.17.	북한	중국 인민은행 대표단	조선중앙은행	대금결제방식 및 북한 경제개발에 대한 금융 지원논의	
15	2004.10.12. ~10.19.	북한	중국 국가해양국대 표단			
16	2004.10.25.	북한	중국 기술실무대표단			
17	2004.10.26. ~10.30.	중국	중국 인민은행 관계자	북한중앙은행대표단	조선중앙은행과 중국 인 민은행 간 지급결산 협의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18	2004.11.27. ~11.30.	북한	홍콩 엠페리그룹 대표단			
19	2004.12.10.	중국 북경			북·중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40차 회의	
20	2004.12.11. ~12.18.	중국		림경만 무역상 등 북한경제무역 대표단		경제, 무역,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설치 합의
21	2005.1.16.	북한	홍콩 국제산업발전유한공사대표단			
22	2005.3.15. ~3.19.	중국 북경		리용만 무역상 부상 등 북한 경제무역 대표단	북·중 경제·무역·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제1차 회의	정부 간 정례적 제도적 경제협의 채널 정비
23	2005.3.22.	중국 북경	원자바오 총리, 리자오싱 외교부장, 웨이젠궈 상무부 부부장	박봉주 내각총리, 로두철 내각 부총리, 김광린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림경만 무역상	북·중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조인식	투자위협성 방지를 위한 제도적장치 정비 및 마련 -양자 간 무역, 투자협력관계 더욱 활성화 조치
24	2005.3.25.	평양	국가전력망 공사 부총경리 등 대표단	북한 전기석탄공업성 부상 등	북·중 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56차 회의	압록강 상하류 지역의 신규발전수 추가 건설 문제 등 논의
25	2005.4.25.	중국 북경	국가품질감독검사감독총국	국가품질감독국 대표단	조·중 「2005~2006년 대규모 계량·품질감독, 품질인증 부문 협조 계약서」 조인식	
26	2005.5.16. ~19	북한 평양	대북투자 중국기업		제8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27	2005.5.21. ~5.29.	북한 평양	교통청장 등 대표단	육해운성 대외사업국장 등	조·중 국경하천 운항협조위원회 제44차 회의	압록강과 두만강 수로 조사 및 시설을 설치 등 제반 운영문제 협의
28	2005.6.4.			북한 전기석탄공업성 대표단 방중		
29	2005.6.21. ~6.23.	단둥			제1회 북한수출입상품교역회	중국 사이트 (중조경제무역합작망)
30	2005.7.8.	중국 산둥			조중 과학기술 협력협약서 서명식	식용교연구및개발에대한 합의 (중조경제무역합작망)
31	2005.7.13.	북한	텐쉐런(田學仁) 상무 부상장 등 지린성 경제무역대표단	박봉주 내각총리, 림경만 무역상	외자유치 관련 협의	
32	2005.7.23.	북한	중국 방직 및 피복공업 대표단			
33	2005.8.	중국 심양		북한 조선과학원과 학기기술대표단	중국 심양 계산소 방문	중국 사이트 (중조경제무역합작망)
34	2005.8.22.	북한	중국정부 경제무역 대표단			
35	2005.9.1.	북한	중국 기상해양국 대표단	북한 기상수문국	기상, 수문, 해양, 환경 오염 등에 대한 관측과 자연재해 예방 관련 협의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36	2005.9.1. ~9.5.	장춘		북한 무역상 부상 등 경제무역대표단	제1차 중국 지린-동북 아시아투자무역박람회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 교류협력 확대 -북한은 교역, 외자유 치확대, 선진기술 정 보도입 모색
37	2005.9.13. ~9.17.	북한	중국 국가전력망공 사대표단	전기석탄공업성부 상 등	북·중 수력발전회사 창립 50주년 경축집회(9.14) 및 연회 참석	
38	2005.9.17.	북한	중국해관총서 대표단			
39	2005.10.7.	북한	중국서광자동차 집 단대표단			
40	2005.10.10.	평양			북·중 「경제기술 협조 에 관한 협정」 조인식	
41	2005.10.24. ~10.27.	평양	대북투자 중국기업		제1차 평양주체국제상 품전람회	
42	2005.10.24. ~10.30.	중국		북한 철도성 대표단		
43	2005.10.28.	평양	후진타오 주석		북·중 「경제기술 협조 에 관한 협정」 조인식	
44	2005.11.2. ~11.6.	북한	중국복건성 기업대 표단		대북투자환경 조사	중국 사이트 <중조경제 무역합작망>
45	2005.11.7.	북경	국가전력망 공사 부 총경리	전기석탄공업성 부 상 등 대표단	북·중 수력발전회사 이 사회 제57차 회의	
46	2005.11.24. ~12.4.	중국		북한 지진국 대표단 방중	지진국 간 「2006~2007 년 과학기술교류계획서」 조인(11.25)	
47	2005.12.5.	중국 북경	중국 기상해양국 대 표단	북한 기상수문국	북·중 기상과학기술교 류 및 협조에 관한 제 13차 회의	
48	2005.12.23.	중국 북경			북·중 과학기술협조위 원회 제41차 회의	
49	2005.12.24.	북경			북·중 「해상공동석유 개발협정」 서명식	
50	2006.3.6. ~3.14.	중국		북한농업과학원 대 표단		
51	2006.3.8. ~3.12.	북한	단동화상하이외투자 유한공사 이사장 일행			중국 사이트 <중조경제 무역합작망>
52	2006.3.22. ~3.28.	중국 동북3 성		장성택 등 북한 정 부경제대표단		
53	2006.4.13.	북한	중국유색그룹·지린 하오롱그룹·북한금 강총회사,		「북한 유색금속협력개 발협약」 서명식	중국 사이트
54	2006.5.9. ~5.12.	평양	마슈홍(馬秀紅) 중 국 상무부 부부장 등 대표단		북·중경제·무역·과학 기술협조위원회 제2차 회의	경험 활성화 방안 논의 회의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55	2006.5.13. ~5.16.	북한	첸위안(陳元)중국 개발은행장 등 대표단	조선중앙은행 관계자	북한 경제개발에 대한 중국의 투자문제 관련 의견교환	
56	2006.5.15. ~5.18.	평양	대북투자 중국기업		제9차 평양봄철국제상 품전람회	
57	2006.5.17.	중국 북경	국가품질감독검사 검역총국	국가품질감독국 대 표단	북한 국가품질감독국과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 검역총국, 「검사·검역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식	
58	2006.5.20. ~5.27.	중국		북한 육해운성 대표단	「차량운수협정 서명, (5.23, 베이징)	
59	2006.5.24.	북한	중국민용항공총국 대표단	북한 민용항공총국 대표단	정기노선 개발 및 관리 협약	
60	2006.5.	중국 심양		리이구 북한 조선과 학원 부원장 등 대 표단	선양생태소 방문	중국 사이트
61	2006.6.13. ~6.17.	북한	바이춘리(白春禮)국 상무부원장등 과학 원대표단			
62	2006.6.20. ~6.25.	북한	중국운주상회 대표단			
63	2006.6.21. ~6.24.	단동			제1회 북·중 경제무역 투자상담회 및 북·중 경제무역투자상담회	중국 사이트
64	2006.6.27.	평양			북·중 「문약발전소건설 협력에 관한 협의서」 서명식	중국 사이트
65	2006.7.10.	평양			「북·중 정부 경제기술 협력협정」 서명식	
66	2006.7.13. ~7.21.	중국 장춘	중국지관성 교통청 장 등	육해운성 대외사업 국장 등 대표단	북·중 국경하천운항협 조위원회 제45차 회의	
67	2006.8.18. ~8.22.	북한	중국국제무역촉진위 원회 및 국제상회대 표단			
68	2006.8.26. ~9.11.	중국		북한임업 대표단		중국 사이트
69	2006.9.2. ~9.6.	장춘			제2차 중국 지린-동북 아시아투자무역박람회	
70	2006.9.8.	북한	중국광수집단유한 공사 대표단			
71	2006.9.	북경			중국 유색그룹·중색국 제광업주식유한공사· 홍투산동광·북중국제 광업공사, 「북한 해산 동광 공동개발에 관한 협력 협의서」 서명식	중국 사이트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72	2006.9.25. ~9.28.	북한 평양	대북투자 중국기업		제2차 평양추계국제상 품전람회	
73	2006.12.19. ~12.26.	북한	중국 베이징보동지 원무역유한책임공 사 대표단			
74	2006.12.23.	중국 허난성 안양			중국 허난 초월기업그 룹과 북한 중앙수입물 자교류총회사, 「투자 협력의향서」 서명식	중국 사이트
75	2007.3.25. ~4.2.	중국		북한 과학기술총연 맹 대표단		
76	2007.5.	중국 선양		북한 조선과학원의 IT전문가 14명	북·중 정보기술공동연 구개발기구 중국 선양 에 설립	중국 사이트
77	2007.5.15. ~5.19.	평양	대북투자 중국기업		제10차 평양봄철국제 상품전람회	
78	2007.5.29. ~6.6.	평양	교통청장 등 대표단	육해운성 대외사업 국장 등	북·중 국경하천운항협 조위원회 제46차 회의	
79	2007.6.26. ~6.29.	단동			제2회 북한 수출입상 품교역회 및 북·중경제 무역투자상담회	중국 사이트
80	2007.7.27.	북간성		북한 조선상업회의소 대표단		중국 사이트
81	2007.8.17.	북한	중국 개발은행 대표단	조선중앙은행 관계자	경제개발 관련 금융지 원 등 협의	
82	2007.9.2. ~9.6.	장춘			제3차 중국 지린-동북 아시아투자무역박람회	
83	2007.9.3.	북경			북·중 경제·무역·과학 기술 협조위원회 제3 차 회의	
84	2007.9.15.	중국	중국 제남송유공사	북한 파이프관기술 교류단	중국 제남송유공사 방 문	중국 사이트
85	2007.9.20. ~9.22.	심양		북한 국가과학원 대 표단	〈2007동북아첨단기술 박람회〉 참가	중국 사이트
86	2007.10.8. ~10.10.	평양	대북투자 중국기업		제3차 평양추계국제상 품전람회	
87	2007.10.22. ~11.2.	중국		북한 과학기술총연 맹 대표단		
88	2007.10.30.	북한	중국 선급사 대표단			
89	2007.11.27. ~12.1.	평양	중국 기상해양국 대 표단	북한 기상수문국	북·중 기상과학기술교 류 및 협조에 관한 제 14차 회의	
90	2007.12.13.	평양			북·중 과학기술협조위 원회 제42차 회의	
91	2008.1.19.	중국		북한 철도성 대표단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92	2008.2.27.				북·중 합자기업인 평양 아명조명합영회사 개 업식	중국 사이트
93	2008.4.23.				북·중 합자기업인 평양 백산연초합영회사 개 업식	중국 사이트
94	2008.5.12. ~5.15.	평양	대북투자 중국기업		제11차 평양봄철국제 상품전람회	
95	2008.6.3. ~6.7.	중국		지역식 북한 세관총 국장 등 대표단	「세관분야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	
96	2008.6.14. ~6.18.	북한	중국 국가품질감독검 사검역총국 대표단	북한 국가품질감독국	품질인증 및 국가표준 교류 협의	
97	2008.6.16. ~6.19.	북한	중국 민항 대표단			
98	2008.6.16. ~6.19.	북한	중국 교통운수부대 표단		「차량운수협정」 서명	
99	2008.6.	중국 심양	중국랴오닝성 교통 청장 등	육해운성 대외사업 국장 등 대표단	북·중 국경하천운항협 조위원회 제47차 회의	
100	2008.9.2. ~9.6.	장춘			제4차 중국 지린-동북 아시아투자무역박람회	
101	2008.9.15.	북한	홍콩 중화장상연합 회 대표단			
102	2008.9.22. ~9.25.	평양	대북투자 중국기업		제4차 평양추계국제상 품전람회	
103	2008.10.14.	평양			북·중 경제·무역과학 기술 협조위원회 제4 차 회의	
104	2008.10.24. ~10.30.	평양	중국 기상해양국 대 표단	북한 기상수문국	중국 수리부와 북한 기 상수문국, 수문합작 정 기회의	
105	2008.11.10. ~11.20.	중국		북한 무역성 대표단		
106	2008.11.20.	평양			북·중 「경제·문화 협 력협정」 서명 55주년 기념 경축연회	중국 사이트

◇ <부록2> 김정일-후진타오 시대 사회문화 분야 인적교류: 2003~2008년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1	2003.4.	중국 북경			'2003~2005년도 문화교류서' 체결	
2	2003.8.1.~8.5.	평양	전 중조우호협회 부회장 김야도의 아들 김화일행			
3	2003.8.6.~8.12.	평양		김상호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원장 등 관계자	「조선기자동맹과 중화 전국기자협회 사이의 친선협조에 관한 서」, 조인에 관한 서가 8.10일 조인	조선기자동맹과 중화전국기자협회사이의 친선협조
4	2003.8.11.	평양	서기처 서기 위명상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공사참사 전보진	징하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김성국위원장		
5	2003.8.12.~8.16.	평양	중화전국부녀연합회 주석 팡패운을 단장 등 중국여성대표단	녀맹중앙위원회 리영희부위원장	친선모임	
6	2003.9.3.	중국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이며 선전부장인 류운산, 『인민일보』사 사장	엄일규부주필을 단장 『로동신문』대표단		
7	2003.9.7.~9.13.	평양	국무원 보도판공실 부주임 겸 외국문출판발행사업국 국장 채명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외국문출판발행사업국대표단	외국문출판사 박동근 부사장		민경대를 방문함. 대표단은 그밖에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우의탑 등 참관
8	2003.9.7.~9.15.	평양	상해문화, 방송, 영화, 텔레비전집단 당위원회 부서기 리보순을 단장 중국 상해발레무용단	최유규 문화상, 문화성 조찬구 부상, 조선문학예술총동맹중앙위원회 송석환 부위원장, 평양시인민위원회 김정식 부위원장 -9.14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면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55돐 기념 발레무용극 〈백모녀〉를 공연	
9	2003.9.7.	평양	장울화 동지의 가족 일행, 항일혁명투쟁 연고자들인 주보중, 풍중운, 김순옥 가족일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리광 부소장 등 관계부문 일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55돐기념	
10	2003.9.9.~9.13.	평양	부총국장 왕리미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국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징하철 조선중앙		민경대, 주체사상탑, 개선문, 당창건기념탑, 조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라자오 영화 및 텔레비전방송중국대표단	방송위원회 양시운 부위원장과 북한주재중국 대사무동화가 참석함		국통일3대현장기념탑, 평양문화전시관 등 참관
11	2003.9.13.	중국 상해		조선 일본군(위인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대표단	국제회의 참석	
12	2003.9.22.~11.25.	중국		평양모란봉교예단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중국에서 진행된 제9차 오교국제교예축전 참석	
13	2003.9.24.~10.1.	평양	중국 김용운중학교 친선대표단(교장 한버를 단장)	청덕학교 강준호 교장		만경대,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민경대학생소년궁전
14	2003.9.30.	평양	북한 주재 중국 대사 무동화와 대사관성원들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중국 미술가단 상원	문화성 조찬구부상 등 관계부문 일군들 미술기술, 미술애호가들, 평양시인의 근로자	중국화전람회 개막	
15	2003.10.7.~10.8.	평양	중국 홍콩올림픽위원회 위문정일행 도착	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인 북한 올림픽위원회 조상남 부위원장 일행		
16	2003.10.13.~11.18.	중국		만수대예술단		
17	2003.10.14.	중국		과학원대표단	3세계과학원 제9차대회와 3세계과학원 창립 20돐 기념행사에 참석	
18	2003.10.29.	중국		리호규부사장을 단장, 조선중앙통신사 대표단		
19	2003.11.8.~11.18.	평양	부총편집 리덕민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인민일보』 대표단		11.7 만수대 답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장하철 『로동신문』 홍황기 부주필과 북한 주재 중국 대사 무동화가 참석	만경대,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3대혁명기념관, 국제친선전람관, 민경대학생소년궁전, 조종친선동평양제중학교, 대동강맥주공장 참관
20	2003.11.11.~11.18.	평양	부국장 류영금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기상국대표단		11.17 「조선과 중국 기상부문사이의 기상과학기술교류 및 협조에 관한 제112차 회담록」 조인	중국기상국이 세계기상기구의 자원적협조계획에 따라 북한 기상수문국에 설비들을 기증
21	2003.11.17.~11.23.	중국		중앙재판소 김병률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법률대표단		
22	2003.12.17.	북한 평양	서기 관성화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주의청년단 베이징시위원회대표단 성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평양시위원회 김성철 1비서를 비롯한 평양시안의 청년동맹일군	중국공산주의청년단 베이징시위원회대표단 성원들과의 상봉모임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23	2004.		자료 없음(추후 업데이트)			
24	2005.3.9.	북한 평양	중국화초박람회 조직 위원회대표단, 중국 할빈 불멸의 꽃 보급 후원회대표단, 중국 연길 대동공사 불멸의 꽃보급후원회대표단, 북경대 안성재 생명 과학원 교수		태양의 꽃 김일성화명명 40돐 기념행사와 제7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	
25	2005.3.5.	주중 북한 대사 관	중국인민해방군 총정 치부 주임조리, 해군 후근부 부부장과 공군 지휘학원 부원장, 기 타 관계자	최진수 특명전권대 사와 대사관성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대 12주년 기념 중국주재 북 한 대사관에서 사진전시 회와 영화감상회가 진행	
26	2005.4.9. ~4.12.	북한	중국정부 문화대표단	축전조직위원회 최 창일 부위원장 영접	제23차4월의봄친선에 술축전에 참가	
27	2005.4.10.	북한 평양	중국의 단둥 김일성화 김정일화은실대표단, 단둥 서일공사 불멸의 꽃보급후원회대표단, 연변조선족자치주 연 길시원림관리처대표 단, 절강성이우시대 외경제기술복무센터 대표단, 심즈발조선공사 불멸의 꽃 보급후원 회대표단		태양의 꽃 김일성화명명 40돐 기념행사와 제7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	
28	2005.5.2.	북한 평양	중국 연변대학 도서 관 박장양 관장, 외국 어학원 림성호 원장, 동북아시아관광자원 개발연구중심 운영령 주임	북한 국가학위학직 수여위원회 위원장인 내각 객범기 부총리 와 국가학위학직수여 위원회 강춘금 서기 장, 관계부문 성원	박사학위수여	
29	2005.5.19. ~5.27.	중국		김병호 부사장 등 조 선중앙통신사대표단		
30	2005.5.21.	중국		평안남도 친선대표단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김종태 위원장 등		
31	2005.5.23. ~6.3.	중국		조선사진가동맹대 표단 -조선사진가동맹 중 앙위원회 위원장인 외국문출판사 최경 국 사장 겸 책임 주필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비공식방문 1주년을 기 념 사진전시회 참석	
32	2005.5.24.	평양	중국인민대외우호 협회대표단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33	2005.5.25. ~6.3.	중국		황해남도 친선대표단		
34	2005.6.1.	평양 만수 대의 사당	중국안과전문가방 문단	조선로동당 중앙위 원회 최태복 비서		
35	2005.7.5.	북한 평양	중국인민평화군축 협회대표단			
36	2005.7.12. ~7.16.	북한 평양	중국국가라디오, 영 화및텔레비죤방송 총국대표단 -뤄원량 부총국장			
37	2005.7.13.	북한	중국길림육문중학 교친선대표단 -류용기 당서기	창덕학교 강준호 교 장 영접	7.18 친선모임 진행	
38	2005.8.10. ~8.21.	중국		전성국 국장 등 국 가문한국대표단		
39	2005.8.11.	주중 북한 대사 관	중국외교부 심국방부 장쑤리, 해방군보사 소 강봉 부사장, 베이 징국제우호협력회 포량명 상무부회장 기타 관계부문 성원	북한 측에서는 최진 수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	광복 60주년을 기념하여 11일 중국주재 북한 대 사관에서 사진전시회와 영화감상회	
40	2005.8.27. ~9.3.	중국 북경		녀맹중앙위원회 박 순희 위원장을 단장 으로 하는 조선민주 녀성동맹대표단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되 는 제4차 세계여성대회 10주년 기념행사	
41	2005.9.1.	북한	중국기상국대표단 심효농 부국장			만경대, 주체사상탑과 개 선문, 국제조선참관관, 우 의탑, 만경대학생소년 궁전 등
42	2005.9.3. ~9.13.	중국		중앙재판소 김병를 소장을 단장으로 하 는 북한 법률대표단	제22차 세계법률대회 참석	
43	2005.9.17.	중국		농근맹중앙위원회 강창욱위원장을 단 장으로 하는 조선농 업근로자동맹대표단		
44	2005.9.24. ~10.1.	중국		김경준 부상을 단장 으로 하는 국토환경 보호성대표단	아시아재해감소회의에 참가	
45	2005.10.8. ~10.15.	평양	곽효용 상무부국장 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외국문출판발 행사업국대표단			만경대를 방문하고 김 일성화강정일화전사회 장과 주체사상탑, 미제 무장간첩선 <무예블 로>호 등 참관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46	2005.10.9.	평양	중국 항일혁명투쟁 연구자 장울화의 가 족일행		조선로동당창건 60돐 경축행사에 참가	
47	2005.10.12. ~10.18.	중국 북경		김용진 교육상을 단 장으로 하는 교육성 대표단	제2차 아시아교육연단	
48	2005.10.24. ~10.30.	중국		최양호 부주필을 단 장으로 하는 『로동신 문』대표단	11.26담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회 정치국위원이며 서 기처서기인 류운산 당 중앙위원회선전부장	
49	2005.10.25.	주중 북경 대사 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 양군사위원회 부주석 인 국무원원 겸 국방부 장 조강천 중국인민해 방군 총장처 부주임 손충동, 중국공산당 중 양위원회 대외연락부 부부장 장쩌민, 중국인 민해방군 총참모장조 리 리옥, 외교부장조리 리금장, 중조우호협회 부회장 배기 등 관계 부문 성원	중국주재 북한 립시 대리대사 김성기와 대사관성원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 선참전 55돐 기념 연회 와 사진전시회	
50	2005.10.2. ~10.6.	중국 북경			제8차 베이징국제예술 박람회	
51	2005.10.	중국		김용삼 철도상을 단 장으로 하는 철도성 대표단		
52	2005.11.2. ~11.11.	중국		림원보 출판지도국 장 단장으로 한 출 판일군대표단		
53	2005.11.8. ~11.15.	중국		최창일 문화성 부상 을 단장으로하는 북 한 정부문화대표단	아시아문화상연단	
54	2005.11.18.	평양	천재련 재중조선인총 연합회 여성부장을 단 장으로 하는 재중동포 여성대표단			만경대, 조국통일3대헌 장기념탑, 칠골혁명사 적지 등 방문
55	2005.11.23. ~11.26.	북한 평양	중국국제문제연구 소대표단			만경대, 판문점, 대안 친선유리공장 등 방문
56	2005.12.6. ~12.11.	북한	하승원 『인민일보』 사 부서장을 단장으 로하는 중국 『인민 일보』 대표단	엄일규 『로동신문』사 부주필 무동화 중국특 명정권대사가 영접 ○12.9연담조선로 동당중앙위원회비		만경대, 국제조선총참관, 동평양제1중학교, 우의 탑 등도 참관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서 최대복동지, 엄일규 『로동신문』사 부주필 참석		
57	2005.12.10. ~12.16.	중국		홍서헌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김책공업종합대학대표단		
58	2006.1.14.	중국		리경식 농업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정부대표단	조류독감근절을 위한 국제회의	
59	2006.1.14. ~1.21.	북한	문태환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대표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리명원 등 관계자들이 영접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60돐 경축행사에 참가	만경대학명사좌관, 대성산혁명렬사릉 등 참관
60	2006.2.7.	북한 청진 항	집회에는 중국선박〈토소마루〉호 선장과 선원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탄생 기념 중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 참석	
61	2006.2.9.	북한 평양	최경호를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예술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탄생 기념	
62	2006.2.12. ~2.20.	북한 평양	차상보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측하단	김유호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영접		
63	2006.2.14.	주조 중국 대사관	무동화 주조 중국 특명전권대사 및 대사관 성원	림순길 지중중앙위원회 위원장, 김경호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 강창욱 농공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순희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등 근로단체성원들 참석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근로단체일군들을 위한 친선모임	
64	2006.2.14.	주중 북한 대사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베이징시당서기 류기, 중조우호협회 회장 리수쟁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전략부, 외교부, 철도부,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인민일보사, 신화통신사 관계자 등	중국주재 북한 특명전권대사 최진수와 대사관성원들 참석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탄생 기념 사진전시회와 연회	
65	2006.2.13.	중국 심양 철도 문화 회관	양영동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황영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회장을 비롯한 성원들, 료녕지구협회사하 각 지부 대표들, 동포들 1,500여 명 참가	심양주재 북한 총령사	2.16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보고회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66	2006.2.23.	주중 북한 대사 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회 대외전략부장 왕 가서, 철도부 부부장 호이둥 기타 관계부 문 성원들	중국주재 북한 특명 전권대사 최진수와 대사관성원들	사진전시회와 친선모임	
67	2006.3.6. ~3.14.	중국		계영삼 원장을 단장 으로 하는 농업과학 원대표		
68	2006.3.7.	주조 중국 대사 관	특명전권대사 부인 과 대사관녀성들	박순희 조선민주녀성 동맹 중앙위원회 위 원장과 리영희부위 원장, 홍선옥 대외문 화협력위원회 부위 원장을 비롯한 녀성	국제부녀절 96돐 기념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에서 친선모임 개최	
69	2006.4.4.	주중 북한 대사 관	중국인민해방군 총정 치부 주임조리 강길초, 해군장비부 부부장 조동평, 공군지휘학 원 부원장 류해남 기타 관계부문 일군	중국주재 북한 특명 전권대사 최진수와 대사관성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3돐 기념 사진 전시회와 영화감상회	
70	2006.4.8.	북한	정위 문화부 부장조 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정부문화대표단	전현찬 대외문화협력 위원회 부위원장 영접		민경대, 국제친선전람회 과 문화성혁명사전관 등 참관
71	2006.4.10.	북한	당웨이 중국장부 문화 부 부장조리를 단장 으로 하는 중국정부 문화대표단 성원들 과 장영문 주조 중 국대사관 문화참사	전현찬 대외문화협 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조중 두 나라 정부사 략위원회 부위원장 이의 2006~2008년도 문화교류계획서」 조인	
72	2006.4.14.	평양 인민 문화 궁전	중국 길림대학 동북 아연구원 연구사 서 문길	국가학위학직수여위 원회 위원장인 광범기 내각부총리와 강춘금 국가학위학직수여위 원회 서기장 등 참석	지리학박사학위 수여	
73	2006.4.15.	북한	최은복 재중조선인 총연합회부위원장		<절세의 위인을 모셔 선 국조국의 래일은 휘황찬 란하다> 재중조선인총련 합회 부위원장 기자와 회견	
74	2006.4.15.	북한 평양	최은복 부인정을 단장 으로 하는 재중조선 인총연합회대표단		김일성 탄생 94돐 기 념 위대성토론회 진행	
75	2006.4.18.	북한	중국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부 위원장인 고수련 중 화전국부녀연합회 주석을 단장으로 하 는 중국녀성대표단	박순희 녀맹중앙위 원회 위원장과 관계 부문 성원 영접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76	2006.4.19.	북한 봉화 예술 극장	중국예술단, 무동화 주조 중국대사관 특 명전권대사와 대사 관성원	김영남, 박봉주, 최태 복, 양형섭, 김남, 김 중린 당 정권 6관 근 로단체 성, 중앙7관, 과학 문화부문 성원들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	제24차 4월의 봄 친선 예술축전에서 단체상 을 받은 중국예술단 초 대공연	
77	2006.4.24.	주중 북한 대사 관	중국인민해방군국 방대학, 후근지휘학 원, 공군지휘학원, 중국 공산당 중앙위 원회대외협력부, 외 교부, 국방부 등 관 계자	북한 특명전권대사 최 진수와 대사관성원들	조선인민군 창건 74돐 기념 사진전시회와 영화 감상회	
78	2006.5.3.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 우리 나라에 조류독감검 사설비 및 예방물자 기증	
79	2006.5.10. ~5.17.	북한	구맹군 부총편집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신화통신사 대표단	김창광 조선중앙통신 사 부사장과 무수민 중국대사관 공사참사 가 영접		
80	2006.5.22. ~5.26.	북한	왕신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인민일 보』 대표단			
81	2006.5.22. ~5.26.	북한	계지업 부원장을 단 장으로 하는 중국현 대국제관계연구원 대표단	장윤곤 국제문제연 구소부소장이 영접 ○김영남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회위 원장 면담(5.25)	김정일 위원장에게 후 친타오 주석 안부전달	
82	2006.6.13. ~6.17.	북한	백춘례 상무부원장 을 단장으로 하는 중 국과학원 대표단			만경대, 김책공업종합대 학전자도서관, 주체사상 탑, 개선문 등 참관
83	2006.6.24. ~7.1.	북한	돌이덕 부리사장을 단 장으로 하는 중국건축 학회대표단			
84	2006.7.4.	주중 북한 대사 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회 외사판공실 부주임 구원평, 중조우호협회 부회장 배기의, 기타 관계부문		김일성 서거 12돐 기념 사진전시회와 영화감상 회 개최	
85	2006.7.6.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중 국유학생		김일성 서거 12돐 기 념도서, 사진전시회및 영화감상회	
86	2006.7.15. ~7.23.	중국 북경		리영희 녀맹중앙위 원회 부위원장을 단 장으로 하는 조선민 주녀성동맹대표단	제6차 동아시아여성연단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87	2006.7.25.	주중 북한 대사 관	중국인민해방군 총정 처부 주임조리 동세 평과 해군참모장조리 진국화 기타 중국공 산당 중앙위원회 대 외연락부, 국방부, 군사과학원, 외교부, 국제문제연구소, 현 대국제관계연구원 등	중국주재 북한대사 관 림시대리대사 김 성기와 대사관성원	조국해방전쟁승리 53 돛기념 사진전시회와 영화감상회	
88	2006.9.25. ~9.29.	북한	소천 부총국장을 단 장으로 하는 중국국 기체육총국대표단	김장산 체육지도위 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자	9.28 「조중 두 나라 체 육부문사이의 2007년 체육교류의정서」 조인	
89	2006.9.26.	평양 인민 문화 공전	중국 연변대학 법학 원 원장 허원현 법학 원 소장 강해순에게 법학박사학위, 중 국 연변대학 도서관 연구관원 한철에게 문학박사학위 수여	국가학위학직수여 위원회 위원장인 곽 범기 내각 부총리와 강춘금 국가학위학 직수여위원회 서기 장 등	중국 연변대학 교원들 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박사학위 수여	
90	2006.10.14.	북한 평양	동방언어문학학원 교원 념미에게 언어 학박사학위 수여		중국 흑룡강대학 교원 에게 학사학위 수여	
91	2007.2.10.	북한	재중조선인총련합 회축하단	김유호 해외동포사 업국 국장 영접		
92	2007.2.12.	원산항		〈료창위-6802〉호 〈푸문호〉 선장들과 선원	중국선박 선원들의 경 축집회	
93	2007.2.14.	주중 북한 대사관	중국공산당 중앙위 원회 정치국 상무위 원 리장춘, 중국공산 당 중앙위원회 대외 연락부장 왕가서, 중 국인민해방군 총정 처부 부주임 류영치, 외교부 부부장 무대 위, 상무부 부부장 료효기, 철도부 부부 장 호아동, 문화부 부부장 맹호사, 인민 일보사 부사장 하승 원, 신화통신사 부사 장 마승영, 중조우호 협회 회장 리숙생 등	최진수 대사와 대사 관 성원	전시회와 경축연회	
94	2007.2.15. ~2.16.	중국 대련			불멸의 꽃 김정일화전 사회	
95	2007.3.28. ~4.4.	북한	중국 길림육문중학 교 대표단	황미숙 창덕학교 부 교장 영접	3.31 친선모임 진행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96	2007.3.31.	북한	재중조선인예술단		제25차 4월의 봄 친선 예술축전에 참가	
97	2007.4.6.	주중 북한 대사 관			항일혁명투사, 연고자 가족들의 회고모임	
98	2007.4.7. ~4.20.	북한	재중항일혁명투사 가족일행 류통사가족일행, 리 조린가족일행, 왕명 귀가족일행	송영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 연구소 부소장 영접	태양절 기념	
99	2007.4.12.	북한	오해룡 총경리를 단 장으로 하는 중국 단 동김정일화은실대표 단과 불결의 꽃 보급후 원회 중국지역대표단		제9차 김일성화축전	
100	2007.4.10.	중국 심양	양영동 재중조선인총 련합회 의장과 황영두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료녕지구협회 회장을 비롯한 성원들, 각 지 부대표들과 동포들 1,500여 명이 참석	심양주재 북한 총령 사 등	김일성 탄생 95돛기념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료녕지구협회 보고회	
101	2007.4.13.	평양	류효명 주중 중국대 사관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 중국 기상국 관계성원	고일훈 국장을 비롯 한 기상수문국 성원	기중식-중국 기상수문 국에서 고층기상관측 설비 기증	
102	2007.4.23.	중국 주중 북한 대사 관	중국인민해방국 총정 처부, 군사과학원, 해 군총장처부, 군사과학 원 해군장처부, 공군후 군부, 국방대학 일군 들과 중국공산당 중앙 위원회 대외연락부, 외 교부 등 간계부문 성원	최진수 대사 등	조선인민군 창건 75년 기념 사끈전시회와 연회	
103	2007.4.	평양	하복성 가무단과 산 동성 교예단	김영남 최고인민회 의위원장, 리용무차 수, 최태복비서등	평양에서 공연	
104	2007.5.3. ~5.10.	중국 길림	중국길림성인민정 부부성장, 길림시인 민정부부시장, 길림 육문중학교 교직원 학생들 등	강준호교장을 단장 으로하는 창덕학교 대표단	길림육문중학교 창립 90년기념행사	
105	2007.5.10. ~5.15.	북한 평양	최립여 원장을 단장 으로 하는 중국현대 국제관계연구원대표 단	장윤곤 국제문제연 구소 부소장 영접		만경대, 주체사상탑과 인 민대학습당, 미제무장간 첩선, <무에블로>호 등을 참관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106	2007.5.10. ~5.15.	중국		김창광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중앙통신대표단		
107	2007.6.5.	북한	유효명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		친선노동	
108	2007.6.14. ~6.19.	북한 평양	중국태권도협회장 등	황봉영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배웅	국제태권도 련맹 전 총재 최홍희선생서거 5돐 추모행사	
109	2007.6.20. ~7.10.	중국		북한메스게임(집단지조)무대지휘자 장은산 등	내몽고자치구 성립 60주년경추구메스게임공연준비협력	
110	2007.7.8.	중국 주중 북한 대사관	항일혁명렬사 장울화 동지의 딸 가족			
111	2007.7.23. ~7.29.	중국		김병호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기자동맹대표단		
112	2007.7.31. ~8.4.	북한	전 중조우호협회 부회장(김야도)가족일행			
113	2007.8.2.	중국 심양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제6차 동아시아어린이 예술축전	
114	2007.8.29.	북한 만수 대의 사당	중국 흑룡강대학교 교원, 총련 조선대학교 강좌장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위원장인 곽범기 내각 부총리 등	학위 수여 -동방언어학원 교원 송영화에게 언어학박사 학위 수여	
115	2007.8.31. ~9.5.	평양	왕신현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장애인련합회대표단	김영철 조선장애보호련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영접 및 배웅		주체사상탑, 개선문, 평양지하철도, 우의탑, 김만유 병원 등 참관
116	2007.9.4. ~9.8.	북한 평양	중국정부문화대표단 주화명 문화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만경대 방문, 개선문, 평양음악대학, 우의탑, 인민대학습당 등 참관
117	2007.9.4. ~9.13.	북한	중화전국기자협회 대표단 -임현량 부주석 등			만경대, 개선문,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우의탑 등을 참관
118	2007.9.8. ~9.15.	평양	중국국제우호련락회대표단	전영진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영접 -9.10 조선혁명박물관에서 녀성항일혁명투사들인 김옥순 동지, 전순희 동지와 상봉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119	2007.9.18. ~9.25.	중국		외무성 대표단		
120	2007.9.25. ~9.30.	중국		김일성고급당학교 대표단 -신영훈 부교장 등		
121	2007.10.6. ~10.11.	평양	중국외국문물판발 행사업국대표단 -제명경 부국장등	리민천 외국문물판 사 부사장 영접		주체사상탑, 조선혁명 박물관, 인민대학습당, 국제친선전람관 참관
122	2007.10.17.	평양 만수 대의 사당	중국국제무역촉진 위원회 친진분회 회 원 로운봉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 회 친진분회 회원에게 언어학사학위 수여	
123	2007.10.22.	중국		조선로동당 중앙위 원회 당력사연구소 대표단	장물화동지 서거 70돐 추모행사 참가	
124	2007.10.22. ~11.2.	중국		조선과학기술총련 맹친선대표단 -최상건 부위원장 등		
125	2007.10.29.	평양	중국공산당중앙당 학교대표단 -리홍산 교육장 등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등화 -김일성고급당학교 부교장 신영훈 등 참석		만경대, 주체사상탑, 당 창건기념탑, 당창건사 적관, 조선혁명박물관, 인민대학습당, 조국해 방전쟁승리기념관 등 참관
126	2007.10.25. ~10.30.	북한		김일성사회주의 청 년동맹대표단 -김철혁 청년동맹 중 앙위원회 비서 등		
127	2007.10.30.	중국	고수련 중국전국인 민대표대회상무위 원회부위원장, 왕신 인민일보사사장	『로동신문』 대표단 -박정남 부주필 단장		
128	2007.11.7.	북한	류효명 특명전권대 사와 대사관 성원		중화인민공화국 대사 관성원들이 태암협동 농장의 가을걷이	
129	2007.11.15. ~11.20.	중국		국제문제연구소대 표단 -리영대 부소장 등		
130	2007.11.28.	북경	류봉 중국국가체육 총국총국장 등	체육지도 위원회대 표단 최진수대사	「조선과 중국사이의 2008 년 체육교류에 관한 의정 서」 조인	
131	2007.11.30.	북한 인민 문화 공전	중국 기상국대표단 -허소봉 부국장을 단장		「북한기상수문학과 중국 기상국사이의 기상과학 기술교류 및 협조에 관한 회담록」 조인	만경대 및 개선문, 우 의암,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참관
132	2007.11.	북한	중국북경화창형제문		가극 <꽃파는 처녀>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화오리유한회사 총경리허정빈을 단장으로 한 문화대표단		2008년 중국 공연 합의	
133	2007.12.	중국		김일성종합대학대표단 -성지립 총장 단장		
134	2007.12.10.	중국		조선건축가동맹대표단		
135	2007.12.13.	평양	중국정부과학기술대표단, 정진배 과학기술부부부장, 류효명 특명전권대사	북한 측 리성욱 국가과학원 부원장	「조중 두 나라 정부사이의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42차회의 의정서」 조인	만경대 및 주체사상탑, 판문점 등 참관
136	2007.12.28.	평양 만수대의사당	중국 연변대학 학부장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위원장인 객범기 내각부총리, 강춘금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서기장, 김정영 사회과학원 부원장 등	중국 연변대학 학부장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언어학박사학위 수여	
137	2008.2.16.	평양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최은복 제1부위원장 등	김유효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등 관계부문 성원 배웅		김일성종합대학혁명사적관, 주체사상탑, 당창건 기념탑, 김원균명칭평양음악대학 등 참관
138	2008.3.1.~3.7.	중국		조중친선 태암협동농장대표단 -정명철관리위원장		
139	2008.3.12.~3.16.	중국 상해		평양교예단 50명	공연진행	중국상하이국제문화교류유한회사초청
140	2008.3.13.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중국공산주의청년단 베이징시위원회대표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평양시위원회 비서 함철용, 김책 공업종합대학 청년동맹성원들, 학생들	친선모임	만경대, 주체사상탑, 국제친선전람관,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지도서관, 우의탑 등 참관
141	2008.4.5.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박학선 등	제16차 민족올림픽위원회 협회총회	
142	2008.4.10	북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차상보 부의장을 단장		태양절 기념	
143	2008.4.15	중국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인 선전부장 류운산	피바다가극단	혁명기극(꽃파는 처녀) 공연계기 담화	두 달여간 중국에서 공연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왕가서, 문화부장 채무, 외교부 부부장 교중희			
144	2008.4.14.	북경	중국국제우호련락회, 베이징국제우호련락회 성원, 항일혁명투쟁연고자 가족들	북한 대외문화련락위원회대표단	태양절 기념좌담회	
145	2008.4.21.	주북 중국 대사관	류효명 주조 특명전권대사	중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박학선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박관오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리진, 김병호, 양시운 등	제29차 올림픽경기대회 봉화이어달리기행사 기념 연회	
146	2008.4.23.~4.29.	중국		외국문출판사대표단 -리민천 부사장		
147	2008.5.5.~5.9.	북한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대표단 -장보인 부원장			만경대, 주체사상탑과 국제친선전람관, 조종친선 택임협동농장, 우의탑 등을 참관
148	2008.5.9.	북경 인민대회당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위원 리장춘, 장연농 『인민일보』 사장	『로동신문』 대표단 -김중협책임주필 -주중북한대사최진수	담화	
149	2008.5.14.	주북 중국 대사관	주북 중국대사	북한 김영일 내각총리, 북한 올림픽위원회위원장인 박학선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외무성부상, 박병중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평양 제29차올림픽경기대회 봉화이어달리기 성공적 개최계기 연회	
150	2008.5.16.	평양 만수대의사당	중국 심양시 우흥구 제1인민병원 주임 의사인 김룡수동포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위원장인 곽범기 내각부총리와 강춘금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서기장 등	재중동포에게 의학박사학위 수여	
151	2008.5.20.	주북 중국 대사관		김영춘, 최태복, 로두철 내각부총리, 박의춘외무상, 조종친선	중국 사천대지진 인명피해와 관련, 북한 당과 국가간부들 중화인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협회 중앙위원회 위 원장인 최홍보건상, 문재철 대외문화협력 위원회 위원 장대리, 박경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민공화국대사관 방문 및 조의 표시	
152	2008.6.10.	주북 중국 대사 관	중국 국무위원 대령국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회 대외협력부 부부장 류홍차이와 외교부, 철 도부,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중국인민대 외우호협회, 인민일보 사, 신화통신사의 성원	최진수 대사 등	김정일 첫 중국 방문 25돐 기념 영화감상회 와 연회 진행	
153	2008.6.12.	평양 만수 대의 사당	중국 베이징중앙민족 대학 맑스-레닌주의대 학 학장이며 민족리론 및 민족정책연구원 원 장인 김병호 동포	북한 국가학위학직 수여위원회위원장인 곽범기 내각부총리, 강춘금 국가학위학직 수여위원회서기장 등	재중동포에게 철학박 사학위 수여	
154	2008.7.2.	평양 만수 대의 사당	중국 연변대학 교원 인 김일 동포	국가학위직수여위원회 위원장인 곽범기 내각 부총리와 강춘금 국가 학위학직수여위원회 서기장 등	재중동포 경제학박사 학위 수여	
155	2008.7.12. ~7.24.	중국		평양학생소년예술단 -리영환 청년동맹중 앙위원회비서 등		
156	2008.8.2. ~8.9.	북한	중국길림육문중학 교친선대표단 -한비 교장 등	강준호 창덕학교 교 장, 황미숙 부교장	친선모임	민경대, 주체사상탑, 문 화성혁명사적관, 민경대 학생소년궁전 참관 및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관람
157	2008.8.3. ~8.12.	중국		민주조선사대표단		
158	2008.9.3.	평양 만수 대의 사당	중국 연변대학 교원 들인 신명옥동포와 방금숙 재중동포	국가학위학직수여위 원회 위원장인 곽범기 내각부총리와 강춘금 국가학위학직수여위 원회 서기장	재중동포들에게 박사 학위 수여	
159	2008.9.18. ~9.19.	평양	중국 『인민일보』대 표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 비서 김기남, 리진 로동신문사 부주필	친선담화 김정일에게선물증정	민경대, 주체사상탑과 국 제조선조립관, 서해남문, 동평양제1중학교, 우의탑 등 참관
160	2008.9.16.	북경	중국인민대외우호 협회, 중조우호협회	주중북한대사 최진수 대사관 성원 최홍보 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중친선협회대표단	조중친선협회와 중조 우호협회결성 50돐 기념 연회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161	2008.9.18.	평양	류효련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전국부녀연합회 대표단	김경옥 부위원장 등 녀맹중앙위원회 성원	녀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중화전국부녀연합회 대표단 성원들 상봉모임	민경제 조화발전물관 김창숙이소 인민대학총장 국제친선팀단 등 참관
162	2008.9.18.	평양 만수대의 대의 사당	중화전국부녀연합회 대표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린, 김경옥, 녀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163	2008.9.18.	북경	중국문화부 부부장 조소화와 문화예술 부문 성원	중국주재 북한 특명전권대사 최진수와 대사관성원들, 북한 미술 전시회 대표단	공화국창건60년경축북한미술전시회 북한문화성과 중국문화부의 공동주최	
164	2008.9.24. ~9.30	중국		전영진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정부 문화대표단		
165	2008.9.24. ~9.25.	북한 대동강의 교단 회관	무동화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조우호협회 대표단 장복평을 단장으로 하는 중조친선 흥상능장 대표단	오보간상인 최창식,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성원, 시내 근로자 등 관람	조중친선협회와 중조우호협회결성 50주년 기념집회 및 영화감상회	
166	2008.9.25.	평양 안과 병원	무동화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조우호협회 대표단 장복평을 단장으로 하는 중조친선 흥상능장 대표단, 중조친선의료단, 류효명 주조중국 특명전권대사	오보간상인 최창식,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성원들과 병원종업원들	조중친선협회와 중조우호협회결성 50주년 기념 중조친선의료지원활동 개막식	
167	2008.10.14. ~10.17.	평양	중국공산당 심전시위원회 상무위원 리 의진, 심전시교육공작위원회 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심전소년예술단	김철혁 청년동맹중앙위원회비서 영접,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비서 김중린 면담, 리용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1비서 배석	중국 심전소년예술단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극장에서 공연 진행	
168	2008.10.23. ~10.28.	평양 동평양대 극장	중국인민해방군공군정치부문공단	한철 문화성부상 영접-당과 군대, 국가부들과 우당 위원장, 관계부문성원들, 창작가 예술들 공연모임	중국현대무용극 <홍매천가> 공연	
169	2008.10.25.	평양 인민 문화 궁전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정치부 문공단 성원들과 류효명 주조중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	김영남, 김일철 최태복, 로두철 내각부총리 강수문회상,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최창식보간상, 정태근, 조선인민군총장, 김영일, 외무성 부상, 관계부문성원들, 창작가, 예술인들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정치부 문공단을 위하여 연회 마련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170	2008.10.27. ~11.2.	중국		국제문제연구소대 표단 -장윤곤 소장		
171	2008.10.30.	북한 조종 친선 택압 협동 농장	중국대사관 성원		중국대사관 성원들 택 압협동농장의 가을걷 이 지원	
172	2008.11.24. ~11.27.	평양	류봉 총국장을 단장 으로 하는 중국국가 체육총국대표단, 류 효명 주북중국대사	손광호 체육지도위원 회부위원장영접 -조인식에 박학선 체육지도위원회위 원장 관계부문 성원	11.25 「조중 두 나라 체 육기관사이의 2009년체 육교류의정서」 조인	
173	2008.11.26.	평양 만수 대의 사당	류봉 총국장을 단장 으로 하는 중국국가 체육총국대표단, 류 효명 주북중국대사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면담 -손광호 체육지도위 원회 부위원장 배석	담화 및 김정일에게 선 물 전달	
174	2008.12.1. ~12.11.	중국		출판일군대표단 독고능인출판지도 국 부국장 등		
175	2008.12.10. ~12.11.	북경 인민 대회 당	중국인민정치협상 회의 전국위원회 리 금화 부주석	조선중앙방송위원 회대표단 -김원철 부위원장 을단장		
176	2008.12.18. ~12.23.	중국		강창림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중 양방송위원회대표단		
177	2008.12.17. ~12.20.	중국	중국 훈춘시, 연길 시의 각계인사들과 군중들, 재중동포들	심양주재 북한 총경 사와 총령서관성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 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추 대 17돐과 김정숙의 탄 생 91돐 기념 제2차 김 일성회담정일화전시회	

◇ <부록3> 양국 정권 교체기 경제분야 인적교류: 2009~2012년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1	2009.2.28.	북경	국가전력망 공사 부총경리	전기석탄공업성부상등 대표단	북·중 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60차회의	압록강 지역 공동운영 발전소 전년도 사업 결산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등 협의
2	2009.3.16.~9.20.	북한	중국과학기술부대표단			중국 사이트
3	2009.5.7.	평양			북·중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43차회의	
4	2009.5.11.~5.14.	평양	대북투자 중국기업		제12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5	2009.5.19.~5.26.	북한	쓰촨성 과학기술협회 대표단			중국 사이트
6	2009.6.15.~6.19.	평양			북·중 해양과학기술협조 제14차회의	
7	2009.6.23.~6.27.	중국	중국 민용항공총국 대표단	북한 민용항공총국 대표단	정기노선 개발 및 관리 협의	
8	2009.7.28.~8.2.	북한	중국 지린요녕과학기술협회 대표단			
9	2009.8.3.~8.8.	북한	중국 내몽고과학기술협회 대표단			
10	2009.8.24.~8.29.	북한	중국 농업과학원 대표단		방북	중국 사이트
11	2009.9.9.~9.16.	중국	중국 기상국	북한 기상수문국 대표단	기상과학기술교류 및 협조에 관한 제15차회의, 압록강과 두만강 수문 사업협조에 관한 회의 진행(9.15)	
12	2009.9.21.~9.24.	북한	대북투자 중국기업		제5차 평양추계국제상품전람회	
13	2009.9.24.~9.30.	심양		북한 국가과학원대표단	(2009년 동북아첨단기술박람회) 참가	
14	2009.9.2.~9.6.	장춘			제5차 중국 지린-동북아시아투자무역박람회	
15	2009.10.4.	평양			북·중 「경제기술협조협정」 서명식	중국 사이트
16	2009.10.25.~10.26.	북한 라선시	지린성 대표단		청진항과 나진항 협력 개발과 이용, 북중접경 지역 국경다리 건설, 나진항의 도로건설 및 경제협력 등에 관해 의견교환	중국 사이트
17	2009.12.8.~12.12.	중국 북경			북·중 경제·무역·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제5차회의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18	2010.3.31.				북·중 압록강 망강루, 문악 발전소 착공식	중국 사이트
19	2010.4.				중국 원어어업협화와 북한 공동어획협회 「조선 동부해역어획합작협약」 서명식	중국 사이트
20	2010.5.17. ~5.20.	평양	대북투자 중국기업		제13회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21	2010.7.9.	북경	국가전력망 공사 부총경리	전기석탄공업성 부상 등 대표단	북·중 수력발전회사 이사 회 제61차회의	압록강 수계 수자원 공동 개발 이용 협의
22	2010.7.29.	평양			북·중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서명식	
23	2010.8.11.	북경	국가품질감독검사 검역총국	국가품질감독국 대표단	북한 국가품질감독국과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 검역총국 「2010-2012년 규격화 계량 품질감독부문 협조계획서」, 「2012-2012년 검사 검역부문협조계획서」, 「2010-2012년 품질인증부문 협조계획서」 서명식	
24	2010.8.21.	중국		북한 정부과학기술 대표단		
25	2010.9.2. ~9.6.	장춘			제6회 중국 지린-동북 아루자무역박람회	
26	2010.9.27.	중국 지린			제2회 중국 동북(12+1) 도시 라운드 테이블 회의 <압록강경제합작선행구> 건설, 북한과의 경제협력추진 논의	중국 사이트
27	2010.10.18. ~10.21.	북한 평양	대북투자 중국기업		제6회 평양추계국제상품전람회	
28	2010.11.16.	북경	국가전력망 공사 부총경리	전기석탄공업성 부상 등 대표단	북·중 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62차회의	공동 운영 발전소 운영 문제 및 신규발전소 추가 건설문제 논의
29	2010.11.19.	평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북·중 공동지도위원회 제1차회의	
30	2010.11.23. ~11.24.	평양			북·중 경제·무역·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제6차회의	
31	2010.12.20.	북경			중국 상지공사, 북한 라선특별구 투자의향서 서명식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32	2010.12.24.	북경			북·중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44차회	
33	2010.12.31.	단동			북·중 신 압록강 대교 착공식	
34	2011.2.1.	북한	중국 베이징신위통 신산업집단공사 대 표단			
35	2011.5.16. ~5.19.	평양	대북투자 중국기업		제14차 평양철국제 상품전람회	
36	2011.6.8.	선양			북·중 공동지도위원회 제2차회의	
37	2011.6.9.				북·중 훈춘-나진 간 도로건설 착공식	중국 사이트
38	2011.6.9.	북한			황금평·위화도 경제지 대와 라선경제무역지 대 착공식	중국 사이트
39	2011.7.5.	북경	중국 해양국	북한 기상수문국 대 표단	북·중 해양과학기술협 력 제15차회의	중국 사이트
40	2011.7.26. ~7.28.	장춘			중국지린성, 북한라선 시 간 북·중 라선경제 무역구공동개발관리사 업위원회 제1차회의	
41	2011.8.22. ~8.25.	북한 라선	대북투자 중국기업		제1차 라선국제상품전 시회	
42	2011.9.6.	평양	국가전력망 공사 부 총경리 등 대표단	전기석탄공업성 부 상	북·중 수력발전회사 이 사회 제63차회의	
43	2011.9.6. ~9.11.	장춘			제7차 중국 지린-동북 아시아투자무역박람회	
44	2011.10.12. ~10.21.	장춘	중국지린성 교통청 장 등	육해운성 대외사업 국장 등 대표단	북·중 국경하천운항협 조위원회 제49차회의	
45	2011.10.17. ~10.20.	북한 평양	대북투자 중국기업		제7차 평양기을철국제 상품전람회	
46	2011.10.21.	평양	중국 기상해양국 대 표단	북한 기상수문국	북·중 기상과학기술교류 및 협조에 관한 제16 차회의	
47	2011.10.25. ~10.29.	북한	중국 화전집단공사			
48	2011.11.28. ~12.2.	평양			북·중 압록강과 두만강 수문사업 협조에 관한 회의	
49	2011.12.1.	단동			북·중 경제무역문화박 람회 비망록 조인식 -2012년 북중경제무역 문화비람회 6월 개최와 무역·문화·예술·여행 등 4개 분야 업무협약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50	2011.12.15.	중국		북한전자공업실무 대표단		
51	2012.2.23.	북경			북·중 과학기술협조위 원회 제45차회의	
52	2012.4.19. ~4.23.	북경			북·중 압록강과 두만강 수문사업협조 관련 회의	
53	2012.4.27.	평양	북한에서 투자·무역 하는 50여 개 중국 기업 조직		<북한 중국상회> 결성식	
54	2012.5.4.	북한	중국대중화국제집 단주석일행			
55	2012.5.10.	평양			북·중 「만포-집안 국경 다리 공동건설,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서명식	
56	2012.5.14. ~5.17.	북한 평양	대북투자 중국기업		제15차 평양봄철국제 상품전람회	
57	2012.5.28. ~5.31.	북한	국가공상행정관리총 국대표단			
58	2012.6.13.	중국		북한 과학기술총연맹 대표단		
59	2012.6.30.	중국	중국 국가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	북한 국가품질감독 위원회 대표단	품질인증 및 국가표준 교류 관련 협의	
60	2012.7.25.				북·중 합영기업 동백인 쇄공장 개업식	
61	2012.8.14.	북경			북·중 공동지도위원회 제3차 회의	
62	2012.8.20. ~8.23.	북한, 라선	대북투자 중국기업		제2차 라선국제상품전 시회	
63	2012.8.30.				북·중수공업발전소홍수 방지보수공사준공식	
64	2012.9.6. ~9.11.	장춘			제8차 중국 지린-동북 아시아투자무역박람회	
65	2012.9.24.	북한	중국 과학원 대표단			
66	2012.9.24. ~9.27.	평양	대북투자 중국기업		제8차 평양추계국제상 품전람회	
67	2012.9.26.	북경			북·중 경제구역 투자설 명회	
68	2012.10.3. ~10.4.	북한	중국 농업부 대표단			
69	2012.10.10. ~10.19.	평양	교통청장 등 대표단	육해운성 대외사업 국장	북·중 국경하천운항협 조위원회 제50차회의	국경하천 운항 관련 제 반 운영문제 협의
70	2012.10.12. ~10.16.	단동			제1회 북·중 경제·무 역·문화·여행 박람회	
71	2012.10.14.	중국		북한 국가전람국 국 장과 북한의 46개 기업 참가	북·중 국외 투자협력회의	중국 사이트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72	2012.10.18.	중국 심양		안재원 민항총국 부 국장 등 대표단	2011년 9월 차공 평 양 순안공항 터미널 개 조 및 증축공사 관련 협약	
73	2012.10.26.	북한 라선			북·중 나진-원정도로 개통식	중국 사이트
74	2012.11.12. ~11.20.	중국 북경	국가전력망 공사 부 총경리	전기석탄공업성 부 상 등 대표단	북·중 수력발전회사 이 사회 제64차회의	공동운영 발전소 전년 도 사업결산 및 당해연 도 사업계획 등 협의

◇ <부록4> 양국 정권 교체기 사회문화 분야 인적교류: 2009~2012년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1	2009.2.13.	평양	재중조선인총련합회측하단 -차상보 부의장	김유호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영접		
2	2009.2.19.	평양 주북 중국 대사관		문재철 대외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대리, 한철 문화성 부상	「조중 두 나라 정부사이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50주년 기념 주북 중국대사관 연회 마련	
3	2009.2.20.	평양 주북 중국 대사관		문재철 대리, 한철 문화성부상, 전영진 대외문화협력위원회 회부위원장	「조중 두 나라 정부사이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50돐에 즈음하여 영화간담회 진행/연회	
4	2009.2.23.	중국 주중 북한 대사관	조소화 중국문화부 부부장, 허균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대외협력부부비서장		「조중 두 나라 정부사이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50돐 기념연회	
5	2009.2.25.	중국	채무 중국 문화부장을 비롯한 일군들이 참가	문재철 대외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 대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최진수 주중북한대사	「조중 두 나라 정부사이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50돐 기념연회	
6	2009.3.14.	중국		평양예술단 출발	〈조중친선의 해〉 개막 행사	
7	2009.3.14. ~3.20.	중국		김진범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		
8	2009.3.18.	중국 북경	원자바오 중국총리	북한 김영일총리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에서 북중예술인들의 합동공연 관람	
9	2009.4.6.	중국		국제문제연구소대표단 -김유호 부소장단장		
10	2009.4.8. ~4.20.	평양	백숙상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문화예술계연합회대표단(상해교역단, 상해교역단)		제26차 4월의 봄 친선 예술축전	만경대, 개선문, 문화 성혁명사적관 등 참관
11	2009.4.10.	평양	최은복 제1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김유호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영접		
12	2009.5.4.	평양	류효명 주조중화인민공화국특별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중국류학생	평양시내 여러 대학의 학생들	평양시내 대학생들과 중국류학생들 <중국의 날> 기념 친선모임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13	2009.5.8.	민수대 의사당	중국연변대학 사회과학연구처 과장 리석		중국연변대학 교원에게 력사학박사학위 수여	
14	2009.5.13.	북경 인민대 의사당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인 선전부장 류운산	리진 부주필을 단장으로 하는 『로동신문』 대표단		
15	2009.5.12.	평양 고려호텔	류효명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왕금진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중국국제상회 부회장		제12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기념 연회	
16	2009.5.19.	중국	송은루 부비서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국제우호협력학회 친선대표단			만경대, 당창건기념탑, 인민대학습당, 평양326 전선공장 등 참관
17	2009.5.25.	중국		홍황기 『로동신문』 부주필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기자동맹 대표단		
18	2009.5.30.~6.5.	중국 북경		리해룡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중앙통신사대표단		
19	2009.6.1.	만경대 대학 생소년궁전	전영진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길철혁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학생소년들	전영진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길철혁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학생소년들	조선 두 나라 어린이들의 서예 및 그림전시회 개막	
20	2009.6.5.	북경			중국대사관 성원들 택암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	
21	2009.6.15.~6.19.	동평양제중학교	상금화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베이징 제5중학교 <김일성반> 대표단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전영진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강성북 동평양제중학교 교장과 <모택동반> 교원, 학생들	(모택동반)명명 50돌 기념 친선모임	만경대, 주체사상탑, 당창건기념탑, 국제친선전람관, 평양문화전시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
22	2009.6.30.~7.4.	평양 창덕학교	왕용 당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길림성 육문중학교 친선대표단	강준호 창덕학교 교장, 교원, 학생	친선모임	만경대, 조선혁명박물관, 당창건기념탑, 인민대학습당, 조국통일3대현장 기념탑 등 참관
23	2009.7.9.	중국		평양학생소년예술		
24	2009.7.7.	심양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로녕지구협회 각 지부대표들, 동포들	심양주재 북한 총령사	김일성 서거 15주년 기념 김일성 회고모임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25	2009.7.10.	북경	무동화 중조우호협회 회장, 풍작고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부회장	최진수 중국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48돐에 즈음하여 중국에서 연회 마련	
26	2009.7.30.	북한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위원장인 곽범기 내각부총리와 강춘금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서기장, 관계부문	중국연변대학 교원인 재중동포에게 문학박사학위 수여	
27	2009.7.31.	주북 중국 대사관	학효비 중화인민공화국 립시대리대사와 구연명 대사관 룽군무관, 대사관성원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장,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 관계부문 일군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82년 기념 연회	
28	2009.8.3.	평양	중국건축학회대표단, 중국도서수출입(집단)총공사대표단, 중화문화발전촉진회대표단, 중국 료녕성 국제우호련락회대표단, 중국 상해국제우호련락회대표단, 중국 길림성 송화강무역유한공사대표단 등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최대북,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대외문화련락위원회위원장대리, 전영진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박길우 조선건축가동맹중앙위원회부위원장, 김해룡 인민대학습당부총장	평양국제건축도서전시회에 참가 계기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조직위원회와 대외문화련락위원회에서 참가단을 위한 연회 마련
29	2009.8.3.	평양	도건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대표단			만경대 방문, 주체사상탑, 개선문, 만경대학 생소녀극단, 우의탑 등을 참관
30	2009.8.4.	평양	중화문화발전촉진회 대표단, 중국 상해국제우호련락회대표단, 중국 료녕성 국제우호련락회 대표단, 중국 길림대학대표단과 학효비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립시대리대사, 대사관 성원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최창식 보건상, 전영진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김해룡 인민대학습당 부총장, 교육, 출판 부문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	<조중친선-중국과학기술도서전시의 날>행사	만경대,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당창건기념탑, 인민대학습당, 판문점 등
31	2009.8.10.~8.14.	평양	진연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전국부녀련락회대표단	녀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중화전국부녀련락회대표단 성원들의 상봉모임	녀맹중앙위원회 성원들과 상봉모임, 친선모임	만경대, 주체사상탑, 조선혁명박물관, 김정숙택이소 등을 참관하였으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
32	2009.8.31.	평양	고수무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세계 지식출판사대표단	리민천 외국문출판사 부사장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33	2009.8.30. ~9.7.	평양	방송선 상해인민방송국 주필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			
34	2009.8.29. ~11.30.	중국		평양예술단35명		
35	2009.9.2.	중국		조선영화음악단		
36	2009.9.3.	북한 인민 문화 공전	고수무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세계 지식출판사대표단과 류효명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 대사, 대사관 성원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중국손님들, 중국류학생	강능수 문화상, 림원보 출판지도국장, 전영진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출판부문 일군	조·중 외교관계설정 60돐기념화첩 <조중친선은세기를이어>발행식	
37	2009.9.5.	평양	리효화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국제우호연락회 친선대표단		주체사상탑과 당창건기념탑, 국제친선전람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판문점 등 참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관람	
38	2009.9.11. ~9.18.	북경	중국국가라디오, 영화 및 텔레비전방송 중국부국장과 영화 부문 일군들, 군중들	백한수 국가영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영화대표단, 최진수 주중북한대사, 대사관 직원들	조선영화상영주간개막식참석 사친성과 광동성에서 공연	
39	2009.9.14. ~9.18.	북한	왕옥룡 우수협회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우수시범단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인 황봉영 조선무술련맹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시범출연(9.15.~9.16.)	
40	2009.9.21.	북한	장연농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인민일보』 대표단	리진 로동신문사 부주필 영접		만경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동평양제1중학교, 대동강백주공장,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 참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관람
41	2009.9.22.	중국		김철혁 청년동맹중앙위원회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청년친선대표단		
42	2009.9.23.	중국 심양		리성욱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과학원대표단	2009년 동북아시아 첨단기술박람회에 참가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43	2009.9.25.	평양	민기원 중국문화부 대외예술전람센터 부총경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미술대표단	한철 문화성 부상,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전영진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성민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중 외교관계설정 60돐 기념 중화인민공화국 유화전람회에 참석	
44	2009.9.26.~9.29.	북한	조해성 중국영화집단공사 총경리조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영화대표단	백한수 국가영화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영화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평양시내 근로자들	중국영화상영주간 개막식 참석	만경대, 주체사상탑과 당창건기념탑 등을 참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관람
45	2009.9.26.	중국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전춘식 평양시인민봉사지도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중친선협회대표단		
46	2009.9.26.~9.28.	북경	리금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 진호소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 무동화 증조우호협회 회장, 호정약 중국외교부 부장조리	최진수 중국주재 북한대사, 대사관 직원, 중국을 방문하고있는 외국문출판사대표단, 베이징 거주 북한 유학생	조중 외교관계설정 60돐 기념화첩을 발행, 화첩발행식	
47	2009.9.29.	중국	리효화 중국국제우호연락회 부회장, 중국국제우호연락회 고급고문인 허가로 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해 주중국미술기협회 부비서장, 진사부 중국인민혁명군사박물관 관장 등	최진수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전춘식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중친선협회대표단, 북한 유학생들	북한미술작품전시회	
48	2009.9.29.	양각도국제호텔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성원들, 북한체류중국손님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와 강능수문화상,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최창식보건의상, 박경선 조선로동	중국 건국 60년 기념 주북중국대사관 연회 개최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영일 외무성 부상 등		
49	2009.9.30.	평양	손효홍 대외문화집단공사 당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예술단			만경대를 방문함. 예술단은 또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우의탑 등을 참관
50	2009.10.2.	인민문화공전	조중친선협회중앙위원회위원장인 최창식 보건상, 전영진 대외문화협력위원회부위원장	류효명 주조 중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손님들, 중국류학생	조중 외교관계설정 60주기 기념 사진전시회	
51	2009.10.2.~10.4.	중국 훈춘	중국 훈춘 김일성화 김정일화온실, 단동 김일성화김정일화 온실과 훈춘, 연길, 장춘, 단동 등지의 각계 인사들	심양주재 북한 부총령사와 총령사관과 직원들, 심양 거주 북한사람	제3차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52	2009.10.6.	평양	륙호 중국공산주의 청년단 중앙위원회 제1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청년친선대표단	김철혁 청년동맹중앙위원회비서 10.7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김영남 면담	조중청년친선련환모임	만경대를 방문함. 또한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우의탑, 판문점을 비롯한 여러 곳을 참관
53	2009.10.5.	동평양대극장	중국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 양결지 외교부장, 왕가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협력부장, 장평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임, 진덕명 상무부장, 채무 문화부장, 사복침 국무원 연구실 주임, 류효명 주조 중국 특명전권대사, 구소웅 국무원 부비서장 겸 총리판공실 주임, 무대위 외교부 부부장, 류진기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부주임	북한 내각총리 김영일과 로두철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박의춘외무상, 강능수 문화상,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최창식보건상, 김영호내각사무국장, 박경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영일 외무성 부상, 구본태 무역성 부상, 최진수 중국주재 북한 특명전권대사 등	조중 외교관계설정 60주년과 <조중친선의 해>를 기념 만수대예술단과 중국예술단 합동공연	
54	2009.10.6.	홍콩	중국홍콩특별행정구 정부, 홍콩주재 중국 외교부와 여러 나라 대표부, <국제김일성기금>의 인사들	조중친선협회대표단, 홍콩주재 북한 총령	조중 외교관계설정 60주년 기념 조선미술전시회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55	2009.10.9.	중국 심양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일군들과 료녕지구협회 대표들	심양주재북한총영사, 심양시의 북한동포들	재중조선인총연합회 경축보고서	
56	2009.10.13.	만수대의사당	중국연변대학 교원인 재중동포 리총실	곽범기 내각부총리와 강준금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서기장	중국연변대학 교원에게 문학박사학위 수여	
57	2009.10.14.	중국		성자립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종합대학대표단		
58	2009.10.17.	중국 산둥성 제남시		박학선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육지도위원회대표단	「북한 체육지도위원회와 중국 국가체육총국간 2010년 체육교류의정서」 서명	
59	2009.10.15.~12.31.	중국		평양모란봉교예단	중국 순회공연	
60	2009.10.20.	중국		강영섭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그리스도교련맹대표단		
61	2009.10.16.~10.18.	중국 북경	중국 전국우표수집연합회 부회장 류가위, 베이징고루우표수집연구회 회장 주조위	조선우표전시회대표단	조선우표전시회	
62	2009.10.20.	평양	고무생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해방군 친선참관단			주체사상탑과 평양문화전시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미제무장합선〈푸에블로〉호 등을 참관하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아리랑〉을 관람
63	2009.10.22.	평양	중국 항일혁명명사 정올화 동지의 아들 장금천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무송현 실험소학교대표단	김성주소학교 교직원들과관계부문	김성주소학교와 중국 무송현 실험소학교사이의 친선학교관계설정에 관한 합의서 조인	궁전예술소조원들의중합공연을 관람
64	2009.10.26.	중국		홍정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대표단		
65	2009.10.26.	북한	한우흥 부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만향집단공사대표단	김정식 평양시민인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	중국대사관과 중국 만향집단공사에서 우의탑에 태양전지가로등기증	
66	2009.11.2.	중국		강준호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덕학교 친선대표단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67	2009.11.7. ~11.14.	중국		오응창 황해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황해남도친선대표단	친선모임	
68	2009.11.9. ~11.13.	북한	주명위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외국문출판발행사업국 대표단	리민천 외국문출판사 부사장 영접	친선모임	
69	2009.11.16. ~11.26.	중국		김도준 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관 광총국대표단		
70	2009.11.23. ~11.29.	중국		강석준 중앙재판소 부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법대표단		
71	2009.11.24.	평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서재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손건국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류영치, 손충동, 류진기, 기정안 총정치부 부주임들, 두금재 총정치부 주임조리, 리매부 총후군부 부부장, 한연림 총장비부 부부장, 범인화 해군 부정치위원, 왕위 공군 부정치위원, 왕문장 중국문화부 부부장, 호정약 외교부장조리, 류경민 베이징시 인민정부 부시장	엄하진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협주단	중국극원에서 초대공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인 서재후 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담화(11.27.)	
72	2009.11.19.	중국		방순철 평양기계대학 학장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일군대표단	제1차 조중대학학장연단	
73	2009.12.22.	중국 심양	중국공산당 료녕성 위원회, 중국 료녕성상업청, 심양조선경제무역투자자문유한공사, 심양시재정경제위원회, 심양시간설위원회, 심양시기업가협회의 인사들,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의장을 비롯한 재중동포	심양주재 북한 총령사와 총령사관성원들,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관계부문 일군	김정일화전시회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74	2010.3.20. ~4.20.	중국		평양교예단	중국순회공연	
75	2010.4.11.	평양	재중조선인총련합 회대표단	강지영 해외동포사 업국 국장 영접		
76	2010.4.11.	평양	왕동평 총경리를 단 장으로 하는 중국 단동김일성화김정 일화은실대표단, 류 진생 중국 심양조선 경제무역투자자문 유한공사 동사장일 행, 불멸의 꽃 보급 후원회 중국지역대 표단		제12차 김일성화축전 에 참가	
77	2010.4.12. ~4.19.	평양	중국현대국제관계 연구원대표단		만경대, 당창건기념탑, 인민대학습당, 국제친 선전람관, 제12차 김 일성화축전장 등 참관	
78	2010.4.12.	북한	중국친선참관단 및 관광부문방문단	강철수 국가관광총 국 부총국장 영접		
79	2010.4.13.	북한	류홍차이 주중 중국 특명전권대사와 대 사관성원들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인 황봉영 조 선무술련맹 위원장, 조선우수협회사원들	중국우수협회에서 조 선우수협회에 기자재 기증	
80	2010.4.15.	양각 도국 제호 텔	중국친선참관단 및 관광부문방문단 성 원들과 류홍차이 주 중 중국 특명전권대 사	김도준 국가관광총 국 총국장, 관계부 문 성원	중국친선참관단 및 관 광부문방문단을 위한 연회 진행	
81	2010.4.	북한	최수봉 재중조선인 총련합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 조선인예술단			
82	2010.4.23. ~4.24.	중국 단동	료녕철련실업유한 공사, 단동순결무역 유한공사, 단동수출 입공사, 단동유용수 출입공사, 단동화중 무역공사, 단동신통 물류유한공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83	2010.4.30.	중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회 김영남을 단장으 로 하는 북한대표단	-2010년 상해세계박 람회개막 행사참석 -후진타오 주석이 마 련한 연회참석	
84	2010.5.2. ~7.21.	중국		한철 문화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피바 다가극단	북경에서 북한 피바다 가극단의 (홍루몽)공 연(5-7월)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85	2010.5.5. ~5.11.	중국		리형성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기자동맹대표단		
86	2010.5.15 ~5.22.	북한	하만려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길림육문중학교 친선대표단	강준호 교장을 비롯한 창덕학교 교원, 학생들	창덕학교와 친선모임 -두 학교 간 친선관계 설정50주년 기념	
87	2010.5.17.	중국		최수동 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		
88	2010.5.20. ~5.27.	중국		최경국 사장 겸 책임주필을 단장으로 하는 외국문출판사대표단		
89	2010.5.24. ~5.27.	중국		황영보 제1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대표단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 제7차회의에 참가	
90	2010.6.3. ~6.13.	중국		박길우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건축가동맹대표단		
91	2010.6.7. ~6.13.	중국		리광학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청년친선대표단		
92	2010.6.25.	중국 연변대학 조선어학부 교원 심현숙 과 중국 룡녕성 조선족사범학교 교원 심영숙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위원장인 전하철 내각부총리와 강춘금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서기장	재중동포 학자들에게 박사학위 수여		
93	2010.6.28. ~7.2.	북한	전진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국가 라디오영화TV방송 중국대표단		만경대, 대표단은 주체사상탑과 국제친선전람관, 판문점 등 참관함.	
94	2010.7.5. ~7.9.	북한	학림나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홍십자회대표단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백용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물자 기증	
95	2010.7.20.	평양	사이외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과학원대표단	리성욱 국가과학원 부원장 영접	만경대,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우의탑 등을 참관	
96	2010.7.29.	평양	주조 중국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성원들, 중국손님들	당과 국가간부들, 성중앙기관 일군들,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창작가, 예술인, 기자, 편집원들, 시내 근로자들	중국을 방문하였던 피바다가극단 귀환공연 진행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97	2010.8.12.	평양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중앙위원회 서기장규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청년친선대표단	길철혁비서를 비롯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성원들, 평양 시내 청년학생들	-조중청년친선련환모임 *김일성동지청년운동사 적교양실,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수영관, 대동강교수종합농장을 등을 참관하였으며 대집단체조와예술공연(아리랑)을 관람함.	
98	2010.8.23.	주중 북한 대사관	류결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협력부 부부장, 호정약 중국외교부 부장조리, 왕성지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간부부 부부장, 무동화 중조우호협회 회장	최병관 중국주재 북한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99	2010.8.30.	중국 상해		평양예술단	2010년 상해세계박람회 조선의 날행사 참석	
100	2010.9.20.~9.21.	중국 훈춘	중국 훈춘시의 연길시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들, 재중동포	심양주재 북한 총영사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관계부분 성원	제4차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중국에서 진행	
101	2010.10.7.	북한	항일혁명렬사, 재중 항일혁명투쟁연고자,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행사에 참석	
102	2010.10.7.	북한	재중항일혁명투사 서순옥가족, 재중항일혁명 투쟁연고자들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행사에 참석	
103	2010.10.8.	북한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행사에 참가할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을화동지의 가족,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호진일가족			
104	2010.10.9.	평양	최은복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만경대,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수영관 참관	
105	2010.10.8.	평양	고관당 경제일보사 신문발전센터 주임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전국가지협회대표단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수영관, 인민대학습당, 우의탑 등을 참관	
106	2010.10.12.	중국		리용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107	2010.10.16.	중국		조성걸 국가관광총국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천선참관단		
108	2010.10.18.	평양	미리 부총편집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인민일보』 대표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리진 로동신문사 부주필	담화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비서 김기남에게 선물전달	
109	2010.10.20.	평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중화전국부녀연합회 부주석 겸 서기처 제1서기인 송수암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전국부녀연합회 대표단		만경대,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수영관,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우의탑 등 참관	
110	2010.10.21.	평양	중국인민해방군 문예단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쟁참전 60년 기념 중국인민해방군 문예단 평양에서 첫 공연	
111	2010.10.21.	평양	류홍차이 주조 중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	조중천선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최창식보건의장, 전영진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 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쟁참전 60년 기념 사진전시회 개막식	
112	2010.10.21.	평양 대동문영화관	류홍차이 주조 중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손님들	홍광순 국가영화위원회 위원장, 관계 부문 일군들, 영화 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쟁참전 60돛기념 중화영화상영주간이 개막됨. 개막식은 21일에서 진행되었으며 중국 측이 참석	
113	2010.10.23.	중국		김춘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대표단		
114	2010.10.25.	평양 대극장	중국 고위군사대표단, 중국인민지원군, 중국인민지원군 로병 대표단, 중국인민해방군 문예단 성원들, 주조 중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손님들	당과 군대,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무력기관, 근로단체, 성기관일군들, 문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이 손님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쟁참전 60년기념(량산백과축영대)초대 공연진행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115	2010.10.24.	중국 북경	<영원히 기억할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조직위원회 일군들과 중국인민지원군 로병들, 중국인민지원군 련사 모안영의 부인 류송림을 비롯한 련사유가족들, 군중	중국주재 북한대사관 성원	항미원조 60돐기념 전국서화전시회개막 및 도서<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의 새 이야기>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의 사진> 우리 나라 우표<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 발행식	
116	2010.10.25.	평양 인민문화공전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손님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을 기념하여 조선예술영화 <형제의 정>에 대한 감상회	
117	2010.10.28.	중국		길철혁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단	중국 상해에서 진행되는 2010년 상해세계 박람회 청년지도자연단에 참가	
118	2010.11.5.	중국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무원 상무위원회 위원 리정준, 장연농 『인민일보』사 사장, 오향권 총편집, 하승원 부사장	김기룡 책임주필을 단장으로 하는 『로동신문』 대표단 *지재용 중국주재북한특명전권대사가 배석		
119	2010.11.8.	중국		홍서헌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김책공업 종합대학 대표단	중국의 동북대학을 방문	
120	2010.11.8.	평양	중국 신화통신사 대표			
121	2010.11.19.	북한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원대표단			
122	2010.11.22.	평양	중국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 모교방문단	김일성종합대학 부학 총장 조철, 교원, 학생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친선모임 개최 *만경대, 천리마제강련 합기업소, 대안친선유리공장, 사리원시미곡 협동농장 등을 참관	
123	2010.11.24.	평양	추소제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TV연속극 <모안영>제작단 *하호비 주조중국대사관공사참사와 대사관성원들,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손님	박춘남 국가영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춘도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서 일군들, 영화부문 예술인들	중국TV연속극 <모안영>에 대한 시사회	
124	2011.4.16.	평양	중국 하문소백로민속무용단		제27차 봄친선예술축전에 참가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125	2011.5.15.	중국		『로동신문』 청년기 자대표단		
126	2011.6.1. ~7.30.	중국		평양미술단		
127	2011.7.15.	평양	중국감속성가무극 원, 감속성문화청부 청장 장명등예술단	김정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 위원장 김정은, 김 영춘 인민무력부장, 당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최태복, 내 각부총리인 강석주, 국방위원회 부위원 장인 장성택, 당중 앙위원회 비서들 김 양건, 최룡해, 등	「7·15조중우호조약」 체결50주년기념계기 방북 및 <비단길우의 꽃보라> 공연	
128	2011.9.	중국		보건대표단		
129	2011.9.2. ~9.9.	중국 심양			북한 창건 63년 기념 주심양 북한대표부에서 연회, 도서, 사진전시회 개최	
130	2011.10.	중국 후난성		평양교예단	공연	
131	2011.9.15.	평양	왕짜이방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 원대표단		만경대,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대동강교수 종합농장, 금수산기념공 전, 미제무장간첩선 <푸 에블로>호 참관, 김일성 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관람	
132	2011.9.17.	중국 시안		김창도 위원장을 단 장으로 하는 조선김 일성화김정일화위 원회대표단	세계원예박람회 참석	
133	2011.9.19.	평양	중국외국문출판발 행사업국대표단		만경대, 만경봉의혁명 사적, 주체사상탐과개 선문 참관	
134	2011.9.20.	평양 김일성 종합 대학	베이징대 대표단, 지린대학대표단 등 중국대학교 대표단, 안위평 판공실 부주 임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교육부대표단	강능수 내각부총리, 김용진 교육위원회 위원장, 국제학술도 론회조직위원회 위 원장인 김일성종합 대학총장겸고등교 육상 성자립, 김일 성종합대학, 김형직 사범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 사회과학 원의 교원, 연구자들	김일성종합대학창립 65년 기념 국제학술도 론회 참가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135	2011.9.20.	평양 김일성 종합 대학	천더원 당서기를 단 장으로 하는 중국 지 린대학대표단	김일성종합대학 당 위원회 책임비서 일 태히, 관계부문 일 군들, 교원	중국 지린대학, 김일성 종합대학에 도서 기증	
136	2011.9.20.	평양	왕수귀 총장을 단장 으로 하는 중국 하얼 빈공업대학대표단	김일성종합대학 총 장 겸 고등교육상 자립	김일성종합대학, 중국 하얼빈공업대학 간 「교육 및 과학 분야에서의 협 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	
137	2011.9.21.	평양	장신신 중국신문사 총편집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전국기자 협회대표단		만경대, 대성산혁명렬사 릉과 평양지하철도 만경 대학학생소년궁전, 만수대 청짜사, 우의탑 등 참관	
138	2011.9.21.	평양	귀용신 부총장을 단 장으로 하는 중국 랴오닝대학대표단	김군 1 부총장을 비 롯한 김일성종합대 학 관계자	김일성종합대학과 라 오닝대학 간 「교육및과 학분야에서의교류와협 조를위한합의서」 조인	
139	2011.9.27.	평양	관화빙 주조중화인 민공화국임시대리 대사와 대사관 관계 자, 중국류학생들, 학교 등	조중친선협회 중앙위 원회 위원장인 최창 석보건상, 인민봉사 중국 부총국장인 전 춘식부위원장을 비롯 한 조중친선협회 중 앙위원회 관계자 등	중국신해혁명 100년 기념사진 전시회개최	신해혁명 후 중국인민 이 중국공산당의 령도 밑에 승리와 번영의 길 을 걸어온 사실들을 보 여주는 수십 점의 사진 이 전시
140	2011.9.27.	북한	흑룡강성 세일국제 여행사 부총경리 겸 국제부장 전금화를 단장으로 하는 평양 - 하얼빈국제항로 에 의한 1차 중국 관광단	국제청소녀여행사 사장박응산 영접	국제친선전람관, 만경 대, 개선문, 만경대학 생소년궁전, 판문점, 우 의탑, 미제무장간첩선 《무예블로》호 등 참관, 김일성상계관작품 대 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관람	
141	2011.10.2.	북한	귀성군 중국공산당 광시장족자치구위 원회 서기를 단장으 로 하는 중국공산당 대표단		금수산기념궁전방문 김일성에게경의표시	
142	2011.10.9.	북한 운성군	리종원 중국공산당 투먼시위원회 상무 부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관광단		철보산관광열차개통식 참가	철보산 관광
143	2011.10.17. ~10.20.	북한			제7차 평양가을철국제 상품전람회 진행 (10.17.~10.20.)	
144	2011.10.13.	중국 길림성		황미숙 부교장을 단 장으로 하는 창덕학 교대표단	창덕학교대표단, 지린 육문중학교 교원들 친 선모임	
145	2011.10.	중국		조선중앙통신사대표		10.22. 귀국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146	2011.10.22.	중국		장정남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진국대표단		
147	2011.10.25.	북한	원공민 중국화전집단공사 총경리와 그 일행	신남철 조선영광개발총회사총사장 등 관계자영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 담화	만경대, 주체사상탑과 대성산혁명렬사릉,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 참관	경제부문 교류 성격
148	2011.10.27.	북한	원공민 중국화전집단공사총경리와 그 일행, 왕즈린 주조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경제무역참사	내각 총리 최영림동지, 허택 전력공업상, 림남 수석탄공업상, 신남철 조선영광개발총회사 총사장 등		경제부문 교류 성격
149	2011.10.	북한	중국 산시성 (산시성) 청년친선참관단			날짜 추정
150	2011.10.25.	중국 장춘			북한 피바다 가극단이 연출한 뮤지컬 <양산백과 죽영대> 장춘에서 공연 시작, 뒤이어 3개의 북한판 중국 고전작 월 간의 방중 순회공연	2010년 북한판 홍루몽이 중국 공연의 성공을 거둔 이후 또 하나
151	2011.10.17.~10.19.	중국 내몽고 단둥			조선로동당창건 66주년 기념 북한 도서, 사진 및 미술전람회 진행	
152	2011.10.22.~10.30.	중국 허북성		평양교예단	제13차 우차오국제교예축전(10.22.~10.30.) 참가	북한평양교예단의 공중교예 《정복자들》이 최고상인 금사자상 수상
153	2011.11.1.	중국	교육위원회 보통교육성 부상 박순덕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일군대표단			
154	2011.11.3.	중국 북경		중국베이징대학에서 진행되는 국제학술포럼회에 참가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진행되는 국제학술포럼회에 참가	
155	2011.11.4.	북한	흑룡강성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 진히빈을 단장으로 하는 시범하얼빈 -금강산국제관광단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부국장 리충복 등 영접		
156	2011.11.7.	중국	한철호 출판지도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출판일군대표			
157	2011.11.9.	중국 북경	리장춘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류엔	당중앙및국가기관유관부처의관계자,	북한 가극 '양산백과 죽영대' 중국 베이징	리장춘은 이 공연이 북중양국의 또 하나의 문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등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겸 국무위원, 리위안차오 중공중 앙정치국 위원 겸 중 앙서기처 서기, 조직 부 부장, 리지나이 중앙군사위 위원 겸 총정치부 주임	지재룡주중북한대 사 등	서 공연	화교류의 성과이며, 양 국 간 인민 우호감정과 중북전통우의 공고발 전에 긍정적인 공헌을 한다며 극찬
158	2011.11.22.	북한	중국지린육문중학 교대표단		창덕학교와 중국지린 육문중학교대표단 친 선모임 진행	교육시설들 참관, 학생 들의 예술소품공연 관람
159	2011.11.24.	중국	홍서헌 총장을 단장 으로 하는 김책공업 종합대학대표단			
160	2011.11.24.	북경 인민 대회당	중국공산당중앙위 원회서기처서기인 선전부장 류원산,장 엔능 사장, 우형취 엔총편집, 허충위엔 부사장, 연사오밍 비 서장을 비롯한 『인 민일보』사 관계자	최갑성부주필을 단 장으로 하는 『로동 신문』 대표단 *지재룡북한대사배 석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 『로동신문』 대 표단과 담화	중조 인민들 사이의 친 선을 강화강조
161	2011.11.	중국		리성욱 부원장을 단 장으로 하는 국가과 학원대표단		날짜 추정, 11.26 귀국
162	2011.11.24.	중국		중국주재 북한대사 관 직원	중국 제10차 외국최우 수우표선발경연에서 북한 특별영예상 수상	
163	2011.12.15.	중국		한광복 내각부총리 겸 전자공업상을 단 장으로 하는 전자공 업실무대표단		
164	2011.12.20. ~12.24.	중국 대련			중국 다리엔영기화목 유한공사의 주최 김일 성화김정일화전시회 개최	
165	2011.12.	중국 심양			랴오닝성 민간기업가 협회의 주최로 김정일 화전시회 개최	
166	2012.1.31.	중국		손광호 부상을 단장 으로 하는 체육성대 표단		
167	2012.2.9.	중국	중국국제우호련락 회와 베이징국제우 호련락회의 일군들, 항일혁명투쟁연고 자가족들	중국주재북한대사 관관계자	김정일탄생 70주년기 념 회고모임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168	2012.2.16.	북한	중국국제우호연락 회대표단		김정일탄생 70주년기념 중국방문 *김정은에게 꽃다발전달	
169	2012.2.14.	중국 대련		선양주재 우리 나라 총경사와 령사들,조선 선김일성화김정일 화위원회대표단	광명성절기념김정일화 전시회 중국다리엔 개최	
170	2012.2.19.	중국 중경			북한팀, 2012년 중국 국제녀자축구초청경기 대회 참석	
171	2012.3.6.	평양	중국 대표단		신림 및 경관회복에 관한 국제토론회 평양 개최	
172	2012.4.9.	평양	중국예술단(중국인민 해방군 총정치부가 무단, 중국교예단)		제28차 4월의 봄 친선 예술축전에 참가	
173	2012.4.9.	평양	우동허 중조우호협 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대외 우호협회 및 중조우 호협회대표단		김일성주석탄생 100주 년기념국제축전 참석	
174	2012.4.11.	평양	베이징해동성경제 무역공사대표일행, 중국절상문화대표 단	축전조직위원회부 위원장인 심동걸문 화성부상 영접	제28차 4월의 봄 친선 예술축전에 참가	
175	2012.4.11.	평양	중국 조선족문화에 술연구중심대표단, 중국 연비엔문화에 술연구소대표단,중국 연비엔무용가협 회대표단		제28차 4월의 봄 친선 예술축전에 참가	
176	2012.4.10.	평양	양홍준 중국 훈춘 김일성화김정일화 온실 총경리일행		제14차 김일성화축전	
177	2012.4.10.	중국 북경		문화성대표단과 조 선영화대표단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되 는 김일성주석탄생 100 주년 경축 북한 미술전 람회와 조선영화상영순 간행사 참가	
178	2012.4.10.	평양 인민 문화 궁전	우동허 중조우호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 는 중국인민대외우 호협회 및 중조우호 협회대표단과 류홍 차이 주조중화인민 공화국특명전권대 사, 대사관 직원 등	김정숙 대외문화련 락위원회위원장, 최 경국 외국문출판사 시장겸책임주필, 조 중찬선협회중앙위원 회 부위원장인 김진 범 대외문화련락위 원회부위원장 등	『친선송가』발행식이 조선친선협회 중앙위 원회와 중조우호협회 의 공동명의로 진행	시집 『친선송가』는 중 조우호협회회장이 김 일성과 김정일의위인 상을 칭송하여 창작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179	2012.4.11.	북한	우용저 동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단둥광명성에네르기연구개발유한공사 대표단, 왕징 중국 창춘시 풍화전기유한책임공사 동사장일행, 리영호 중국 단둥시 성민무역유한공사 사장 일행		제14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	
180	2012.4.12.	북한	중국 단둥김일성화 김정일화은실 총경리일행, 지피취엔총경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원난세계원에박람유한공사 대표단, 리상진 중국화초협회 두경화분회 부회장일행, 오해룡 중국 단둥승렬무역유한공사 총경리일행, 리화선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지안시지부장		제14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	
181	2012.4.11.	중국 북경	중국국가라디오, 영화 및 TV방송중국관계자	중국을 방문하고있는 조선영화대표단성원들 그리고 중국주재 북한 대사관직원들	북한영화상영주간개막식	
182	2012.4.10.	중국 북경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위원청루, 베이징구러우우표수집연구회회장인중국조선우표연구회회장 주주위이, 우표수집애호가 등	중국주재북한임시대리대사 박명호외 대사관직원들	조선우표전시회 개막식, 조선우표토론회 진행	
183	2012.4.13.	평양 국제 문화 회관	광시미술학원 원장레이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문화일군대표단, 류홍차이 주조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외 대사관직원들	한철 문화성부상, 관계부문일군들, 미술창작가들, 평양시내 근로자들	김일성주석탄생 100년기념 중국광시미술전람회 개막 *북한문화성과 중화인민공화국문화부공동주최	중국 광시장족자치구 미술가들이 창작한 중국민간미술의 일단을 보여주는 수십 점의 중국화, 민공화국문화부공동유화, 판화작품들이 전시
184	2012.4.14.	평양 만수 대의 사당	중국외국문출판발행사업국대표단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비서 김기남 *최경국 외국문출판사사장겸책임주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이 중국외국문출판발행사업국 대표단과 담화	전통적인 중조친선협조관계 강조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과 류홍차이 주조 중화인민공화국특명전권대사배석		
185	2012.4.13.	중국 북경	중국문화부 부부장 왕원장과 관계부문 일군들, 베이징 시민들	문화성대표단, 중국 주재 우리 나라 립시 대리대사 박명호와 대사관성원들, 중국에서 사업하는 북한 동포	김일성주석탄생 100년 기념 북한 미술전람회 중국에서 개막	문화교류와 협조가 두인민들 사이의 친선을 강화하는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 문화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조 및 확대강조
186	2012.4.26.	주중 북한 대사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주임, 중국인민해방군 총후근부, 총장비부, 공군정치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중국국방부 외사판공실의 장령	중국주재북한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직원들	조선인민군창건 80돐에 즈음하여-중국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영화 감상회와 연회 진행	《백승을 떨쳐온 무적의 열병대요》가 상영
187	2012.4.18.~4.26.	중국 대련	다리엔영기화목유한공사 총경리 등 다리엔시의 각계 인사들과 시민들	선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와 령사들, 조선김일성화학김정일화위원회대표단	태양절경축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회 진행	
188	2012.4.24.	중국 하이얼빈	흑룡강성인민정부 외사판공실 부주임 등 관계자	우리 나라 대표부성원들, 대외전람총국 대표단, 조선혁명박물관 일군	중국 하이룽강성 하얼빈시에서 북한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가 개막	
189	2012.5.12.	중국	장현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청년친선대표단			
190	2012.5.22.	중국	장현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청년친선대표단			
191	2012.5.18.~5.22.	중국 남경	난징시 류허구인민정부, 류허경제개발구 인사들과 균중	중국주재북한 대사관 관계자와 중국에서 사업하고있는 북한 동포	김일성 탄생 기념 100주년 기념 북한 도서, 사진 및 미술전람회 진행	
192	2012.5.7.	중국		혁명가극 《꽃피는 처녀》공연대		
193	2012.6.7.	중국		송락군 평양신문사 책임주필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기자동맹대표단		
194	2012.6.25.	중국		김을호 부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문제연구소대표단	중국방문국제문제연구소대표단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195	2012.6.27.	평양 대동문영화관	중국 국가라디오영화TV방송총국 영화관리국 국장 통강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영화대표단, 류홍차이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 북한 체류 중국 손님 및 유학생	북촌남 문화성 부상 겸 영화총국 총국장, 성기관 일군들, 영화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출판보도부문 기자, 편집원	조중합작예술영화 《평양에서의 약속》 시사회에 참가	중북 첫 합작 영화
196	2012.7.4.	평양 만수대 의사당	중국 연비엔대학 공학원 주임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진 내각부총리, 강춘금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서기장, 관계부문 일군	중국 연비엔대학 공학원 주임에게 박사학위 수여	
197	2012.7.8.	중국 남경	장시TV방송국총감독 장사오원, 난창 시교통총회사직원 왕판잉 등 관람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공연 중국 난창시에서 성황리에 진행	
198	2012.7.9.	중국		지승철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회과학원대표단		
199	2012.7.14.	중국		리길춘 남포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친선대표단		
200	2012.7.16.	중국 북경	리웨이 중국 국가라디오영화TV방송총국 부총국장, 통강 중국 국가라디오영화TV방송총국 영화관리국 국장, 중국 영화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 베이징시민 등	‘꽃파는아가씨’의 감독이자 북한저명한영화예술가 겸 국민배우인 홍영희, 북촌남 문화성부상 겸 영화총국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영화대표단	북중 합작영화 ‘평양지역(평양의약속)’ 베이징시사회	
201	2012.7.24.	평양	중국국제려유집단 상하이유한공사 리사장 평이밍을 단장으로 하는 평양-상하이 국제항로에 의한 중국 상하이지역 관광단		평양, 개성, 모항산 관광	
202	2012.9.12.	평양	중국 출판대표단	김정숙 조선대외문화연락위원회위원장 및 양국문화, 과학기술, 출판계인사 등	북한인민대학습당(북한국가도서관) 주최로 12일 제8회 평양 국제 과학기술도서전을 개최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203	2012.10.2.	평양	중국 대련부려화국제 제러행사유한공사 총경리 김춘일을 단 장으로 하는 금강산 국제관광단		금강산을 유람하고 평 양시와 개성시의 여러 곳을 참관	
204	2012.10.8.	중국 허북성 북경			『인민일보』 여성기지단	
205	2012.10.8.	북한	최립여 원장을 단장 으로 하는 중국현대 국제관계연구원대 표단	김을호 국제문제연 구소 부소장 영접		
206	2012.10.12.	중국 단둥	동송근 중국국제무 역촉진위원회 부회 장과 담작군 룡녕성 부성장을 비롯한 성과 시의 당, 정부, 문화, 경제, 무역일군들, 단둥시민	홍길남 평안북도인 민위원회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중진 선주간행사대표단성 원들과 김광훈 심양 주재우리나라총령 사, 최은복 재중조선 인총련합회의장 등	조중진선주간행사	
207	2012.10.12. ~10.13.	중국 단둥	동송근 중국국제무 역촉진위원회 부회 장과 담작군 룡녕성 부성장 등 성과 단둥 시의 각계층 인사들	류홍차이 주조 중화 인민공화국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성원들	만수대예술단 음악무 용종합공연 단둥에서 진행	
208	2012.10.25.	중국 송장 국중 미술관	중국송장국중미술 관관장 등		북한 도서, 사진 및 미술 전람회 중국에서 진행	
209	2012.11.1.	중국		김승두 위원장을 단 장으로 하는 교육위 원회 일군대표단	중국방문 교육위원회 일군대표단 출발	
210	2012.10.26. ~11.1.	중국 무한			제10차 무한국제교예 축전 참가	북한 공중교예 《날이다 니는 처녀들》 최고상인 황학금상 수상
211	2012.11.12.	평양	오제 부총국장을 단 장으로 하는 중국국 가체육총국대표단, 오세광 주북 중국대 사관 문화참사	오세광 주조 중화인 민공화국대사관 문 화참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체육성과 중화인민공 화국 국가체육총국사이 의 「2013년 체육교류 의정서」 조인	
212	2012.11.11.	중국 북간성		북한선수단	북한팀, 중국 북간성에 서 개최한 제5차 아시 아체조선수권대회 참가	북한리세광선수 남자 육운동경기에서 영예 의 제 1위 차지
213	2012.11.19.	중국		현상주 직총중앙위 원회 위원장을 단장 으로 하는 조선직업 총동맹대표단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214	2012.11.30.	평양	김웅 당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연변대학대표단	지승철 사회과학원 부원장 영접	사회과학원창립 60돐 기념행사에 참가	만경대, 만경봉의 혁명사적들, 대성산혁명렬사릉과 평양민속공원 참관
215	2012.12.13.	평양 만수대 의사당	중국 연변대학 교원들인 김성희, 려문호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진 내각부총리, 강춘금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서기장, 관계자 참석	중국연변대학 교원들에게 언어학박사학위 수여	조선어본말과 해방후 조선말어휘구성의 주체적변화발전과 조선속담의 언어문화적 특성을 밝히고 체계화하여 조선어학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216	2012.12.10. ~12.26.	중국			김정일화전시회 개최	

◇ <부록5> 김정은-시진핑 시대 사회문화 분야 인적교류: 2013~2017.6.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1	2013.1.5. ~1.6.	중국 북경, 천진	중국국제문화전파 중심 주석, 왕가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외교부, 공안부, 교통운수부 관계자, 중국인민해방군 등	국립민족예술단	공연	
2	2013.4.10.	평양	단동 김일성화 김정 일화은실대표단, 훈춘 김일성화 김정 일화 은실 총경리, 중국 단둥한통국제화 운대리유한공사 총 경리, 심양조선경제 무역투자자문유한 공사 리사장, 최룡 호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부총장 등		제15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	
3	2013.4.3. ~4.4.	중국 심양	대련영기화목유한 공사, 대련시 화초 협회의 관계자 등	심양주재 북한영사 관과 대련에서 사업 하는 일군들	태양절경축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4	2013.4.13.	중국		강준호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창덕학교 친선대표		
5	2013.4.15.	중국 길림성 유문중학교	재중조선인총연합회, 길림성인민정부 외사판공실부처장, 길림시인민정부외사 판공실주임, 길림시 공안국부국장, 길림 유문중학교 교장 등	심양주재 북한 총영사와 총영사관 직원, 동북3성에서 사업하고 있는 북한 동포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주관 김일성 탄생 101주년 기념 경축행사 진행	
6	2013.4.19.	중국 강서성 정강산시	정강산시정부, 중국 화초협회 관계자	북한 김일성화 김정 일화위원회 대표단 단장	제11차 중국두견화전시회 -김일성화와 김정일화가 최고상 수상 *수상식 참가	
7	2013.6.24.	중국		조선기자동맹대표단		
8	2013.6.24.	중국 북경	장화군 베이징영화학원 원장	김응진 평양연극영화대학 학장	「평양연극영화대학과 중국 베이징영화학원의 친선대학관계설정 에 관한 합의서」 조인	
9	2013.7.15.	중국 심양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료녕지구협회일군들, 조선전선참전 중국 인민지원군로병들	심양주재 북한 영사	조국해방전쟁승리 60년 기념 재중조선인총연합회에서 좌담회 진행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10	2013.7.12.	중국 대련	대련시의 각계 인사, 군중	심양주재 북한 총영사관과 대련에서 사업하는 북한동포	조국해방전쟁 승리60돏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개최	
11	2013.7.29.	평양	중국국제문제연구소대표단			
12	2013.7.28.~7.30.	평양 동평양 대극장	중국인민해방군 문예대표단, 주북중국 대사 및 직원들	김격식, 강석주, 문경덕, 홍선옥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조선인민군장병들, 무력기관, 사회예술부문관계자	중국인민해방군 문예대표단 공연 진행	
13	2013.7.27.	중국 북경	중국문화부문화관리협회 상무부주석, 베이징길성창문화유한공사 총경리, 중국미술전문가와 애호가 등	중국주재 북한 대사관 성원들, 중국류방문하고 있는 만수대창작사대표단	북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돏경축 미술전시회	
14	2013.7.27.	중국 북경	중국문화부문화관리협회 상무부주석, 베이징길성창문화유한공사 총경리, 중국베이징고루우표수집연구회 부회장, 우표 애호가 등	주중북한대사관 관계자	북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년 기념 북한우표전시회	
15	2013.8.16.~8.24.	중국 남경		북한선수단	제2차 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 참석	북한 여자유술, 물에뛰여들기, 남자력기경기 3개의 금메달 획득
16	2013.9.2.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	개발과 인도주의활동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토론회 참석	
17	2013.9.25.~9.29.	중국 무한		북한선수단	2014년 아시아16살 미만 남자 축구선수권대회 출전	
18	2013.9.2.	중국 대련	중국 대련영화목유한공사, 대련시화초협회, 대련시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5돏경축 김정일화전시회 중국에서 진행	
19	2013.9.11.	평양	중국선수단		중국, 2013년 청년, 성인급 아시아컵 및 구락부력기선수권대회에 참가	
20	2013.9.16.	평양	조백가 집행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홍십자회대표단		만경대, 주체사상탑, 우의탑 참관	
21	2013.9.22.	중국		길상봉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대표단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22	2013.9.23. ~9.17.	평양	중국선수단		제27차 평양국제탁구 초청경기대회 개막	
23	2013.9.3. ~9.8.	중국	중국정부, 당, 군부, 단체, 기관인사	주중북한대사관 관 계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창건 65년 기념 연회, 좌담회, 도서, 사진전 시회, 영화감상회 개최	
24	2013.9.27.	평양	중조우호협회대표 단, 류홍차이 주북 중국대사 등	조중친선협회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연 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근로자	조중 친선협회결성 55 돛기념 중국미술작품 전시회 개막	
25	2013.9.28.	중국 청도		김책공업종합대학 대표단	세계대학 총장 및 학장연 단 참가	
26	2013.10.8.	평양 만수대	류홍차이 주북중국 대사	황호남 대외문화연 락위원회부위원장	새로운 문화교류실행계 획 서명	
27	2013.9.28.	중국의 강소성 상주시	중국화초박람회 직위위원회	조 선 김일성화 김정일 화위원회 대표단 단장	김일성화, 김정일화에 제 8차 중국화초박람회 최 고상 수여	
28	2013.10.11.	중국	한계덕 중국인민정 치협상회의 전국위 원회 부주석, 리화규 중국인민대외우호협 회 비서장	조중친선협회대표 단	친선관계 강화	
29	2013.10.11. ~10.20	중국 남경		북한선수단	2013년 아시아청소년 여자축구선수권대회 참석	
30	2013.10.11.	중국 천진		북한선수단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 회에서 참석	북한여자축구팀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에서 제1위
31	2013.10.13.	중국 단둥	병지강 료녕성 부성 장 등 료녕성 및 단 동시의 각계층 인사 들, 류홍차이 주북 중국대사관 관계자	제2차 조중경제무 역문화관광박람회 에 참가한 북한 대 표단, 김광훈 심양 주재 북한 총령사, 최은복 재중조선인 총련협회 의장	북한 국립민족예술단 공연진행	
32	2013.10.21.	평양	중화전국기자협회 대표단		만경대, 금수산태양궁 전, 주체사상탑과국제 친선전람관, 서해감문 등참관, 만경대학생소 년궁전 예술소 조원들 의 종합공연 관람	
33	2013.10.26.	중국		리철 제1부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최고 검찰소대표단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34	2013.10.	중국		조선중앙방송위원 회대표단		
35	2013.11.1.	중국	중국공산당 서기 선 전부장 류기보, 『인 민일보』사 일군들	『로동신문』 대표단		류기보, 전통계승, 미래 지향, 선린우호, 협조강 화의 정신에 따라 중조 친선을 계속 강화 강조
36	2013.10.31.	북한	류홍차이 주북중국 대사, 관계자		택업협동농장에서 친선 모동 -중국대사관 농장에 영 농물자기증서와 지원 물자 전달	
37	2013.11.19.	중국		북한김일성화김정 일화위원회 대표단	북한, 제9차 중국(베이 징)국제정원박람회 참 석, 특별전시상 수여	
38	2013.11.	중국		신오순 총장을 단장 으로 하는 인민대학 습당대표단	제1차 아시아도서관 관장연단에 참가	
39	2013.11.	중국		전정호 부주필을 단 장으로 하는 민주조 선사대표단		
40	2013.11.30.	중국	중국문화부 문화관 리협회 상무부주석, 경필서예협회 부주 석, 중국의 미술전 문가 등	중국주재 북한 대사 관성원들, 중국 방 문 중 만수대창작사 대표단	조중공동 미술전시회 중국에서 개막	
41	2013.12.12.	주중 북한 대사관	진병상 중국공산당 중 앙위원회 대외전략부 부부장, 류진민 외교 부 부부장, 섭송래 중국인민해방군 군사 과학원 세계군사연구 부 부부장, 종조우호 협회 회장 등	지재룡 중국주재 북 한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	김정일 서거 2주년 기 념 중국주재 북한대사 관에서 영화감상회가 진행	
42	2013.12.13.	중국	중국 항일혁명렬사, 항일혁명투쟁연구 자, 재중항일혁명투 사가족들	지재룡 주중북한 대 사 및 직원들	중국의 항일혁명렬사, 항일혁명투쟁연구자, 재중항일혁명투사가족 들의 회고모임	
43	2013.12.	중국		북한선수단	제14차 아시아청년유 술선수권대회와 제7차 아시아청소년유술선수 권대회에 참가	
44	2013.12.31.	평양	중국 연변대학의 교 원 김은송, 조홍희, 황금해	국가학위학직수여 위원회 위원장인 김 용진 내각부총리, 강춘금 국가학위학 직수여위원회 서기 장 등	북한, 중국 연변대학 교원들에게 철학, 경제 학박사학위 수여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45	2014.1.21.	평양 음악 대학	류홍차이 주북중국 대사 및 대사관 직 원 등	김정숙 대외문화전략 위원회 위원장, 조중 친선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강하국 보 건상, 성, 중앙기관 일군들, 예술인, 체 육인들을 비롯한 평 양시내 근로자들	2014년 조중친선 명절합동공연 진행	평양음악대학교원, 중 국김림성가무단성원들 합동공연
46	2014.1.20. ~1.21.	중국	김효비 베이징국제 우호연락회 리사, 류부림 산동성 위해 시 금후그룹유한공 사 이사장	지재룡 주중북한대 사	김정은에게 선물과 편 지 전달	
47	2014.2.12.	평양	양홍준 중국 훈춘 김 일성화 김정일화은 실 총경리, 심양조선 경제무역투자자문우 한공사 리사장, 최몽 호 중국 연변과학기술 대학 부총장 등		제18차 김정일화축전 에 참가	만경대,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은하과학 자거리 등을 참관
48	2014.2.12.	중국 김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인 민정부 외사판공실 부주임, 연길시인민 정부 부시장, 연길 시인민정부 외사판 공실 주임을 비롯한 중국의 인사들		광명성절 계기 재중조 선인총연합회 주관 경 축행사	
49	2014.2.13.	주중 북한 대사관	중국인민정치협상회 의 전국위원회 부주석 인 왕가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전략 부장, 류진민 외교부 부부장, 무등화 중조 우호협회 회장 등	지재룡 주중북한대 사	광명성절경축 사진전시 회와 영화감상회 중국주 재 북한대사관에서 진행	
50	2014.2.20.	평양 옥류관	류홍차이 주북중국 대사, 대사관 관계 자 등	김정숙 대외문화전략 위원회 위원장, 리순 철 문화성 부상, 리영 선 민용항공총국 부 총국장	조중문화협조에 관한 협 정과 항공운수에 관한 협 정체결 55주년 기념 연회	
51	2014.2.20.	중국 북경	중국문화부, 외교부, 중국공산당 중앙위 원회 대외전략부	지재룡 주중북한대 사, 대사관관계자 등	조중문화협조에 관한 협 정과 항공운수에 관한 협 정체결 55주년 기념 연회 미련(중국 문화부 주최)	
52	2014.2.21.	중국 주중 북한 대사관	정위 문화부 부부 장, 하흥화 민용항 공국 부국장	지재룡 주중북한대 사, 대사관관계자 등	조중문화협조에 관한 협 정과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체결 55주년 기념 (주중북한대사관 연회)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53	2014.2.27.	평양 고려호텔	주북중국대사관 직원들, 북한체류 국손님	김정숙 대외문화전략위원회 위원장, 리영선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	조중문화협조에 관한 협정과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체결 55주년 기념 연회(주북중국대사 주최)	
54	2014.3.10.	중국		조성걸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관광중국친선참관단		
55	2014.3.6.~3.9.	중국 북경		대외전람중국대표단, 주북중국대사관 성원	북한의 사진, 도서, 미술작품전람회 중국에서 개최	
56	2014.4.10.	평양	중국예술단(동방가무단, 산동성교예단)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	
57	2014.4.3.~4.6.	중국 북경	중국세계평화기금회 주석,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이전 부주석, 베이징시인민대외우호협회	지재룡대사 및 주중 북한대사관 성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전람회 중국에서 진행	
58	2014.4.12.	평양	중국 심양조선경제무역투자지문유한공사 리사장, 단둥 김일성화강정일화온실 총경리, 중국화초협회 두건화분회 부회장, 훈춘 김일성화강정일화온실 총경리,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부총장		제16차 김일성화축전에 참석	
59	2014.4.11.	중국 강소성 무석시	무석시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등		북한문화예술전람회 개막	
60	2014.4.13.	중국 북경	베이징오유지향문화전파유한공사, 영화예술부문의 인사들과 성원		《태양절경축 조선문화예술의 밤》행사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	북한영화 《강성대국의 불보라》 상영
61	2014.4.29.	중국 상해		북한선수단	북세계컴활쏘기경기대회 참석	
62	2014.4.	북한	중국 국가관광국친선참관단			
63	2014.5.5.	북한	현대국제관계연구원대표단		만경대, 주체사상탑, 인민대학습당, 문수물놀이장 등 참관	
64	2014.5.6.	중국		조선평화옹호전국 민족위원회대표단		
65	2014.5.12.~5.16.	평양	중국 장애인연합회 대표단		만경대, 주체사상탑, 개선문, 우의탑, 문수기능회복원 등 참관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66	2014.5.19. ~5.29.	중국		조선기자동맹대표단		
67	2014.5.30.	중국 허북성			북한, 2014년 아시아축 구련맹 14살 미만 소녀 지역별선수권대회 참석	북한팀 1위
68	2014.6.1. ~6.5.	중국 대련	대련시인민정부, 대 련시인민대표대회, 대련시해양어업국, 대련시화초협회, 대 련영기화목유한공 사 직원	조선김일성화김정 일화위원회대표단, 심양주재 북한 총영 사관 관계자	김정일화전시회 개최	
69	2014.6.1. ~6.5.	중국 심양	중국 심양시인민정 부, 심양마린꽃배육 중심, 금양개료병실 양화공유한공사, 심 양암웨이유한공사, 료녕조선문보사의 인사들과 군중	조선김일성화김정 일화위원회대표단, 심양주재 북한 총영 사관 관계자	김정일화전시회 개최	
70	2014.6.29.	북한	중국 연길천우국제려 행사유한공사 부총경 리 등 제1차 연길 -금강산 국제관광단		조선동해의 아름다운 경치, 세계적인 명승지, 천하절승 금강산 유람, 평양시와 개성시 참관	
71	2014.7.	중국 귀주성		북한선수단	제4차 중국공개권투경 기대회에 참가	
72	2014.8.16. ~8.29.	중국 남경		북한선수단	제2차 청소년올림픽경 기대회 참석, 금메달 쟁취	
73	2014.9.16.	평양	중국해화그룹대표 단 등 중국 대표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 비서 최태복, 진탐 회 조직위원회 위원 장인 김정숙 대외문 화협력위원회 위원 장 리아구 국가과학 원 부원장, 남순녀 인 민대학습당 부총장	중국, 제9차 평양국제 과학기술도서전람회 참석	
74	2014.9.23.	평양	중국 인민대학대표 단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대학 대표단		중국대학들, 김일성총 합대학 국제학술포럼 회에 참석	
75	2014.11.1. ~11.6.	중국 무한		북한교예대표단	북한, 제11차무한국제 교예축전	
76	2015.4.	북한 평양	단동성민무역유한공 사리사장일행, 단동 건원무역유한공사총 경리일행, 단동김일 성화김정일화온실대 표단, 대련시화초협 회대표단, 심양금양		제17차 김일성화축전 에 참가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개화공원료유한공사 충경리일행 등			
77	2015.5.19.	중국		북한선수단	2015년 아시아축구권 맹소녀지역별선수권대 회참석 -북한팀 우승	
78	2015.7.28.	북한	중국 소년야영단		제 30차 송도원국제소 년단야영	
79	2015.8.1.	중국 무한			2015 동아시아축구권 맹 여자동아시아컵경 기대회 참가	
80	2015.8.12.	북한 남포항	중국 국적 선박 《진 푸쌍66》호의 선장, 선원들		외국 선박 선원들의 경 축집회	
81	2015.8.21. ~8.24.	북한 평양	중국 선수단		15살 미만 국제축구경 기대회 참가	
82	2015.8.25.	평양 김일성 종합 대학	중국의 인민대학 대 표단, 연변대학 대 표단, 남경대학, 베 이징 대학 대표단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태형 철, 대학의 교원, 연 구사	《과학발전과문명국건 설》 주제로 개최되는 김일성 종합대학 국제 학술토론회 참가	
83	2015.8.29.	평양 인민 문화 공전	중국 대표단	사회과학원,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교육부문 의 교원, 연구사들, 관계부문 일군	제 1차 일본의 침략력 사 외교과 관련한 국제 학술토론회 참가	
84	2015.9.2. ~9.3.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문화 전람회 개최	
85	2015.9.17. ~9.19.	중국		북한선수단	제9차 아시아교예체조 선수권대회 참가 -정금화, 변윤애 선수 금메달 획득	
86	2015.10.1. ~10.7.	중국 북경			북한사진, 도서, 우표 및 미술 전시회	
87	2015.10.		최룡호 중국 전 연 변과학기술대학 부 총장과 일행, 리영 호 중국 단동성민무 역 유한공사 리사장 과 일행, 최영준 부 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절강성 승주중교광업 유한 공사 대표단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김일성화 김정일 화 전시회에 참가	
88	2015.10.8.		중국 강소성 무석화 미달광장 호텔 리사 장 심심룡, 중국 단	주중북한대사관 관 계자	김정은에게 선물 전달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동 HPR전자 유한 공사 리사장 정후가			
89	2015.10.	중국 길림, 대련, 심양, 훈춘, 단동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기념 김정일화 전시회, 김일성화 김정일화 온 실참관 및 개관식 중국 각 지역에서 개최	
90	2015.11.	중국 무한		북한여자축구팀	2015년 아시아축구련 맹 16살 미만 여자선 수권대회 결승경기	
91	2016.2.14.	평양	연변만행상무유한 공사대표단, 불멸의 꽃 보급후원회 중국 지역대표단, 상해성 조문화전파유한공 사대표단, 베이징송 장환구공예품유한 공사대표단		제20차 김정일화축전 에 참가	
92	2016.2.23.	평양	중국 길림성문화청 부청장, 길림성교향 악단	조중친선협회 중앙 위원회 위원장인 강 하국보건설, 관계부 문 일군들, 평양시 내 근로자	2016년 조중친선봄맞 이음악회	
93	2016.4.8.	평양	중국선수단		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 기대회	
94	2016.4.11.	평양	단동김일성화김정 일화온실 총경리일 행, 단동가화상무유 한공사 총경리일행, 단동건설원무역유한 공사 총경리일행 등		제18차 김일성화축전	
95	2016.4.13.	평양	재중국 단동시조선 축경제문화교류협회 대표단, 단동시조선 족로인협회대표단			
96	2016.4.22. ~4.24.	북경		북한선수단	제4차 중국공개육상 선수권대회 참가	
97	2016.4.	중국 상해, 강소성 무석시 산둥성 제녕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경축행사	
98	2016.4.	대련, 단동			태양의 꽃 김일성화김 정일화전시회 개최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99	2016.5.12.	주중 북한 대사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경축연화와 영화감상 회 개최	
100	2016.5.17.	북경		북한선수단	2016년 아시아축구련 맹 14살 미만 소녀 지 역별선수권대회	
101	2016.5.29.	평양	중국올림픽남자농 구팀	김정은 관람	소백수남자농구팀과 중국올림픽남자농구팀 간의 친선경기	
102	2016.6.8.		북한 조종 친선 택압 협동 농장		택압협동농장에서 친선 로동	
103	2016.6.29.	평양	중국선수단		2016년 국제탁구련맹 세계순회경기대회 평 양공개탁구경기대회	
104	2016.7.7.	주중 북한 대사관	재중항일혁명투사 와 중국항일혁명투 쟁연고자 가족들	주중북한대사와대 사관직원들	김일성 서거 22주년 기념 항일혁명투쟁연 고자가족들의 회고모 임 개최	
105	2016.7.	중국		북한적십자회대표단		
106	2016.7.14.	중국		서광웅 부원장을 단 장으로 하는 사회과 학원대표단		
107	2016.9.8.	중국 심양	재중조선인총련합 회, 재중동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창건 68돐 기념 재 중조선인총련합회 경 축모임	
108	2016.9.15.	평양	중국 대표단		제15차 평양국제영화 축전에 참가	
109	2016.9.27.	평양	중국 전문가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 국제학술토론회 에 참가	
110	2016.10.27. ~10.30.	중국		북한선수단	2016년 상려컵항구국 제도시바독경기대회 참가	
111	2016.11.6. ~11.12.	홍콩			2017년 동아시아축구 련맹 E-1 축구선수권 대회 본선경기 참가를 위한 예선경기 진행	
112	2016.11.29.	평양 민수대 의사당	중국 연변대학 교원 들	김덕훈 내각부총리, 강춘금 국가학위학 적수여위원회 서기 장	연변대 교원들에게 력 사학박사학위 수여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113	2016.12.7.	평양 민수대 의사당	중국 연변대학 교원 장성일, 김일성종합 대학 박사원생 우소		재중동포와 중국박사 원생에게 언어학박사 학위를 수여	
114	2016.12.9.	평양	중국항일혁명투쟁연 고자 주보종의 딸 주위가족일행, 중국 항일혁명렬사 장울 화동지의 가족일행, 중국항일혁명투쟁연 고자 채세영가족 등		김정일 서거 5돐 기념 방문	
115	2016.12.20. ~12.28.	중국 길림, 대련, 심양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 회	
116	2017.2.9.	주북 중국 대사관	리진군 주북중국대 사, 대사관 직원들	조중친선협회중앙 위원회위원장인 강 하국보건설, 리창근 조선로동당중앙위 원회부부장, 리길성 외무성부상, 박경일 대외문화협력위원 회부위원장	광명절 경축 기념 조중 친선봄맞이음악회	
117	2017.12.11.	평양	당명서 중국당산박 뢰무역유한공사총 경리일행과 리상국 중국연변천성상무 유한공사총경리일 행, 중국 단둥선영 무역유한공사 총경 리일행과 최룡호 중 국 전 연변과학기술 대학 부총장일행 등		제21차 김정일화축전 에 참가	
118	2017.2.18.	중국 심양	재중조선인총련합 회, 재중조선경제인 련합회, 재중조선인 청년련합회, 중국인 민지원군 로전사강 연단 등		김정일탄생 75돐 기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주 관 경축행사개최	
119	2017.2.24.	평양	중국선수단, 주북중 국대사, 대사관 관 계사	김일국 체육상, 농구 협회 부위원장인 리 길성 외무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	북한 보통강여자용구팀 과 중국 강소성여자용 구팀 친선경기 진행	
120	2017.4.3.	평양	중국선수단		2018년 아시아축구련 맹 녀자아시아컵경기 대회 예선 2조경기	
121	2017.4.9.	평양	중국 마리손 애호가들		제28차 만경대상국제 마리손경기대회 진행	

연번	일시	장소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및 논의사항(목적)	주요 의미·특징
			중국 측	북한 측		
122	2017.4.9.	북경	중국문화계 인사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서, 사진 및 미술전람회	
123	2017.4.11.	평양	왕무제 중국 미술가 화보사 사장일행과 리천추 중국 단동건원무역유한공사 총경리일행, 최룡호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전 부총장일행		제119차 김일성화축전 참가	
124	2017.4.12.	평양 만수대 의사당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전 부총장	홍선옥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서기장, 김기범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재중동포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 수여	
125	2017.4.15.	중국 길림 육문 중학교			김일성탄생105돐경축행사 재중조선인총연합회에서 진행	
126	2017.4.16.	평양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가족들,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가족들		김일성 탄생 105돐 경축 해외연고자 가족들, 해외동포들을 위한 연회 진행	
127	2017.4.7. ~4.17.	중국 기네	단동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금강개료녕심양화공유한공사, 길림시두삼경제무역유한공사, 기네 김일성화김정일화협회		불멸의 꽃전시회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마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욱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2015-05	The Reality an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 Maritime Province of Russia	Lee Aeliah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2017-01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	통일연구원
2017-02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홍 민 외

통일플러스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2016-01	KINU 통일 + Vol.2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6-02	KINU 통일 + Vol.2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6-03	KINU 통일 + Vol.2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6-04	KINU 통일 + Vol.2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민
20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곤
2017-0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박영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옥 외 19,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도경옥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i>	도경옥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옥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i>	도경옥 외 24,500원

연구보고서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예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2015 Inter Korean Relations and the Unification Process in Regional and Global Contexts	박종철 외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2016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윤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대당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욱 외	14,000원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예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2,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3,000원
2016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7,500원
2016 북한의 제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홍석훈 외	9,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2016-02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2016-03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임강택, 이강우
2016-04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이상신, 오경섭, 임예준

■ Study Series ■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2017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7-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7-03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7-04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서는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외	8,500원
2017-05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민태은 외	9,500원
2017-06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태은 외	13,000원
2017-07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조한범 외	7,500원
2017-08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	홍민 외	7,000원
2017-09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임강택	8,000원
201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정성윤 외	8,000원
2017-11 평양과 해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조정아, 최은영	9,500원

2017-12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임강택 외	12,000원
2017-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상기 외	11,000원
2017-14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구연 외	7,000원
2017-15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동호 외	7,500원
2017-1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20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자	13,000원
2017-18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홍제환	7,500원
2017-19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홍민	6,000원
2017-2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정성윤	6,500원
2017-21-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1부)	전병곤 외	9,500원
2017-21-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2부)	전병곤 외	9,500원
2017-22-01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현승수 외	10,000원
2017-22-02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현승수 외	9,500원
2017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3,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2017-02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20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외
2017-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홍제환
2017-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외

■ Study Series ■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연례정보보고서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통일연구원
201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7~2018	통일연구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2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1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2 (2017)	10,000원

기 타

2015 북한교회사	한동호 외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7 북한 내 이동의 자유	한동호 외
2017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속*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락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원구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시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북중관계 종합백서 및 남북중 협력방안(2/3년차)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